

제13회
문예창작공모전집

〈시작하며〉

여는 글	1
------------	---

〈시 부문〉

[최우수상-데이터테크전공 20203256 최지우] 파도	3
[우수상-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수국	4
[장려상-국어국문학전공 20197001 반성연] 어떤 전투	5
[장려상-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당신에게	6
[장려상-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진달래 씨앗	7
[신입생특별상-인문학부 20201085 임수민] 할머니	8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가로등	9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거울	10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내 마음	11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소나기	12
[인문학부 20201085 임수민] 감정	13
[인문학부 20201085 임수민] 기도	14
[인문학부 20201085 임수민] 꿈이길 바라며	15
[인문학부 20201085 임수민] 손수건	16
[인문학부 20221102 진예은] 오월의 눈	17
[인문학부 20221102 진예은] 달이 될게	18
[인문학부 20221102 진예은] 삶	19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체기	20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질량차이	21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열시 이십구분이 되면 울리던 전화벨	22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고요함이 소리가 있다면	23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어른이 된다는 것	24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나의 고양이에게, 너의 고양이가	25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황혼	26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겨울의 아이	27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저 버린 꽃	28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개화	29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하늘의 색	30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시간의 역할	31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무화과나무	32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별의 길	33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기다리지 않는 시간	34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봄과 겨울 속에서	35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주인공	36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바람	37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사각형	38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일몽	39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긴 밤	40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설렘	41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의사(義士)	42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하와이 무궁화	43
[국어국문학전공 20197001 반성연] 번몽繡夢	44
[국어국문학전공 20197001 반성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45
[국어국문학전공 20201018 김성윤] 시를 좋아하지 않는 너에게	47
[국어국문학전공 20201018 김성윤] 못	48
[국어국문학전공 20201018 김성윤] 언니의 밥풀	49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청춘	50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겨울	51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백생	52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012486	53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향기는 기억된다	54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달라는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에	55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이제야 봐주십니다	56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도로	57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하늘	58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조각	59
[국어국문학전공 20211013 김나영] 어린이	60
[국어국문학전공 20211013 김나영] 달	61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목소리	62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악몽 건디기	63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언어가 사라지는 시대	64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반복, 그 끝은	65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슬픔에는 자국이	66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전쟁 속에 핀 기적	67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여유	68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감정의 소리	69
[사학전공 20211061 이무원] 적당한 순간	70
[사학전공 20211061 이무원] 하얀 꽃	71
[사학전공 20211061 이무원] 작별인사	72
[철학전공 20171017 김지균] 벽돌	73
[철학전공 20171017 김지균] 앞	74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태양	75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고백	76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화	77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너는	78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슬픈 영화	79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하나	80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유지(流摯)	81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마스크	82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환상	83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나침반	84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동심과 순수	85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회전목마	86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길	87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오므라이스	88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집밥	89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흔적	90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월식	91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행복과 슬픔도 나의 길	92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마지막 편지	93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자장가	94
[경영대학 20223022 이채은] 술	95
[경영대학 20223022 이채은] 바보	96
[소프트웨어학과 20183211 김영찬] 꽃 지는 계절	97
[소프트웨어학과 20183211 김영찬] 꽃 피는 계절	98

[소프트웨어학과 20183211 김영찬] 나무와 새싹	99
[데이터테크전공 20203256 최지우] 연어	100
[데이터테크전공 20203256 최지우] 해구	101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별로 그린 악보	102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해는	103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작별	104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회색의 계절	105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별도 우는데	106
[식품영양학과 20223832 원지은] 네 계절	107
[빅데이터전공 20165133 방승원]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108
[빅데이터전공 20165133 방승원] 서울이 싫다	109
[빅데이터전공 20165133 방승원] 아니길 바라는 마음	110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괜찮아	111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죽음	112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과제	113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겨울	114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어른	115

〈소설 부문〉

[최우수상-일본학과 20191605 김세은] 벽	117
[우수상-인문학부 20221080 이혜은] 입동	124
[장려상-사학전공 20163539 임찬휘] 개그맨	129
[장려상-국어국문학전공 20201026 김주희] 남은 사람들	140
[장려상-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수면 너머에는 인어가	147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그 남자	159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끝에서 시작으로	169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해피엔딩	178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184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꿈의 온도	193
[철학전공 20171096 조성현] 파편들	199
[법학과 20181624 엄윤진] 반사광속 세상	207
[사회학과 20212221 안선우] 연결의 주파수	208
[경영대학 20222905 강하늘] A,M,2:00	215

〈비평 부문〉

[장려상-국어국문학전공 20211072 이인준] 조커, 어쩌서 그럴까	223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2 강재혁] 고전소설 「박씨전」으로 본 여성영웅 소설의 대두와 여권 신장 연구	231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선을 넘지 마, 넘을 수 없어.	236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화려한 미장센으로 표현한 사랑할 결심	244
[사회학과 20192235 최윤지] 독립 속에서 도덕적 옳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252
[사회학과 20192235 최윤지] 색,계 속 도구로 사용되는 여성들: 남성의 삶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여성	254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72517 김용진] 결국 살아가야 한다	257

〈시나리오 부문〉

[장려상-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72517 김용진] 낙엽청소	260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212505 권영하] 라스트로(Rastro)	268

〈마치며〉

심사평	280
-----------	-----

여는 글

시 부문

[시-최우수상]

파도

데이터테크전공
20203256 최지우

회색빛하늘아래미약하고얇은흰선저멀리서몸을웅송그리다가다가온다다가와아가리를벌린다
저것이날집어삼킬것ियो공포의숨한번고운황색지반을파헤친다조개를
해조류찌꺼기를젖은모래를마른모래를어쩌면
내인생을통째로저것이흰포말이
알알이사그라든다
삼킬것ियो
눈앞에서
정지
.

[시-우수상]

수국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파아란 물결이 나를 덮을 때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한 빛의 붉은 줄 알았던 물결이
나를 물들였습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던 찰랑이는 파동이
나를 적셨습니다

한 방울이 한 잎이 되어가며
꽃잎이 바다를 삼키며
일렁임 없는 파이란 바람만이 남아

파아란 꽃이 나를 덮을 때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장려상]

어떤 전투

국어국문학전공
20197001 반성연

잠든 사내가 꿈틀거린다
하루 종일 풀을 벤
사내의 손은 낫자루를 거머쥐듯 주먹을 다져 쥐고 있다
그래도 이긴 아니지, 사내는 잠꼬대를 한다
조금이라도 챙겨줄 때가 그나마 낫지
명되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곧 권고로 변경될 걸세
그래도 이긴 아니지, 사내가 중얼거린다
그때는 땡전 한 닢 없어 개털 되는 거지
지금이야 가장 좋은 기회야 잘 생각해봐
미끄덩한 목소리에 밀려 사내가 잠에서 빠져나온다
번쩍 눈이 열린
땀내와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사내의 몸이
기억 자 경첩처럼 발딱 일어나 접힌다
사내는 빠르게 움직인다
사내는 낫을 거머쥐고
여름의 새벽을 향해 걸어나간다
사내를 마주한 풀들이 우우우 일어선다
논둑 밭둑 누군가의 무덤들
시골의 어디든 사내는 불려간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풀은 자라
한 움큼의 허공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사내는 거칠게 낫을 휘두른다
씩씩 잘려 나가는 풀들 뒤에서
새로운 풀들이 일어선다, 달려든다
사람과 싸우던 세상을 떠난 사내가
세계를 뒤덮은 풀과 싸운다

[시-장려상]

당신에게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꿈을 꾸며 춤을 추며
버섯 신을 양쪽으로 부딪치며
행복한 공상을 했을 기와 밑의 소녀야

연필을 잡고 밥을 짓고
공장의 기구를 양쪽으로 부딪치며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던 소녀야

별시를 꿀떡 무시에 울컥
헛 옷을 꿰려 옷자락을 손마디에 부딪치며
동생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나의 당신에게
어느 시대에 있어도 불행을 품고 태어났던 나의 소녀에게

한번은 부모의 마음과
한번은 형제의 마음과
한번은 이웃의 마음과

셀 수 없는 마음을 줄 테니

[시-장려상]

진달래 씨앗

(김소월-진달래 꽃에 대한 답시)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보고픈 내임을 두고
떠날 때에는
나의 꽃은 향기를 잃었으리라

떠나는 걸음걸음
놓아준 이 꽃을
조심스레 손에 쥐어 간직하리니

영변에 약산, 뿌려진 씨
핀 꽃을 따지 않으면
꽃길 따라 돌아오리라

보고픈 내 임을
다시 만날 때
어느 나비가 나의 품을 지나칠 수 있으리

[시-신입생특별상]

할머니

인문학부
20221085 임수민

얼굴 가득 세월이란
굴착기가 헤집고 갔는지
빛을 잃은 흙빛 같은 낮빛에
서러워 서러워 우는 할머니

허리 곡괭이 날은 아프다며 밤새 뒤척이고
아침이 되면 한 줌의 약을 입에 털어 넣는다

광음 같은 세월이 그냥 지나가지
병명만을 이름표처럼 붙여 놓고 지나가버렸나 보다

거실 한편 놓인 침대에서
요람에 안긴 아이처럼
종일 누워있다 앉았다 하는 하루를 더해가며
인생의 마지막 역 머무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마저
힘이 든다 하신다

아침이 되면 빨갛게 충혈된 두 눈을 보니 또
뜬눈으로 밤을 새우셨나 보다

오늘 밤엔 냄새 좋은 효라는 향초 하나를 피워야겠다

가로등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깜박깜박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채 서 있다
그 아래 뛰어가는 아이
다칠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
결국 엄마 손 꼭 잡고 가는 딸

깜박깜박
다음 날도 나는 버티고 서 있다
쌀쌀해진 날씨에 손이 언 소녀
빨개진 손을 보고 걱정하는 소년
슬며시 자신의 주머니로 가져간다

오늘은 그들을 보지 못한 채 서 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춰줄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그들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빛난다
내가 눈 감아도 그대들은 영원히 반짝이길

거울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깜깜한 밤
온통 미움투성이
가난한 마음인 채로 잠이 드네

연보랏빛 사이
빛나는 유리 조각
이리 아름다웠던가
슬쩍 다가가니 멀어지네

따뜻한 햇살
조각이 모인 그곳에
가까이 들여다보니
익숙한 피사체

아아
빛나는 건 나였구나

온기가 가득한 밤
온통 애뜻함뿐
깊은 잠에 든다

내 마음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일제의 잔혹한 간섭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네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있네
이토가 지나가니
탕 탕 탕

이것만큼 당당한 게 없더라
어찌 본받지 아니할까
내 마음에 애국심이 흐르네
만세 만세 만세

소나기

인문학부
20221010 김민주

너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찾아와서 금세 사라진다

네가 오면 가릴 수 있어 좋았다
네가 오면 비울 수 있어 좋았다
너를 보려면 흐려야 하지만
너라서 좋다

너는 나의 감정을 모은다
잠시 여행을 보내준다

네가 오면 울 수 있어 좋았다
네가 오면 잠길 수 있어 좋았다
너는 찰나의 순간이라서 아쉽지만
너라서 반갑다

감정

인문학부
20221085 임수민

내 감정
내 생각
한 몸으로 여러 명을 통치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빠들고 못생겨서 상처받아 태어난 아이가 불쑥
하늘 한번 쳐다볼 겨를이 없어 종종대는 아이
하나가 또 불쑥

건강치 못한 몸으로 통솔하여 그 길 ..
꿈길을 가려 하니 지치고 피곤하다

첫째 아이로 태어나던 날 그날은 참 행복했었다
부모님의 사랑이 주식이 되어 배고플 걱정
추울 염려가 없었다

입맛이 변심하기 전까지 그랬었다 행복
맞아 그랬다

내 생각
내 감정
분노로 출산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
이곳저곳
외진 고아원 여럿을 기웃댄다

첫째 아이로 행복했었던 그 시절
엄마가 입에 넣어주시던 밥 한 수저가 그림다

기도

인문학부
20221085 임수민

가녀린 손가락 하나로 자꾸만 힘을 실어 불어오는
바람과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미련 때문인가 봅니다
화려했던 가을 한복판 춤사위
그 흥이 아직 가슴 언저리에 앉아 아직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하는데
미련을 버리게 하소서

자꾸만 뒤돌아 보고 있습니다
자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딤니다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조급함도 있는데
뒤돌아 다시 살피는 그곳에는 후회가 가득입니다
후회를 버리게 하소서
더 많이 나눠주지 못하고
챙긴 것만 많은 이기적인 하루
가고 싶었던 길에서 머뭇거리다 샛길로 빠져
흑독한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일들

사랑하며 살자 했는데
수만 가지 이유로 정당화하며 정죄하였던
수다들
모두가 이렇게 후회가 되어 갈 길도 가지 못하고
머뭇대는 바보가 있습니다
후회를 하다 더 큰 후회를 쌓지 않도록
후회를 버리게 하소서

꿈이길 바라며

인문학부
20221085 임수민

악몽에 시달린 듯 식은땀 범벅인 채
눈을 떠 보니 언제 왔는지 모를 아침이 서 있었다.
안도감에 온 정신을 휘감았던 공포가 풀린 듯
휴,
하고 숨이 쉬어진다.

난파된 하루를 만나 사납게 덩치 큰 욕심에게
아까운 생명을 내어 주어야 했던 아픈 소문들
악몽,
사라질 수 있을까

하루의 하루를 더한
현재도
또 하루를 더한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시간을 박탈 당하며
욕심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진다

악몽을 꾸었다
깨어 보니 아침이다
깨어 보니 고맙게
고맙게
오늘도 아침이 와 주었다

희망은 미련하게 어제를 망각하고
오늘 밤도 잠이 든다

악몽 같은 현실이 꿈이길 바라며
새로운 아침을 맞으려....

손수건

인문학부
20221085 임수민

소리가 없는 시간이 없지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보아도 아스팔트 위 자란 잡초처럼
소리가 들어온다
귀를 닫고 눈마저 감아 보아도
들리고 만져진다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작아 귀도 키를 낮추고 들어야 했다
이제는 성난 파도 마냥 굉음으로 하루 종일 아우성이다

소리에 색을 입혔다
빨간색,
검은색
양념처럼 첨가된 시큼하고 비린 역겨운 냄새

사철이 푸르른 소나무 숲마저
빨간색을 입고 타닥타닥 소리를 낸다

세상이 울며 달리다 넘어졌나 보다

그러나 손수건 한 장이 없는 빈손일 뿐

“네가 아니어도 혼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무정함은 우리의 등을 돌려놓는다.

오월의 눈

인문학부
20221102 진예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맑은 날의 오월
봄에 왔던 벚꽃은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고
땅으로 바다로 하늘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레 겁내지 않는다

얼마 지나고 나면 잎이 푸르를 것이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또다시 벚꽃이 피며 언젠가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가장 아름다웠을 1980년 5월의 푸르른 잎들의
용기와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맑은 날의 오늘
포근한 눈이 그들의 오월을 위로하듯 안아준다

달이 될게

인문학부
20221102 진예은

네 눈은 밤하늘과 같아
까만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네 까만 눈에 밝게 빛나고 있는 눈동자

나는 너의 반짝이는 별이 좋았는데
별을 잃은 너의 밤하늘은
너무나도 어둡고 고요해

반짝이는 네 별을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괜찮아

내가 달이 될게
네가 밝혀준 것처럼
네 어두운 밤도 달빛으로 비춰줄게

삶

인문학부
20221102 진예은

한창 피고 있는 꽃들이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고
순식간에 졌다

햇빛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었다면
빗물로 단비가 되어주었다면

그 꽃들은 달라졌을까

체기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요 근래 계속되는 체기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샌드위치의 내용물들이 제 각 각으로 흩어진다.
흩어진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만치 들리는 전철의 경적소리에 시선을 분산시킨다.
덕소역부터 홍대입구역까지, 끝과 끝을 드나드는 전철을 무심코 지켜보았다.
어둠 속을 헤맬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두 갈래로 나뉘어진 철로를 보며 흔들리지는 않냐고.
철로에 힘없이 쌓이는 눈들을 짓이길 때마다 아프지는 않냐고.
긴 통로를 하염없이 달리다보면 무엇이 나오냐고.
전철이 새까만 통로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출 때 즈음,
나는 하염없이 게워내기 시작한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듯 하악 질 만을 반복하며.

질량차이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투명한 봉투에 손을 넣었습니다.
넣자마자 팡- 소리를 내며 터지던 봉투.
뒤이어 힘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 작은 탄식 소리.
자는 그저 힘겹게 고개 숙이는
무언의 물체들을 끝없이 집어삼키던
그것에게서 멀어집니다.
언제 부풀었는지 모를, 투명 봉투

열시 이십구분이 되면 울리던 전화벨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엄마. 엄마.
먹먹하게 외침이 들린다.
분명 온 힘을 다 해 소리치는데 딱 쥔 주먹이 굳어서.
굳어진 틈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흐른다.
나, 여기 있어.
곳곳에 뭉개진 액체들이 겹겹이 쌓인다.
여보세요.
나지막한 목소리.
... 슬픔을 걸려고 왔어.

아마 모르겠지, 20층에 사는 아이들은 말이야

12월의 연필을 잡던 손을 기억한다.
얇은 떨림이 종이의 결을 따라 전해졌기에.
뜨거운 공기에 안일해져 떨림을 멈추던.
나무들이 옷을 입어가고, 종이 뭉터기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손이 떨리고 있어? 손이 떨리고 있어?
여러 선들로 뒤덮인 그 손은 알려주질 않잖아.
- 손이
떨리고 있어?

고요함이 소리가 있다면

인문학부
20221060 오다경

우리는 달을 응시했다.
무언가가 반짝이며, 우리를 집중시켰다.
무엇이었을까.
미끄럼틀 아래에 걸터앉아 반짝이던것에 대해 생각했다.
구름에 달이 가려졌다, 새까만 저녁하늘의 구름은 고요했다.
무엇이었을까.
가리워진 달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달의 표면이 저렇게 둥글었던가, 저렇게 복잡했던가.
사라진 달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우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고요함이 소리가 있다면,
너는 무슨 소리였을까.

어른이 된다는 것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한 꼬마에겐
편식하는 음식이 없는 것

어떤 학생에겐
성년이 되는 것

청년에게는
근사한 취업을 하는 것

아빠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는 것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나는 어른일까?
슬픈 일이 있어도 웃으면
어른이 되는 걸까?

나의 고양이에게, 너의 고양이가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나는 너에게 늘 바쁜 사람이었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유독 내 옆을 함께하던 그날
너는 다 알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내 어깨에 올라와줘
반짝이는 별 하나가
오늘은 마치 너와 같아
너는 나의 -

너는 나에게 늘 예쁜 사람이야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너무 걱정하지는 마
조금 긴 여행을 가는 것뿐이야

다시 한번 네 어깨에 올라가고 싶어
나의 소리가 혹여나 닿을까
오늘은 울려 퍼지길
나는 너의 -

황혼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불그스럼한 낮의 색과
푸르스름한 밤의 색에 뒤엉켜
어김없는 자태를 드러낸다

나를 반기려 오는 강아지인가
나를 물으려 하는 늑대인가
저 너머는 나를 반겨주고 있을까

구름도 나 몰라라 모습을 감추어
저 하늘의 춤을 자랑하는구나

해를 짝사랑하는 달도
지금은 용기를 내어 얼굴을 보이는구나

겨울의 아이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눈을 처음 만난 아이는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 무서워
이불을 덮고 한참을 바라보다
어느새 창문에 달라 붙어
눈과 함께 잠들고말아

눈을 그저 바라보던 아이는
꿈에서 눈을 찾아 헤메이다
어느새 가까워진 눈과 함께
모든것을 함께 나누고

눈과 친해진 아이는
하얗게 소복한 창문을 바라보다 문득
떨어지는 눈이 사라진걸 깨달지만
아직 눈은 남아 있잖아

눈이 익숙해진 아이는
저 상냥하던 눈이
언제까지고 함께일줄 알아

그는 몰라...

저 버린 꽃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나비가
아스러지듯 스친 방훈에 반해
자신조차 망각한채 나폴거리다
한줄기 스며든 향기에 이끌려

처음으로 꽃을 만났지만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멀어져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만보다
어느새 어색함보다 커진 그리움에
다시 만난 꽃은 더욱 눈부시고
다시 맡은 향기는 더욱 감미로워

꽃은 알고 있지만 나비는 모르는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현실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뒤늦게 이질감을 느낀 나비는
어떻게든 꽃에 숨을 불어넣지만

아아 이미 꽃은 멀리 떠나버렸고
향기마저 아스라이 사라져버렸네

개화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아직 어색하던 봄에도
유난히 어려웠던 여름에도
너무나 바빴던 가을에도

무언가를 기다리던 작은 씨앗
자기가 잡초인지 꽃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작은 씨앗은

겨울의 따스함에 눈을 뜨고
어느새 내린 포근한 눈을 맞아
남부럽지 않은 예쁜 꽃을 피우다

문득 다가온 봄과
어느새 멀어진 겨울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한 자만에

그 웃기지도 않은 자만심으로

결국 남은건
깊게 패인 후회의 흔적

하늘의 색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어느새 찾아온 태양을 느끼면
다행이다 잊지 않고 와줬구나
푸르른 색을 슬쩍 자랑해본다

태양이 가장 멀리까지 바라보며
뜨겁게 맞닿는 그 시간에는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젠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
슬프지만 이별을 준비해야해
그래도 아직 좋은 시간이 남았어

어느새 태양이 희미해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을까
태양의 색을 널리 널리 칠해본다

점점 사그라드는 태양은 혹시
하늘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가
애타는 마음에 까맣게 타버린 상처
그보다 더 까맣게 남겨진 저 하늘

하루에 44번이나 노을을 보던
작은 아이도 이렇게 애틋할순 없을텐데
저 태양이 하늘을 잊지 않았으면

시간의 역할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꿈에서 새로 사귄 친구를 소개시켜줄게
이름은 ...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어
원래 꿈이 다 그렇잖아 깨면 '기억' 안나고
어쨌든 나는 그 애랑 오래도록 놀았어
그러다가 문득 뭔가 이상한걸 알았다?

그 애의 깨끗한 눈
그 애의 행복한 웃음
그 애의 차분한 말투
그 애의 단정한 습관
어쩌다 맞닿은 따뜻한 손까지도
너를 생각나게 만드는데

지금도 나는 저 꿈은 '기억'해
근데 넌 누구야?

무화과나무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꽃이 피지 않은 나무의 삶은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너는 옥상에서 씨앗을 던졌고
떨어진 땅에 꽃을 나는 보았다

씨는 땅 아래에 묻혀서 죽었고
꽃은 자리 위에 남겨졌다.

씨가 죽어서 없어져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꽃을 피우고 싶었던 나무야
너의 씨앗은 내 가슴속에 묻어둘게

언젠가 너를 생각하면
한 송이 국화가 아닌 자라나던 나무로 기억하겠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무화과나무야

이미 너에게도 꽃은 있었고
나는 그 꽃을 보았었지

별의 길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밤하늘에 수 놓은 별들
그 별길 따라 노래하던 시절이 있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않는건
사람들이 하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까

내가 별을 찾지 않았기에
별도 나를 떠나 보이지 않는다.

하늘이 별을 잃은지 오래지만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알지 못했다

하늘은 별을 떠나보냈지만
사람들은 땅의 길만을 쫓았다

이제껏 나도 땅을 보며 걸어왔지만
이제는 밤하늘의 별을 찾아보리라

내가 별을 찾는다면
별도 나를 찾아올까

기다리지 않는 시간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똑딱똑딱
아침을 깨우는 시끄러운 시계소리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서두르라고 말하는 초침소리
나에게 시간이 없다며 재촉하는 시계
시계는 차가운 얼굴을 하며 계속해서 잔소리 한다
시계는 사춘기 아이처럼 예민하다

행복한 순간에 멈춰 달라고 부탁해 봐도
시계는 시간이 없다며 매정하게 가버린다
급한 상황에서 조금만 천천히 가라고 부탁하면
시계는 심술궂게 더 빠르게 간다
지루한 시간에 빠르게 가라고 하면
다른 때와 달리 느긋하게 약 올리면서 가는 시계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번 반대로 행동한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시계는 항상 나를 무시한다

봄과 겨울 속에서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사계절의 시작인 봄

피어나는 벚꽃을 보며 함께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우리

새로운 만남 속에서 인연을 찾은 우리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설렘을 맞이했던 우리

흘러가는 따스한 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할 준비를 한다

사계절의 끝인 겨울

쌓여가는 눈을 보며 함께했던 시간을 마무리 짓는 우리

몇 번의 실패를 지나 같이 성장해 갔던 우리

메말라가는 나뭇가지를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흘러가는 잔잔한 겨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다시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 우릴 불러올 수 없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시간 속에 머물러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발걸음을 땀다

사계절의 반복되는 시간 속에 우리는 헤어지는 이별이 아닌 변화를 준비한다

주인공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내 삶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주변 사람들인가
가족인가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에 상처 입으며
그들의 성공에 부러움을 느끼면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구나

가족의 기대와 그들이 원하는 틀에 나를 맞추며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내 어깨에 무겁게 짓눌리면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구나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의 삶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다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달자

내 삶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주변 사람들인가
가족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바람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언젠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나를 휘두를 때면

두 눈을 꼭 감고
두 다리에 힘을 꼭 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낮도
흘러감에 후회하는 밤도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나의 삶도
당신의 삶도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사각형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모난 부분이 싫다 하여
모서리를 잘랐다

동그라미를 원하는 너를 위해
나를 갈았다

들어가지 않는 칸에 나를 끼워 넣었다

이제야 네가 원하는 모양이 되었는데
나는 없다

일몽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하루가 진다
또 하루가 이렇게 진다

오늘은 어제와 달랐나
오늘이란 게 있긴 한 건가

내일이란 게 오긴 하나

꿈을 꾸었나
꿈 속 인가

긴 밤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3 이윤희

긴 밤
찌뿌둥한 몸
뒤척이는 이불

잠들 수 없는 밤
지난 후회 때문인지
다가올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해미

작은 물방울 하나,
지붕을 타고 내려 풀잎 위로 떨어진다.

풀잎에 맺힌 이슬,
일렁거리며 미끄러져 땅 위로 떨어진다.

땅 위로 떨어진 작은 이슬,
땅에 스며들고 하나 둘 모여 질척한 물웅덩이를 만든다.

하나 둘 모인 질척한 물웅덩이,
발에 밟혀 일렁이며, 사방으로 물줄기를 튀어 보낸다.

사방에 튀긴 물줄기,
튀는 물줄기는 바지를 더럽혀 나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봄비가 내려 생긴 설렘이었다.

의사(義士)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해미

배가 불러오지만 임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미 죽임을 각오했다.

다른 이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지만 임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미 죽임을 각오했다.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일지라도 임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미 죽임을 각오했다.

다른 이들이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임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쳐 죽음을 각오했 것이다.

임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하와이 무궁화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하루가 너무 길다 투덜대지 말아라.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너무 짧다 느껴질 수 있으니

너에게 길고 고단한 하루일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으니

하루를 흘려보내지 말아라.
흘려보낸 시간, 아까워하는 이도 있으니

매일매일 존재하는 것에 감사해라.
나에게는 매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

번몽繚夢

국어국문학전공
20197001 반성연

당연한 일인 듯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세계는 돌연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다. 빛을 뜯어먹으며 무성해진 어둠이 다리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지나갔으나 핏물은 흐르지 않았다. 다리를 끌며 밀려나는 빛을 쫓아갔다. 돌아보니 집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나는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당신은 아직 어두운 쪽에 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빛이 들어찬 풍경 쪽에서 상냥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다정한 풍경을 떨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엄지발가락 끝에 와 있는 빛과 어둠의 경계는 달을 듯하다가도 조금씩 멀어졌다. 서둘러야 했다. 다리에 구멍이 났는데 피가 나지 않는 건 분명 역울한 일이다. 이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당연해졌다. 나는 균형이 맞지 않아 절룩이는 몸을 붙들고 빛을 향해 달렸다. 간신히 경계를 넘어서자 다리의 구멍은 아물어있었다. 집은 점점 더 검어지고 있었고, 검은 집의 담을 넘는 뱀의 목을 긋고 우리에게 먹일 피를 받느라 분주한 엄마가 나를 향해 서 있었다. 붉은 점이 가득한 엄마의 가슴팍에 수두룩한 구멍이 보였다. 그 검은 구멍으로 캄캄한 어둠이 꾸역꾸역 밀려 나오고 있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국어국문학전공
20197001 반성연

리라르로부터 카톡이 왔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식님의 아들 이준입니다
오늘 아침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추모의 말씀은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많이들 걸음하시어

리라르의 명복을 빌어달라는, 카톡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해하듯 그의 죽음을 알아차렸다. 리라르는 간단하게 떠나고 깨닫는 과정은 복잡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_()_
편안한 곳으로 가셨기를... _()_
오늘은 그가 이승을 완전히 떠나는 날이군요
보고 싶을 거예요 π.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_()_
안녕... 안녕히 가세요...
편안히 가셨기를...

추모의 방으로 불러온 백여 명이 각자의 개성을 담아 추모의 메시지를 올렸다. 메시지는 온종일 이어졌다. '숫타'는 리라르와의 첫 만남을 추억하는 글을 올렸다. '양양이'는 리라르가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다.

노래하시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네 잊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기억할게요
제게는 참 좋은 벗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고 말았군요...

추억담에 섞여 장례식장 사진이 올라왔다. 각도가 다른 각각의 사진마다 시옷 모양의 검은 띠를 두른 액자 속에서 리라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부산에 왔습니다 여긴 이제 많이 변했군요 저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 방에
있는 몇몇 분은 저와 부산에서 쏘주 한잔 마셨던
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하!!
선생님은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겁니다!!

자정이 넘어 ‘초심’의 댓글이 달렸다.

형님 저 축세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부산 자갈치에서 쏘주 마신거 기억하고 말고요!!
무자게 반갑습니다!!!

곧 ‘축세’의 댓글이 달렸다.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누군가가 대화방을 나갔다는 안내 글
이 띄엄띄엄 올라왔다. 풍경과 음식과 꽃이 액정을 채우는 동안 몇 사람이 더 나갔다. 리라르
의 죽음을 함께 추모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는 여전히 모호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입니다
오늘은 영혼마저 완전히 이승을 떠나겠군요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모두들 사랑합니다 ♥

‘깊은 강’의 댓글이 달렸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끝에서 시작한 불이 온몸으로 옮겨붙고 있
었다.

시를 좋아하지 않는 너에게

국어국문학전공
20201018 김성윤

같이 유튜브를 보며 밥을 먹었지
네가 폭소하는 부분에서
나는 수치를 느꼈다

제 밥상조차 차릴 수 없는 언니가 떠올라서
함께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친구가 떠올라서
순갈을 들 수도
웃을 수도 없었어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줄 수는 없나요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할 수는 없나요

1,000만 원 가량의 손해 배상 청구서를 받았다
악의적인 숫자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조금은 미움이 솟아나기도

그럼에도 누군갈 몰아세우고 싶지 않다

비스듬히 읽히는 시
목소리를 내면 나의 말이 된다
한참을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그들 앞에서 흘쩍이고 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게요.
왜 서로를 상처입히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그들은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과
위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어쩌면 둘은 한 사람이다

종이를 더듬던 손끝이
누군가의 손끝에 닿는다

못

국어국문학전공
20201018 김성윤

실수로 죽어버리는 상상을 한다
죽음은 너무나 가깝고 언제나 이르지

거꾸로 박힌 것처럼 어색하다, 이상하다,
멀뚱멀뚱 멈춰 서 있다.
제 자리에 가지런히 박혀있는 다른 못들을 본다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서
노을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서
결국 까무룩 잠에 들고 마는...

이유 모를 슬픔이 흐르는 혈관
흔해빠진 문장들이 솟구치고
진절머리가 나서 고개를 젖다가도 계속 읊게 된다

다들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겠지
사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무한히 반복되는 말은 사실 진리에 가깝다

생각하면 펍 안심이 된다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다

내일 눈을 뜨면
다시 거꾸로 박혀 있을 거야
해야 할 일은 또렷하게 기억날 거야

실수로 죽어버리지 않을 거야.

언니의 밥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18 김성윤

"그리고, 밥풀은 계속 커지는 거야."

언니가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뒤통수에 손을 올려 긁적였다
정말로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아서

핏줄을 닮은
아주 가늘고 투명한
수많은 생각이 적혈구처럼 오가는
붉은 관이 떠올라서

영혼이 연결된 감각을 알지
하나라고 확신할 수 있어
영겨 붉은 밥풀처럼 서로를 구분할 수 없다고

창틀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밤
언니는 내 옆자리에 몸을 파묻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뱀처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눈을 감는다
그리고 머리맡에 이어진 붉은 관을 통해 꿈을 꾸다

나의 꿈에도 밥풀이 나온다
그 밥풀은 계속해서 자라고
견잡을 수 없이 커지는 밥풀을
우리는 손을 잡고 지켜본다.

청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새 칫솔에 모 영혼을 내는 호 붕괴 한아름 안고 도망친 마음 나열할 수 없는 붉은 적 사슴 기우뚱 기우뚱 사무치게 잃어버린 빛나는 반딧불 인정욕구에 먹히는 나날들 도전이라 칭하는 무모한 사살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싶었어요 하기 싫어요 목표에 부딪치며 울부짖는 시간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달그림자 책상 앞 여러 가지 꿈들을 조각내어 오리어 붙이어 예쁘게 장미를 가득 채우는 갈기갈기 찢어진 퍼즐들처럼 도파민 중독에 대한 항성 불가 크리스마스 트리마냥 꿈에 알록달록 달던 장신구 기우뚱 기우뚱 결국 무너져 다시 꾸밀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도 뉘어져 있는 채로 청춘 속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편한篇翰하며 제 것처럼 나는 운이 좋았지 다시 한번 초록색을 유난히 다른 사람 말고 너 주인공의 애로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조연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름다운 조연인 줄 알았던 당신이 쓰디쓴 주인공임을 울기도 해요 그럼 돼요

겨울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비대해진 자의식에 먹이를 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데
죄책감이 날 옥죄며 다시 또다시 커져만 가네요

나 빼고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말을 수없이 머릿속에서 되뇌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새벽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내 정동을
누군가 들여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피부로도 느껴지는 한기와 나뭇잎으로 따듯하게 자신을 품었던 나무들이 옷을 훌훌 털어내어
다음 연도를 위해 우수수 뿌리 주변을 색이 변한 갈색들로 따듯하게 만들 때
짧은 생 동안 살아왔던 순간을 떠올리며 훌륭하게 이겨내고 견뎌내온 시간의 조각을 떠올리며
대견한 나의 어깨에 양손을 포개어 올려 토닥토닥 꼬옥 안아줍니다

유난히 겨울에 꽃혀있는 꽃갈피들이 많아서 어느새 이 많은 것들을 구경할까
내 삶이 담겨 있는 일기장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을 스쳐 보낼까

백생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봄이 옵니다
하얀 꽃봉오리 피우며
아지랑이 피우며

모든 이가 다짐할 때
나 또한 결심합니다
눈을 뜬 이들에게 인사하며

순백으로 태어나
방울방울 색이 튀어
결국 덮을 수 없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얼룩으로 가득한 삶이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순백을 줄까요
끝과 시작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봄이 옵니다
하얀 눈이 지며
아스란히 사라지며

012486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영원을 약속한 당신과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상을 함께 꿈꾸며
사랑의 연극에 조연 없는 두 주인공으로

팔랑이는 나비의 뒤를 어린아이처럼 뒤쫓아
육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둘만이

향기는 기억된다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기억된다
스며들면
자연스레 그 시간, 그곳으로 돌아가
자연스레 기억된다, 스며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달라는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에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뒤돌아 뛰어 안길 뻔했다
네 바다로

이제야 봐주십니다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일 년을 밋다 하시더니
이제야 예쁘다 하십니다
일 년을 보지 아니하시더니
이제야 봐주십니다

이제와서 다 무슨 소용이 싶더니
제 곁을 떠난 저 젊은 여인은
상처만 보따리에 이고 갔습니다

일 년만 예쁘다 해주시면
일 년만 봐주시면
안되었습니까

상처만 이고 간 저 여인은
눈물로 웃으며 저를 위로합니다

이제야 해주십니다
슬피 웃으며 떠난 여인은 없습니다

도로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넓게 펼쳐진 두 갈래의 길
바리깡으로 깎은 듯 짧아진 머리가 보인다
어느새 햇빛에 구워진 마시멜로는 벗겨져
맹맹한 갈색빛을 두른 지푸라기만 드러낸다
아직 남아있는 황금빛 자리에는
새가 날아든다

새를 쫓아내려 그 위를 날아다니는 세 마리의 새
독수리의 다리에 끈이 묶여있어도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오직 그 발에만 그 눈에만
머물러 있다

마치 집 마당을 지키는 개처럼
어느 집 한켠에는 허수아비가
홀로 서 있다

나는 차 안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경했다
그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도로 위엔 빨간 지휘봉을 휘젓는 손
어느 날은 사람, 어느 날은 인간 모형
생생한 사람도 마치 영혼이 나간 것 같아
나는 진짜 사람과 가짜를 구분할 줄 모른다

하늘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맑고 시린 하늘이 그리웠어
구름 하나 없는,
차갑게 다가온 가을의 하늘이

좁디좁은 길목을 지나며
시골 양옆 사이로
작은 집들이 곳곳에,
논밭이 펼쳐져 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
탈곡기에 벼를 넣어 우수수
쌀알이 떨어진다
추수가 지나가고 있구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낄 때
일하고 있는 농민들과 눈이 마주친다
바짝 가까워진 버스 옆
일하던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본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하늘을 바라본다

조각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저 멀리 배가 보인다
흐릿한 안개 사이로 전진해나가는 배
묵묵히 항해해나가는 배

내 두 눈에 담을 수 없었던, 들어오지도 않았던 모형
조그마한 배가 어느새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고이 접혀가던 조각배가 윤곽을 잡고
자기 자리를 스스로 찾아간다
꾸깃 쓰레기통으로 한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더라도 나는 또 새하얀 종이.
걸고 또 걸어나간다

미완성 상태로 물에 가라앉게 된다면
물을 머금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흐름을 따르려 해도 내가 가리키는 방향은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나갈 뿐이다

어린이

국어국문학전공
20211013 김나영

우리는 모두 어린이

처음 직면하는 모든 것 앞에서는
우리 모두 어린이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 피우는
우리 모두 어린이

오늘 하루도 처음 시작하는
우리 모두 어린이

우리는 매일 어린이

달

국어국문학전공
20211013 김나영

달아 달아 뭐하니
어지럽지는 않니

달아 달아 도는구나
외롭지는 않니

달아 달아 외롭구나
어둡지는 않니

달아 달아 어둡구나
나에게 오지 않겠니

아! 내가 밝구나!

목소리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뭉게구름 피어오른
저 하늘은
나의 나라

악몽 견디기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악몽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낸다

나를 죄는 악령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

밤이면 어김없이
내 꿈에 나타나
괴롭히니

쉬이 눈꺼풀을
감을 수 없어

어딘가에 응달진
어둠만 응시해본다

그러면 잠을 잔 것 같은
그런 소소한 기분이
들겠지.

언어가 사라지는 시대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언어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뜻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뜻을 담지 않은
여러 말들을
머릿속에 쥘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언어의 집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슬픈 것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반복, 그 끝은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한 문장을 쓰고, 지우고

고심한 끝에 다시 만년필을 집어

한 장을 채우고, 구기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연필을 쥐어서

문장을 이어나가다가 다시 지우니

남은 건

텅 빈 원고지와 지우개 가루.

슬픔에는 자국이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슬픔 뿐이오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오
바닥에 툭툭
몇 방울 떨어지니
자국이 남는다고

슬픔에는 자국이 남는다고
지우더라도 흐릿하게
그 형태마저
지울 수 없는 노릇이오

슬픔은 저희가
서로 끌어안아
자국을 덮어보오

그래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잠시나마 그 슬픔을
가려주고 싶소

전쟁 속에 핀 기적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새어 나오는 공포를 삼키고
살기 위해 숨을 멈추었다

늘 같은 노래를 부르는
푸른 세상 안으로

심장 대신 넣었던
하얀 장미를 던졌다

그들의 평온과 안식을 담아
푸른 장미로 물들여

붉게 물든 세상
기적을 피워 내리라

여유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바람에 누운 채 지나가는 구름을
가만히 창밖으로 바라보며
시간의 빈칸을 채운다

하루의 지남이
계절의 지남과 같아질 때

열심히 살았음을 증명하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

다가오는 겨울의 아늑함을 거부하고
추운 외로움만을 품을 뿐이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선
가벼운 하얀 하늘을 타고 가는
저 구름처럼

시린 겨울

하늘에 누워
눈을 감고
파도 없는 바다에서

숨을 쉰다

감정의 소리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소리로 세상을 보는 당신에게
나는 입 위에 손을 올려
새어 나오는 울음을 움켜쥐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햇살의 따듯함만 볼 수 있게

당신에게는
더러워진 손을 감추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오늘도 나는 당신의 하루에
울음꽃 핀 미소로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적당한 순간

사학전공
20211061 이무원

우리의 삶은 느림과 빠름이 공존한다
모든 하루가 천천히 시작된다
하루의 시작과 끝의 체감은 다르기 마련이다
모든 순간에 완벽한 순간은 존재하지 않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을 뿐이다

하루에 만나는 모든이들은 각자의 어떤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삶의 순간들을 같이 지내고 있는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한다.
모든 인연은 갑작스레 시작되기도, 자연스레 만난다.
인연의 시작과 끝은 소중한기 마련이다.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는 없다.
이에 주어진 순간을 후회없이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인생에 만나는 모든이들은 각자의 스토리를 마주하고 있다.
인생의 스토리의 한 페이지의 경험이 지나가고 있다.

하얀 꽃

사학전공
20211061 이무원

하얀 꽃이 눈비 흠날리듯 수두룩하게 피어있다.
눈비도 안 오는 계절에 하염없이 피어 오르네

기교와 허세가 아닌 담담함히 피어 햇빛을 쬔고 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잊힐 수 없네

찬란한 오색빛깔의 꽃들이 필텐데
곱디 고운 하얀 꽃이 이슬을 머금고 하늘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네

계절의 주는 시련인지 이따금 들여다 본다
쉴쉴히 하얀꽃에 물을 주며 떠나지 못하네

작별인사

사학전공
20211061 이무원

예고없는 편지에 그대의 죽음을 알게 되네
따스하게 웃어주고 행복하게 웃어주던
그대는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네

옆에서 모든이를 어루만지던 그대의 발자취를
힘들지만 곳곳히 버티며 미소를 유지하던
그대의 힘듦을 감춘 체로 의연하게 있던
순수하고 밝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네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힘듦과 고통을 감내하면 버틴 시간을
평범한 일상과 소중한 이들과의 대화들이
소중했고 이어가나고 싶었던 그대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원망과 슬픔을 털어 놓은체로
그대와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회상하며
쓸쓸한 마지막이 아닌 나름대로의 착한 노력을 한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예고없는 편지를 어루만지며
그대는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음 말하며
편지를 닫고 앞을 보면 천천히 걷겠네

벽돌

철학전공
20171017 김지균

철이 없던 시절 휴대폰 판매점 가판대에 있는 행사 증정품을 훔쳐 달아난 적이 있다 친구들과 부푼 기대를 안고 상자를 열어보니 벽돌이었다 무게가 무겁다며 좋은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 기대하던 우리에게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모두가 실망하기보다는 크게 웃었다 감당할 수 없이 큰 잘못이 아니여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섞인 웃음이 아니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모두가 그렇게 웃었다

앞

철학전공
20171017 김지균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이미 지나간 시간

앞으로 간다는 것은 향하고 있는 쪽인가
이미 지나간 시간을 향해 간다는 것인가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독수리는
바람이 없이는 날지 못한다

활강하는 독수리는
내려가는 것일까 떨어지는 것일까

큰 일 아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일이 아니다

시골 버스정류장

몇시간이 걸려도
해가 지면 오지 않는 걸 알고도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며

꽃이 아닌 나무처럼
등대 아닌 만월처럼

응달을 내어주기도
별이 드는 설 곳이 되어주기도
하는

따뜻한 당신

태양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너의 하루를 쫓다가
무당벌레와 함께 하늘로 쪽 뻗어올라간 손과
하늘에 찍힌 너의 손도장을 보고
너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신선한 공기가 고마워진 시대에
나는 그것의 청초함에 중독되어
어지러울 때까지 꺾꾹 숨을 쉰다

바람에 흩날리는 너는 꽃비 같아
나도 너도 촉촉하게 내려앉네
그 위로 토닥토닥 씨앗을 슬며시 심어볼까
그러면 너도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오겠지

고백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가만히 읊조려보는 이름을
입안에 찬찬히 굴려
따뜻함이 배어 나와 눈을 뜨면
그것은 사랑이라

너를 위해 적는 한 문장이
어렵게 어렵게 자취를 남기면

나는 그 위에 한 송이 꽃을 올려
그 향기 사이사이에 내 단어를 숨길래

하염없이 주는 것은 싫으니
네가 음미하고 그 속에 내 마음을 찾길 바라

때로는 비에 얼룩져 번지고
때로는 추위에 차가워져도
굳은 날은 항상 맑은 날을 약속하며 오니까
내려놓지 말고 걷자

화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슬픔은 가시 같고
가시는 인생을 아름답게
슬픔은 장미를 아름답게

슬픔은 가시 같고
차가운 세상과 어리숙한 나의 온도 차이로
나의 창에는 수증기가 엉겨 붙어 흐르고 흐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면 하는 바람은
결국 간절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계절의 담금질에 단단해질 때면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겠지요

단단해지는 것과 굳어가는 것의 차이를 알고 싶지만
찬바람이 이글거리는 세상은 무정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가시가 돋습니다
그대들에게 상처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손끝에 맺힐 핏방울을 내가 알아요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렵니다

너는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유난히도 비를 좋아하던 너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많았었지

빗물이 허끝으로 살짝 닿았을 때
소금물 같았던 너는,
그래서 그 소금 물기 마르지 않는
장작개비처럼 자신의 눈물로
승화되어 지칠 줄 모르고
칼칼 쏟아지다던 너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동안의 더러운 때들이
모조리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가슴 트이는 시원함
느꼈다던 너는,

비가 갠 뒤의 비거스럼이
청청한 하늘과 맑고 깨끗한
온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빛이 되어
나에게로 반사되어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던 너는,

지금도 유난히 비를 좋아하는
너는,
보이지 않는 슬픔이 많구나

슬픈 영화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어
슬픈 영화를 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울고 또 울고

그대를 잊는다는 다짐을
하루에 백 번도 더 하지만
백한 번째 다시
그대를 떠올립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어디까지가 아픔이 되고
어디까지가 고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울고
또 울고
다시 슬픈 영화를 보러 갑니다

하나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너의 눈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좋아

너의 마음에 똑똑 문을 두드리면,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 좋아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는 너를 보며 행복을 알아가고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하는 너의 슬픈 눈을 들여다보며 다시
나를 보고 있을 널 위해 용기를 내어 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마치 하나가 된 것만 같아
하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 좋아

유지(流摯)

영어영문학과
20221205 김민서

어른이 되어가는 나는
두렵지 않은 척
부모와의 이별을 준비한다

아이가 되어가는 부모는
무섭지 않은 척
자식과의 이별을 준비한다

그러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 한 편에서
소리없이 울부짖는다

제발
제발

설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붙잡고

설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한다

마스크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무도회가 열렸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날카로운 물건을 쥔 채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고

지루한 이 달빛은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이 사람을 낳는 무서운 이야기처럼
죽음은 전진했다

이국의 거리와 밤의 해안을 오가듯이
새벽을 지나 종소리를 지나

깨어질 듯 위태로운 계절

도착하는 길마다 꽃은 시들고
날벌레들은 공중을 뒤덮는데

연주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하얀 손가락이 풍경처럼 걸려 있었다

환상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우리는 축제와 장례식에서만 마주친다

장미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일
그들이 파랗게 질려 흩어지는 일
비명을 지르는 일

당신이 없는 밤은 위태롭다

욕조의 물이 일렁인다
죽은 자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날

머리에서 다리가 자라날 것만 같다

창백한 선율에 맞춰
오감이 춤을 출 때

너에게는 무덤이 없고
나는 끝없이 떨어지는 중이다

나침반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하얀 눈토끼를 쫓다가 어찌면 길을 잃었을지 모른다. 집을 떠나오기까지의 기억은 없다. 눈을 뜨면 이정표 앞에는 네가 서 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이곳은 세상의 끝이라 말한다. 백지처럼 펼쳐진 너머의 세계. 얼마나 더 많은 낙서를 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색색의 크레파스를 쥐고 걸어간다. 낙서는 편지도 유서도 될 수 있어서. 위도와 경도 사이. 우리는 고립되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문득 나는 오랫동안 너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흐릿한 손이 어깨를 잡는다. 고개를 돌리면 자꾸만 눈물이 난다. 좌표를 찾아 헤매는 날들이 있다. 지워지는 날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반듯하게 눕는다. 시선이 닿는 곳에 그려진 얼굴이 있다.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증발하고 있었다.

동심과 순수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눈이 온다

남몰래 속삭이는 귀엣말처럼
호기심이 많아지는 밤

열두 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가 있다

고장 난 문고리에 양말을 걸어두고서
홀로 집에 남아 자정과 정오를 헛갈리는 아이가 있다

밤은 길고 아침은 멀다

골목은 흑백으로 젖어든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아이의 코끝에 어렴풋이 한기가 스친다
이내 고개를 돌려 잠을 청한다

어둠이 걷히고
최초의 동공이 되살아날 때에

사탕이 담긴 양말을 보고 산타가 다녀간 것이라고,
아이는 오래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것이다

성 니콜라스 흰 수염
소복이 단 아빠를 기다릴 것이다

회전목마

중국학과
20221501 강다현

거리엔 웃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나는 언제까지나 이곳에 앉아 있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이끌리듯 백마의 갈기를 쓰다듬으면 시작되는 여행 차창 밖으로 빛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걸까 내일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는 걸까

꿈에서 깨면 지하철은 미끄러지듯 어딘가로 달아난다 잠과 그림자를 도둑맞은 채로 나는 나를 다른 도시로 옮기고 있다 말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달리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스크린도어를 지나 회전목마의 꼬리가 샤콘느로 이동할 때 멈춘 시간 속을 걸었다 손에는 풍선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모두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

길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길
그 위로 사랑스러운 냄새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길
그 위로 행복한 냄새

너와 내가 함께 걸었던 길
그 위로 쓸쓸한 냄새

달빛 아래
온갖 냄새로 가득했던
너와 내가 함께 걸었던 길

오므라이스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위태로운 찐알들을
포근하게
더 따뜻하게
덮어주는 계란 이불

나를 덮어주는
소중한 계란 이불

찐알이 뜨거워도
더 뜨겁게
안아주는 계란 이불

위로란 계란 이불 같은 것일까

집밥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동글동글 계란과
길쭉길쭉 고기가
함께 간장 샤워를 한다

네모네모 두부와
까도까도 양파가
함께 된장 샤워를 한다

탱글탱글 고등어와
듬성듬성 무가
함께 조림장 샤워를 한다

샤워를 마치면
코를 찌르는 바디워시 향

잘 먹겠습니다

흔적

미디어스쿨
20222587 최보경

그대가 남긴 흔적에
혼자 마음을 대어본다

그 마음은 아직 뜨거울테니
흔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대가 남긴 흔적 위로
혼자 마음을 데워본다

월식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오늘은
달이 잠시
쉬어가는 날이라고 한다

달도 몇 년 동안
밤을 비추느라
힘들었던
날들을 잊고

오늘 지구의
그림자를 따라간다

나도 지금까지
모든 힘들음
지구에게 맡긴다

어두워진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

나도
나의 지구
엄마의 그림자에
따라간다

엄마의 온기가
나의 가슴을
따스히 감싼다

행복과 슬픔도 나의 길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오랜 시간 행복하고 오랜 시간 슬퍼보니
행복과 슬픔도 나의 길이였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알려준 행복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알게 된 슬픔도
나의 길이였다

돌아보면 슬픔만 남았던 모든 일이
나를 더욱더 견고히 다져 놓았다

나의 길에
핀 꽃도
진 꽃도

나의 길을
위해 피어난
꽃이었음을

앞으로 웃고 눈물 흘릴 모든 날에
나의 길에 꽃이 피고 지기를

행복과 슬픔도
나의 일부가 되어
나를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래 봅니다

마지막 편지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오늘 그대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한 자 한 자
아름다운 글씨로 그대에게
이 밤마저 담아 보내려 합니다

그대에게 보낸 수 개의 편지보다
오늘의 편지가 그대의 눈가에
작은 강이 흐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슬펐던 나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어 다가온 그대여
지금은 나의 태양이 되었으나
마지막 편지의 그 뜨거운 마음마저
담습니다

생각만 해도 파도가 치던
그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며
나의 눈가에는 태풍이 몰아와도
이 편지는 그대에게 작은 바람으로
그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좋았던 추억을
마지막 편지를 읊조리며
하나씩 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글자는
그대를 위해 담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합니다

자장가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마지막으로 그의 행복을 위해
온 맘 다해 자장가를 부릅니다

그의 삶에 가득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늘 한 곡에 담아 부릅니다

따뜻한 봄에는 그가 좋아했던
목련꽃을 선율에 꽃아 보내려 합니다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여름에는
그의 행복을 사진첩에 고이고이
담아 그의 마음에 목소리로 전달하려 합니다

낙엽이 슬픔을 주었던 가을에는
그의 슬픔을 선율 위에 띄워 보내려 합니다

하얗던 겨울에는
그의 소망을 담아 눈사람을 만들어
그의 마음에 쌓아 올립니다

마지막을 숨을 내쉬기 전까지
이 계절이 이 자장가에 담아지기를

자장가가 그의 모든 삶의
따뜻한 마지막 온기를 기억할 수 있게 하기를

이 노래의 끝에
그의 눈가에 작은 파도가 일렁입니다

이제 이 자장가를 그의 꿈에
띄워 보냅니다

무서운 꿈은 이제 없기를
끝나지 긴긴 슬픔을
자장가가 담아 갑니다

술

경영학과
20223022 이채은

너는 나를 아찔하게 만든다

너를 피하려는 내 맘도 모르고 자꾸
내게로 다가오는 너

안 보고 싶지만 나를
웃게하고 울게하는 너

숨기고 싶은 내맘도 모르고
자꾸만 나를 솔직하게 만든다

왜그럴까 후회도 했다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만나고
내일을 괴롭게 만든다

바보

경영학과
20223022 이채은

그대에게 욕심이 나지만
어느하나 욕심 부릴 수 없는 나는 바보

그대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나를 웃게하는 것을
모르는 그대는 바보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받지 못하는 그대는 바보

남들은 바보라고 놀리지만
그대에게는 바보이고 싶은 나는 바보

이 또한 몰라주는 그대는 바보

나는 그대 밖에 모르는 바보

꽃 지는 계절

소프트웨어학과
20183211 김영찬

꽃이 피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누군가 툭 던진 말에
꽃 잎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잎
꽃 잎들을 다시 붙이는 것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계절을 기다려보자

꽃 피는 계절

소프트웨어학과
20183211 김영찬

꽃이 졌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새로운 계절이 다가와 나를 깨운다.
하지만 이번 계절은 저번 계절과 다를까?
한 번 더 믿어볼까?
꽃 잎들을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마음을 정리하고
이번 계절은 믿어보자

나무와 새싹

소프트웨어학과
20183211 김영찬

“안녕 어여쁜 새싹아?”

“응, 안녕”

“너는 지금 막 일어났구나?”

“응, 맞아. 근데 너의 나뭇잎들이 햇빛을 가려 내가 해를 볼 수 없어”

“미안해, 내가 곧 치워 줄게! 어때 이제 괜찮아?”

“아니, 나뭇잎이 아닌 너의 수많은 나뭇가지 때문이었어”

“미안해, 내가 곧 치워 줄게! 어때 이제 괜찮아?”

“아니, 나뭇가지가 아닌 너의 큰 몸 때문이었어”

“미안해, 내가 곧 치워 줄게! 어때 이제 괜찮아?”

“응! 이제 햇빛도 잘 보이고 좋아! 그런데 너의 다리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실 수 없어”

“미안해, 내가 곧 치워 줄게!...”

“응! 이제 물도 잘 먹을 수 있어 나무야 정말 고마워!”

“...”

“나무야?”

“...”

“나무는 어디 갔지... 나무가 떠났으면 난 이제 누구와 놀지?”

연어

데이티테크전공
20203256 최지우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연어는 아직
선홍색 살과 흰 줄무늬 가진 사체란다
사람들은 웃었다
멍청하구나!

붉은 죽음이 용솟는 하늘빛 전쟁터
인공적 육지에서 지느러미 잘려 바다로 던져진 상어와 둥둥 떠다니던 그물에 갇혀 숨넘어간
고래와 눈 까뒤집은 ‘고기’ 아닌 물고기와 낚싯바늘과 부표와 밧줄과
어쩌면 플라스틱 빨대 한 개
그 사이를 작고 작은 은빛 연어가 유유히
지나간다
묻는다

당신은 그릴 수 있는가

해구

데이터테크전공
20203256 최지우

들리나요, 여기?

시간이 별의 파도를 따라 흘러가고 아른거리는 조명은 물 입자를 비추겠죠 철썩철썩 땅을 두드릴 때마다 툭 툭 터지는 상쾌한 방울들이 몸을 적실 거예요 물이 구름을 채우고 구름이 물을 채우고 물은 사람을 채우고 사람은 물을 채우는 광경을 눈앞에 그리며 나는 포근한 암흑을 유영해요 당신의 온몸을 짓누를 차갑고 축축한 투명한 쇠는 내게 자장가요 눈을 가리고 감각을 강탈할 불친절한 손길은 안정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쉼터에서 우리가 깨지고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길 잘못 든 것들이 스러질 때 우리는 ‘미탐사’의 대지에 ‘결핍’된 것들로 존재해요

들리나요, 여기?

우리는 들리지 않길 기도해요 보이지 않길 알려지지 않길 당신의 지도와 역사 속 한 단어로나 겨우 존재하길

별로 그린 악보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겨울 입김에
별들이 소근거림을 멈추고
전선에 걸터 앉으면 들려오는.

나, 당신에게 보내요.
겨울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해는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만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나의 밤은 길어지겠지요.

긴긴 밤이 깊어질수록
나의 겨울은 추워 질 겁니다.

저 하늘에 박힌 별
하나
하나로
간신히 몸을 데워

이 겨울을 보내겠지요.

작별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에겐 참 많아요.
살포시 앓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건네주지 못한 채.

우리
꽃과 나비로는 만나지 말아요.

전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나에게 참 많아요.
바람결에 흩날려 보내버리고 싶은 케케묵은 것들.

우리
더 이상 노래 부르지 않기로 해요.

꿈꾼 것처럼 일어나기로 해요.

회색의 계절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차가와진 공기를 타고서
바람이 흘린 눈물이
뺨을 적신다.

가을과 겨울.
그 사이
회색의 계절이 왔다.

햇살에 미소 짓던 백일홍도
달빛만을 기다리던 달맞이꽃도.
이젠 없다.

거센 바람을 나는
감싸 안기로 했다.
목소리.
눈빛.
존재마저도.

여름이 오면 겨울이
겨울이 오면 여름이 그리워지겠지만
난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겨울을 만나 체온을 나누고
잠시, 걸어보기로 했다.
차가와지겠지만
얼어붙지는 않을테니.

별도 우는데

생명과학과
20173537 정재욱

별이 쏟아지는 마음이란

반짝이는 별은
마음을 설레이게 하지만

빗방울처럼 내린 별은
마음속에 스며들어

결국.
얼어버린다.

별이 빈 자리에는
차가운 어둠이 쿵-쿵-
떨러와
울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별을 대신하여
바람소리만 휘-휘-

나는
별일 순 없나.

네 계절

식품영양학과
20223832 원지은

봄

산뜻한 설렘을 들고오는 올해의 봄은
굳게 얼어붙은 내 얼음을 녹이려고 한다.
뜨거운 열정을 머금었던 지난 여름과
선선한 바람을 불어줬던 지난 가을과
차가운 입김을 만들어준 지난 겨울을
밑거름 삼아 다시 내 새싹을 피울 수 있을까

여름

뜨거운 열정을 머금은 올해의 여름은
내 새싹을 나무로 만들어 주었다.
기왕이면 내 나무가 더 울창하고
훨씬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서
이곳저곳 아주 빠르게 가지를 뻗어나간다.
훨씬 더 무거워졌지만 괜찮다.
그만큼 많은 열매가 맺을 테니 괜찮다.
몇 밤을 지새워야 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까

가을

선선한 바람을 불어준 올해의 가을은
나무로 내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었다.
내 나무로 인해 열매가 많이 무겁지만 괜찮다.
심술궂은 바람에 나무가 심히 흔들리지만
내 나무는 아직 울창하니까 괜찮다.
문득 든 생각인데 내 뿌리는 잘 버티고 있을까

겨울

차가운 입김은 만드는 올해의 겨울은
열매로 내 뿌리를 끊어버렸다.
내 나무는 울창했고 거대했으니까
흙 속의 뿌리도 그럴 줄 알았다.
늦은 겨울이 돼서야 흙 속을 확인해보니
내 뿌리는 너무 약했고, 결국 내 나무는 무너졌다.
어느덧 나무와 열매 위에 쌓인 눈과 함께
나는 얼음이 되어간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빅데이터전공
20165133 방승원

노가 없는 배를 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굽은 허리를 펴며 하루 끝에 입김을 내뿜는 것이
문득 생각난 네가 그날 새벽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간절히 바라면서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사람은 왜 사람을 사랑할까? 돌멩이가 아니라'라며 헛소리를 하는 것이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애연하지만 나 괜찮다고 말한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에 술한 생채기를 낸다

상처는 고여있지만 계절은 흘러가고
순수와 파괴는 함께 어울려 지낸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나 괜찮지 않다

서울이 싫다

빅데이터전공
20165133 방승원

길었던 장마가 끝난 걸까요
오늘은 날씨가 포근합니다

성인이 된지 다섯 해가 지났습니다
어른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른이 된 걸까요
연약하고 굶주린 속은 내내 열둘에 머무른 기분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속초를 찾았습니다
바다는 막힌 속을 뚫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다를 보고 있자니 내가 덜 외롭습니다

서울의 소음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합니다
살다 보니 살아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까요
더 자라서 덜 빈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이 안 날 것 같던 장마도 끝이 났으니
오랜 방황에 대한 온기도 조금씩 따듯해지겠지요

나는 오늘도 서울로 갑니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

빅데이터전공
20165133 방승원

하룻밤의 추억이
수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그 기억을 먹으며
군드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다
그 추억에 반갑고 매서운
꽃샘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사랑은 판타지다

아픔이 있기에 허우룩한 추억이 되고
그런 추억이 있기에 피울음을 놓는

사랑은 판타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괜찮아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불안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 게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죽음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삶이 예고도 없이 끝나는 일
산 사람과 이별하는 일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우리는 한순간 많은 삶을 죽음으로 보냈다

하지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매일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엄마 아빠를 매일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친구를 매일 보는 게 아닌 것처럼

그저 긴 시간 동안
보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그마한 위로가 된다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다
길고도 짧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만날 거다

과제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과제다
과제다
과제다
과제다

했다
과제다
했다
했다

과제다
과제다
과제다
과제다

겨울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참 추워서 싫은데
참 추워서 좋다
찬 공기가 좋다

참 추워서 싫은데
참 추워서 좋다
붕어빵 먹을 수 있어 좋다

참 추워서 싫은데
참 추워서 좋다
크리스마스가 있어 좋다

참 추워서 싫은데
참 추워서 좋다
새해가 찾아와서 좋다

어른

빅데이터전공
20215139 김진영

나는 어른인가
나는 애인가

정신 차려보니 어른이더라
정신 차려보니 술을 마시고 있더라
정신 차려보니 돈을 벌고 있더라

어른인데 성숙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어른인데 현명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어른인데 어른다워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른인가
나는 애인가

소설 부문

점장의 고함 소리는 하늘을 뚫을 것처럼 점점 높아져 갔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갑질을 해도 되나? 지현은 카운터에서 정면에 있는 유리문을 쳐다보며 몰래 종아리를 툭툭 두드렸다. 신입이 잔소리를 가장한 화풀이를 당한지 족히 30분은 지난 것 같았다. 매장에 손님이 없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현은 슬슬 신입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지현이 생각해도 신입은 일머리가 없는 친구였지만, 그렇다고 의욕이 없거나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진 않았다. 커피의 주문이 잘못 나간 건 사소한 실수에 속하고, 컵을 깬 것도 대부분 한 번쯤은 하는 실수다. 그러나 점장은 신입이 설거지를 하다가 컵을 깨자마자 무슨 스위치라도 누른 듯이 뽁 소리를 질렀다. 터질 일이 터지고 만 것이었다.

점심에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며 점장이 후문에서 부인과 큰 소리를 내며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풍겨 지현은 최대한 인기척을 죽이고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와중에 얼핏 점장에게서 ‘외도라니. 말 같은 소릴해’ 따위의 내용을 들은 것도 같았다. 점장의 속사정을 깊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통화가 끝나고 돌아온 점장은 눈에 띄게 날이 서있었다. 어디 하나 걸려봐라. 딱 그런 얼굴로 매대에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뽐내고 있을 때, 신입이 유리컵을 깨고 말했다. 점장의 벼락같은 노호가 신입의 머리 위로 꽂혔다. 이 상황에 손님이라도 들어오면 점장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지현은 내심 마음을 졸이며 손님이 오는 게 이 상황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를 가늠해보았다. 그 시점에 점장은 뽐아놨더니 쓸모가 없다는 등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냐는 등 별 의미도 없이 사람을 깎아 먹기만 하는 소리를 해댔다.

“야, 안 되겠다. 지현아 너 잠깐 나와봐라.”

“네.”

지현은 손에 찬 땀을 앞치마에 속속 닦아냈다. 거의 클라이맥스였다. 점장의 눈치를 보며 카페 뒷문으로 나온 지현은 점장이 씩씩대며 뒷문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조용히 쳐다보기만 했다. 손을 앞으로 곱게 모으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와씨, 뭐 저런 게 들어왔어.”

점장은 그렇게 한참을 중얼거렸다. 원래 혼자 중얼거리며 화내다가 혼자 식는 것을 종종 보기도 했기에 지현은 속으로 이번에도 그러기를 기도했다. 지금의 점장에게서는 공포가 느껴졌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는가. 그것이 가장 큰 궁금증이자 공포였다. 일을 잘못 가르쳤다고 결국 나한테 불뚝이 튼다? 지현은 망연자실한 기분을 느끼며 앞치마를 손가락으로 살살 쥐어뜯으며 점장의 말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장은 지현을 보고 살짝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현아, 네가 좀 잘 말해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네?”

“내가 말하면 또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네가 말하라고.”

“아, 네, 네.”

부조리하고 어이없는 내용에 지현은 할 말을 잃었으나 입은 따로 놓고 있었다. 내가 뭐라고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잘라요. 지현은 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지현의 혀는 텅달아 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점장은 마음을 이미 정했는지 주머니에서 담배 케이스를 꺼내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난 바람 좀 쐬고 들어갈 테니까 집에 가라고 해. 알았지?”

“어, 제가,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그래, 그럼.”

점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한번 내뿜고 그대로 도로로 나가 골목으로 사라졌다. 지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서야 카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무거운 문을 느릿느릿 열자 여전히 손님은 없었다. 이제야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러나 구석에서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는 신입은 있었다. 지현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자기가 무어라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도 않았다. 신입은 들어온 지현을 보더니 문을 훌쩍거렸다. 점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는 듯 했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지현은 입을 다물었다. 신입은 입을 꼭 다물고 울음을 참았다. 그 이상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차라리 점장 욕을 했다면 같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라도 있었을 텐데.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사람이었다. 이걸 이렇게 자르면 안 되지 않나. 다른 걸 다 떠나서 법에 걸리는 일이 아닌가? 지현의 머릿속에서는 신입을 자신이 잘랐을 때의 상황과 점장에게 다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의적으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그랬다가 불뚱이 나한테 튀면 나도 잘리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도덕성과 인간적인 이기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답을 찾았다. 이번에도 아까처럼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점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늘도 그냥 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현은 스스로 뭐가 죄송한가?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떳떳했지만 그렇다고 심적으로 떳떳한 기분이 들진 않았다. 사람은 필요하면 어디까지고 움직이고 뻘뻘해질 수도 있구나. 별 필요없는 깨달음을 느끼고 지현이 슬쩍 그를 보았을 때, 신입은 울면서 앞치마를 벗었다.

지현은 신입이 유니폼을 벗고 나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부당한 처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후 이게 점장에게 큰 문제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도 이성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현은 못박인 듯 카운터의 포스기 화면만 보았다. 취직을 못 할지언정 아르바이트에서도 잘릴 순 없었다.

서호와는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 청약이든 대출이든 받아서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양가 부모님이 돈을 조금 보태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아 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래도 어디까지 되도록 손을 벌리지 말자, 가 서호의 의견이었다. 지현은 그런 서호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면이 마음에 들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집이 아니란 이야기였다. 결국에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의 지배 아래에 놓인다는 의미였고, 지현은 그게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어찌 발버둥치다보니 그녀의 최선은 카페에서 하는 평일 풀 타임 아르바이트가 되어 있었다.

1년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성격이 불같은 점장의 눈초리를 살살 피하며 일하는 방법까지

터득했다. 점장에게서 제일 오래 버틴 건 지현이 아니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카페에서 짬이 제일 긴 사람은 지현이 되었다. 지현은 늘 아침에 샷을 내리며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기를 결심했지만, 그 사이 이 반복 작업에 익숙해지며 안락함을 찾은 것도 사실이었다. 동네 카페라서 시즌마다 메뉴가 바뀔 일도 없고, 매장이 좁으니 청소할 것도 별로 없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점장은 성격이 좀 더럽다 빼고는 월급을 빼먹거나 미루는 일은 없었다. 지현은 그렇게 애써 안락함에 취해가며 수없이 들어왔다 그만두거나 잘리는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방관했다.

지현은 점심시간에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서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이번 달 혜화 연극 리스트였다. 지현은 스스로에 대한 죄악감이 들 때마다 혜화의 대학로에 가고 싶어 했다. 연극을 보고 있으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고, 지현은 자신의 오랜 꿈이 다시 살아나는 듯이 느껴졌다. 그래봤자 연극장의 문을 넘으면 그 꿈은 눈 녹은 듯이 다시 사라지고 다음 날에는 출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지현은 연극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돈이 없다면 길거리에 질리도록 호객 행위를 반복하며 할인하는 저렴한 연극이라도 들어갔다. 관심이 없는 내용이라도 들어갔다. 지현의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 내지는 고집 같은 것이었다. 현실에 눌러 당장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꿈은 놓지 말자고. 지현은 3년 재수를 했지만 예대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팬터마임도 한 대, 자기 그런 거 본 적 있어? 없지? 없으면 주말에 같이 가자.」

서호는 영 연극에는 흥미가 동하지 않았지만, 지현이 연극을 보고 와서 2시간 내내 늘어놓는 감상은 질린 기색 없이 들어주는 편이었다. 지현이 먼저 같이 보러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면, 보통은 지현 혼자 연극을 보러갔다. 서호가 굳이 연극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꼽자면, 두 명분의 티켓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서도 있고, 아무래도 주말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다. 비싼 돈을 내고 갔는데 좋아서 내용을 넘긴 적이 두세 번 있고 나서, 서호는 그냥 연극을 즐기는 것을 포기했다. 아무래도 자신과 안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서호는 지현의 문자를 받고 잠시 하늘을 멍하니 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 뒤에 지현은 전화를 받았다.

“어, 왜?”

지현의 발음이 어눌했다. 무언가를 씹고 있는 것 같았다. 서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손에 있는 캔 커피의 캔 따개를 검지로 튕기며 입을 열었다.

“그냥. 일 잘하고 있나 싶어서.”

“……큘, 웬일로 걱정을 다 하셔?”

입 안에 있던 내용물을 다 씹은 듯 지현은 헛기침을 하고 대답했다. 서호는 자꾸만 검지로 캔 따개를 튕겼다. 텅, 텅. 별 청량하지도 않은 조잡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다.

“별일은 없고?”

“나한테는 별일 없는데, 신입이 또 나갔어.”

“그만둔대?”

“아니, 잘렸어.”

지현의 말투는 무미건조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신입이 일을 얼마나 못했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고, 그러나 점장의 성격이 더 더러운 건 사실이고. 따위의 말이 이어졌다. 자꾸만 검지로 튕겨지던 캔따개가 탕,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서호는

캔커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다.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다.

“또?”

“응. 점장 성격 알잖아.”

확실히 서호 또한 지현에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는 있었다. 지현이 그 카페에서 제일 오래 일했다는 사실도, 지현이 여태까지 그 카페를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자신은 그런 곳에서 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현이 대단하게 여겨지기도 했었다. 자고로 사람이 좋지 않을 때 가장 일하기 힘든 법이니까.

“자기는 어때?”

“뭐가?”

“자기는 개가 뭐…… 안타깝거나 하진 않아?”

서호는 휴대폰을 고쳐 잡고 물었다. 그렇게 부당하게 잘렸는데, 지현은 무엇을 했는지,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가 궁금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고민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도 불쌍하지, 안타깝지. 근데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현이 내린 답은 그랬다. 젊으니까, 다른 직장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젊으니까 금방 채용해줄 것이고, 이런 시궁창같은 카페를 벗어나 더 좋은 일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현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신입에게는 잘된 일일 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젊은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아니, 그렇잖아. 개도 개 나름의 삶이 있을 텐데.”

“그거야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잘릴 순 없잖아. 나도 점장 성격 아는데.”

점장이 자신에게 오늘 무엇을 시켰는지, 지현은 낱알이 하나하나 서호에게 말했다. 거기서 더 열이 붙었으면 거의 애를 때릴 기세였으며 자신도 무서워서 말릴 수 없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만 거기서 말렸으면 자신도 덩달아 잘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개를 자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 결혼식도 끝이지 않느냐. 지현의 말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서호의 머릿속도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갔다. 이리도 이기적일 수가 있나. 서호는 헛숨을 들이켰다가 지현을 불렀다.

“지현아.”

“왜? 이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 자기는 이게 내 잘못 같애? 내가 잘리면 자기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

그녀를 쏘아붙이고 싶던 마음이 다시금 가라앉았다. 그녀의 말은 이기적인 것 같아도, 타인의 입장에서 혹은 그녀의 입장으로 상황을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서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서호는 먼저 꼬리를 내리기로 했다. 애초에 싸움으론 번질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러려고 전화를 건 것도 아니었다. 서호는 그저 지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었는데 모든 게 잘못되어 감을 느꼈다. 목소리를 들으려 했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걸지도 몰랐다. 평소에 잔잔하게만 느껴졌던 지현의 목소리가 정신을 교란시키는 노이즈 같았다. 여기서 더 이야기 해봤자 싸움만 날 것이 분명했다.

“아니, 아니……, 아니다. 그냥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따 봐.”

서호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파랬고 점심시간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었다. 괜히 지현이 보내온 문자를 위아래로 훑어 읽다가 땅에 내려놓았던 캔커피를 한 번에 들

이켰다. 혀끝에서는 천 원짜리의 맛이 났다.

서호는 남겨뒀던 반차를 냈다. 회사를 나와서, 낮 공기를 쐬고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일 낮임에도 지하철은 늘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다. 서호는 지하철 전광판을 찾고는 시계를 보았다. 다행히 지현이 보내준 목록에서 남은 시간이 있었다. 서호는 혜화로 향하기 시작했다. 3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서호의 소소한 행복 중에서는 3호선 환승이 있었다. 압구정에서 옥수를 향할 때 지하철을 벗어나 넓은 강과 하늘이 보이는 것이 좋았다. 유리에 반사된 햇빛이 따갑다. 서호는 손가락으로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햇빛이 강렬하고 따스해서 절로 눈이 시렸다. 눈물이 나니 콧물도 흐르는 것 같았다. 서호는 훌쩍거리는 소리로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아냈다. 밖으로 나가서 다리에서 바람을 쐬고 싶었지만, 지하철 안에서 나갈 수는 없었다. 서호는 그저 자리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았다.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귀를 맴돌았다.

우리 회사 요즘 힘든 거 너도 알잖아.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힘들고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넌 아직 젊기도 하고……. 상사에게 그 말을 듣고 서호는 순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회사 힘든 건 알지. 근데 나는? 나는 안 힘든나? 젊다고 뭐 다 되나? 젊으면 다 극복할 수 있나? 그럼 내가 잘린 이유가 그냥 젊어서? 서호는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상사는 서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냥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고.

혜화에 도착하자 서호는 지현이 보내준 리스트를 읽으며 시간이 맞는 가장 가까운 극장으로 향했다. 대학로는 서초구보다 더 붐비고 있었다. 공연 시간이 다가와서인지 여기저기 줄을 서 있는 곳도 종종 있었다. 서호는 그 사이에서 정장 차림인 자신이 어색하여 괜히 어깨를 움크리고 걸었다. 거리에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녀가 대다수였다. 공연이고 자시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 몸을 숨기고 싶었다. 호객꾼이 잡으면 잡히고, 이끌면 이끄는 대로 걸었다. 하는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달라는 돈을 지불하고는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불이 꺼지기 전까지 서호는 멍하니 빈 무대를 쳐다보았다. 이 공연이 무슨 공연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분명 호객꾼에게 방금까지 무어라 들은 기억은 남아 있지만 구체적이진 못했다. 어쨌든 그게 서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 끝에 견고한 벽이 있었다. 서호는 무대 위에서 말없이 몸을 움직이기만 하는 연기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투명한 벽을 손바닥으로 매만지며 길을 찾고 있었다. 거기에 분명 벽 같은 건 없다. 적어도 서호의 눈에는 그랬으나, 연기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주먹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두드리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옆으로 발을 움직였다. 길게 늘어선 벽을 더듬고 더듬어 벽의 끝을 찾았다. 돌고 돌아, 잃어버렸던 엄마와 만나는, 그런 연극이었다. 그저 연기자가 막다른 길을 더듬기만 하는, 그런 단조로운 연극. 연극의 주인공은 엄마를 만나고 나서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얼굴로 울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이마와 턱의 주름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얼굴로만 울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져서 서호는 덩달아 숨을 죽였다. 기침이나 코를 훌쩍이는 자잘한 행동으로 연극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연기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엄마를 끌어안고 얼굴로 우는 그의 표정은 깊이가 있었다. 대사가 없어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 너무 힘들었어. 연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연기자가 엄마의 품에 안겨 쓰러지고 엄마는 연기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무대 한가운데서 주저앉은 둘은 어두운 조명이 내려앉으며 서서

히 보이지 않게 됐다.

서호가 팬터마임을 본 것은 지현의 말대로 이번이 처음이었고, 충동적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몰입한 나머지 구겨진 티켓이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다.

서호는 연극이 끝난 뒤 홀로 극장을 빠져나왔다. 서늘한 겨울의 냄새가 났다. 코끝과 귀가 시릴 정도로 걷다 보니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배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호는 대사 한마디 없이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괜히 자신의 안면근육을 연극의 한 장면을 따라 하듯이 움직여보지만, 추위에 얼어버린 피부는 부드럽다기보다 뼈격거리는 것에 가까웠다. 공연을 보고나면 밤이 내려앉았다. 지현이 집에 와있을 시간이었다. 서호는 길을 돌고 돌아 집으로 향했다. 들어가면 지현에게 무어라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싶었지만, 뽕족하게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하다못해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을.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지현이 자신을 한심하게 보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지현을 상상하면 그것도 뭔가 아닌 느낌이 들었다. 여태까지 해온 사랑이 오늘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었다.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서호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서호가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집 안의 불빛은 환했다. 눈이 부셨다. 눈이 따가운 것도 같았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서호는 그 앞에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해보았다. 문고리가 없다고 생각해보았다. 문고리가 없는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이곳은 벽이다. 벽뿐이었다. 서호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이런 벽을 더듬어 집을 한 바퀴 빙 돌았다. 돌고, 또 돌았다. 아무리 더듬고 돌아도 주인공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사면이 벽인 집. 집은 서호를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 문고리 하나만 뺄어주면 됐을 텐데, 하다못해 창문이나 다른 문을 열어주기만 했어도 되었을 텐데. 아무리 더듬어도 구멍을 찾을 순 없었다. 서호는 끊임없이 돌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도 도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돌다 보면, 그 주인공과 같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이 사랑하던 지현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울고 나면, 커튼콜이 올라오고 시련이 끝나고 울었던 날이 과거가 되고, 서호는 원래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얼른 출구를 찾아야 했고, 자세를 낮춰서 바닥에 가까운 벽까지 더듬던 차에 바깥으로 나온 지현과 마주쳤다.

“자기 아까부터 자꾸 뭐 하는 거야?”

서호는 지현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괜히 벽을 쓸어내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들어갈 길을 찾고 있었어. 들어갈 길을…….”

서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입 밖으로 뱉지 않았다. 지현은 눈동자를 몇 번 굴리다가 서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지현의 손바닥이 서호의 이마에 닿았다. 열은 없었다.

“아까부터 왜 그래?”

지현이 묻자, 서호는 대답 대신 얼굴로 울었다. 이런 기분이었을까. 서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지현만큼은 의미를 알아주기를 바랐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아주길 바랐다. 그래서 계속 표정으로 울었다. 머릿속에서 주인공의 얼굴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껍떡됐다. 그러다보니 배우와 다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비친 형광등의 불빛이 눈앞에서 일렁이고, 지현의 얼굴도 일렁였다. 서호의 세상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세상에는 지현과, 자신과, 벽만이 남아있는 듯 했다. 출구 따윈 없는 삶이 없을 리 없는데도. 오늘의 자신은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얼어 죽어가는 쥐 한 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까지 했다.

한편 지현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한 표정을 짓는 서호를 보고 경악했다.

“너 어디 아프니? 아파?”

지현이 걱정스러운 어투로 서호의 등을 두드렸다. 서호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빌어먹을 주택을 쳐다보았다. 결국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결국에는 자신이 자리할 곳도 없는.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서호는 팔과 등을 지탱하고 있는 지현의 몸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소리가 멀어지고 비로소 지현마저 하나의 벽으로 변해버리면 서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호의 발끝이 견고한 벽을 향했다. 연극에서 보았던 주인공을 곱씹으며 하얀 페인트로 둘러싸인 벽을 양 손바닥으로 짚었다. 벽을 따라 걷다보면 같은 자리에 벽으로 변한 지현이 우뚝 서있었지만 서호는 이제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자신도 벽의 일부가 된 것처럼…….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일이 오면 집 옆에 죽어있는 생쥐 한 마리가 있을지도 모르지. 서호는 시선은 땅을 보고 손으로는 필사적으로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서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입동

인문학부
20221080 이혜은

1

누군가에게는 자식처럼 소중했을 배추 여러 포기가 초록색 망 안에 담긴 채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다. 이미 추수를 끝낸 밭에는 검정 콩대가 짙단처럼 쌓여 있었고, 딛고 서 있는 땅이 조금씩 굳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올해 겨울의 공기를 힘껏 들이마셨다. 가슴이 위로 부풀면서 차가운 공기가 코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폐로. 온몸을 순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들이마시고 남은 찌꺼기 같은 숨을 후, 소리를 내며 뱉었다. 공기를 맛본 사람처럼 입맛을 다시자 씹싸름하면서도 아린, 생강 비슷한 맛이 입 안을 맴돌았다.

2

엄마는 바닥에 앉아 끈적한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는 풀을 휘젓고 있었다. 나는 한기가 느껴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녹슨 못에 위태롭게 걸려 있는 달력을 바라보았다. 특정 숫자 위로 여러 번 반복하여 그려진 빨간색 동그라미가 곧 스프링처럼 눈 앞으로 튀어오를 것만 같았다. 나는 건조해진 입 안에 침을 만들어 가며 억지로 마른 입술을 붙였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현관 쪽으로 돌아서서 돌다리를 건너듯 널브러진 신발들을 즈려밟고, 문 앞에 세워져 있던 배추망을 끌어 집 안으로 들었다.

엄마는 쥐고 있던 주걱을 나에게 건네며 마저 저으라고 말했다. 내가 풀을 휘젓는 동안 엄마는 호스를 연결한 수도 손잡이를 비틀어 열고, 배추 이파리 사이에 달라붙어 있는 흙먼지를 물에 흘려보냈다. 배추 손질을 마친 엄마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가로 가져가 따뜻한 숨을 불었다. 물이 많이 차가웠던 것인지 엄마의 눈시울이 조금 붉어진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저런 식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입동, 겨울을 맞이했다.

나는 가스 버너를 끄고 나와, 서늘한 공기가 가득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로 깔고 앉을 돛자리를 걷어차듯 발로 툭툭 건드렸다. 엄마와 나, 둘이 앉기에 충분할 정도로 돛자리를 펴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티슈를 꺼내 돛자리 위에 늘러붙은 작년 입동의 흔적들을 하나씩 떼어내었다. 흰 티슈 위로 빨간 고춧가루가 자잘하게 팔려나왔다. 숨을 내쉬자 뿌연 입김이 눈 앞을 가렸다가 금세 흩어졌다. 나는 다시 보게 될 입동의 장면들을 애써 모른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티슈를 다시 주머니 속에 묻쳐 넣었다.

엄마는 배추와 소금물이 담긴 고무 대야를 품에 안고 내가 있는 비닐하우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숨이 덜 죽은 배추는 그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고무 대야 위로 살짝 보이는 엄마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다. 엄마는 대야 속 위태롭게 찰랑이는 소금물과 몸을 잔뜩 웅크린 나를 번갈아 보면서 퍼놓은 돛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따 네 오빠가 올 수도 있으니까 더 넓게 퍼 뒀.”

전부 펼치고 나면 성인 열 명은 앉고도 남을 큰 돛자리였다. 나는 엄마의 말에 돛자리를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마저 퍼는 척을 했다. 엄마는 흙바닥에 대야를 천천히 내려놓고 한 손으로 허리를 쥔 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거의 팔뚝까지 올라오는 김장용 고무장갑을 손에 끼었다. 애써 잊고 있었던 작년 입동의 기억이 흐물하고 차가운 고무장갑을 통해 전송되고 있었다. 순식간에 팔 위로 소름이 돋았다. 한 뼘 거리에 있던 양념장을 열고 숨이 죽은 배추가 들어있는 대야를 발로 걷어차고 싶었지만, 감정 표현이라곤 눈시울만 붉히는 게 다인 엄마가 떠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아래로 축 늘어진 노란 배추 꼭지를 잡고, 빨갛다 못해 팔색 같은 양념장을 그 속에 쑤셔 넣었다. 나는 흥얼거리면서 피를 딱칠한 듯한 배추들을 하나씩 만들어냈다. 음정들 속에는 김장의 즐거움 같은 건 섞여 있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진정하고 싶었다. 아까 전, 양념장과 고무대야를 엮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였다.

3

현관문이 열렸다. 결이 살아있는 소고기 뭇국과 육전, 고사리 볶음 같은 고소한 냄새가 내가 있던 비닐하우스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음식 냄새를 가득 담은 후덥지근한 공기 때문인지 제사 느낌이 물씬 풍겼다. 엄마는 다시 무언가를 품에 가득 안고 비닐하우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은 노란 배추를 가로채듯 잡았다. 그 바람에 소금물이 눈가에 튀었다. 아. 배추가 들려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반사적으로 그 손을 눈가에 가져다 대었다. 순간 물건들이 마구 부딪히며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두 눈을 꼭 감은 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 않았다.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애도 참. 그렇다고 배추를 바닥에 던지면 어떡해.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에서 나는 두둑 소리와 함께 엄마의 신음이 짧게 이어졌다.

엄마는 김치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굴었다. 김치 냉장고를 사면 팔려 오는 김치통이 수십 개가 나올 만큼 배추를 절였고, 나는 이맘때마다 엄마가 있는 이 시골집으로 와 배추들과 씨름을 했다. 그동안 엄마는 제사 음식을 만들었고, 제사 준비를 마치고 나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김장하는 일을 도왔다.

나는 눈물을 조금 흘리다가 실눈을 떴다. 크기와 소재가 다양한 통이 엄마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엄마는 통이란 통을 품에 안고 오다가 내 손에서 떨어지는 배추를 보며 손을 뻗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추를 구한 대가가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저 김치통들인 것이다.

연찬아, 김장하는 중인데 시간 나면 가지러 와. 뭇국 했는데 그것도 먹고 가고.

엄마는 몇 안 되는 글자를 썼다 지웠다 하더니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내 옆에 앉았다.

엄마는 돗자리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 고무장갑을 끼지 않은 채로 아까보다 더 거무죽죽해진 것 같은 양념장과 배추 속에 손을 쑥쑥 집어넣을 뿐이었다. 손톱 사이로 들어간 양념 때문에 손이 맵고 아릴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항상 저렇게 김치를 담구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조금은 미련해 보였다. 그리고 엄마는 휴대전화 알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엄마는 김장 중간중간 울리는 휴대전화 알람에 빨간 양념이 엉겨붙은 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애써 팔꿈치로 화면을 두드렸다. 기다리고 있는 김연찬의 연락 대신 *(광고) 주식 관련 문의, 1분만에 답장* 같은 광고성 문자들만 엄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다. 엄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창피하고 머쓱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고는 다시 김장에 집중했다. 그 웃음 끝엔 씩씩함과 쓸쓸함이 함께 남았다.

나는 김치통을 집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고무장갑을 벗었다. 눈 앞에 커커이 쌓아놓은 김치통은 아슬아슬한 빌딩처럼 보였다. 배추 여러 포기를 썰어넣은 김치통은 제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배추들의 원망을 대신 분출하듯 양옆으로 끓어올랐다. 엄마는 우리 먹을 것만 빼고 남은 김치를 전부 비닐하우스 앞에 두라고 말했다. 우리의 입동 김치는 네 통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엄마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닐하우스 앞에는 아까보다 키가 조금 더 작은, 그렇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빌딩이 만들어졌다.

4

얼굴 곳곳에 아직 김치의 매운 향이 가시지 않은 듯 눈을 비벼대던 엄마는, 벽에 걸려 있던 아빠의 사진 액자를 떼어내었다. 그리고는 액자 유리 위에 입김을 불어가며 마른 천으로 먼지를 닦았다. 나는 엄마와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앉아 옆에 있던 허름한 사과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신문지로 쌓여진 제기가 정리되어 있었다. 다물고 있던 입을 마침내 열었다.

“엄마, 이제는 제사 음식 간소하게 하자. 음식 만드는 거 엄마도 힘들잖아. 제사 끝나고 나면 먹을 사람도 없고.”

내가 제기를 다 꺼내 놓는 동안 엄마는 아빠 사진을 닦던 손을 멈추지도, 내가 있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언제 와?

수취인 칸에는 김연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올해 초, 오빠 김연찬은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김연찬은 나에게 엄마가 있는 시골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연찬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모를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있었다.

“엄마, 얼른 자리 잡아서 모시고 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뵙게요.”

나빠진 청력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엄마는 작은 보청기를 쓰다듬으며 배터리를 갈고 있었다. 내가 서 있던 현관에서는 보청기를 손에 쥐고 있던 엄마와 아래로 떨어진 김연찬의 뒤통수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김연찬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홀로 남은 엄마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쓰러운 마음에 짧은 몇 달 동안은 그 모습이 잔상처럼 남기도 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그러니까 엄마와 나, 김연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가볍게 한 끼를 함께했다. 그리고 그 끝엔 항상 같은 장면이 결말처럼 따라붙었다. 김연찬이 엄마 손을 붙잡고 중얼거리면서, 엄마 제가 자리만 잡으면 엄마 모시고 살 테니까……, 라는 대사를 읊는 장면. 그 문장은 중얼거리는 데다가 낮은 목소리로 발음하는 탓에, 보청기를 껴도 해도 여전히 안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 전달되는 것은 무리였다. 엄마는 김연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되묻거나 하지는 않았다. 김연찬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엄마의 표정은 그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엄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연찬도 아닌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는 나만 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김연찬이 한 말을 정확한 발음과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당한 목소리 톤으로 전달했다. 그제서야 정확히 이해한 엄마는 김연찬의 손을 포개어 잡으면서 아빠와 살던 그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가겠다고, 결혼한 김연찬보단 미혼인 내가 오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나의 말이 감독의 컷 사인인 것마냥 항상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도, 김연찬도 내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딱히 말을 덧붙이거나 하지 않았다. 둘 다 그냥 순응했다.

5

애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사 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아마 한 시간 뒤면 도착할걸.

언제 오냐는 나의 물음에 온 김연찬의 답장이었다.

엄마한테 연락해. 엄마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

제기 위에 음식을 세팅하고 있던 엄마는 번쩍이는 휴대전화에 다시금 시선을 두었다. 알람을 확인하더니 이내 엄마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오늘 하루종일 본 엄마의 얼굴인데도, 그 순간엔 왠지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둠이 곳곳에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아빠 제사 준비를 마친 엄마와 나는 이번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을 여러 번 닦고, 탈취제를 뿌렸는데도 섬유 조직 사이 사이에 밴 김치 냄새는 토가 쏠릴 정도로 역했다. 저녁 11시, 난방을 틀었는데도 한기가

돌던 거실에는 괘종시계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정한 속도와 크기로 울리는 세 번의 탁한 종소리는 대화가 없는 집안의 고요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엄마는 김연찬이 오는 데 차가 막히는 것 같으면서 다음 종소리, 그러니까 자정까지만 기다리자고 말했다. 김연찬이 한 시간 정도 걸린다던 문자를 보내왔던 건 저녁 8시쯤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 앞에는 호박전, 동태전, 뭇국, 나물, 배, 약과, 한과 같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나와 엄마는 거실에 앉아 그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발끝이 시렸다. 아빠 앞에 있던 음식들도 온기를 잃은 지 꽤 오래된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빠가 있는 그 방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다. 향을 피우면 생기는 뿌연 연기 때문인지 향냄새를 품은 기체의 이동과 속도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자신의 영역을 천천히 넓혀가던 기체는 금세 거실을 덮칠 것만 같았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찌면 저 기체들이 엄마와 내가 있는 이 집, 마당, 비닐하우스, 덮쳐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기체에게 잡아먹혀도 슬퍼하거나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머물다 간 빈 부지를 보며 저기에 뭐가 있었더라, 하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금세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라는 물음으로 바뀌진 않을까. 엄마보다 내가 먼저 잡아먹힌다면 엄마 또한 날 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본질조차 그 기체 속에 희석되고, 또 희석되어서 결국 모두가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출발하지도 않고 온다는 말로 변명하던 김연찬은 뒤늦게 나타나 비닐하우스 앞에 세워둔 김치 빌딩들만 차에 싣고 떠날지도 모른다.

엄마가 말한 자정, 다음 날이 되었지만 괘종시계의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몇 달 전, 감아놓은 태엽이 다 돌아가 소리가 나지 않는 듯했다. 엄마도 그 사실을 짐작한 것처럼 보였지만, 말없이 타인의 발걸음이 오가지 않은 그 방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아빠가 있는 방 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꽂아둔 향이 다 타서 재가 되고 더 이상 붉은빛이 보이지 않게 되면, 엄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새 향을 꽂고 빠져나왔다. 까치발을 하고, 아직 제사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듯 최대한 넓은 보폭으로. 닫혀버린 창문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 향 연기는 계속해서 집 안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금방 흩어지는 입김이 아니라 뿌연 연기가 거실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개그맨

사학전공
20163539 임찬휘

생활 보호사로 일하게 된 것은 게으름 때문이었다. 휴학을 하고나서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 하루를 낭비해가던 내게 신경정신과 병원은, 부모님의 잔소리로 인해 고통의 장소가 된 집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진료접수를 하고, 투박한 휴대전화로 소설 공모전을 검색했다. 크게 눈에 띄는 공모전은 없었다. 화장실을 가려는데, 나를 불렀다. 진료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책상 앞으로 갔다. 원장 선생님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다. 늘 보는 사주 관련 사이트겠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문을 닫는다. 그제야 원장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았다.

“왔니?”

사무적인 말투. 2년을 넘게 다닌,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듯, 진단서를 슬쩍 본다.

“어땠니?”

‘니’가 끝나기도 전에 주절주절 떠들었다. 늘 똑같다. 시간이 일본 정도 지났을 때, 시계를 흘끗 보는 게 느껴졌다. 지겹겠지. 어차피 나도 약간 받아 가면 그만이다. 자리에서 엉덩이를 슬쩍 때리는 게 느껴졌다. 나도 갈 준비를 하고 서서히 일어나며,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원장 선생님이 다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는 묻는다.

“너 우리 병원에서 일해 볼래?”

천천히 말했다. 입원 병동에서 요양 보호사를 도와서 일하는 생활 보호사가 있는데, 핑크를 자주 낸다고.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농담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서점에 들러, 베스트셀러 목록을 훑는다. 죄다 순문학 단편집이다. 만만해 보이는 판타지 소설을 구매를 하려다가, 주머니 사정을 깨닫고, 버스비라도 아끼기 위해 천천히 걸어갔다.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가서 노트북 앞에 앉는다. 밖에서 알바 사이트 좀 보라고 잔소리를 해댔다. 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인데 휴학까지 했으면서 구하는 시늉도 안하고 있었으니, 못마땅했겠지. 나는 한 귀로 흘리며 10년 넘게 구상한 판타지 소설을 손보고 있었다. 1년 전 소설을 완성했을 무렵, 신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출판사에 보내봤지만 전부 퇴짜 맞았다. 스토리도 괜찮고 나름 표현도 괜찮은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언제나 그렇듯이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불렀기에 ‘이때다’ 하고 거실로 나왔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원장 선생님이 일한다고 해서 연락하라 했다고, 난감했다. 알바를 할 생각은 쥐뿔도 없었기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눈칫밥이나 먹으며 일 년을 허송세월로 보낼 생각이었다. 난 정말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핑계를 대며 거절하려 했지만, 집 전화는 낡은 주제에 음질이 좋았다. 게다가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었기에,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천천히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몇 주만 일하고 그만둬야겠다.

이것저것 캐묻는 부모님께 내일부터 출근이라고 전하고 방으로 되돌아왔다. 소설을 수정하

려다가, 내일부터 일을 해야 하니 놀았다. 막상 노는 거라고 해도, 사진 찍는 게 전부였지만.

10시가 지났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저번처럼 잘리면 어떻게 하지? 억지로 잠에 들었지만, 금방 깨버렸다. 수없이 반복하자 해가 떠올랐다.

침대에서 나와서 양치를 했다. 잇몸이 많이 내려 앉아있다. 담배는커녕 술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고양이 세수를 하고 눈곱을 대충 떼어낸다. 평소라면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않을 테지만, 나는 이제 돈 버는 입장이니 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과 찌개에 찬밥 한 덩이를 먹고 다시 양치를 했다. 준비를 끝내니 8시 정도 되었다. 이제 슬슬 나가야겠다. 거울을 보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다.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니, 병원이었다.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온듯하다. 상관없다. 남는 게 시간뿐이니. 병원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내자 간호사들이 출근했다. 나를 알아본 듯,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원장 선생님 안계세요.”

“그게 아니라 알바 때문에 왔어요.”

모르는 눈치였다. 농담이었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좋았지만, 다른 간호사가 와서 나를 입원 병동으로 안내했다. 항상 궁금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던 곳. 화장실의 맞은편 문을 열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외부가 보이지 않는 복도가 보였다. 간호사가 나를 창문으로 뚫려있는 원무실로 안내하고 도로 나갔다. 예전에 몇 번 봤던, 간호사 Y가 커피를 권했다. 커피에 시선을 맞추고 주위를 관찰했다. 정신병원 입원 병동은 뭔가 다를 줄 알았지만, 그리 심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한 아주머니께서 들어왔다. 간호사 Y가 요양보호사 Z라고 소개했다. 요양 보호사 Z는 나에게 선생은 뭐하다가 왔냐고 묻는다. 선생? 난생 처음 불리는 호칭에 당황스러웠다.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알바로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덩치가 큰 남성 간호사가 들어온다. 나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남성 간호사도 내 이름을 알고 있지만 선생이라고 호칭했다. 서로를 존중하자는 의미인가? 차마 앞지는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들었다.

보름이 지났다. 서로를 높이 칭하는 이유가 환자들이 만만히 보지 않기 위해서임을 깨달았다. 생각보다도 더 할 일이 없었다. 일주일에 한번 환자들을 샤워 시켜주고 그 외에는 잡다한 심부름이 전부였다.

나는 요양 보호사 Z를 도와 1호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병실에서는 요양 보호사 아주머니를 Z여사님이라 칭했고, 나는 선생님으로 불려졌다.

병실은 양쪽에 4개의 침대가 있는 8인실이었는데 환자는 총 4명이었다. Z여사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더 많은 환자가 있었으나, 요즘은 비싼 병원 대신 요양원으로 옮겨 가는 추세라고 했다. 환자는 아예 걷지 못하는 3명과 거동은 가능하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Q가 전부였다.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도 제각기 이유가 달랐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지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Z여사님의 말 때문이었다. 환자는 거짓말을 한다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하면 상처 받을 거라고. 실질적인 이유는 나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고. 그들에게 굳이 관심을 줄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고객이었고, 난 서비스업 종사자였다.

P를 만나기 전에 이 일을 통해 배운 점은 한가지였다. 바로 '저들보다는 낫다는 안도감', 다시 말해 남의 불행을 통해 깨닫는 작은 행복이었다. 나보다 밑바닥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로

행복해지는 기이함. 아마 거기서 내 오만함을 눈치챈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남들보다 낫다는 사실은 내게 활력을 주었다. 왜냐면, 난 항상 밑바닥 사람이었으니까.

일하게 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출근과 퇴근 시간이 두 시간 앞당겨졌다. 아침잠을 포기하니, 더 일찍 잠들게 되었다. 일이 끝나면 글을 쓰려했지만, 쉬고 싶었다. 오늘이라도 써야지. 마음을 다잡고 타자기를 두드렸다. 저번에 투고한 출판사에서도 답장 메일은 없었다. 누군가 이 판타지 소설을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인터넷에 올렸다가 욕먹으면 그걸로 포기하게 될까 두려웠다. 소설책도 많이 읽고, 글쓰기 책도 많이 봤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볼까? 올분으로 헛소리를 쓰다 지웠다 반복했다. 결국 아무것도 수정하지 못하고 저녁 즈음이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부모님께서 천천히 이야기하셨다.

“돈 좀 모아서 학비로 써.”

“내년에 용돈으로 쓸래요.”

작년에는 부모님께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모아둔 돈을 쓰며 살았기에, 이번에 돈을 모으고 싶었다. 아버지께서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힘들어. 너도 내년에 복학하면 용돈 줄게.”

나는 이것저것 따지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성이 높아졌지만, 나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럴 거면 왜 낳았어? 왜? 좇같은 새끼들한테 욕 처먹고 똥이나 치우면서 힘들게 돈 버는데! 버스비라도 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자질구레한 돈도 다 내게 하면서! 그리고 나 아직도 약 먹고 있어! 나도 환자라고!”

그 말을 끝으로 조용해졌다.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올분을 풀었다.

배차간격이 긴 버스를 타야 해서 서둘러 준비했다. 어젯밤 일로 부모님께 말 걸 용기가 나지 않아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덥혀서 우물거리며 삼켰다. 다양한 음식들을 동시에 넣어서인지, 아니면 어제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너무했나? 아니야. 난 잘못 없다. 난 정당하게 말한 것뿐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쌍욕을 퍼부었다. 듣길 바랐지만, 듣고도 무시하는 듯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병동으로 향했다. 오늘은 제발 Q가 난동을 부리지 않길 빌었다. 이제 Q의 얼굴만 봐도 성이 났으니까. 초인종을 천천히 눌렀다.

“누구세요?”

“저예요.”

그 말에 문이 열린다. 여기서 난 무명의 선생이었고, 다들 무명의 간호사와 영양보호사였다. 그편이 나았다. 인간 이하의 존재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긴 싫었으니.

1호실로 들어가자, Q가 보였다. 부모님과 싸운 게, 다 저 인간 탓으로 느껴져서 짜려보았다. Z여사님께 인사하려는데, 빈자리였던 침상에 사람이 있었다. 환자가 침상을 바꾸는 일도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게다가 다른 환자들과 달리 젊은 30대 후반 정도였다. 또 다른 생활보호사인가? 나의 궁금증은 커졌다. 멍하니 그를 보자 Z여사님이 설명해주신다. 원래 알코올중독자 병동에 있던 사람인데, 어제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 내려왔다고 했다. 일이 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부터 그 환자를 데리고 복도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라고 했다. 그제야 침대에 적힌 그의 이름을 확인했는데, P였다.

그를 부축하려는데, 스스로 일어났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Z여사님께서서는 혹시 모르니 같이 다니라고 했다. 그는 동한 표정으로 터벅터벅 걸으며 멈춰 섰다.

“내 일정이 어찌되지?”

그가 건넌 첫마디였다. 다행히 의사소통은 가능한 듯 보였다.

“저하고 같이 복도를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게 끝이구나,”

뭔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후에도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과장된 몸짓으로 일부러 넘어졌다.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원래 개그맨들은 아파도, 슬퍼도 웃는 척하는 광대니까. 카메라에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

“카메라요?”

그보다, 개그맨이나 광대라니? 그가 CCTV를 가리키더니, 밀착해 귓속말을 했다.

“요즘은 관찰 예능도 이런 몸 개그를 해줘야 해.”

관찰 예능?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지금 어디신지 아시죠?”

“내가 데려오고 모르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카메라 의식하지 마. 편집하는 거 귀찮을 테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나저나 H는 언제 오니?”

H의 이름을 들었을 때야, 얼핏 감을 잡았다.

“이게 무슨 방송이었죠? 그리고 성함이?”

그가 한숨을 푹 쉬었다.

“너도 첫 예능이라 어색한 건 알겠는데. 넌 내 매니저잖아. 왜 모르는 척 해? 나 개그맨 P야.”

머릿속으로 차례차례 정리했다. P가 사는 세상은, P가 개그맨인 세상이고, 지금 매니저와 동반 출연하는 예능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매니저는 나다. 일단 맞춰 줘야겠구나. 너스레를 떨었다.

“당연히 알죠. 방송 분량 뽑아 드린 거예요.”

그가 씩 웃었다.

“너도 방송 욕심 많구나. 요즘은 코디나 매니저도 뽕뽕 터트려서 잘되는 경우가 많으니, 노력해 봐.”

웃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싱긋 웃었다. 사실 그의 세상에 맞출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세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아마 당시에 그를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치부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그는 Q와 떨어져 있기 좋은 핑계였으니.

“코디님 옷 좀 가져와주세요.”

Z여사님이 새 옷을 가져다주었다. 보통 환자들이 입는 주황 옷과 달리, 다른 병원에서 입는 하얀 옷이었다. 세탁물을 수거할 때 흘러 들어왔다고 했다. 옷을 입은 그는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관찰 예능을 계속했다. 오늘은 농촌으로 와서 내 친척들을 돕는 거였다.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 이끌더니 침울해했다.

“요즘 내가 인기가 없나 봐. 원래 개그맨들은 아파도, 슬퍼도 웃는 척하는 광대지만.”

그가 한숨을 푹푹 쉬며 말했다. 그는 개그 코너에서 대박을 내고, 예능으로 진출했지만, 슬럼프에 빠졌다. 스스로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자학개그를 했다.

‘원래 개그맨들은 아파도, 슬퍼도 웃는 척하는 광대니까.’

그의 대표적인 유행어라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이 말은 들어갔다.

“요즘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어. 몸 개그만 반복하니 재미가 없는 거야. 뭔가 따듯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려나?”

“노이즈 마케팅은 어떠세요? 정치인들 보고 네놈들이 더 개그맨 같다고 하시는 게.”

P는 옳다구나 하고, 나를 칭찬했다. 그에게 인정받아봤자 좋은 건 없었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앞으로 떨어지는 일거리가 훨씬 줄었다.

“역시 네 입담은 장난 아니야. 하지만 노이즈 마케팅인 경우 잠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결국 한순간이야. 그리고 개그맨은 특정 집단을 건드려서는 안 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 더욱!”

그러면서 데즈카 오사무의 작가 3원칙에서 따온 개그 3원칙과 자신의 개그 철학을 말했다. 한 귀로 흘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듣다 지친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토론은 어떠세요?”

“토론?”

“다른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 분량 뽑기로 시작한 코너가, 정규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한 번 해보는 거죠.”

그의 눈동자가 심상치 않았다. 왜지? 잘못 말했나? 갑자기 그가 내게 악수를 청했다.

“야! 너 아이디어 좋다. 여기에 가방끈 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데 누구하고 하지?”

P는 간호사들을 촬영 스태프로, 다른 환자들을 어린아이로 보았기에 마땅한 토론 상대가 없었다.

“카메라 감독님은 어떠세요?”

간호사들 중 나이가 가장 많고, 친절한 Y선생님을 지목했다.

“아무리 못해도 PD님은 그냥 이기지. 가방끈이 길긴 하지만. 나보다는 많이 못하실 거야.”

P는 Y선생님께 토론을 신청했다. Y선생님이 정하신 주제는 외계인의 존재유무였다. P는 익살스럽게 말했다.

“외계인은 없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후에 몇 마디 나누더니 침울해졌다.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Y선생님을 지목한 건데. 바쁘신가 보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이 정도면 방송 분량 충분히 뽑혔겠지?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했어.”

네, 그렇다마다요.

“꼬마 친구하고 토론하시면 방송 분량을 더 뽑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요?”

“나쁘지는 않네. 그런데 난 이번에는 토론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미 충분히 웃겼다고.”

나를 슬쩍 쳐다본다.

“너 나하고 토론해볼래? 매너저하고 토론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

귀찮은데. 그래 안 될 이유도 없지. 고개를 끄덕이자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나도 그를 따라했다.

“PD님이 사회를 봐주실 거야.”

Y선생님은 바빠 보였지만, 그럴듯한 주제 하나를 던졌다.

“희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토론해 보세요.”

P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게 슬쩍 물었다.

“넌 뭐할 거야?”

먼저 정했나 보군.

“전 나중에 고를게요.”

“그래? 난 희망이 좋은 거라고 할게.”

“그럼 전 나쁘다고 할게요.”

“우선 판도라의 상자 알지? 모든 부정적인 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불행해졌지만, 희망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나오잖아.”

“그런데 좀만 다르게 생각해봐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끔찍하면 마지막에 있었겠어요.”

P가 슬쩍 미소를 짓는다. 평소에 볼 수 없던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개그도 좋지만 이번만큼만 진지하게 해줘. 다시 할게. 희망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버텨내잖아.”

그의 말이 끝나자, 잠깐 사이에 생각해둔 니체의 명언을 내 생각마냥 그대로 말했다,

“그래서 나빠요. 헛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절망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잖아요.”

P는 반박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끝내 반박하지 못했다. 난 그보다 잘났다는 우월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 정도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였겠지.

“너도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해볼래?”

Y선생님이 말했다.

“왜요?”

“은근히 적성에 잘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 얼마 뒤에 실습도 온다고 하니. 한번 물어봐.”

“간호조무사는 힘들지 않아요?”

“대형 병원에서는 그렇지. 소규모 병원은 괜찮아.”

“차라리 수능을 다시 쳐서 간호학과를 갈까요?”

그러자 조용해졌다. 하긴 내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다니는 대학도 운이 좋아서 합격했으니. 한편으로는 Y선생님에게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조금 섭섭했다.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 만약 이쪽으로 취직을 한다면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간호조무사 출신 소설가보다는, 간호사 출신 소설가가 더욱 나아보이니까. 환자들에게 중식 배식을 끝내고, 여기서 일하는 삶을 생각해 보았다. 그저 그런 대학을 다니는 내게, 특별한 스펙은 필요하다. 어차피 길게 일하지 않을 거면, 간호조무사도 낫겠지. 한 번 알아 봐야겠다. 머릿속에서 책이 팔리는 상상을 하는데, Z여사님께서 옥상에 빨래를 널러간다고 했다. 대부분의 세탁물들은 외주 업체에 맡기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기에 직접 빨래를 했었다.

“P님은요?”

“나하고 같이 갈 거야.”

Z여사님은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 주었는데, 오늘은 P 차례였나 보다. 다른 환자분들에 비하면 정상적이었으니 무리는 아니지. 환자들을 천천

히 훑어보았다.

Q는 역제대에 묶인 채로 나를 노려봤다. 환자들.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숨 쉬 듯 욕설과 한탄을 내뿜었다. 초창기에 그들의 욕설에 상처 받았지만 무덤덤해졌다. 그들은 그런 존재니까. 그게 그들의 전부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보다 더 잘난 존재니까.

Z여사님과 P가 돌아왔다. 슬슬 퇴근준비를 하라고 했다. 슬슬 옷을 환복 하려는데, P가 다가오더니, 명언들을 나열했다. 아마 토론이 정식 프로그램이 되었나보다.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했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더 낫다.’ 나는 동의 하는데, 넌 어때니?”

답은 정해져 있고 나는 말을 해야 했다.

“전 반대요.”

P는 옳다구나 하고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퇴근시간이 별로 남지 않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현재에도 영국 음식은 맛없기로 악명 높죠. 빵 세 개 쌓아두고 빵 샌드위치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이런 말을 못했을 걸요?”

멍하니 듣던 그가 박수를 쳤다. 왜 이러지? 제발 나 좀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Z여사님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야! 너도 개그맨 다 되었구나. 하지만 그걸 좀 더 순화시키면 더 좋을 거야. 예를 들면 기존의 농담을 인용하는 거지. 유럽 농담 중에 경찰이 독일인이고 요리사가 영국인인 곳이 지옥이다. 이런 농담도 있잖아.”

“네, 참고할게요.”

그가 뒤에도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퇴근 시간이 지났기에 말을 끊고 황급히 떴다. 저번부터 그의 세상에 맞추어 행동하기가 싫어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자잘한 심부름을 하는 게 더 낫다. 다음부터는 그에게 맞춰주지 말아야지.

그가 변했다. 그에게 맞추기는 싫었지만, 인사만큼은 평소처럼 건넸다.

“어. 왔어요? 요즘 밖은 덥죠?”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다. 평소의 P가 아닌 느낌. 침구를 정리하시던 Z여사님께서 나에게 손짓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셨다고요?”

Z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그가 난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를 제지하고자 진정제 주사를 놓았는데, 몇 시간동안 멍하니 있더니, 잠에 들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스스로가 개그맨이 아님을 자각했다고 했다. 다만 개그맨으로 살았던 몇 주간의 기억은 남아 있다고.

“진정제에 알코올 분해효소가 있나 봐. 진작 주사를 놓을 걸.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던데,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지.”

몰랐던 사실이지만, 내가 퇴근하고 나면 항상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내가 근무하는 아침 시간대에만 온순하고 시간이 지나면 폭력적이라고.

“그럼 다른 병동으로 가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했다.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P가 개그맨에서 환자로 돌아가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과였다. 병원을 돌며 착각해서 미안하다며 사죄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몰랐다. 사실 나도 몰랐다. 왜 사과를 할까? 그는 내게도 사과를 건

냈다.

“생활 보호사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동안 말도 안 되는 놀이에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씩 웃었다. 고백하건데, 미소의 의미는 비웃음이었다. 그가 그 의미를 모르는지 희미한 미소를 띠었다.

환자 P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조카뻘인 내게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쓸 정도였으니. 2호실에 있는 책들을 빌려와 읽기 시작했다. 책들은 훼손이 심했고, 그마저도 얼마 없었다. 몇 주 전이라면 그의 곁에서 책을 읽었을 테지만, 남성 간호조무사 실습생 W와 잡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다.

W는 나와 동갑이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겸손한 척하며, 때때로 오만하게 굴었다. 다행인 건, 그도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다. 웹툰이 대화 주제였지만, 서로가 비슷한 것을 깨닫자,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걸로 주제는 바뀌었다. 주로 Q에 관한 욕을 했다.

“Q는 왜 저럴까?”

“넌 온지 얼마 안 되었잖아. 난 몇 달을 같이 있었는데, 진짜 미치겠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싫어하시던데.”

“당연히 그러겠지. 저 인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이상하게도, 증오하는 '사람'이었던 Q는 증오하는 '것'이 되었다. 나와 W는 노골적으로 Q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만 보아도 역증이 차올랐으니.

내려앉은 잇몸 때문에 이가 시렸다. 무방비하게 노출된 이빨들은 통증을 가져왔고, 난 더 예민해졌다. 게다가 Q가 억제대를 풀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죄다 집어 먹는 사고도 터졌다. 나와 W, 3층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합세하여 그를 잡았고, 그는 더욱 더 단단한 억제대에 묶이게 되었다.

“야, 미치겠다. 진짜.”

“넌 곧 있으면 실습 끝이잖아. 난 복학 전까지 해야 해.”

“그냥 때려 치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쉽니?”

“Q는 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Q에 관한 욕설은 평소보다 그리 센 편은 아니었다. 다만, 그의 앞에서, 그가 들리는 곳에서 말했다는 게 문제였다. Z여사님께서 이불정리를 하는 동안, P와 붙어 있다고 했다. Q에게서 진절머리가 났기에, 그가 그리웠고 편하게 대해주고 싶었다.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요즘 책 많이 읽으시던데, 뭐 읽으세요?”

“루쉰의 단편집을 읽고 있어요.”

“오, 그럼 '아Q정전'을 읽어보셨겠네요. 아Q가 자존심만 높고, 정신 승리하는 게, 한심해 보이죠.”

“네. 그런데, 전 '아Q'가 한심하기 보단, 불쌍하게 보였어요.”

“'아Q'가요? 왜요?”

“그 당시 중국뿐만 아니라, 오늘 날. 급변하는 세상에서 낙오된 자처럼 보여서요. 그리고 전 '광인일기'가 더 재밌었어요.”

“왜요?”

“'광인일기'는 미치고 나서야 진실을 보았는데, 저와 반대인 것 같아서요.”

난 '광인일기'를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얼핏 들은 아는 내용을 말했다.

“사람을 먹는 게, 그 당시 중국에서는 꽤 무서운 행위인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광인일기'를 읽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게, 진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 배려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선생님 같이 남을 배려하고 싶어요.”

그가 나를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게 훈계하려는 건가? 그는 나보다 못한 존재다. 그런데 그 주제에 날 가르치려고……. 기분이 나빴다. 신경질적이게 반응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

2호실 여사님이 지나가기에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의미시냐고요.”

“우린 모두 다르며 개인이에요. 남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해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과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은 타인을 위해 노력하고 살죠. 한 가지 목표로만 살아왔던 제기 보기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존중하며 배려하고 싶어요.”

나를 비꼬려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 아리송했다

“여사님! Q님이!”

W가 비명을 지르며 1호실에서 뛰쳐나왔다. Q는 Z여사님이 뽀뽀 숨겨둔 과도를 찾아내어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Q의 눈빛은 증오가 서려있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Q는 과도를 든 채, 위협했다.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이야기 해봐요.”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Q와 눈이 마주쳤다. 절규와 증오가 합쳐진 눈빛. 나 역시 그 눈빛을 잘 안다. 거울 속에서 많이 봤으니까.

난 학창시절 12년 내내 왕따였다. 처음 혼자가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때의 나는 또래보다 몸집도 작았고, 눈치마저 없었다. 입학식 날, 집에서처럼 울었고, 담임교사는 나를 문제아로 인식했다. 그때 담임교사는 나의 어머니께 촌지를 요구했고, 서른도 되지 않았던 나의 어머니는 그 의미를 알리가 없었다. 교사는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부추겼던 걸로 기억한다. 몇 년이 지나니, 나는 머리가 제법 커졌고 남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과거에 왕따였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

‘도돌이표, 뽀비우스의 띠.’

그게 내 학창시절이었고, 보상 심리로 남들보다 잘난 존재가 되고 싶었다. 독서만큼은 뒤지지 않았던 나였기에, 내가 잘난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판타지 소설을 썼고 떨어질 때마다, 나를 몰라주는 세상을 원망했다. 이곳에서 일할

때도 나보다 못한 환자들을 보며 위안하고, 나를 높였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할 테니까.

Q는 내게 달려들었다. 내가 가장 원망스러웠겠지. 아니, 가장 만만해 보이겠지. 그도 같다. 모두가 같다. 자신보다 못한 존재를 무시하며, 그로부터 자신을 위안하며 살아간다. 눈을 슬쩍 감는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친구라고 믿었던 W도. 어른인지 알았던 Y선생님도.

“P 씨!”

눈을 뜨니 P는 배를 감싸고 쓰러졌고 Q는 제압당했다.

P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미한 상처였지만, 상처를 봉합하려 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내고 말았다.

신경정신과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는 자연스레 일을 그만두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한지, 더 이상 알바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났다.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다, P가 떠올랐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괴로웠던 사실은, 못한 존재인 그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왜 그가 나를 구했을까? 그와 난, 고객과 서비스업 종사자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수차례 질문 끝에 단순한 결론을 내렸다. 그가 Q를 막은 것은, 그저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였다고, 본인도 그리 될지 몰랐을 거라고. 그가 떠난 것은 악운(惡運)이었다고.

병원이 다시 문을 열 무렵, 나는 복학을 했다. 나름 사회생활을 해봤다고 생각했기에, 인간 관계를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 오만함은 변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실패했다. 다시 난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더 많은 약을 먹게 되었다.

그때, P의 최후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을 이용했다.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로 큰 병을 얻게 된 척을 하며, 과거를 이겨내려는 사람처럼 보이려했다. 더욱 큰 가면을 만들어, 나와 모두를 속이는 것이었다. 그 가면을 진짜로 의식 할 무렵, 난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복용을 중단했다. 난 나아졌다. 비록 작가라는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갔다. 어느 날, 가면을 눈치 챈 사람이 나타났다.

상당히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가면이 벗겨지면 어떡하지? 다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답은 간단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상하게도 무궁무진한 자신감이 생겼고, 머리가 맑아졌다.

그제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첫 대상은 나였다.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보았다. 난 내가 경멸하던 ‘아Q’같은 존재였다. 자존심만 세고 한심한 존재. 난 내가 받은 상처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합리화하였다. 믿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했다.

P가 그의 세상에서 개그맨으로 살았을 때처럼, 나 역시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소설가 지망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독성이 좋다고 느낀, 판타지 소설은 비문으로 가득했고, 맞춤법마저 지키지 않았다. 이전에 내용을 수정했다면, 사소한 것이라고 여긴 문장 하나씩 고쳐나갔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 실제로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고, 흥분한 상태였다.

며칠간 잠을 꼬박 새며, 꿈에 대해 확신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이게 득도인가? 번뇌인가? 자화자찬을 했다. 3학년을 앞둔 방학 무렵, W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 서로 근황을 전했다.

“넌 어떻게 지내냐?”

“난 완전 좋아. 기분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아 보이네. 예전에 비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 기분이 너무 좋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아까 약 끊었다고 하지 않았어? 꼭 마약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냐? 목소리가 완전 다른데?”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도 안 온다니까.”

그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약을 끊었는데. 기분도 좋고 잠도 안 온다고? 혹시 약 끊고 보름 넘어서 그랬어?”

“어? 그 무렵 같아.”

수화기 건너편에서 침묵이 흐르다가, 한마디가 넘어왔다.

“병원 가 봐. 농담 아니야. 진짜 꼭 가봐야 한다. 큰일 날 수 있어.”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었다. 오랜 시간, 항우울제를 복용했기에, 금단 부작용으로 조울증이 왔다는 것이다. 부정하고 싶었다. 마침내 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나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고 병이라니. 울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새롭게 처방받은 약을 받고 나서야, 눈물이 나왔다. 내가, 내가 아니게 되어갔다. 착했던 나는, 마침내 착해진 난. 위선의 가면을 쓴 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사람에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나만의 착각이었던 셈이었다.

그때 잊고 있던 P가 떠올랐다. 정신병자라는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 P는 진정제를 맞고 나서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분을 참았을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어서?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했다. 예전처럼 합리화하며 나를 높이려고 할 때, P의 한마디가 울렸다.

‘원래 개그맨들은 아파도, 슬퍼도 웃는 척하는 광대니까.’

그가 개그맨일 때, 유행어이자, 신념이었던 말. 환자로 되돌아와서도 신념을 지킨 것이었다.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P. 단순한 알코올중독자로 보았던 P. 개그맨이 아닌 환자로 죽어간 P. 그는 정말로, 정말로 개그맨이었다.

남은 사람들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6 김주희

끊임없이 그릇과 컵을 닦고, 닦고, 또 닦고. 밀려드는 설거짓거리에 티셔츠의 배 부분이 동그랗게 젖었다. 한산한 동네가 밤만 되면 사람이 불나방처럼 불어났다. 지겨운 것들. 지겨운 일. 지겨운 동네. 지겨운 삶. 주방의 공기는 텅텅하고 자욱해 툭하면 숨이 가빠지곤 했다. 틈틈이 찬물로 목을 축이고 목덜미에 물을 문혀 몽롱하게 달궈진 몸을 달래야만 했다. 그렇게 해야만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다.

꼬박 새벽 1시가 지나서야 적절한 고무장갑을 벗을 수 있었다. 불나방이 몰아칠 때면 이리다 그릇들이 나를 덮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고무장갑 안으로 물이 꾸역꾸역 쳐들어왔다. 오랜만에 마주한 손가락은 한껏 모가지를 뺀 거북이의 피부처럼 쭈글쭈글했다. 이럴 때마다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하고 조금 소란스러웠다. 곳곳에 깔린 불나방들이 하나둘 가로등을 붙잡고 땅을 향해 묵념하고 있었다. 불나방의 오바이트가 격해질수록 가로등이 괴로워하듯 불안하게 깜박거렸다. 그 위 진짜 불나방들이 깜박이는 등에 맞추어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가로등이 꺼지고 불나방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빛이 사라졌으니 할 일을 다 한 거겠지. 재넨 빛만 보고 사는 게 전부일 테니까. 어디든 방향하고 있다가 새로운 빛이 생기면 다시금 우르르 몰려들겠지.

신발 앞 코로 돌맹이를 툭, 툭, 튕기며 오십 미터 넘게 동행했다. 바람은 서늘했고 거리는 적당히 어수선했다. 녹색과 적색이 즐비한 보도블록, 움푹 파인 틈에 나 있는 이름 모를 잡초, 무수한 발자국이 찍힌 성인 전단지, 사거리를 지나는 차들, 자취처럼 남은 엔진 소리, 머지않아 적막이 깔리는 도로, 파도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나뭇잎, 훑날리는 머리칼, 페인트가 벗겨진 횡단보도, 사무치는 외.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

단말마가 튀어나왔다. 인도가 끊긴 걸 눈치채지 못한 탓이었다. 경적을 사납게 울리며 야이 정신 나간 년아, 죽으려고 아주 환장을 해라,를 알리고 간 흰색 트럭은 어느새 저 멀리 점이 되어 있었다. 돌맹이는 물수제비 마냥 도로 위로 튕겨 나간 지 오래였다. 어둠이 아까보다 짙게 깔려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고개를 들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파도 소리를 귀에 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나방은 되기 싫었다.

눈을 스르르 떴다. 바람은 서서히 멎었고, 못내 아쉬운 나뭇잎이 퍼석거리며 살랑였다. 이윽고 반짝이는 초록 불. 천천히 내딛는 발. 그냥저냥 살다가 우연히 빛만 보고 발광 떨기 싫었다. 모두가 탐내는 곳에 한데 모여 눈깔 뒤집히고 싶지 않았다. 온전한 빛이 필요했다. 사라지

지 않는 빛. 공용이 아닌 나만의 빛. 본능적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비춰주는 빛. 주머니의 손이 꿈질거렸다. 서늘한 한기가 맴돌았다.

곧 소나기가 오려는 모양이다.

*

혼자 산다는 건 꽤 많은 감수가 필요했다. 달마다 버틸 돈을 스스로 마련할 것. 빨래와 청소를 홀로 해낼 것. 냉장고 속 식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설거짓거리를 최소한으로 만들 것. **비상약을 반드시 상비할 것.** 누구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보고 챙길 것 등.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열추 해낼 수 있다면 독립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지는 일은 이토록 간단할 일일 테니까. 여유가 된다면 가정을 꾸리면 그만이었지만 그건 나에게 자신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감수가 필요한 일이었다. 여유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쉽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럴 바에야 혼자서 모든 걸 해치우는 게 나았다.

사 년을 혼자 살며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익숙함에 가까웠다. 독립하기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엄마는 까마득한 기억 때부터 위태로운 사람이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 걱정하고 티를 내려고 하진 않았으나 금방이라도 울음이 났을 것만 같은 얼굴을 보면 느낄 수 있었다.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달았을 땐 홀로 감수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넘실거렸다. 세탁하는 법, 청소하는 법, 쌀 안치는 법, 빨래 개는 법 등등.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들을 깨우치기엔 너무나 많은 경험과 실수가 필요했다. 기댈 수 없는 엄마에게서 삶을 지속하는 나만의 생존 방식이자 엄마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슬픔을 만끽할 수 있으면 하는 나만의 배려였다. 훌훌 털고 얼른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유예기간. 하지만 몇 밤이 지나고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나아지는 건 나의 익숙함뿐이었다. 경험이 쌓여 집안일이 손에 익었다. 세탁기의 어지러운 기능들을 다룰 수 있었다. 옷에서 땀내가 나지 않게 말리는 법을 익혔다. 그릇에 물을 받아놓으면 설거지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며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일 또한 잊지 않았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아플 때가 곤욕이었다. 집안일은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익숙해지면 그만이었지만 아픈 건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이불을 코까지 뒤집어쓰고 발은 숨을 내쉬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집에는 이름 모를 약이 너무나 많았지만 대부분 엄마 거였고 엄마에게 물어보기엔 그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낫게 하려면 최소한으로 걱정을 끼치고 싶었다. 지금에서야 종종 곱씹는다.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고. 여전히 아파서 기분이 몽롱할 땐 그때의 후끈한 이불 속 공기가 선연했다. 수증기 속에 갇힌 듯했던 그날. 질식할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엄마의 마른 등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게 다였던 어린 날의 나.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것을…….

*

나에겐 언니와 아빠가 있다고 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그들이 나에게 있다고 했다. 둘 다 엄마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내가 젖먹이일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나는 가끔 기억도 나지 않는 언니의 존재를 상상하며 술한 외로움을 달랬다. 무능하고 불쌍한 엄마뿐인 나에게 언니라도 있었다면 홀로 겪는 일들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언니가 있었다면 엄마도

더 이상 무능하고 불쌍하지 않을 것 같았다. 엄마가 무능하고 불쌍하게 된 건 다 언니가 죽어서니까. 언니가 죽은 사람만 아니었다면 엄마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줬을 것 같았다. 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엄마는 방에 틀어박혀 언니의 사진을 갖다가 종종 무거운 울음을 삼켰다. 청소기를 돌릴 때면 우웅거리는 기계 소음과 문틈 새로 넘어오는 끄꼭 소리가 합을 이루기도 했다. 그럴 때는 정말이지, 미칠 것만 같았다. 얼굴도 모르는 언니가 밋고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청소기를 돌리며 다음 할 일을 생각했다. 설거지, 밀린 빨래, 구역질 나는 화장실. 끝내 얼굴도 모르는 언니가 아주 조금 그리워지곤 했다.

아주아주 조금.

아빠라는 사람은 입에 담기도 싫다.

이모는 말했다. 이모는 어쩌다 가끔 엄마와 내가 사는 집에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다. 이모가 오는 날이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어른이 관리하는 집이었다. 이모는 시체처럼 잠든 엄마를 보며 복잡한 얼굴로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기도 했다. 아빠라는 사람은 그 일이 있는 후 모습을 감춘 지 꽤 오래되었다고. 평소엔 다정했지만 술만 마시면 사람이 회까닥 변했다고. 그럼에도 엄마는 아빠의 다정한 면을 놓지 못했다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게워낼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에 얹힌 듯 쿵, 쿵 내리치며 이모는 말했다.

엄마가 팀장의 눈치를 보며 언니를 데리러 갈 시간을 훌쩍 넘긴 날, 하는 수 없이 아빠가 대신 갔다고 했다. 한 살배기였던 나는 엄마의 사정을 아는 이모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엄마의 퇴근 시간은 여섯 시였지만 여덟 시까지 회사에 잡혀있었다고 했다. 아빠는 언니가 있는 유치원에 일곱 시 이십 칠 분에 도착했었다고. 술에 잔뜩 찌든 채로. 아빠는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등 마는 등 비틀거리기 바빴다고 했다. 언니는 아빠 손이 아닌 저가 멘 가방끈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아빠는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크게 비틀거렸다고 했다.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던 체구가 작은 언니가 휘청거릴 정도로. 일곱 시 사십 분이었다고 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 따윈 없었다고 했다. 언니는 결국 중심을 못 잡고 아빠에게 밀려나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졌다고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가 별때처럼 쏘다니는 사거리였다. 트럭이 폭발하듯 황 소리를 냈다. 거리는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되었다. 아빠는 눈을 깜빡이다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다고 했다. 아빠의 주머니에선 전화기가 애타게 울리고 있었다. 엄마는 여덟 시가 되자마자 곧장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금 전 언니의 담당 선생님에게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다는 소리를 전화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받지 않는 전화를 뒤로 한 채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다고 했다. 남편이 사람 새끼라면 자신의 딸과 집에 무사히 도착했으리라 생각하며. 그리고 엄마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불안간 집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핸들을 돌렸다고 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따위를 남발하며. 여덟 시 십삼 분이었다고 했다.

이모에게서 엄청난 것들을 들어버렸을 때 당시 나는 놀라자빠지지도, 울음을 쏟아내지도,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가 왜 저 모양 저 꼴이 났는지 이해가 돼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릴 뿐이었다. 달라지는 건 없었다. 있다면, 나에게 무고하게 죽은 언니와 개돼지만도 못한 아빠가 있었다는 것.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엄마 하나뿐이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엄마 하나뿐이라는 사실. 그거면

충분했다. 죽은 언니보다도 숨이 붙어있는 엄마가 더 불쌍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아빠보다도 내 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엄마가 더 신경 쓰였다. 당연했다. 설령 나에게 어떠한 관심도, 걱정도, 위로도, 사랑도, 애정도 퍼부어주지 못하는 엄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남은 가족이 엄마밖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절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관심도, 걱정도, 위로도, 사랑도, 애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겼던 때까지는 차마 엄마를 놓을 수가 없었다. ‘설령’이 ‘진짜’로 이루어지기 전까진 틀림없이 그랬다.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소량의 돈과 날 가엽게 봐주는 이모의 도움으로 불쌍한 그 집을 나와 혼자 살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순 없는 노릇이었다. 무능하고 불쌍한 엄마를 바라보며 언제까지고 이렇게 나를 좀먹을 순 없는 노릇이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했다. 나만의 보금자리가 필요했다. 나만의 삶이 필요했다. 엄마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고 마음 한편이 옥신거리지 않을 용기가 필요했다. 이미 혼자서 많은 걸 할 줄 알았던 나에게 필요한 건 그뿐이었다. 무작정 그 집을 나왔다. 나오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이사 첫날밤, 낯선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용기가. 낯선 벽지를 바라보았다. *엄마를 생각하지 않을 용기가.* 낯선 방 구조를 바라보았다. *완전히 혼자가 될 용기가.* 낯선 창밖의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느 때보다도 컴컴한 풍경이었다.

“가족을 바라지 않을 용기가...”

사무치게 외로운 보금자리였다.

*

“지선이가 널 만나고 싶어 해.”

이모는 아침부터 이해하기 힘든 말을 전화 너머로 늘어뜨렸다.

“듣고 있니? 당황스러울 거 알아. 그래도...”

퍽이나 걱정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모 봐서라도, 아니 지선이 봐서라도 응?”

이모는 끊임없이 자꾸 뭐라 말을 했고. 나는 아직 채 뜨지도 못한 눈을 찌푸렸다. 전화기를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푸석한 얼굴을 쓸어내렸다.

“알았어요.”

나는 끄, 소리를 내며 버겁게 대답했다. 이모는 밥 좀 잘 챙겨 먹으라는 안부 인사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가를 마사지하듯 꺾꺾 짓눌렀다. 이모의 느닷없는 전화로 잠에서 깨 아직 감각이 몽롱한 터였다. 전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불나방들이 유독 심하게 몰아쳐서 안 그래도 늦게 끝나는 일이 평소보다 늦어져 기어이 새벽 3시를 찍고서야 고무장갑을 벗을 수 있었다. 하여튼 이모의 말은 이리했다. 지선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또 뭐랬더라. 지선이가 결국 그 새끼를 죽였다고. 또 그 미친 것이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 자수를 했다고. 12년 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다고. 지선이가, 지선이가, 지선이가.

그러니까 나의 엄마가.

뒤늦게 정신이 퍼뜩 들었다.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고 앉았다. 혼란

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느라 눈알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콧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모의 말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니?

아빠라는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언니가 응급실로 실려 가 뻘이 이이이이 소리를 내며 정말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빠는 엄마처럼 식어버린 언니의 손을 붙잡고 울지도. 울다가 울다가 계속해서 울다가 꺾꺾 소리를 내며 끝내 탈진해버린 엄마처럼 정신을 잃지도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편이 나간 듯 황망히 바라보다가 홀연 사라졌다고 했다. 빌어먹을 쥐새끼처럼.

엄마는 나에게 있지만 없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아닌 무엇에 가까웠다. 움직이지 않고, 물기 어린 신음을 자주 토해내고, 조용하다 싶은 날엔 미동도 없이 숨죽이고만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무언가. 사람 구실조차 못 하던 그 무엇 같던 사람이. 언제 스스로 자폭할지 몰라 날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잘도 사람을 죽였다는 말인가?

불쌍한 그 집을 나설 때 이불을 덮고 죽음에 가장 가까워 보이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일렁거렸다. 숨이 턱 막혔다. 이건 말이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패닉 상태는 이만하면 충분했다. 이젠 현실에 순응해야 할 차례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만, 엄마가 살인자로서 수감 중에 있다는 건 실제 상황이었다. 이모가 말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진실을 이모를 통해 늦게나마 전해 들었으니까. 언니의 죽음과 아빠의 행적과 아빠의 죽음과 엄마의 살해. 이 지긋지긋한 굴레의 진상을 몸소 확인해야만 했다.

곧장 전화기를 들었다. 최근 통화 기록에서 이모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려다 멈칫하고 그냥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다. 이모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나로선 왜인지 그 목소리를 자주 마주하기가 힘들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가슴에 솜뭉치가 걸린 듯 갑갑하고 간질거리는 기분마저 들었다. 아마 그 목소리는 내가 엄마에게 그토록 바라왔던 사랑의 형태와 닮았기 때문일 것이었다. 키패드를 꺾꺾 눌러 문자를 전송했다. ‘주소랑 시간 좀 알려주세요, 이모.’

하나 확실한 건 갑갑하고 간질거리는 그 기분이 싫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눈물이 날 정도로 기꺼웠다. 평생 잡히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사랑 따위를 이모를 통해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으니까. 나는 머뭇거리다 키패드를 몇 번 더 꺾꺾 눌러 썼다.

‘밥 잘 챙겨 드세요.’

*

보통 면회 시간은 10분 남짓으로 이뤄지지만 이른 오전 시간에 맞춰가면 15분에서 20분까지도 대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모에게 들은 정보였다. 엄마를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막상 15분에서 20분 동안 엄마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절망적이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나는 언제나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넨을 뿐, 대화를 해 본 기억은 없었다. 엄마에게 건넨던 돌려받지 못한 말들은 죄다 ‘잘 자’, ‘울지 마’, ‘아프지 마’ 따위의 것들이었다. 딱히 뭔가를 돌려받을 만한 말이 아니긴 했다. 그때는 단지 전해지기만 하면 그만이었고 정말 무얼 바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 ‘잘 자’, ‘울지 마’, ‘아프지 마’는 엄마에 대한 나의 대가 없는 사랑이었다. 그러니 나는 이 삭막하고 냉랭한 공간에서 유리창을 사

이에 두고 어찌면 처음으로 나누게 될 엄마와의 대화가 긴장되는 건 당연한 이치였다. 손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발끝을 오므렸다 폈다 계속 반복했다. 교도소 밖은 이제 막 봄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이 작은 접견실은 계절 따위가 없는 황무지 같았다. 누구든 갑자기 ‘계절이라는 게 뭐니까?’ 하고 물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다. 묵묵히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오전 9시 00분 32초. 유리창 반대편에서 문이 열리고 교도관과 1793이 나타났다.

“1793, 자리에 앉으십시오.”

1793. 사 년 만에 마주하는 엄마였다. 비척대지 않고 올곧게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사 년 만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다 죽어가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엄마가 맞는 걸까? 심히 당황스러웠다.

막연한 침묵 속에서 그녀가 먼저 입을 뗐다. 벌어지는 입술에서 나는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오랜만이구나.”

그녀의 입술에서 부드럽게 건져진 첫마디였다.

“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내리칸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얼굴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이 담긴 기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살인자의 모습치고는 참으로 단정한 모습이였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불쌍한 모습보다 비교도 안 되게 보기 좋을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착한 아이야 넌.”

단정한 얼굴을 오밀조밀 뜯어보다가 별안간 뺨이라도 맞은 기분이었다.

심장이 쿵, 쿵 뛰었다. 착한 아이라고? 머릿속에선 주체할 수 없는 물음들이 도떼기시장 마냥 이리저리 치이고 지랄발광을 하고 있었다.

나는 허억, 하고 짧게 호흡을 고른 뒤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무슨 생각이에요 대체.”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래야만 했어요? 그렇게 꼭 죽어야만 했어요?

단정한 얼굴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이따위 꼴을 봐야만 했냐고요, 씨발 진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졌다. 애초에 주워 담을 생각도 없었다. 단정한 얼굴에 주먹처럼 꽂아 내린 말들이었다. 그녀는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내가 당신을 위해, 엄마를 위해, 내 삶을……대체 얼마나…….

“그냥 나랑 살 수는 없었어요?”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무뎠다. 평범한 엄마와 딸로. 그렇게 그냥, 언니가 못다 한 삶을 우리가 대신해서. 나는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걸 바란 건 더더욱 아니라고요. 그녀는 나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맞아준 것도 같았다. 아주 가만히, 힘을 실은 그 말들을 잠자코 맞고만 있었다. 단정한 모습이 조금씩 흐트러졌다. 구김 없어 보이던 검은 두 눈이 고요히 일렁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살 수가 없었어.”

호수를 집어삼킨 목소리였다.

“그냥 살기가 싫었어. 그러기 싫었어. 늦게나마 너에게 돌아가기엔 그 사람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 뭐 하나 내 손으로 끝내본 적이 없어서. 너도, 네 언니도, 그 사람도…”

그녀는 ‘그냥’에 힘을 실어 말했다.

“내 손으로 하나 정도는 제대로 끝을 맺고 싶었어. 그래야만 널 다시 볼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난…….”

그녀는 입술을 힘껏 깨물었다. 천천히 힘겹게 전진하는 목소리였다. 떨리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눈치였다.

“그냥, 그냥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

나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으로는 안 돼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내가 그녀를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걸까. 그녀를 그 불쌍한 집에 버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언제까지고 그녀의 곁에 붙어 나 홀로 모든 걸 감수하며 살았다면 그녀가 1793이라는 번호를 달 일이 없었을까. 나는 그녀에게 얼마나 더 많은 죄책감과 미안함과 애뜻함을 바쳐야 하는 걸까. 이 개 같은 마음을 나는 아득한 12년 뒤에나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결국 남은 자들의 최후란 말인가.

“울지 마.”

그녀가 말했다. 몰랐는데 나는 울고 있던 모양이다.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러넘치는 와중에 움찔거리는 그녀의 입술이 눈에 밟혔다.

왜. 또 뭐. 또 무슨 말을 더하려고. 얼마나 나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으려고. 눈물 때문인지 그녀의 입술이 크게 흔들렸다.

“엄마가 미안해.”

나는 끝까지, 그녀가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라는 말에 비로소 내가 무너질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저 미련한 인간은.

오전 9시 18분.

엄마와의 면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

교도소를 나오며 얼굴에 늘어붙은 눈물 자국을 문질렀다. 허영게 남은 자국이 무얼 의미하는진 알 수 없었다.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다. 먹먹한 가슴은 여전했다. 교도소 곳곳에 붙은 꽃말이 눈에 들어왔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도무지 내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는 이 기구한 현실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언니가 보고 싶어졌다. 언니 나 혼자만 살아가서 미안해. 나 혼자만 이런 걸 고민해서 미안해. 나 혼자만 언니를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 언니 내가 남겨져서 미안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나 이제는 정말 지쳤어.

그만 외롭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나 정말.

하늘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툭 쳤다.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물방울은 점차 세차게 불어나 바닥을 온통 까맣게 뒤덮었다.

그토록 기다려 온 소나기였다.

수면 너머에는 인어가

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나 오는 길에 인어를 봤어.”

장마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수영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마치 길을 걷다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생겼더라. 이래서 미디어란. 유튜브가 여럿 망친다는 말이 딱 맞다니까. 수영이 원래 주제에서 벗어나 한참을 미디어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수영의 건너편에 앉은 진솔이 수영의 말을 끊으며 한 마디를 던졌다.

“야, 세상에 인어가 어딴냐?”

“진짜라니까.”

“내가 너 거짓말하는 거 한두 번 보냐.”

“사람이 말을 하면 믿는 척이라도 좀 해봐.”

“그럴 가치가 있어야 믿지.”

“못 믿겠으면 가보던가.”

“굳이?”

진솔은 ‘굳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영은 아주 작은 것도 부풀려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손톱만 한 바퀴벌레를 보았을 때도 주먹만 했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5천원 짜리 로또에 당첨됐을 때도 이 돈이면 집도 사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진솔은 이번에도 수영이 물고기를 보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겠거니 했다. 수영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인어’라는 것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

“이게 인어야...?”

우산을 쓰고 물웅덩이 안을 들여다보던 진솔이 허탈한 듯 내뱉었다. 아무리 잘 봐줘도 좀 큰 물고기 수준인 ‘인어’를 바라보며 진솔은 또 당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어랑 다르다고 했잖아. 하여튼 봐봐.”

수영은 개의치 않아 하며 물웅덩이 속 ‘인어’를 보며 얼굴 좀 보여주라 하고 말했다. ‘인어’는 수영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물웅덩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 밖으로 고개를 쏙 내밀었다. 오묘한 색의 눈동자 위로 얇은 하얀색 막이 덮여 있었고, 얼굴 중앙의 작은 구멍이 입처럼 오물거렸다. 귀쫂에 달린 아가미는 숨을 쉴 때마다 파닥거렸고, 그 밑으로 매끈한 상체가 이어졌다. 상체에는 잘못 만들어진 인형의 팔 같은 무언가가 달려있었는데 그렇다고 사람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제야 왜 수영이 인어를 봤다고 말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특이한 점은 상체 바로 밑에 꼬리가 있었다. 마치 물고기처럼. 사람과 물고기를 이상하게 섞어놓은 그 기괴한 형상에 진솔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런 진솔과 달리 수영은 까르르 웃으며 ‘인어’가 강아지라도 되는 양 개인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점프, 하이 파이브, 손. ‘인어’는 수영이 말하는 대로 곧잘 따라 했다. 진솔은 물웅덩이에서 멀찍이 떨어져 수영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한참을 ‘인어’와 놀던 수영은 진솔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애 데려가자.”

진솔은 기겁했다. 잠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해지는 존재를 집에서 기르자니. 수영이 틀림없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너 미쳤어? 저게 뭘 줄 알고 데려가.”

“인어잖아.”

수영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진솔은 확신에 찬 수영의 태도에 기가 찼다.

“저게 인어라고? 방사능 오염돼서 유전자 변이 일으킨 물고기는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영이 인상을 찌푸렸다. 무언가 거슬린다는 의미였다. 수영은 종종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솔이 못 이기는 척 수영이 원

하는 대로 들어주곤 했다. 원래 더 좋아하는 쪽이 저주기 마련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내 방에서 내가 돌볼게. 신경 쓰일 일 없도록 하면 되잖아.”

단호하게 내 방에서 내가 돌보겠다 딱 잘라 말하니 진솔은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저 괴상한 존재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 수영은 진솔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인어’와 물웅덩이 속 물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어디선가 들고 온 플라스틱 통에 담았다. ‘인어’는 통 안을 몇 번 빙글빙글 돌더니 사방으로 물을 튀기며 점프했다. 신이 난 듯 보였다. 수영은 그런 ‘인어’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들이 ‘우리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진솔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

수영은 ‘인어’에게 에리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디즈니 인어공주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이름 따라 공주처럼 키우고 싶은 건지 수영은 물고기 용품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커다란 어항과 어항을 꾸미기 위한 각종 소품, 먹이, 여과기 등 좋다고 소문난 것이라면 뭐든지.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다. 수영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에리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에리얼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줄 때마다 수영은 에리얼과 사랑에 빠졌다. 에리얼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만큼 현관 옆으로는 택배 상자가 자꾸 쌓였고 수영의 방은 점점 더 좁아졌다. 그래도 괜찮았다. 에리얼이 행복하다면 수영은 뭐든 견딜 수 있었다.

●

진솔은 불안했다. 이상하리만치 그것에 집착하는 수영이 걱정스러웠고, 자신은 수영의 방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서운했다. 자신과 수영의 집이었던 공간은 어느새 그것과 수영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진솔에게 수영은 특별한 친구였다. 하루라도 안보는 날이 없었고, 어쩌다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꼭 그날 저녁 서로의 집 앞 놀이터에서 만나 그네를 타며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만 같았다.

●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오전에는 화창하니 맑던 하늘이 하교 시간이 되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한 방울씩 떨어지던 게 이제는 건잡을 수 없을 만큼 내렸다.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이었다. 교실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칠판에 필기할 거리를 잔뜩 적어 내리던 국어 선생님은 칠판을 탕하고 치며 말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창밖 그만 보고 필기해.”

아이들은 거의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네에 하고 답했다. 다시 교실은 사각거리는 볼펜 소리로 가득해졌다. 교실의 공기는 습기를 잔뜩 머금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듯 끈끈했다. 진솔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따지자면 열심히는 하는데 그만큼 성적이 안 따라주는 대부분의 범주에 속했다. 머리에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진솔은 성실히 필기를 받아적었다. 반절쯤 채웠을까. 서랍에 있는 휴대폰이 지잉 하고 울렸다. 몸으로 최대한 가리며 책상 아래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너 우산 있어?

수영이었다. 고개를 들어 창가 쪽을 바라보자 펜을 휘휘 돌리던 수영과 눈이 마주쳤다. 수영은 턱짓으로 휴대폰을 가리키며 ‘답장해’하고 입 모양으로 말했다. 진솔은 답장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수영은 금세 울상이 되더니 한 손으로 휴대폰을 톡톡 두드렸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도 없는데ㅠㅠ

“거기 휴대폰 집어넣어라.”

선생님의 말씀에 수영은 화들짝 놀라며 서랍 속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다. 진솔이 그 모습에 피식대자 수영은 머쓱한 미소를 보였다. 수영의 뒤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건물 앞에 선 진솔과 수영은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남은 우산이 있으면 그거라도 쓰고 가려고 했건만 그마저도 이미 재빠른 이들이 다 챙겨간 뒤였다.

“그냥 맞고 갈래?”

수영이 말했다. “이러다 오늘 집에 못 갈 듯.” 수영은 건물 밖으로 손을 내밀어 비가 어느 정도로 오는지를 확인했다.

“이 정도면 갈 만해 보이는...”

진솔은 수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영의 손을 잡고 빗속을 달렸다. 원래 하지 말라는 짓을 할 때 사람은 가장 즐거운 법이었다. 운동장의 모래가 튀어 흰 양말을 흙빛으로 물들이고, 거리의 잡초들이 다리에 달라붙고, 빗물이 따갑도록 얼굴을 때려도 그들은 웃었다. 소리 내 크게 웃으니 비에 젖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다. 한참을 달리다 근처에 보이는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쉬었다 가자는 수영의 제안이었다.

긴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다.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달렸으니 머리카락이 얼굴에 다 달라붙어 꼴이 제법 우스웠다. 수영은 웃으며 진솔의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떼주었다. 수영의 손길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진솔은 움찔했다. 너무 가까웠다. 수영이 왜 이렇게 움찔거리느냐 물었지만, 진솔은 비에 젖어 속이 흰히 비치는 수영의 와이셔츠 때문이라고 답할 수 없었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진솔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수영이 진솔의 턱을 잡아 올려 자신과 눈을 맞췄다. 수영의 진한 고동색의 눈동자와 마주치자 진솔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수영은 당황하는가 싶더니 살짝 웃으며 진솔을 놓아줬다. 수영은 가방을 뒤적거리려 에어컨 때문에 들고 다니는 가디건을 꺼내 와이셔츠 위로 걸쳤다.

“이러면 됐지?”

수영의 말에 진솔의 얼굴이 한층 더 달아올랐다. 제 생각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자신이 그런 눈으로 수영을 바라봤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말이었다. 진솔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빨개진 얼굴을 가리는 데 급급했다.

“하여튼 가끔 이렇게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 여자끼리 뭐 어때.”

수영은 진솔의 그런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계속 이르고 있다가는 학원에 늦겠다는 이유였다. 수영의 손을 잡고 다시 비를 맞으며 진솔은 자신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다. 그것의 뜻을 알기에 진솔은 너무 어리고 서툴렀다. 그래서 조금 더 애뜻하고,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커다란 범주의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약간 특별한 우정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진솔은 이유 없이 수영을 피해 다녔다. 배가 아프다느니, 몸이 안 좋다느니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수영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처음에 수영은 그런 진솔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모든 것들을 왜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지. 왜 자신을 자꾸 피하는지 수영은 진솔에게 묻고 또 물었다. 진솔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너와 내가 서로에게 갖는 감정의 의미는 다르다고 수백 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수영과 멀어지고 싶지 않으면서도 친구 이상의 더 가까운 사이가 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솔의 모순된 감정을 읽었는지 수영은 더 이상의 질문 대신 진솔의 의도적 거리두기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사이로 그들은 졸업했고, 진솔은 졸업식에서 다른 친구들과 환히 웃으며 사진을 찍는 수영을 보며 앞으로 다시는 수영을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수영이었다. 진솔은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당황했다. 수영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며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진솔은 묻고 싶은 게 많았다. 자신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왜 하필 자신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냈는지. 그러나 진솔은 또 물어보지 않았다. 둘 사이의 어색함 따위는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수영처럼 진솔도 그러겠다고 했다. 둘은 그렇게 단 몇 분의 전화 통화로 몇 년간의 공백을 한 번에 메웠다.

새로운 가구를 사고, 식기류를 구입하고, 취향껏 각자의 방을 꾸미면서 진솔은 행복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이 저 깊숙한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수영이 자신에게 같이 살자고 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진솔은 굳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쨌든 수영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었다. 처음이고 미성숙했던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달라졌기에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기대로 수영과 지내던 진솔에게 ‘그것’은 당연히 불청객일 수밖에 없었다.

○

에리엘이 집에 온 뒤로 진솔은 에리엘을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개, 그것, 물고기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수영은 그 점이 불만이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생명체를 그것 따위로 칭하다니. 진솔에게 몇 번씩이나 에리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진솔은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아직 이름이 입에 안 붙어서...”라고 하며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했다. 분명한 거절이었다. 이후로 수영은 진솔에게 에리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진솔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에리엘도 눈치챘는지 진솔이 방에 들어올 때면 어항 속 자기 집으로 들어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수영은 그런 에리엘을 볼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데려온 작고 예쁜 아이가 숨지 않았으면 했다. 자신의 공간에서만은 자유롭게 헤엄치고, 충분히 사랑받았으면 했다. 그래서 수영은 자신이 외출할 때는 방문을 잠그고, 집에 있을 때는 방문에 출입 금지 팻말을 붙여 진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분명 상처받을 진솔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영은 에리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에리얼을 데려온 지 한 달이 넘어설 무렵부터 수영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하루. 대체 그 안에서 그것과 무엇을 하는지 진솔은 궁금했다. 당장이라도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수영을 끌고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자신을 싫어할까 봐 진솔은 수영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꼭 참았다. 그날도 외출했다 돌아온 수영이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려고 하자 진솔은 수영의 팔목을 잡았다.

“우리 얘기 좀 해.”

수영은 공허한 눈동자로 그러자고 답했다. 둘은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았다. 자세히 보니 수영은 한 달 새에 꽤 수척해져 있었다. 하루 중 수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30초도 채 되지 않으니 진솔은 수영이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몰랐던 것이다.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냥 요즘 입맛이 없네.”

수영은 별 일 아니라는 듯 답했다.

“더 할 얘기 없으면 들어가 봐도 돼? 나 에리얼 밥 줘야 하는데.”

진솔은 수영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벽에 걸린 시계만 보며 그것의 얘기만 하는 수영이 원망스러웠다. 다 잊고 잘살고 있던 자신에게 연락해 또 제 마음을 뒤흔들어놓고, 본인은 한낱 물고기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조차 잊고 있는 사람을 왜 놓지 못하는지. 진솔은 스스로가 싫었다. 이럴 거면 왜 같이 살자고 했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수영과의 관계를 여기서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 됐어... 들어가.”

진솔은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눈물을 꼭 참고 말했다. 수영은 기다렸다는 듯 방으로 향했다. 달각- 문을 잠그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

“우리 아기 많이 기다렸지?”

수영은 한달음에 어항 앞으로 향했다. 에리얼이 수영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쓰다듬어달라는 거였다. 수영은 환하게 웃으며 에리얼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로 보이는 부분에 뽀뽀까지 해주었다. 어떻게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를 미워할 수 있는지. 수영은 진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영은 제 몸집보다 큰 어항을 끌어안다시피 하며 에리얼에게 중얼거렸다.

예쁜 우리 아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기가 왔을까... 나는 정말 네가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에리얼은 그런 수영을 달래주듯 어항 벽에 달라붙어 몸을 비비적거렸다. 에리얼이 몸을 비빌 때마다 하얀 가루가 물에 둥둥 떠다녔다. 수영은 그 가루를 손으로 건져 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단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가루는 에리얼의 기분에 따라 다른 맛을 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쓴맛을, 기분이 좋을 때에는 단맛을, 기쁠 때에는 솜사탕 맛을. 에리얼이 제 몸에서 가루를 털어낼 때마다 수영은 그걸 먹었다. 수영은 에리얼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었다. 자신의 어항에 가둬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

수영이 미뤄두었던 은행 일을 처리하기 위해 며칠 만에 집을 비우자 진술은 몰래 수영의 방에 들어갔다. 대체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술은 알고 싶었다. 미리 숨겨두었던 보조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물비린내가 훅 끼쳤다.

“음...”

진술은 자기도 모르게 코를 틀어쥐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어항의 파란 빛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수영의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각종 택배 박스와 쓰레기들, 그것이 점프

하며 튀긴 물들이 온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다. 진솔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던 수영의 방이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었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발로 치워가며 어항 앞에 다다른 진솔은 그것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던 그것은 성인 여성의 얼굴만큼 자라있었다. 그것이 헤엄칠 때마다 언뜻 까만 실 같은 것이 비치기도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카락이었다. 그것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 아직은 솜털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곧 길게 자라날 것이다. 끔찍했다. 그것의 꼬리 또한 길게 자라 가운데가 갈라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의 다리가 될 것만 같았다. 진솔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직 놀라기는 일렀다.

아직 그것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진솔은 가까이 다가가 손끝으로 어항을 톡톡 두드렸다. 그것은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꼬리만 살랑대고 있을 뿐이었다. 진솔은 끈질기게 어항을 두드렸다. 주먹으로 어항 벽을 세계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그것의 꼬리 부분을 강하게 두드리기도 했다. 그것은 움찔거리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 어항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수영이 아니란 것을 깨닫자 다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았다. 진솔은 슬슬 화가 났다. 한낱 물고기 주제에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평소의 진솔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니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진솔은 욕실에서 바가지를 꺼내와 어항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이 점점 줄어들자 그것은 팔딱거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퍼냈을까. 물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자 그것은 어항 바닥에 딱 달라붙어 간신히 숨을 쉬었다. 물방울이 수면 위로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도 여전히 그것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진솔은 지지 않았다. 아니, 지고 싶지 않았다. 무슨 정신인지 진솔은 계속해서 물을 퍼냈고, 그것은 더욱 팔딱거리기 시작했다. 어항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것은 어항의 모서리에 고개를 처박고 얼마 남지 않은 물에 의존했다. 그때였다.

띠 띠 띠 띠 -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수영이었다. 수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가지를 든 채 어항 옆에 서 있는 진솔을 한 번, 어항 바닥에 힘겹게 누워 팔딱거리는 그것을 한 번 쳐다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진솔에게 달려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을 향해 달려왔다.

“아아아아아악!!!!!!!! 이개 무슨 짓이야 이 미친년아!!!!!!!!”

수영은 멍하니 서있는 진솔을 밀치고 바가지를 뺏어 들었다. 수영은 욕실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금방 갈게 기다려 좀만 참아 우리 아기 언니가 금방 살려줄 게 좀만 참아 착하지, 언니가 꼭 살려줄 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불쌍한 우리 아기 어떡해... 어떡해 진짜....” 수영은 혼자서 중얼거리며 들고 온 물을 어항에 부었다. 그것은 수영이 온 걸 알았는지 그제야 수영이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틀었다. 드디어 그것의 얼굴을 보게 된다. 진솔은 작게 욕을 읊조렸다.

그것은 수영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진솔은 수영의 얼굴을 좋아했다. 쌍꺼풀이 짙게 진 눈과 높지만 끝이 동그란 코, 웃을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입매를 사랑했다. 그것이 그런 수영의 얼굴을 흉내 내고 있었다. 쌍꺼풀이 한쪽 밖에 없고, 코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 동그란 것, 커다랗게 찢어진 구멍의 어설픈 모양 새였지만 분명 수영의 얼굴임이 틀림없었다. 진솔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대로 두었다간 곧 저게 수영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진솔은 정신없이 어항에 물을 붓고 있는 수영의 팔목을 세게 붙잡았다.

“이거 안냐?”

“정신 차려! 너 재한테 홀린 거야! 저게 뭘지는 몰라도 너 단단히 미친 거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니가 뭘 안다고 재라고 불러.”

“얼굴 보여? 저거 너잖아!”

수영은 코웃음을 쳤다. 홀린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미친년아. 수영의 눈이 광기로 빛났다. 진솔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너 나 좋아하지?”

수영의 말에 진솔은 말문이 막혔다. 입술을 어찌나 꼭 깨물었는지 입에 피 맛이 감돌았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쩐지 내 앞에서만 유난히 빌빌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더라니. 모

른 척해주느라 나도 힘들었어.”

항상 웃으며 고맙다고 말해주던 수영의 예쁜 입술이, 다정했던 눈빛이, 사랑스럽게 찡긍대던 코가 진솔에게 상처입히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래 놓고 들킬 것 같으니까 내뺀더라? 왜? 그 정도 용기는 없었나 보지? 넌 딱 그 정도야. 겁쟁이에 비겁한 년.”

진솔의 진심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지금도 너는 날 위한다고 생각하겠지. 갇잡게 굴지 마. 너 그냥 질투하는 거야. 내가 네가 아니라 에리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겠지. 그 알량한 질투심으로 나한테서 에리얼을 뺏어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 알아?”

진솔은 당장이라도 저 예쁜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그래도 난 너 안 사랑해.”

곧 한계였다.

“난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거든.”

진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다. 진솔은 제 몸집만 한 어항을 들어 올렸다. 안에 물이 얼마 없으니 들만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내던졌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어항은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유리가 흩뿌려졌다. 그것은 바닥에서 몇 번 팔딱대다가 움직임을 멈췄다. 수영의 비명이 이어지다 끊겼고,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

수영은 더 이상 살 의미도, 살 가치도 사라졌다. 차갑게 식은 시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몸에서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평평 울었다.



그날의 일은 이제 흐릿하다. 수영이 울면서 그것에게 손톱을 먹이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 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불에 타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솔의 기억에서 그것과 함께한 한 달여의 시간은 사라졌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진솔은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짐을 정리하고 그 집을 떠났다. 그 집에는 수영만이 남았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어디서 또 그것과 같은 것을 주워다 기르고 있을지도. 진솔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마음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쏟아붓기에는 아까운 감정이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무를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었다.

*

시간은 어느새 흘러 또다시 여름이 되었고, 장마가 시작되었다. 진솔은 볼 일이 있어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다. 보도블록이 고르게 깔리지 않아 여기저기 움푹 파인 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진솔은 물웅덩이를 밟으며 걸어갔다. 찰박찰박 소리가 났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 물웅덩이에서 무언가 반짝하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과 닮은 무언가였다. 한 때 '인어'라고 불렸던 것. 흰색 막으로 덮인 오묘한 색의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진솔은 망설임 없이 물웅덩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음, 그다음 물웅덩이를 밟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그 남자

국어국문학전공
20171031 박상선

내가 우리의 얘기를 써보자고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직접 쓰는 것은 안될거라고 했지만 내가 쓴다면 허락은 해주겠다고 했다. 물론 이런 귀찮은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허락이라도 한 것이 고마워서 내가 다 쓰겠다고 했다. 나도 상규한테 물어본 것인지 너무 바쁜 탓인지 미룰 데로 미루다가 쓰고 있다. 상규는 이 글에 대해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상규를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상규가 크게 싫어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무언가 귀찮은 일을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정도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데 밥 먹는 것이 귀찮아서 하루 종일 굶거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어 눈을 감고 누워있기도 한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일을 마무리한다. 심지어 성의 없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봐야 할 완성도를 보여 준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기로 결심한 것을 방해받는 것이다. 특히 자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서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의 방해로 일어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웃기게도 자기가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한두 시간만 자고 작은 알람 소리에 일어났다. 상규의 알람은 진동으로 되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재난문자가 오는 것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핸드폰에는 아직도 재난 문자가 오지 않는다. 이 외에 크고 작은 돌발 상황에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생일에 부모님이 준비한 깜짝파티에 되레 화를 내며 뛰쳐나간 적도 있다.

상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를 찾지 않는 것이다. 부모님이 준비한 생일 파티에 화를 내기도 했고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도 한다. 다만 오라고 불러도 가는 것을 본 적은 별로 없다. 가끔 누군가가 “이따 보자”라던가 “놀자”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흠”과 “안 갈래”였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친한 친구는 몇 없었지만 가끔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는 단 한 번 참석했다. 어색한 친구의 생일파티나 PC방을 가는 등 몇 번 놀러 나가는 것을 본 적 있는데 항상 집에 와서는 “재밌었다”나 “아쉽다”라는 말을 했다.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왜 저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나 싶은 것이 있는데 갑자기 생긴 중요한 약속(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가지 않음),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모든 전화(가끔은 아는 사람의 전화도 안 받기도 함), 새로운 짐이 생기는 것(애초에 웬만하면 뭘 들고 다니지 않음) 같은 일에 실제로 욕을 할 정도로 짜증을 내기도 한다. 상규가 욕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약간 화가 났을 때는 말수가 줄어드는데 진짜 화난 것처럼 욕을 하는 것을 보면 작은 일이지만 정말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규는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제외하면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일을 시작하여 ‘효율적으로’ 마무리했다. 여기서 ‘효율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5의 노력을 들여 7의 성과를 내는 것과 10의 노력을 들여 10의 성과를 내는 것이 있다면 그는 항상 5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5만큼의 노력만 한다. 이것은 상규가 실제로 자주 쓰는

예시인데 실제로 그는 하는 일의 대부분을 이렇게 해결했고 대부분의 상황에 ‘진짜’ 잘했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다. 그래도 상규는 은근히 다재다능한 면이 있는 듯 항상 작은 노력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을 해냈다.

상규가 귀찮아하지 않는 것들은 진짜로 좋아하는 일과 새로 산 휴대폰의 모든 알람을 끄고 무음으로 만들기, 자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불빛조차 가리기, 누군가가 어질러놓은(그는 자신의 물건이 생각한 위치와 바뀌어 있는 모든 것들을 어질러져 있다고 표현했다. 부모님의 청소까지도) 방 정리하기 등이 있다.

나는 상규를 정말 오랫동안 봤다고 자부하지만 이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내가 한 설명만 듣는다면 아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도 별로 없는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본 상규는 꽤나 많은 친구들이 있다.

상규와의 첫 대화는 중학교 입학 첫날이었다. 상규는 키가 꽤 컸고 살도 좀 있어 보였다. 반에 친구가 없는 듯 어색해 보였고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

“어..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난 윤상규야”

나도 말주변이 있는 편이 아니라 어색한 대화는 금방 끝났다. 상규는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고 쉬는 시간이 되어도 말을 걸어오는 친구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애들은 이미 친한 사이처럼 친해 보이거나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녕 너는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갑작스러운 인사에 옆을 돌아보자 처음 보는 애가 우리를 보며 서 있었다.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건 것이다.

“안녕 난 00초 나왔어”

“00초~? 우리 반에 00초 한 명 밖에 없던데 그럼 나랑 놀자 나도 서울에서 전학 와서 친구가 없거든 이름인 김주현이야”

“어.. 어 난 윤상규야”

이때부터 우리는 쭉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주현이는 첫인상부터 쭉 활발하고 유쾌한 애였고 상규는 친해지니까 말이 많아졌지만 뭔가 이상한 아이였다. 중간중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는 별 탈 없이 지냈고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슬픈 일이 발생했다.

“나 다시 서울로 간다”

주현이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언제 가는데”

상규의 물음에 나도 주현이를 보고 있었다.

“모르겠네 방학하자마자 갈 듯?”

“방학만 지내고 오는 거야?”

“아니 이제 서울에 계속 살아”

둘의 대화에 나는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우리는 셋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정신없이 놀고 또 놀았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흐르는 듯했고 어느새 2학년이 된

상규의 곁에는 주현이는 없고 나만 남게 되었다. 전학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어느새 만나는 일은 없어지고 연락도 뜸해지더니 언젠가부터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상규는 주현이와 같이 놀던 다른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다.

그렇게 중2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반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 우리는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기 보다 둘이 노는 게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미 친한 애들끼리 놀아서 낯 데가 없어”

“나도야. 근데 우리끼리 놀아도 재밌잖아”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 주현이는 전학을 가고 상규는 웬지 친해지기 힘든 뭔가가 있어서 거의 우리 둘이 자주 놀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친해지기 힘든 이유는 그가 조금 특별했기 때문이다. 좋게 말해야 ‘특별’이지 가끔은 병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상했다. 나는 이것을 중 2병이라고 생각한다. 상규는 “내 성격이 X 같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좋은데?”라고 말한다. 실제로 자기의 성격을 혐오할 정도로 욕할 때가 있지만 반대로 특별한 것 같아서 좋다고 할 때도 있다. 어쨌든 상규의 중 2병은 이렇게 시작된 듯하다. 중학교 3학년은 정말 조용하고 빠르게 흘러 우리를 고등학생으로 만들었다.

가끔 중학교를 회상할 때 “기억이 안 나”라고 한다. 나도 그렇고 상규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를 잘 얘기하지 않고 가끔 하는 얘기도 특정한 기억의 일보다는 3년간의 특징 “중학교 때 학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녔어”라던가 “그땐 진짜 살이 많이 찼었어”처럼 아주 오래된 일처럼 말한다. 가끔 “주현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추억이 그리 많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놀 생각 밖에 안 했는데 어느 새부터 친구나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둘 다 친구도 별로 없어서 제대로 놀지 못하기도 했고.

고등학교는 같은 곳을 가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또 새로운 곳이라 그런지 우리는 적응을 빨리했다. 복도에서 따로 만나는 일은 별로 없었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색해진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학교가 끝나고 난 후나 주말에 중학교 때보다 더 재밌게 놀았다. 상규는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항상 같이 많은 것을 나누고 더욱 친해졌다.

2학년이 될 무렵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했는데 상규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국어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문과를 간다고 했다. 2학년이 된 상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심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조금씩 외향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내가 없어도 다른 친구들과 잘 지냈다. 그렇게 외향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부분도 많이 변했는데 중학교 때의 이상했던 성격이 많이 죽은 것이다. 상규는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갔다. 그리고 그것이 왔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는 상규의 말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여자에 큰 관심이 없었다. 남자를 좋아하거나 성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춘기가 되면서 중 2병도 오고 변성기가 한참 지났지만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한 것이다.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름은 모르겠어 저기 재야”

상규의 손끝에는 처음 보는 여자애가 있었다. 같은 반이 된 동갑내기 여자애였는데 방금 처

음 본 애였다.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개학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이름도 잘 모르는 애인 데다가 외적으로 크게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까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의 말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이어트와 운동을 시작했고 항상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규가 하는 일에는 귀찮음이 제일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것이 아예 사라져 버리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학생 때 상규와 연애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상형에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사람도 생물이기에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종의 번식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상형은 내가 정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성의 강점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에 연애나 사랑에 관련된 감정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졌고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 상규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듯했다. 아예 하지 않던 공부에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후 상규의 성적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 되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본다면 ‘저렇게 한 것치고는 나름 괜찮게 나왔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그가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없다. 아마 이것은 그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그전까지는 귀찮음으로 인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는 귀찮음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는 따로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주는 자습시간에는 대부분 책을 읽었다. 하지만 ‘국어’시간에는 필기도 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책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국어시간에 책을 읽어? 너 국어 좋아하잖아”

“국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상규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책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여전히 공부도 자기 기준에 따라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자신을 가꾸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물론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다.

“좋아하면 친해지게 말이라도 걸어봐”

상규가 몇 달째 마음만 가지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답답해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리고 싶은데 용기도 안 나고 이제 와서 갑자기 말 거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달라져?”

잠시 고민하더니 무언가 다짐한 듯한 말투로 나에게 물었다.

“우리 방학이 언제였지?”

실제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규는 거의 5달 가까이 다른 애들한테는 티도 내지 않고 좋아하고 있었다. 본인은 티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 달도 안 남았어”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톡이나 해볼까...?”

상규의 말에 드디어 뭐라도 한다는 것에 웬지 들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작 ‘톡’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정도 용기도 좋았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도 없이

심심하게 살았던 상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먼저 톡이라도 하는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혹시나 방학하기 전에 뭔가 시도를 하려나 기대를 해 봤지만 고요하게 방학을 했고 또 조용하게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다.

톡을 해보겠다고 했던 방학이 끝날 때가 됐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내가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먼저 물어봤다.

“이제 방학도 끝날 텐데 톡은 안 할 거야?”

“아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하지? 어떡해야 안 어색하고 안 이상할까?”

상규는 진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나도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없었다. 결국 우리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방학숙제 물어보기’였다. 친한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어색한 애한테 물어보는 거라는 핑계를 댔다. 얼떨결에 몇 번의 대화를 끝으로 톡은 끝났지만 상규는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와 애 착하다”

작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듣자 왠지 상규가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별일 없이 남은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다. 아마 그때 개학이 좋았던 사람은 상규 말고 없었을 것이다. 그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부터 날 귀찮게 했다.

“나 이정도면 살 많이 빠졌지?” “개가 나 살 빠진 거 알아볼까?” “방학 동안 남자친구가 생기진 않았겠지?” “남자친구 있으면 어떡해?” “역시 난 안되겠지?” “톡 프로필 사진 안 바꾼 거 보면 없을 거야” “내가 톡 해서 날 좋아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외에도 정말 시답잖은 질문을 쏟아 내면서 혼자 여러 가지 감정을 내비쳤지만 나는 웃기도 하지만 귀찮음이 점점 커져서 그냥 통째로 무시했다.

하지만 또 상규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2학기마저 끝낼 듯했다. 1학기 때랑 다를 것은 하나도 없이. 아니다 그래도 방학 때 톡 한 번이라도 했으니 좀 다르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상규가 말했다.

“안되겠어 조금씩 톡이라도 해야지”

“오 드디어? 진짜 오래 걸렸다”

“근데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솔직히 어색하게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도 몇 번 했잖아. 그냥 친한 척 톡 해. 슬슬 관심 있는 것도 내비쳐봐. 내가 볼 땐 너를 마냥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나는 그가 이미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상규만 더 피곤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승부를 보는 쪽으로 유도했다.

“나 톡 보냈어”

며칠 뒤에 상규는 그 여자애한테 톡을 했다.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있었다.

“오 이제 시작이야. 계속해 봐”

둘의 대화는 나름 잘 이어지는 듯했고 만족하고 있었다. 톡을 시작하고 그 둘은 꽤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루에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톡을 했고 핑크빛 기류는 없었지만 상규는 행복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톡만 하는 사이일 뿐이고 학교에서 둘이 개인적으로 대화는 아예 하지 않았다.

학기가 끝나갈 때쯤 상규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3학년 때 다른 반 되면 어떡하지?”

“뭐 어때 어차피 옆 반일 거고 톡은 계속할 거잖아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는 말도 안 하잖아”
오히려 톡을 자주 하기 시작하고 나서 둘은 뭐가 어색했는지 학교에서는 서로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서로 톡은 잘 하는 것이 정말 이상했다.

중학교 시절 설날에 상규가 나에게 물었다.

“세배 안 하고 돈 안 받으면 안 되나? 나도 절 안 하고 어른들도 돈 안 쓰고 서로 좋을 텐데”

“그런 게 어딴어 솔직히 돈도 많이 생기고 좋잖아”

“난 세배하는 게 싫어 뭔가 틀에 박혀 있잖아”

“틀에 박혔어도 잠깐 참으면 돈이 생기잖아 이눔아”

나는 장난으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부모님께 했다가 혼났다는 것을 보면 나름 진지한 고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결혼식이나 돌잔치, 병문안 가기 등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었다. 이번 설에 이 얘기를 상규에게 다시 했더니 머쓱하게 웃기만 했다. 확실히 변한 것 같다.

걱정이 무색하게 방학 때 나온 반 배정 결과 3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었다.

“다행이다”

“그래 잘 됐네”

“근데 톡만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럼 어떡해 얼굴 보면 어색해 죽겠어”

“그냥 눈 딱 감고 몇 번 얘기하다 보면 괜찮아질걸?”

이 말을 들은 상규가 그 여자애에게 톡을 보냈다.

‘내일부터 학교에서 보면 인사할게’

그 소심한 톡을 보고 굉장히 답답했지만 처음 하는 연애의 풋풋함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하지만 상규는 다음날 학교에서 진짜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별 진전이 없는 3학년 1학기도 끝나가고 있었고 슬슬 대학교라는 압박이 생기기 시작했다. 상규는 일단 연애보다는 대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부 시간을 조금 늘렸다. 진짜 조금. 이때 국어시간에 책을 읽다가 여러 번 걸리기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의 책을 다 가져가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새 책을 사서 가져간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수업 시간엔 자거나 딴짓을 한 적이 없고 시험 기간에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위해 게임(그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함)을 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물론 톡도 멈추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넌 공부도 안 하는 게 왜 시험을 잘 보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아마 이 정도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학교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잘 보이고 싶다는 목표가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도 친구들은 상규가 좋아하는 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바뀐 것은 여자애와 그 애의 친구들이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야 너 !@\$#좋아하지?”

상규가 좋아하는 여자애의 친구 중 하나인 서영이가 떠보는 것처럼 불쑥 물어왔다.

(!@\$#는 상규가 좋아하는 여자애인데 상규는 그 애의 이름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 그냥 어쩌다 톡 하게 돼서 톡만 하는 건데”

“흠...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척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며 말했고 둘은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대화는 금방 끝났다. 하지만 그때 상규는 속으로 ‘아 나 연기 진짜 못하는데 들킨 것 같다’라

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나한테 엄청나게 말을 했다.

“어떻게 알았지?” “티 났나?” “아님 개가 말했나?” “개가 나 좋아하나 봐” “부담스러워서 연락 끊으려고 그러나?”

“...”

하지만 나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고민하다가

“재한테 살짝 물어보는 건 어때?”

“뭐를”

“!@\$가 너 좋아하는지”

“미쳤네 재가 그거 들으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아 왜 혹시 또 아니? 서로 좋아하고 있을지??”

상규는 혼자 고민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할 일을 했다. 뭔가 일이 일어날까봐 기대하기도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의 일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며칠 뒤 상규는 서영이에게 톡을 보냈다.

‘혹시 !@\$가 내 얘기 했어?’

‘아니 왜??’

거의 바로 답장이 왔다.

‘그냥 저번에 네가 한 말 때문에’

‘나 그냥 해본 말인데? 왜 뭐 찢려??’

상규는 당황하며 나에게 말했다.

“이거 살짝 큰일 난 거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땐 눈치채고 장난치는 거 같아 그냥 사실대로 말해봐”

“아... 오케”

상규는 잠시 고민하더니 심호흡을 하고 다시 톡을 보냈다.

‘나 사실 !@\$ 좋아해’

하지만 오랫동안 답장이 없었고 답을 듣지 못한 채로 학교를 가게 되었다. 상규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학교에 갔지만 막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불안해했다. 잠에 들기 전 했던 생각으로는 좋은 싫든 반응이 왔어야 했다. 아무렇지 않게 !@\$와 인사를 하고 전날 톡을 했던 서영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상규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며 물었다.

“뭐지 왜 아무 반응이 없지?”

“그러게... 아무리 봐도 톡 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볼까?”

아무렇지 않게 한 말에 내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네가 물어볼 수 있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때”

상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마침 눈이 마주친 서영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옅은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복도로 나와봐”

“할 얘기가 뭔데?”

“어제 톡 봤지? 왜 답이 없어?”

“무슨 톡? 못 봤는데?”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는 것을 상규는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 지금 웃으려고 하는 거 다 보여. 그냥 조용히 말해줘. 뭐라고 말하던 그냥 듣기만 할게”

“너네 쌍방이야”

하며 알뜰게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상규가 느꼈던 감정의 100%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이 떨려왔다. 상규도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굴을 발강게 물들이며 나에게 물었다.

“거짓말은 아닌 거 같은데... 꿈인가?”

“... 꿈 아니야 잘해봐!”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기도 전에 수업종이 쳤고 상규는 많은 생각을 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국어시간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책상 위에는 교과서만 올려져 있었다. 학교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잘 모른 채로 집까지 걸어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서영이에게 톡을 했다.

‘진짜야?’

‘뭐가 또?’

바로 답장이 왔고 톡은 빠르게 올라갔다.

‘아까 너가 말한 거’

‘진짜니까 잘 좀 해봐’

상규의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쿵쥔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속으로 온 그녀의 톡에 심장이 멈춘 것처럼 앞이 멍해졌다.

‘근데 대학교 불기 전까지는 연애 안 한다던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 고마워’

풀이 죽어 !@#\$에게 톡이 온 줄도 모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상규에게 답답함을 참지 못한 내가 말했다.

“그래도 좋아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연애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개가 저런 말을 했는데 내가 계속 매달리는 게 맞는 일인가?”

“...”

“그건 그거대로 !@#\$한테 민폐 일수 있잖아”

천천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었다. 공부하겠다는 사람한테 괜히 관심을 바라다가 대학에 붙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상규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속으로는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이렇다 할 조언을 해주지 못한 채로 주말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난 상규는 톡을 확인했다. 어제 혼자 고민에 빠져 읽지 못한 !@#\$에게 온 톡이 눈에 들어왔다.

‘서영이가 이상한 말 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신경 쓰지 마’

그는 톡을 한참 동안 보기만 하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윤상규인데요... 혹시 !@#\$ 번호 아시면 번호 좀 알려 주실래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 나 상규야”

잠시 후 전화를 마친 상규는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어디 가?”

“!@#\$ 만나러 갈 거야”

나의 물음에 대답하던 단호한 눈에서 어떤 의지가 보였다. 그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감정이입이 되며 불쌍한 마음이 일었지만 그를 응원해 주기로 했다.

“잘해봐 긴장하지 말고!”

그날 밤 내가 본 장면은 상규뿐 아니라 나에게도 잊지 못할 만큼 강한 자극을 주었다. 상규의 손은 !@#\$의 손과 완벽히 포개져 있었고 부끄러워하는 두 사람을 보고 놀리는 듯 달이 밝은 빛을 내뿜었다.

이제 상규는 나에게 말을 자주 걸어오지 않는다. 나도 그의 마음을 알기에 그에게 선뜻 말을 건네지 못한다. 종종 걸어오는 말은 “오늘은 옷 어떻게 입지?” “이번엔 어디서 만나지?” “오늘은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어” 같은 항상 설렘이 가득 찬 말들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같이 설레서 연애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지만 끝내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상규가 해주는 말이 좋았고 그가 날 찾지 않을 때는 조용히 기다렸다. 상규가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내 자존심도 높아지는 듯했고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행복했던 얘기를 하면 나도 기뻐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런 연애 상담마저도 점점 선배 커플인 친구들에게로 옮겨 갔고 그는 나를 서서히 잊어갔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상규가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행복해 보이는 상규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규는 그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기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랐다. 상규의 행복이 더욱 오래가서 나를 평생 찾지 않아도 좋았다. 하지만 항상 힘들었을 때 기댈 곳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상규를 만나게 된다면 이 글과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글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것이다. 만약 상규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 나오는 싫어하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성격은 조금 이상하지만 속이 여리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만큼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고 어색한 것을 싫어해서 친해지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다. 하지만 친해지고 나면 분명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상규가 친구가 많아지고 바쁘게 살면서 평생 나를 찾지 않게 해준다면 나를 평생 찾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인도에 갇힌 사람처럼 외로웠던 그가 만든 ‘월슨’이자 상규의 일부였다.

상규는 혼밥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한 번도 혼밥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혼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심함 때문입니다. 상규가 먼저 밥 먹자고 말은 잘 못하니까 가끔이라도 같이 먹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상규는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내 뭐든 시켜야 하는데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내뿜어서 눈치가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지고 어느새 신나게 놀고 있는 상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규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는 별, 구름, 노을 같은 것을 좋아하는데 어린

왕자에 이것들에 대한 묘사가 낭만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어린 왕자가 노을을 마흔네 번을 봤다고 하는 부분인데 당신이 상규와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얘기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상규는 톡보다 전화를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귀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은 참아도 복잡한 것은 싫어하고 고소공포증도 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고 스릴을 즐깁니다. 새콤달콤한 것은 싫어하지만 아주 단 것은 좋아합니다. INFP입니다.

나는 너와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어. 너와 모든 경험을 같이하면서 네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중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땐 너의 친구가 되어 주고 고등학교 때 그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너를 보며 상담사가 되어줬어. 이제는 네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하지만 우린 이제 예전처럼 같이 놀고 밥 먹고 고민을 나누지는 못할 거야. 아직 같이 못 해본 게 많은데.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쉽네. 상규야 행복하게 살아. 주변사람들한테 잘하고!

끝에서 시작으로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2022년 1월 23일 날씨 흐림

오늘은 참 슬픈 날이다. 아니 기쁜 날인가? 그걸 느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내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날이고 내일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왜 자살을 하는지 묻는다면 모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듯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내 인생을 자유롭게 못했거든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일이 있었나 몰라
떠나는 마음이 어떠냐면.... 글썄.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은것같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인데 말이야
이 세상이 싫은 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걸 좋아하는 장소 보고싶은 사람 맛있는 음식 등등 하지만 나는 그걸 모두 빼앗겼어
신에게 간다면 묻고 싶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했냐고 아니 당신은 진짜 신이 맞냐고 물어보고 싶어
하늘이 불러서 가는 건 아니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도 받아주지 않을까.
이 순간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래
안녕 자유롭게 못한 세상아

어제 밤 교통사고로 죽은 여자의 품안에서 발견된 유서의 내용이였다. 사고의 장소는 그녀가 살던 지역의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건물 앞 사거리 횡단보도.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유서의 내용을 보니 그 건물에서 투신자살을 계획했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람이 죽은 건물이 되어 값이 떨어질 뻔 했지만 제 운명을 피한건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 또한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신이 있다면 정말 묻고싶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느냐고, 신은 정말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맞냐고,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게 맞느냐고 묻고 싶다. 누군가는 삶이 힘들어서 신을 찾게 된다는데 나는 삶이 힘들어서 신을 원망하게 되었다.

장례식에 오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이는 몇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해줄 가족은 없었으니까. 그녀의 몇 없던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흘려주었다. 그리고 나를 힐끗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험담을 하는 걸까, 눈치를 주는 것인가.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이해는 간다. 나와 그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슬퍼하는 것에 이상함을 느낄테지. 아니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자연스러운 것이였다.

나는 연화의 전 남자친구였고 그녀에게 제일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니까.

연화를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본 연화의 모습은 소극적이면서도 사람과 가까워 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향적인 모습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나는 그런 고독하면서 혼자인 친구를 볼 때 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이름이 진연화..?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려요”

“아...네 안녕하세요”

늘 그렇듯 이런 사람들에게 살가운 반응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처음 오셔서 다들 모르는 얼굴들이 많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낯을 좀 가려서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네요”

이후 동아리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며 대화를 이어나가긴 했다. 여기서 큰 발전이 있어서 친해졌으리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만 소개시켜주고 끝났다. 21살 첫 만남에서의 연화의 모습은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였다. 시 동아리였던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발표할 때나 얼굴을 보았지 그 이후로 대화를 섞은 적은 없었다. 2학기 였던 시기였기에 나는 학기가 끝나고 군대를 다녀왔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진화와 나는 여전히 교류가 없었다. 연화와 친해진 건 23살 복학을 준비하던 때였다.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보고 있었고 터치 조작으로 우연히 한 게시글의 ‘좋아요’ 표시를 눌렀다. 의도치 않은 터치였다. 게시글은 진화의 글이었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또한 우연이라 생각하며 안부연락이나 남겨보았다.

-잘 지내시죠? 저 전역해서 다음 학기에 복학해요-

함께한 시간이 짧아서 었을까? 아니 길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동갑임에도 우리는 말을 놓지 못했었다.

-와 전역하셨군요 축하해요, 잘지내시죠?-

-군대 안에만 있었는데 별일이 생기기도 어렵죠 뭐 ㅋㅋㅋ-

-ㅋㅋㅋㅋ그래도 무사히 잘 전역하셨나 보네요. 복학전엔 뭐하시려구요??-

-크게 생각은 안해봤는데... 일단 맛있는 것좀 먹으러 다니려구요 군대 안에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배달말고 즉석떡볶이요. 냄비에 끓이는거 일단 그거부터 제일 먹고싶네요-

-떡볶이ㅋㅋㅋ 떡볶이 메이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같이가요-

-오 좋죠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낯을 가리는 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다니,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한 말에 진지하게 대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첫 번째로 이해한 바대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밥을 먹으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는 근황도 나누고 대학 졸업 준비 이야기(연화는 4학년2학기를 다니며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복학 준비하는 이야기 동아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는지 등등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오갔지만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3년동안 못 놓았던 말도 놓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정말 우연하게도 우리 둘은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선배의 졸업 작품을 도와주려고, 지인의 결혼식에서도, 집에가는 길에서도 자주 마주쳤고 그

렇게 친해지며 가끔 근황을 묻고 싶을 땐 연락해서 밥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누가 그랬던가 좋은 시간은 좋은 상황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서서히 연화에게 감정이 생길 무렵이었고 우리의 인연도 우연에서 시작된, 우리의 계획에 없던 일들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사귄 때 꽤 신중한 편이었다. 신중하다니, 내가 인기있는 삶을 살아서 나에게 구애해오는 여자들 중 한명을 골라야 하는 신중함은 아니었다. 단지 모든 관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특히나 연인관계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이별의 아픔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말이면서도 말이다. 어쨌거나 나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내 마음이 진심인지 스스로를 의심해본다. 내가 외로워서 좋아한건 아닌지, 이성으로써가 아니라 사람으로써 좋아한 것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연화를 좋아한다고 확신이 들 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계기는 연화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나서 였다.

“연화야, 너는 어찌다가 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냐? 나는 국어국문과여서 라고 하지만 너는 컴퓨터다루는 과인데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 들어온거야?”

“음... 그치. 그냥 시를 좋아한다기 보단 내 글을 쓴다는 거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 내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는거. 되게 자유롭잖아?”

“자유롭다... 그치 자유롭네. 근데 자유로우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거 아니냐? 난 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냐...이걸 써 내야하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건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라는건 별로 없어.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율’에 가까울 뿐이지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도 싶네”

“자유하고 자율? 둘이 뭘차이야? 똑같은말 아니야?”

“의미적으로 조금 달라. 자유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거야. 자유! 어느 제한도 없는 상태. 하지만 자율은 ‘율’이라는게 법이라는 뜻이라서 정해진 규칙이나 법 안에서 자유롭다는 뜻이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유’ 학습이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이라고 하는 것처럼! 야간에 학습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법 안에서 어떤 공부를 할지는 자유라는 거지”

“오...진짜 이해 잘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일 것 같은데 자율인건 뭐야?”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롯데월드의 자유이용권이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면 롯데월드에 있는 놀이기구를 내 마음대로 타도 된다는 거잖아? 하지만 정해진 법안에서 자유롭게 탈 수 있는거야. 자유 이용권이 있다고 해도 새치기는 하지 말아야 하고, 놀이기구의 사용방법대로 타야한다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도 자유로운 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학교를 가도되고 안 가도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것처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뭘”

“학교는 안가도 되지만 고등학교 까진 의무교육이라 대학교만 자유롭다고 쳐보자. 근데 대학교를 안가면 나중에 취업하기 힘들니까 결국 가게되는 친구들이 대다수더라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 안 먹으면 배고파져서 영양실조도 오고 건강도 안좋아져. 결국 먹어야 된다는 거지. 진짜 자유라면 내가 선택 하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달까? 너무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야. 진짜 자유로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 져야 한다는거. 그런거”

“되게 어렵네...”

어려웠다. 자유가 진짜 있는걸까. 아니 연화가 찾는 자유라는건 진짜 있는걸까? 있다면 찾을 수나 있을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어릴적부터 배운 당연한 이치이다. 근데 진짜 자유면 책임조차 없는 행동인가? 내가 책임을지지 않으려면 어떤걸 해야하나? 어렵다. 단순한 문제인데 어렵게 느껴진다. 왜 연화는 이렇게 까지 자유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을까 궁금했다.

“근데 연화 너는 자유로운 게 왜 좋아?”

“자유로운 거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너가 묻고 싶은 의미는 뭔지 알겠다. 왜 그렇게 까지 자유에 대해서 나름의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사실 이걸 물어봐주길 기대했거든. 내가 왜 자유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내 인생은 자유롭지 못했거든.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된게 하나도 없었어. 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다가 끝에는 내 마음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인 거지”

“실례가 안 된다면, 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싶은 데 괜찮을까?”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인거지’ 라는 말에서 연화의 살아온 이야기가 어느 영화에 나오던 낭만적인, 평범한 삶은 아니었음을 짐작했다. 저 표정과 말의 온도로 봐선 분명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으리라.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궁금했고 나는 조심스럽게 연화의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연화의 삶은 말 그대로 시작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왜? 원하는 상황이 한번 도 없었으니까. 태어난 날부터 연화의 탄생은 본인이 원하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로 1월 생. 대한민국에서 1월생은 ‘빠른 년생’ 으로 통하며 같은 해 태어난 동갑들 보다 1살 더 많은 나이로 사회적 나이가 계산 되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었지만 평범함을 원했던 연화의 삶과는 많이 달랐던 것이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빠른 년생’ 이라는 것 때문에 동갑 친구들한테 너 나한테 존댓말 해야 한다, 동생들한테 우리 친구 아니냐 라는 말장난이 들려왔고 이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23살 이면 되었지 ‘빠른’ 23살이라는 게 너무 싫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 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채 태어난 셈이다.

연화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황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순간이었다. 연화의 부모님은 연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태어날 때 ‘평범’을 빼앗긴 탓일까 연화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할 ‘자유’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슬퍼해야하는 건지 안도해야하는 건지 모를 혼란스러운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연화의 부모님은 연화에게서 자유를 한 번 더 빼앗은 사람들이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늘 불화와 갈등의 소리가 연화의 집에서 들려왔고 둘은 갈라서게 되었다. 연화를 데려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며 연화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연화는 빨리 독립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어머니는 연락은 한다지만 아버지 만큼이나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이혼이 결정되었을 때 늘 어머니가 하던 말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거야’ 라는 말들이었다. 연락을 해서도 안부를 묻긴 했지만 그저 죄책감과 의무감속에서 느껴지는 무미건조한 물음이었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푸념과 원망의 말들 뿐이었다. 부모님이 주는 고통으로 묶여서 자유롭지 못했던 삶. 연화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은 두 번째 사슬이었다. 연화에게 고통만 주었던 부모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서로 다시 잘해보겠다며 연락을 하고 다시 가정을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화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 둘 다가 각각 원망스러운 존재들이었지만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스스로도 이해할 순 없지만 내심 기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슬픔을 더욱 빛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름 두분이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행을 떠나던 길에서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사고 라는 것 만큼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까. 사람의 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화에게 고통을 준 그 순간 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토록 '자유'는 연화에게 갈구하게 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찾을 수 조차 없는 것이었다. 부모님의 죽음조차도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고통에서 벗어나 할까 한건지 모를 혼란에 묶어버린 연화는 감정에서 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어때..?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했나?”

“전혀, 오히려... 그냥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법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뺄어질 법도 한데 그런 삶이 있었다곤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착하고 올바른 모습만 내게 기억 되었다는게 신기해”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 고마워. 늘 슬퍼하기 바빴던 것 같은데.”

“내가 더 고마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버텨서 내게 좋은 친구로 남아있어 줘서”

‘연화’ 연꽃의 다른 말이다. 연꽃은 본래 진흙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간직한 채 피어나기 마련이다. 연화의 이름 그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어난 곱고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에 나는 연화를 좋아한다는 내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연화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얻고 나서는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는 것처럼 나는 연화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했고 자주 만나며 우리 둘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연화도 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불행은 이로써 끝이 나고 이제 행복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연화가 원하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고 편안했던 ‘자유’의 순간이 왔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았을 때 나는 연화에게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자유를 빼앗아 간 존재가 되었다. 이 또한 내 의지는 아니었다.

우리 둘을 갈라 놓았던 건 군대도, 부모님의 반대도, 서로의 대한 마음이 식어짐도 아니었다. ‘상황’이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와도 같으며 그 어느 것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말이다. 상황이 이어진 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른다. 내게 주어진 상황 상황들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며 그 길을 부정하여도 나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이다. 교회를 다니며 신을 믿었던 나는 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이 운명이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때부터 나는 운명이 싫어졌다. 그리고 이 운명을 정한다고 하는 신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신은 세상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 받는 것을 진짜로 원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맞을까? 라는 의문들. 운명의 끝이 고통과 슬픔 뿐 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운명과 신을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진짜 신이라면, 사람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라면 피조물들이 고통받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연화와 내게 주어진 상황도 신이 주신 것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신을 믿고 안 믿고 또한 내 자유이지만, 나는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 신을 믿기로 선택했고, 또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 신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 자유를 위해 신을 믿기 시작했지만, 자유롭지 못할 까봐 신을 원망하며 부정하고 있다.

-수민아 지금 어디야?

연화가 남긴 메시지였다. 나는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을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다. 나는 예정대로 복학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다. 군대 가기 전에 방황했던 시기를 속죄라도 하는 걸까 더 이상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 또 지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인지 나는 교수님께도 눈에 띄는 학생이었고 교수님 눈에 드는 학생에게는 늘 관심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 마련이었다.

“수민 학생 해외에 나가본 적 있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 제도에 추천을 받게 되었다. 방학기간 동안이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해외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지원도 학교에서 해주고 그냥 몸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까지 하면 되는 것이었다. 미래가 보장된 달콤한 제안이었고 내게 가장 큰 걸림돌은 연화였다. 연화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알고 있었기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안은 감사드립니다”

“그래, 충분히 고민해보고 알려줘”

물론 나는 이러한 사실을 연화에게 곧바로 알렸고 연화는 자신은 괜찮다며 좋은 기회가 될 터이니 다녀오라고 했다. SNS에서 ‘여자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여자는 본래 속 뜻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나는 그 말을 왜 우스갯 소리로 여겼을까. 연화가 지금껏 본인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 주었기 때문에 그 만족감에 사로잡혀 안심 했던 걸까. 마음은 반반에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지만 왜인지 나도 모르게 교환학생을 갈 것인 마냥 말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에 가게 되면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난 항상 취업이 걱정이었는데 그 고민도 해결되고. 교수님이 날 좋게 봐주셨나봐”

“그래? 많이 가고 싶나보네”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가고 싶어도 가지 않을 것이었다.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신뢰를 만드는 건 진실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 하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그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된다. 나와 연화와의 관계도 하나의 상황이 우리를 진실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불편한 관계, 즉 자유롭지 못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 연화를 두고 어딜 가겠어. 난 너 옆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나 때문에 남는거라면 난 반대야. 너의 선택이니까 너의 자유야”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선택이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기준 안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즉 자율인 것이다. 나의 선택은 자유가 아니었다. 분명한 자율이었다.

“그럼 고민을 좀 더 해볼게 연화야. 배려해줘서 고마워”

“응....뭘...”

연화는 자신의 표현에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으라고. 사랑하는 연인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연화의 자유로운 마음을 속박했다. 나도 연화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내 선택을 속박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의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또다시.

-연화야, 너 남자친구 수민이 말이야... 요즘 잘 지내지?

-응? 잘 지내지 그건 갑자기 왜?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뭘 잘못 본거야 ㅋㅋㅋ 사람 되게 궁금하게 한다

-내가 조금 이따가 전화할게!

복학하고 나서 날 좋아한다던 후배가 생겼다. 나에 대해서 잘 몰랐기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멀리서 짝사랑만 하던. 그렇기에 나는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저 친해지고 싶어서 밥 먹자는 권유에 별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수업도 같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요즘 세대 답지 않게 나에게 고백편지를 쓰는 그 모습을 연화의 친구가 보게 되었고 편지가 누구꺼냐고 묻자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꺼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그 편지 봉투는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었고, 편지봉투의 생김새를 기억하던 연화의 친구는 그 상황을 오해하기에 딱 좋았다. 내가 간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내용을 보았을 때 거절의 의사를 바로 건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연화에게는 꺼내고 싶지 않았다. 교환학생의 일로 내가 연화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은 문젯거리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향한 배려는 우리에게 큰 화로 돌아왔다.

“어제 많이 바빴어? 문자에 답장도 없고”

“문자...? 아 미안!! 내가 답장 한다는걸 왜 안 보냈을까??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나봐”

“정신이 없었구나.. 많이 바쁜가보네”

“아니야 바쁜거, 그냥 신경쓸일이 좀 있어가지고”

“신경 쓸 일? 그게 뭔데?”

“아니야 지금은 해결 났어. 신경쓰지마”

“어떻게 신경을 안써 너가 신경쓰이는 일이라는데”

“지금은 해결 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구. 우리 밥 뭐먹을까?”

“너 나한테 감추는 거 있니? 왜 자꾸 말 돌리는거야?”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균열이 가있던 마음은 작은 불씨로도 큰 불을 만들어 내기에 적합했고 우리는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다. 물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전과 같았다. 다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나는 예전부터 문자를 싫어했다. 문자에는 담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말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었다. 오해도 없고

-우리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연화의 문자 메시지의 속 뜻은 서로가 감정적이었으니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 또한 나는 ‘상황’ 때문에 오해하였다.

-그 말 진심이야?-

연애라는 것을 모를 때 처음으로 다가온 사랑의 감정은 큰 기쁨도 되지만 그만큼 큰 상처를 남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더라던 나의 첫 여자친구는 그 길로 이별의 뜻을 전했다.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뒤로 연락은 끊겼고 만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해 그 말 진심이냐고. 우리 그냥 싸운거야. 너가 오해해서 그런거고, 왜 소통을 안하려고 하는거야?-

무서웠다. 화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화를 내며 남탓을 했지만 그녀가 떠날까 무서웠다. 원체 답장이 느린편이었던 연화는 마음이 복잡하면 휴대폰을 꺼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상태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연화의 번호를 차단하였다. 그녀의 끝이라는 답장을 받거나 연락을 하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의 과거의 상처가 나를 묶어 내가 원하는 연화와의 관계를 속박하고 끊어냈다.

-수민아 왜 전화 안받아? 확인하면 연락줘-

-수민아... 무슨일 있어? 내가 잘못했어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자.-

-부재중 전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뜻과는 다르게 이별을 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스스로가 통제 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서로는 자유롭지 못한 채 이별을 경험했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서운함이 남아있던 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도망가버린 죄. 그 죄의 값은 너무나도 크게 돌아왔다. 연화가 경험한건 한 번의 이별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자유’라는 것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절대적 절망감 이었다. 희망조차 없는. 모든 행복과 희망은 더 큰 절망을 빚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되는. 그런 것이었다.

“왜 나에게 세상은 이렇게 각박한거야..? 나는 행복 하면 안 되는 존재인거야...? 나도 자유롭게 내가 꿈꾸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싶는데... 그럴 순 없는거야?”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까.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걸까. 그런데 듣는 사람조차 없다. 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 죽는 순간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유를 찾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연화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일기장을 작성했다. 아니 일기가 아닌 유서였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아쉬운 말들, 작별인사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비판하고 한줄 평을 내리는 듯한 글.

1월 23일. 연화가 태어난 날이다. 태어난 날에 죽는 것. 처음부터 어긋났던 그 시작을 바로잡고자 그때로 돌아가고자 한다. 연화는 죽는 그 순간 까지 이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나보다. 그냥 자살하기 좋은 높은 건물을 찾았다기 보다는 그 건물주가 사람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갈취하여 모은 돈으로 세운 건물이었음을 알았기에 그 건물의 값어치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말했던 게 기억이 난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까지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했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다.

연화의 사망 추정 시간은 1월22일 23시 40분. 아마 밤 12시가 넘어가는 그 순간 몸을 던지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계획조차 연화에게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연화의 사망 소식을 듣고나서 나는 장례식에 쉽사리 가지 못했다. 내가 연화의 마지막 숨을 끊어버린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 달려가서 마음껏 슬퍼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나 싶은 자책감. 이 모든 것이 나의 감정을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다.

부모님은 없었기에 친척들이 연화의 장례식을 준비해 주었고 나는 그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나보다. 아니 거의 모르는 사이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도 자기 가문의 가족이라고 장례식까진 어찌 준비했지만 그 얼굴에 슬퍼하는 기색은 없었고 갑자기 큰 일이 생겼다는 짜증과 피곤함이 묻은 얼굴들 뿐이었다. 당연하다 연화는 살면서 친척의 존재도 몰랐으니 말이다.

연화와의 관계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아직 우리가 헤어진 것을 몰랐을 것이다. 아니 헤어지긴 했나 싶다,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있었는데 헤어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친구들의 손에서 나는 연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를 받았고

그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해피엔딩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그 아이의 꿈을 꿔다. 새삼스럽게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다시 또 튀어나와 나의 감정을 지배했다. 그 아이가 꿈에 나올 때면 나는 항상 모순된 감정을 가지곤 했다. 미안하고 보고 싶은 마음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미운 마음. 사실 나도 알고 있다.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건 그 아이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 나는 아직도 그 당시를 떠올릴 때면 나약했던 나를 증오한다.

-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것은 8살의 뜨거운 여름 앞에서였다.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던 언니와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개를 발견했다. 우리보다 한참이나 작고 누런 개는 촌스러운 노란색 비닐 노끈과 나무가 연결된 채로 흙바닥 위에 앉아있었다.

"언니, 저기에 개가 묶여 있어."

"어떡해, 누가 버렸나? 너무 불쌍하다."

그 작고 왜소한 몸집이 무척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나는 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반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기에 그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지나쳤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개를 생각했다. 작은 몸집에 눈길에 갇힌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찰나의 순간에 마주 본 그 새까만 눈동자가 마음에 박혀서 나오질 않았다. 그때 개가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이였을까. 문득 나는 개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언니"

"응?"

"저기 있는 강아지, 밥 줘도 될까?"

"너도 개가 생각나? 사실 나도 계속 마음에 남아"

나보다 한 살이 많은 언니는 내가 매우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언니도 그 개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탁 놓이면서 안심이 되었다. 우리 개한테 밥 주고 올까. 근데 밥

줘도 돼? 고민하고 있을 무렵, 방에서 나오신 엄마가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는 입을 여셨다.
"밥에 참치 비벼줄 테니까 가서 강아지한테 주고 와."

엄마는 베란다로 우리를 보다가 강아지에게 시선을 빼앗긴 모양이었다. 원래도 개를 좋아하셨는데 유독 마음이 쓰이셨는지 직접 통조림 캔을 따서 밥그릇 안에 담고 밥솥에서 밥을 한 주걱 퍼와 비비기 시작하셨다.

"주고 와. 만지지는 말고. 사람 손 타면 위험해."

우리는 곧장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다.

개는 사람을 경계했지만, 그 모습이 공격적이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처럼 보였다. 우리는 후다닥 개의 앞에 밥그릇을 놓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개를 지켜보았다.

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일까,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맞으며 참치와 밥이 섞인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저 착한 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간 주인에 대한 분노일까, 자신이 버려진 줄도 모르고 사람의 온기에 기대는 개에 대한 연민일까. 그게 뭐든 간에 나는 앞으로 저 개를 신경 쓰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오늘도 개가 있다. 벌써 사흘째다. 경비아저씨는 개가 나무에 묶여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신다. 어떻게 저러실까.

학교를 다녀온 후에 아파트에서 그 개를 보고 인사를 하며 지나간 지도 사흘째라는 소리이다. 언니와 나는 학교를 다녀와서 집 안에 들어서면, 곧바로 반찬통에 통조림 참치와 밥을 섞고 또 다른 밥그릇에는 물을 담아 개에게 가져다줬다. 이 짓을 사흘째 했다. 왜 저 개는 아직도 저기에 묶여 있는 걸까. 왜 아무도 저 개를 신경 쓰지 않을까. 왜 저 개는 나를 그렇게 쳐다볼까. 나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머릿속이 오로지 개로 가득 차서 마음이 무거웠다.

-

엄마가 개를 데려왔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보인 장면이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개를 발견하지 못해 아쉽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좋은 주인에게 갔기를 바라며 집에 들어왔는데 개가 우리 집에 있었다. 엄마는 더 이상 불쌍해서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데려왔다고 했다. 엄마도 베란다에서 그 개와 눈이 마주친 걸까. 개와 눈이 마주친 엄마는 나처럼 하루종일 그 아이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걸까.

현관에 들어섰을 때 엄마는 화장실에서 개를 씻기고 있었다. 그때 엄마는 비누를 사용했을

까 샴푸를 사용했을까. 알지 못했다. 비누든 샴푸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개가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데려올걸. 개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화장실 바닥에서 비누 거품에 의해 하얗게 색칠된 개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기뻐했다. 드디어 그 눈을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며 안도했다.

깨끗해진 개는 여전히 누런 털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는 고민했다. 이름을 어떤 걸로 지어 줄까. 나는 물었다. 우리가 키울 거예요? 엄마는 말하셨다. 응 키워야지.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라고 '행복이'는 어때요?"

언니가 개의 이름을 행복이로 하자고 제안했다. 엄마와 나는 수긍했다. 행복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새 식구. 개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행복이를 불러보았다. 행복아, 너는 이제 행복이야. 행복이는 그 뜻을 알았을까. 문득 행복이의 눈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너도 기뻐? 나도.

-

병원에 도착했다. 평생 가본 적 없던 동물병원이었다. 집 주변에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멀리 가야만 했다. 병원에서 행복이의 건강을 살펴봤다. 다행히 건강하다고 한다. 개의 종류를 물어봤지만, 병원에서는 정확한 품종이 있는 개는 아니라고 했다. 생긴 건 웰시코기처럼 생겼는데 사진보다 다리가 길었다. 그럼 잡종인걸까. 뭐든 상관없다. 우리 집 새 식구는 가장 귀한 품종이다.

거금을 들여 강아지 용품을 샀다. 행복이는 8개월 여아라고 했다. 분홍색 목줄을 샀다. 왜 분홍색이야? 그냥, 예쁘잖아. 난 노란색이 더 좋은데. 나는 잠시 불평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행복이 방을 만들어 주었다. 거실에 안 쓰는 이불을 깔고 강아지 쿠션과 밥그릇을 놓았다. 이불 옆에는 배변 패드를 깔았다. 행복아 이제 여기다가 일 보는 거야, 알았지? 행복이는 알아들었을까.

아빠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셨다.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시고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에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빠라 눈치가 보였다. 아빠에게 행복이의 이름과 정보를 알려주었다. 아빠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 피곤하신 걸까. 행복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하지만 자기 전에 나는 발견했다. 아빠가 행복이를 쓰다듬는 장면을. 아빠는 행복이를 싫어하지 않았어. 나는 안도했다.

늦은 저녁을 먹던 도중 행복이가 배변 패드에 일을 봤다. 우리는 놀라서 행복이를 바라봤다. 너 천재야? 언니가 감탄했다. 나도 감탄했다. 이제 서서히 우리 집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일까. 이제 정말 행복이에게 행복만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고 일어났는데 행복이가 침대 밑에 있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뿌듯함일까, 행복함일까. 행복이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의미일까. 기쁜 마음에 아침 일찍 행복이와 사진을 찍었다. 내 모습은 못나도 우리 행복이는 언제나 예쁘다. 행복이의 목에 걸린 분홍색 목줄마저 예뻐 보였다.

학교에 다녀와서 행복이를 찾았다. 행복이가 거실에 얌전히 누워있었다. 밥은 잘 먹었어요? 불일은 잘 봤어요? 낮잠도 잤어요? 엄마는 긍정하셨다. 나와 언니는 앞으로 행복이와 하고 싶은 일들을 종이에 적어나갔다.

행복이랑 가족사진 찍기, 행복이랑 공원 놀러 가기, 행복이랑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기, 행복이 예쁜 옷 입히기, 행복이랑 맛있는 음식 먹기...

상상만 해도 행복했다.

-

행복이가 새 식구가 된 지도 일주일이 흘렀다.

“언니, 행복이랑 산책하자.”

“좋아.”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산책했다. 행복이 간식을 가방에 넣고 목줄을 잡은 채로 행복이와 밖에 나갔다. 행복이는 밖이 낯선 모양인지, 나갈 때마다 항상 걸음을 좁게 하고 걸었다. 괜찮다고 안심시켜도 늘 긴장된 상태로 걸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행복이의 보폭이 전보다 여유로웠다. 드디어 집 앞에도 적응이 된 걸까. ‘이제 더 멀리 나가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 오늘 행복이가 괜찮은 것 같아. 조금만 더 멀리 가볼까?”

“오 그러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우리 학교 가는 골목길 쪽으로 가보자.”

“좋아.”

우리는 놀이터를 지나쳐 아파트와 연결된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다. 행복이도 곧잘 따라오더니 어느새 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골목길은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가는 길 중 하나였는데, 길이 울퉁불퉁하고 계단과 경사가 있어서 조심해야 했다. 막 골목길을 들어선 후에 경사를 앞두고 있을 때, 행복이의 걸음이 멈췄다.

“행복아, 왜 그래? 무서워? 괜찮아.”

행복이가 멈춘 곳은 아파트에서 얼마 가지 않은 흙바닥이었는데, 학교를 오가면서 이곳에 떠돌이 개들이 자주 목격됐었다. 혹시 행복이가 친구의 냄새를 맡고 멈춘 것은 아닐까. 행복이가 외로운가? 아니면 다른 개들의 냄새가 무서운가? 따위의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서 행복이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엄마가 어디냐고 물으셨다. 저희 행복이랑 산책하고 있는데 학교 가는 골목 쪽이에요. 엄마가 행복이의 상태를 물으셨다. 행복이가 지금 안 움직여요. 엄마는 간식을 주라고 하셨다. 행복이에게 간식을 줬다. 행복이가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행복이는 더 이상 갈 마음이 없다는 듯이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는 행복이에게 선택권을 주자며 기다리라고 하셨다. 나와 언니는 행복이를 기다렸다.

“아, 혹시 행복이가 볼일이 급한 거 아니야? 싸고 싶은데 우리 때문에 못 싸는 것 같아.”

“그러면 목줄 잠시만 풀어주고 우리 좀만 뒤로 가 있자.”

우리는 행복이의 목줄을 풀고는 뒤로 세 발자국 물러섰다. 혹시나 행복이가 부끄러울까, 뒤를 돌아서서 행복이가 자유롭게 볼일을 보고 편안해지길 기다렸다.

그리고 행복이가 사라졌다. 다시 뒤를 돌아서 본 골목에는 어떠한 개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놀라 큰 소리로 행복이의 이름을 부르며 골목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골목을 돌아다니다 개의 흔적이 보이면 무작정 달려가다가 다른 개임을 확인하고는 실망하는 행동을 두어 번 반복했다. 심장이 세게 뛰고 손에 땀이 차고 눈에 물이 차올랐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디 갔지. 행복아 장난 치지 말고 제발 나와. 나 무서워. 행복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언니의 목소리도 덜덜 떨렸다. 엄마, 행복이가 사라졌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행복이가 잠시 길을 잃은 거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행복이의 이름을 불렀다. 행복이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목이 갈라지도록 행복이의 이름을 외쳤다. 행복이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아파트 쪽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행복이가 갔을 법한 아파트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골목과 연결된 아파트 주변 언덕과 분리수거장, 도로와 인도를 수없이 찾아봐도 행복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애가 땀다. 울음이 터졌다.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목줄을 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아파트 단지를 전부 돌아보다가 정문예까지 다다랐다. 정문 근처에 경비아저씨가 보였다. 아저씨에게 달려갔다. 핸드폰에 있는 행복이의 사진을 보여드렸다. 경비아저씨가 행복이의 목줄을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 목줄이랑 똑같은 목줄인지는 모르겠는데 분홍색 목줄 찬 강아지 방금 여기로 나갔어.”

경비아저씨의 말에서 희망과 동시에 절망을 느꼈다.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눈물이 설 새 없이 흘렀다. 아파트 밖으로 나가 행복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행복이는 보이지 않았다. 차가 냉정하고도 무서운 소리를 내며 우리의 옆을 지나갔다. 혹시나 저 차에 행복이가 다친 것은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애들아, 일단 들어와. 언니는 울면서 싫다고 했다. 엄마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우리는 집으로 갔다.

-

행복이는 결국 찾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언니와 나는 거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창문이 캄캄해지도록 우리는 내내 울기만 했다. 엄마는 착잡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셨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목줄을 풀지만 않았어도. 내가 뒤를 돌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다. 이미 행복이는 우리의 곁에 없었다. 남아 있는 것은 끝까지 들고 있던 분홍색 목줄 손잡이와 집안 곳곳에 있는 강아지 용품뿐이었다.

-

슬픈 이별을 겪었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날이 밝고 우리는 학교에 갔다. 학교를 가는 길에 혹시나 행복이가 있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길거리를 보고 또 봤다. 행복이가 보고 싶었다. 너무 많이 미안했다. 그저 나약한 내 자신을 원망했다. 학교가 끝나고 오는 길에 길거리를 또 봤다. 행복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던 나를 증오했다. 개를 키우고자 다짐했지만, 그 어떠한 공부도 하지 않았던 나를 자책했다.

-

어린 나이에 겪은 짧은 만남과 이별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행복이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

오랜만에 꿈속에서 너를 만났다. 십 년도 훌쩍 지난 이제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생김새조차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꿈속에서 본 너는 마치 과거를 다녀온 듯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다.

내가 지식을 더 가지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까.
다음날 일어났을 때 너의 얼굴을 보고 정말 기뻐했는데.
내가 목줄을 놓았을 때 너는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까.
행복아, 너는 나에게 행복을 줬어.
내가 미안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무모한 사랑이었다. 그래, 어쩌면 개 같은 사랑이기도 했다. 하지만 잊을 순 없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순수한 사랑의 시작이고, 모든 방면의 영역을 넓혀준 사람이었다. 희극보다 비극이 더 기억에 오래 남듯이, 당연하게도 그와 맺었던 연극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이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짙으면 좋을까. 시간을 뒤로 좀 돌려야 한다. 대략, 열다섯쯤이 적당하다. 아니, 진정 처음을 말한다면 초등학교 2학년인 아홉 살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 그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첨단 기계를 물어본다면 십중팔구가 컴퓨터라고 답하던 시대였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아직 개발 중이었고, 사람들에게 핸드폰이란 연락의 의무만을 다하던 기계에 불과했다. 아홉 살이던 나에겐 아직 핸드폰은 없었다. 그게 정상이었다. 일부 부잣집 도련님이나 아가씨들이 치렁치렁한 고리를 달고 주변 애들에게 한껏 뽐내며 다니긴 했지만, 우리 엄마를 포함한 어른들은 그런 애들의 엄마야말로 비정상이라 말하던 때였다.

어쨌든 집에 컴퓨터가 아직은 방 안에 있었다. 컴퓨터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껄이는 어떤 건강 프로에서 컴퓨터를 반드시 거실에 놓으라고 주장하기 전이었다. 컴퓨터 게임에 일찍 눈을 뜬 나는 시간이 비면 항상 컴퓨터방에 들어가 전원부터 켜다. 남들보다 빨리 컴퓨터와 친해졌다 한들 그때 내 나이는 고작 9살이었다. 야후꾸러기와 같은 어린이 사이트에 들어가 전래동화, 이솝우화를 재현해주는 플래시를 즐겨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만든 플래시도 종종 찾아보기도 했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본다면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때는 그것이 낭만이고 감성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알다시피 순수하지 않다. 지금이야 일반 검색과 성인물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지만, 그때는 검색창에 ‘야동’이라 치면 야한 동영상들이 정말 검색되던 시기였다. 여성과 남성이 몸을 섞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여성들의 비키니 사진만을 올리는 블로그나 카페도 꽤 많았었다.

아홉 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성인물과의 접촉은 어쩌다가 닿게 됐다. ‘어쩌다’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이 우연성은, 무슨 말을 해도 논리성이 붙지 않는다. 내가 무얼 하다가 이걸 접했다고 말하기엔, 그 무언과 성인물이 전혀 안 겹친다. 인터넷은 이런 세계였다. 인간의 무의식과도 같았다. A에서 B로 갈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A에서 P로 아무런 전개 과정 없이 넘어가는 식이었다. 인터넷은 그랬다.

내가 봤던 건 어떤 서양 여자의 비키니 사진이었다. 라텍스 재질의 반짝이는 파란 수영복이었는데, 잘록하게 빠진 허리와 풍만하게 부풀어 오른 가슴이, 어린 시절의 내 성욕을 자극했다. 매끈한 겨드랑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손으로 긴 머리를 감싸 안았고, 허벅지를 벌린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카메라를 지긋이 응시한 여인이 4:3 비율의 LCD 모니터 속에 담겨 있었다. 난 어떤 특정한 부위를 보고 흥분했다기보다, 살갗을 모두 드러내고 중요한 부위만 가린 비키니의 모양새며 여인의 고혹적인 눈빛, 라텍스 재질에서 풍기는 야릇함, 그 모든 걸 소화해낸 여인의 몸매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

이후에 몇 번이나 그 사진을 찾곤 했다. 검색어는 “섹시한 비키니” 그 사진을 볼 때면 들리지 않게 방문을 꼭 닫았다. 잠금장치가 따로 있지만, 젓가락 하나로 금방 뚫리는 허술한 장치라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 문고리가 찰칵 걸린다면, 왼쪽 엄지와 중지로 고정해둔 Alt+Tab을 재빠르게 누르는 연습을 매번 검색하기 전에 확인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여태까지 그런 위기는 없었다.

그 사진에 빠지면서 나는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픈 욕망을 가졌다. 저 라텍스 재질의 비키니 속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호기심은 어린이니깐 가질 수 있었다. 거울로만 보던 내 젓꼭지와 그녀들의 젓꼭지는 유사할지, 여성들의 성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적절한 때에 성교욕을 받지 못한 나는, 인터넷의 응달진 음지에서 스스로 독학하여 성의 영역을 넓혀갔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나는, 많은 걸 일찍이 알게 됐다. 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자아가 있는지라, 그것을 가버리 여기며 쉽게 말해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 거면, 애초에 비키니 사진을 보면서 방문을 닫아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끄러움을 알고, 내가 다가가고 있는 곳이 금단의 영역이란 걸 인지하고서도 아슬아슬하게 넓혀갔기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색다른 흥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나이대 애들보다 조금 앞섰던 나는, 다른 아이들이 타성의 비밀을 깨우쳐 갈 때, 생명의 탄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알았고, 이를 통해 얻는 쾌락이 얼마큼인지 짐작했었다. 이른 나이에, 넘을 수 있는 선은 전부 넘었다. 그 이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짐승의 영역인지라, 더 갔다가는 인간 주체성을 잃어버릴 듯했다. 여기서 멈춰 다른 아이들이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척하기로 했다.

인간의 영역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지만, 아직 한참에도 못 미쳤었다. 미지의 영역은 그 이름에 걸맞았다. 중학교로 올라가니, 다들 어느 정도 자아를 가지고, 생각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온전히 세운 게 아니라 세우는 과정이었기에, 엇나가는 애들도 많았다. 누구나 처음은 미숙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서 뭐든 좋다고 다 받아들이다가 나중 가서야 후회하는 그런 식이었다.

나는 좀 달랐다. 성을 완전히 이해해서 더 배울 건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여기서 또 ‘어쩌다’ 법칙이 발동됐다. 이젠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포르노를 검색해 해결했는데, 포르노의 세계는 무한한 경우의 수를 지닌지라, 남녀관계만을 담지 않았다. 여기서 어쩌다가, 남자끼리 키스를 나누는 사진이 떴다. 낯선 장면인지라 눈을 꼭 감고 다른 포르노를 찾았다.

그것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나면, 한동안은 그것만 머릿속에 맴도는 법이다. 파란 라텍스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이 그러했듯이, 그 남성들의 표정과 자세가 종일 눈앞에 연기처럼 흐릿하게 피어올랐다. 절정에 다다른 두 남자가 나누는 격렬한 키스, 굴곡진 근육이 붙은 팔뚝으로 서로를 끌어안은 자세, 움푹 들어간 허리와 봉긋이 올라온 엉덩이, 그리고 행복한 듯 서로에게 짓는 미소. 그 남성들은 나를 흔들었고 또 다른 영역으로 안내했다. 나는 이끌리듯이 그 남성들을 다시 찾아갔고 이끌림에 거부 없이 영혼을 맡겼다. 내가 과연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 아님, 단순히 정사만을 좋아하는 걸까. 그것이 헷갈렸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며 선배들을 보면 전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데, 왜 이 남성들에겐 사랑을 넘어서 동경의 매력까지 느끼게 하는지 쉬이 짐작이 가지 않았다.

나는 이때를 공식적으로 남자에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애매한 구석이 있다. 남자에 눈을 뜬 건지, 포르노에 집착한 건지. 지금까지도 쉽게 정의 내릴 순 없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내 주위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회적인 통념상 나는 ‘앞

서가는 사람'에서 '멀어져간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뜻은 확연히 달랐다. 전자는 일반적인 범주에 속했고, 후자는 그 범주에 벗어난 이방인들이나 다름없었다. 호기심과 금단의 영역에 들어서는 쾌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지면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이 건 전과 달리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고 말았다. 나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래야만 하는 기밀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터넷의 발달은 나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줬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평등의 장이 여럿 존재했는데, 그중 몇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고민에 대해 그나마 반응이 괜찮았던 곳에 정착해 다른 이들이 남긴 글들을 찬찬히 읽어나갔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품은 이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다.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게 꼭 나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고민도 허공에 맴돌다 스러지는 연기에 불과했다. 결국은 오랜 고민 끝에 몸으로 맞부딪히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냈다. 말은 분열을 잠시 멈출 뿐이지 끝은 없었다. 나와 유사한 고민을 지닌 사람과 백날 이야기해봤자 좋은 친구가 하나 생길 뿐, 내면의 치열한 전쟁의 막은 내리지 못했다. 소위 이쪽 사람들이 자주 한다는 만남 어플을 찾아 스마트폰에 깔았다. 어린 나이라는 스펙은 그들에게 환영받았고, 나와 비슷한 토대를 찾아 사람을 탐색하고, 찰라보고, 말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실제 만남까지 성사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내가 전부 막판에 거절했다. 겁이 많은 성격 탓에, 내가 넘어가는 미지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끝자락에서 나는 계속 망설였다. 그 앞에 드리운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전부였다. 그렇다고 되돌아가기엔 이미 멀리 온 몸이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이고, 헤매다가 1년이란 시간을 보냈다.

악연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때만 해도 난 그를 선연으로 여겼다.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던 사람은, 아직도 그가 유일하다. 다시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민다. 그와 나눴던 과거를 회상할수록 더 괴로워진다. 회상의 파노라마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신음은 나를 격하게 흔들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때를 다시 생각해본다.

중학교 3학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그 과도기 속의 계절이었다. 만남 어플에 익숙해진 나는 그 어플을 제집 드나들 듯이 매일 오갔다. 교복을 입고 집에 나서는 스마트폰을 켜서 메시지 목록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성욕에 지배된 20대 후반이나 그보다 더 나이 있는 아저씨들의 추접스러운 추파였다. 이것도 흔한 일상으로 자리 잡히고, 나이를 속이는 것까지도 꿰뚫어서 그 메시지들을 모조리 차단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진흙 속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돌멩이처럼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그건 정말 별거 아닌 말이었다.

“괜찮으면 나랑 사교할래?”

여기서 사교는 사진 교환의 줄임말이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해봤자 우리만 아는 은어에 불과했다. 시간대를 보니 새벽에 보냈었다. 프로필엔 17세, 고등학생 1학년이니까 나보다 1살 많은 형이었다. 고작 그 한 마디인데, 아무 감정이 담기지 않은 저 텍스트에 나는 감정을 담아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본능적인 직감으로 꿰뚫었다. 슬슬 학교 근처에 다다르고 주위에 교복 입은 애들이 나타나기 전, 답장 하나를 빠르게 보내고 어플을 껐다.

“생각해볼게요.”

학교가 끝나고, 걸었던 핸드폰을 다시 받아 데이터를 켜고 쏟아지는 알림 속에서 그의 답장

이 뜨길 기대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답장은 이렇게 와 있었다.

“그래, 기다릴게. 오면 말해줘.”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샤워도 하기 전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얼마 안 있어 그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답장했다.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 누구에게도 얼굴 사진을 보낸 적은 없었다. 얼굴은 곤란하다는 답장을 보내고 싶지만, 이미 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 최대한 예쁜 각도로 얼굴을 찍었다. 묘하면서도 야릇한 기분이 내 몸을 휩쓸었다. 금단의 영역을 또 넘어가고 있었다. 찍는 건 쉬웠지만 그다음 보내는 게 어려웠다. 나는 그에게 믿음을 달라며, 먼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요구하면, 열에 일곱은 자길 안 믿냐고 되려 성을 냈고, 둘은 연락을 아예 끊었고, 하나는 사진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이 남자는 확실히 달랐다. 메시지를 읽고서도 답이 없길래 연락을 끊은 줄 알고 망연자실하며 샤워기를 틀어 물 온도를 재려던 찰나, 그 남자의 사진들이 쪽 올라왔다.

전신사진도 있었고, 얼굴만 있는 사진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깡마른 몸이지만 옷을 입어도 날렵한 라인이 군데군데 살아있었다. 몸에서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 당시 남학생들의 흔한 머리 스타일인 투블럭이었다. 눈가는 옆으로 짝 찢어져 약간은 불량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의외로 하관이나 입술은 둥근 편이었고, 콧대도 높은 편이었다. 특히 광대와 눈 밑에 피어오른 주근깨가 매력적이었다. 애교인지는 몰라도 사진 속 그는 입술을 양다물며 억지로 보조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잘생긴 인상이었다. 오히려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다. 이어서 내 사진도 보냈다. 보낼 때는 별생각 안 들다가, 보내고 나서 후회와 걱정의 파도가 몰아쳐 나를 덮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답장은 이랬다.

“귀엽다 너. 어디 살아?”

처음 본 사람에게 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순간 두려웠다.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정말 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대치의 골은 금방 깊어졌다. 여러 번 눈을 깜빡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다. 그 치열한 대립 끝에, 결국은 말해줄기로 했다. 다만, 자세한 주소가 아닌 시도 단위 정도만 공개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나의 전부를 보여줄 순 없었다. 그건 나에게 충구를 직접 겨누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저 서울 살아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스마트폰을 그대로 덮어버렸다. 저지른 거야. 그래, 난 그 어두운 숲에 들어서게 됐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방향조차 헛갈리는 어둠의 영역이었다. 내가 앞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이 앞이고, 등진 곳이 뒤였다. 답장이 왔을까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슬쩍 들춰봤다.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는 붉은 신호가 깜빡였다.

“서울 어디? 난 파주 살아.”

“어, 진짜요? 그렇게 먼 편은 아니네요.”

“파주랑 가깝다고? 어디길래.”

이때까지도, 자세한 사항을 아직 알려주는 건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곳을 전전하면서 얻은 화술을 이 사람에게 써 먹어봤다.

“나중에 만나면 알려줄게요.”

“뭐야, 벌써 만날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의 반응도 나쁘진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 동안에 시간이 빌 때면 이런저런 말을 나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동경해오던 2살 연상의 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경이 곧 사랑으로 변했다고 한다. 마음 잡고 본인의 마음을 연상의 형에게 고백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사과 속에 숨은 거절과 경멸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그는 반항심인지, 우울을 이겨내고자 한 발악인지는 몰라도,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는 나보다 먼저 그 영역에 들어갔고, 나보다 한참 멀리 나아가 출구 없이 그 주위를 나처럼 헤매고 있었다.

난 그를 이젠 편하게 형이라 불렀다. 형이나 나나 서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굴뚝같았다. 그러나 둘 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형이 바쁜 몸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말한 일정이 과연 진실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형이 드디어 시간이 비게 됐다. 만남의 목적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안 그래도 알 수 있었다. 나와 형은 서로의 집에서 그나마 중간지점이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사람이 적으면서, 서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했다.

그 끝에 정해진 곳은 곡산역이었다. 나로선 처음 듣는 역이었다. 형이 겨우 생각해낸 장소였는데, 이곳만큼 사람 없는 지하철역을 못 봤다며 분명 괜참을 거라고 말했다. 이제 나는 어둠의 영역에서 보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스타일을 맞춰 입었다. 그와 마주할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낯선 공간임에도 익숙한 걸음처럼 지하철을 올라탔고, 약속장소에 도달할수록 심장박동 소리의 증폭이 서서히 증가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들숨이 필요했고, 그에 비해 적은 날숨을 내뿜었다. 가슴이 콕 막히고 관자놀이가 조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사실 그건 고통이라기보단, 긴장된 마음가짐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혹은 흔들림이었다.

내가 먼저 와서 형을 기다렸다. 형은 거의 다 와 간다는 메시지 하나만을 남겼다. 뿔뿔한 바람만이 부는 역사를 나 홀로 쓸쓸히 돌아다녔다. 이제 내려다는 메시지가 핸드폰을 울리며 번쩍 떴다. 그것은 곧 내 영혼의 떨림과 번쩍임과도 같았다. 나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역에 오기 전에 사뭇던 가글의 포장을 뜯고, 입을 행궜다. 시간의 빈틈이 생길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와 머리카락을 괜히 만지작거렸다. 좀 더 잘 보이고 싶단 나의 욕망이었다. 다음 역으로 가는 지하철의 엔진소리가 멀어졌다. 조용해진 역내에서 발걸음이 들렸다. 몇 명의 적은 사람이 오갔지만, 이 소리는 뭔가 다르게 다가왔다. 또각또각 역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오지 말라는 말과 얼른 오라는 말이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 순간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자가 깔리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형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난 그 미소에 흠뻑 반했고, 해픈 웃음으로 답했다. 형은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이제 저 수많은 칸 중 한 곳에 들어가잔 말이었다. 내가 어정쩡한 말투로 그 침묵을 깼다.

“이제, 들어…갈…까…?”

“……응.”

경험이 많으며 자랑하던 그 형의 호기로운 모습은 없었다. 수줍은 소년의 귀여움과 순수함만이 그 눈빛과 입꼬리에 묻어났다.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나는 그의 괜한 허풍이라 생각했다. 내가 앞장서서 화장실 문을 열어 들어갔고, 형도 따라 들어온 뒤 문을 잠갔다.

그러나 결코 허풍은 아니라는 점은 실전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형은 바로 내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아 내 목에 키스를 남겼다. 나는 바로 흥분해 어쩔 줄 몰라 헤매는 두 팔을 그의 등과 허리, 엉덩이, 목덜미까지 차례대로 쓰다듬었다.

형은 첫 만남 때와 비슷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건 여타의 우리가 아는 미소가 아니었

다. 능숙한 자가 초심자를 귀엽게 바라보는 시선이 섞였다. 타인의 손길은 곧 색다른 세계와의 만남이었다. 그 새로움은 금단의 영역으로 넘는 흥분과는 아예 자체가 달랐다. 이전까지 넘었던 선들이 확장이었다면, 이번에 넘어간 영역은 반짝임이었다. 그 감각이 기억으로 영원히 남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렬했다. 기억의 조각이 희미하게 흩어져 드문드문 장면이 떠올라도, 그때의 감각은 붙잡을 수 있었다. 나는 서툴게 그를 끌어안고, 여기저기 입을 맞췄다. 모든 게 새로움이었다. 영토를 넓혀가는 몽골 장수의 쾌거처럼 나는 형의 몸을 정복했다. 그도 마찬가지로였다.

나의 팔은 형의 땀나는 얼굴을 감췄고, 허리는 활처럼 휘어졌다. 형의 손바닥은 내 허리로, 가슴으로, 어깨로 점점 올라가더니, 마지막엔 내 양쪽 뺨을 잡으며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낸 다음 격한 키스를 나눴다. 그것이 내가 느꼈던 최고의 흥분이었다. 눈이 스르르 감기고, 모든 감각은 혀로 집중되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더니 그 응축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폭죽처럼 여러 갈래로 펄펄 터졌다.

그렇게 형과의 격렬한 첫 관계를 맺었다. 다시 옷을 입고 간단한 입맞춤을 나눈 뒤, 손을 씻고 화장실을 나섰다.

역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았지만, 그걸 찾는 이는 드물었다. 조금 길을 나서니 바로 농가와 농로가 보였다. 포장도로가 아닌 흙길이 이어졌고, 저 멀리엔 벼농사를 짓는 푸른 논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서로 나눈 얘기는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고요의 바다 아래로 서서히 침전해갔다. 나는 형의 옆태를 흘끔 보다가, 형이 돌아볼 때면 다시 앞을 봤고, 형의 시선을 즐겼다. 우리의 소통은 눈빛과 행동에 맞춰져 있었다.

둘이서 농로를 따라 걸었다. 비누 거품처럼 뭉쳐진 구름이 푸른 하늘 아래로 여기저기 흐드러졌다. 팽팽한 햇볕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가 우리 둘을 스쳐 지났다. 나는 용기 내어 형의 손을 잡았다. 형은 거절하지 않았다. 여름의 더위는 잊고, 우리 사이에 피어오르는 따듯한 사랑의 불씨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 불길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로 연락이 끊긴 듯, 그와의 채팅창은 안개 속으로 숨은 강가의 암초처럼 감춰지고 말았다. 나는 이곳의 만남이 오래 그럴지, 수궁하며 현생을 사는데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강렬한 폭죽의 명멸과 아직도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 숨은 채팅창으로 유혹했다. 이젠 어디가 금단의 영역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내가 밟은 모든 곳이 금단의 영역이었다. 그런 것을 나누는 게 이젠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

며칠 동안이나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답장은 이틀, 나흘, 1주일, 2주일, 1달 간격으로 돌아왔다. 아무리 소통 매체가 빨라져도, 수신처의 반응이 느리면 그건 전서구나 파발보다도 못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러했다. 안개는 쉽게 걷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멀어지는 줄 알았던 관계 속에서도 시곗바늘은 뭐가 어찌 되든, 계속 돌아갔다.

쨍쨍한 여름은 지나고, 얇은 장막의 파편이 흩어져 맨살을 찌르고 할퀴는 계절, 겨울이 다가왔다. 학년의 끝을 보내는 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다. 새로움을 앞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혹독한 추위가 그 때로썬 고통 속에 또 부과되는 일부의 고통이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도 결국엔 청춘의 일부가 되곤 한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다.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인데, 왜 현재를 사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까. 어쨌든 그 겨울은 남들처럼 잊을 수가 없다. 다만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오래간만에 ‘어쩌다’ 법칙이 적용된 날이었다. 고등학교 과정 준비를 위해 나는 스스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종합학원을 끊어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었다. 해가 짧은 계절이라 학원이 일찍 끝나도 바깥은 인공 빛만이 남은 밤이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기분 내기로 식당에 달려가 술을 마시듯이, 공부에 지친 우리는 근처 PC방에 들어가 게임 몇 판으로 자신들을 달랬다.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인 10시가 다 되면, 하나둘씩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 하게 막아버린다. 그것이 우리의 해산 시간이었다.

여느 때나 다름없이 각자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추위를 피하던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방금 헤어진 친구의 장난 문자인 줄 알고 반격의 욕을 발사할 준비를 마쳤는데, 정말 의외의 인물을 마주했다. 바로 형이었다. 그의 이름을 본 순간 주위의 흐름이 정지됐다. 집으로 향한 나의 발걸음이 막혔다. 나에게 가던 길로 계속 가란 바람의 압박은 전봇대 아래 쌓인 쓰레기봉투를 간지럽혔다. 오랜만이란 인사도 없이, 그동안의 공백을 갖게 해서 미안하단 사과도 없이, 그동안 계속 연락했다는 어투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따가, 우리 집에 올래?”

무슨 의도일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나는 뭐라 답을 보내야 할지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 형이 연락도 어쩌다 내가 생각나서, 혹은 단순히 나와 잠자리를 나누고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왔을 것이다. 그 의도는, 나로서 판단하기엔 그렇다.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씻고 침대에 드러누운 뒤에도, 새로운 메시지임을 표시하는 빨간 줄이 형의 채팅창을 감쌌다. 내가 곡산역 화장실 안에서 형의 육체를 끌어안은 것처럼.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나는 형과의 관계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지혜의 여신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도 침묵한다. 난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바로 수락하는 건, 너무 속없이 보이니깐 어느 정도의 대화는 나누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능청스러운 말투를 장착하고, 그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오랜만이네, 근데 갑자기 왜?”

약 5분 뒤에 답장이 왔다.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우리의 관계가 결코, 가깝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우리끼리 그런 거 가렸나. 너 우리 집 알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잠을 잤는지, 내가 누군지도 헷갈리는 모양이다. 난 순진하게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순진한 게 아닌 멍청한 거였다.

“아니, 파주 산다는 것만 알아. 진짜 가도 되는 거야?”

“영, 내일 부모님 두 분 다 출장 가셔서 이틀은 없을 거고, 동생은 그동안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

이제 와 그를 말해보자면, 외로운 사람인 건 분명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집이 자주 비는 건지, 아니면 빈틈을 타서라도 집에서 정사를 이루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거기에 나는 아둔하게도, 욕정에 눈이 멀어 그의 제안에 어떤 의심이나 회의 없이 수락했다.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였다.

형의 말대로 아침 일찍 운정역까지 갔다. 집에서 파주까지 가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첫 만남 때와 달리,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나, 혹은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항상 같은 시간에 맞

취서 출근길에 오르는 직장인의 마음처럼, 내 마음속에 광활히 펼쳐진 대지는 한없이 공허하기만 했다.

무슨 정이라도 있었을까, 나 홀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까 봐, 그는 나보고 도착하면 역내 광장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설마 집에 누가 왔다면, 저번처럼 이곳 화장실로 데려가는 건 아닐까, 걱정의 탈을 쓴 기대를 나뉘 했었다. 다시 겪어보고픈 나의 변태스러운 일탈이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녹색 점퍼에 아디다스 튜리닝을 입은 형이 저 멀리서 다가왔다. 부스스한 차림이었다. 살짝 입꼬리만 올렸을 뿐, 전에 보였던 미소는 사라졌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저 입술은 얼음에 녹아 맛이 희미해가는 콜라처럼 싱거워졌다.

우리는 또 말이 없었다.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나는 형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의 집까지 따라갔다. 잘 지냈었냐. 그 말이 참 어려웠다. 우리 사이엔 큰 장벽이 놓여있었다. 서로 그 벽을 허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형에게 벽을 허물 망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그는 내가 망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무심에서 비롯된 망상이었다.

그와 같이 샤워를 하고, 형의 침대에서 정사를 나눴다. 별 감흥이 없었다. 재미없는 영화를 연속 2편이나 보는 기분이었다. 그 어떤 설렘은 이전에 식어버렸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알몸으로 둘이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있잖아. 우리는 무슨 관계인 거야?”

형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런 질문을 하나는 식의 표정이었다.

“무슨 관계긴, 파트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목적은 오로지 그거에만, 집중한 거네.”

“야, 원래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거뿐이야. 너 그것도 몰랐어?”

가슴이 타들어 갔다. 내가, 그동안 착각한 건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랑의 감정도 조금은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았을 것이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그저 수많은 파트너 중 하나로 봤다.

“근데, 너 이제 보니까 살 좀 췌다. 관리 좀 하지. 얼굴에도 뭐가 좀 낫네.”

히죽 웃는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내뱉는 그의 모습이 처음으로 기괴하게 보였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다. 알몸으로 마주하는 이 상황이 무척 치욕스러웠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형의 방으로 달려가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나를 막았다.

“왜, 어디 가게. 벌써 가는 거야?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됐어. 이거 낫. 너랑 할 생각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

내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걱정보다는 차라리 넘어져서 우스운 장면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현관 앞까지도 그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 빨리 욕구를 해소하고 싶단 생각만 보였다. 그의 생각이 뻔히 읽혀서 오히려 더 혐오스러웠다. 나를 막는 게 버거웠는지 현관 앞에 선 나를 끌어당겨 거실로 패대기쳤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너야말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게 예의야? 화가 났으면 애기라도 해봐. 그냥 그렇게 피하지만 말고.”

“연락도 없는데, 자기랑 자고 싶을 때만 찾는 사람이랑 관계를 이어가봤자 뭐해. 사람을 단순 기구 취급하는 인간이랑 하는 게 뭐가 좋겠냐! 게다가, 게다가 거기에 모자라서 평가질은

또 뭐야. 내가 돼지고기야? 네 입맛에 따라서 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 거냐고! 언제부터 날 신경 썼는데?”

내가 일어서려고 하니, 그는 폴짝 뛰어올라 쭈그려 앉은 나를 덮쳐서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고선 나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내 바지와 속옷을 그대로 쑥 내렸다. 나는 버둥거리며 한껏 저항했다.

“이제 깨달았냐? 너도 좋으니까 매달린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하고 가자니까!”

“아악, 그만해! 시발! 이 개새끼야! 이거 놔!”

다리를 들어 그의 다리 사이로 온 힘을 모아 발길질을 날렸다. 그는 그대로 저 멀리 날아가 쿵 벌레처럼 움츠려서 골골대는 신음을 질질 흘렸다. 바지춤을 올리고,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가 맞닿는 부분에 침을 뱉었다. 망설일 것도 없이, 운동화를 구겨 신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에 가는 길이 유독 더 멀게 느껴졌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데까지 1년이란 시간 속에 갇힌 듯했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픈 노래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들렸다. 애석하게도 눈물은 쏟아지지 않았다. 추위에 눈물샘이 얼어붙었는지, 눈가 주위만 조금 빨개지는 데 그쳤다. 이런 내 모습이 더 비참하게 다가왔다. 나는 슬픔이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사람이 무서워지고, 거부감이 들었다. 모든 이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도 멀어졌다.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져 그 좁은 공간에 나의 욕체를 고립시켰다. 우울감은 밀물처럼 밀려와 철썹철썹 나와 부딪혀 여러 갈래로 부서졌다. 나는 그저, 썰물을 기다렸다.

꿈의 온도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덜컥거리는 열차가 멈춤 없이 빠르게 달리고, 창문 밖에 전경이 연결되어 빠르게 흘러진다. 졸리다고 어리광부리는 아이, 그런 아이를 달래느라 찢찢대는 아이의 엄마, 이미 잠에 깊이 빠져든 남성, 돋보기안경을 착용한 채로 자그마한 책 속 세계로 빠져든 노인, 설렘이 가득 찬 듯이 행복해 보이는 대학생 연인까지. 명절답게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의 잔음들은 이어폰에 가로막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저 멀리적거리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알아보기 힘든 풍경을 눈에 담아내며 생각을 잠시 비워냈다. 뒤죽박죽한 머릿속을 애써 정리하며 잔잔한 비트의 발라드 음악을 잔뜩 담아둔 플레이리스트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고향을 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편치 않았다. 성공해서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자취를 결심했는데, 전혀 변함없는 모습에 후회와 현실타격감으로 팬스레 마음이 좋지않은 않았다.

나의 자취는 결코 순탄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지방에서 살던 나는 좀 더 확 트인 곳으로 떠나 꿈을 넓게 펼쳐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방송작가의 꿈을 가졌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맛벌이로 집에 혼자서 있던 일이 많았던 나는 가족애가 부족한 채로 외로움과 나란히 자랐다. 어느 때와 똑같이 깊게 들었던 잠에서 깨어나 대화 소리 없이 고요한 거실에 나온 나는 익숙하게 식탁에 차려져 있는 다 식어버린 쌀밥과 두부가 가득 들어간 김치찌개 한 그릇을 전 자레인지로 데웠다. 현재 시각은 등교하기 1시간 전인 6시, 잠시 여유 부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젯밤에 미리 다려놓은 뽀뽀한 와이셔츠를 입으며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렀다. 텔레비전에서는 최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적막으로 가득 찬 거실에 배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그 화면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배우의 몰입도 높은 연기가 인상 깊었던 것인지 작품 속의 대사가 나의 마음을 울린 것인지 그렇게 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가진 꿈, 방송작가. 수많은 연필심을 깎으며 노력을 기울인 문장이 텔레비전 속 배우들과 작용해 빛이 나는 대사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로애락을 심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풍선처럼 점점 커졌다. 대학교 관련 학과를 목표로 매일같이 학교, 도서관, 집을 반복적으로 다니고, 남은 시간 틈틈이 공책에 글씨를 휘날렸다. 검은 글씨가 가득 찬 공책이 탑을 쌓듯이 계속해서 위로 뻗어 갔고, 교과서의 겉면은 갈레짝처럼 너덜너덜했다. 에너지 음료수에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어찌면 멀지도 모르는 목표를 향해 한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주말 아침을 맞이하였다. 고요하기 짝이 없는 평소와 다르게 압력밥솥의 덜그럭거리는 쇠,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들리는 프라이팬의 지글거리는 소리, 기름이 타다닥 튀기는 소리, 뉴스진행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하는 오늘의 소식까지 부엌 너머 나의 방문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나는 평소처럼 한 손에 잔뜩 구겨진 대본을 움켜쥐고 방문 손잡이를 살며시 당겼다. 앞치마를 메고 큼지막하게 송송 썰린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들어간 전을 부치고 있는 엄마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어진 흰 쌀밥을 그릇에 푸고 있는 아빠의 모습. 정말 텔레비전의 한 장면처럼 믿을 수 없는, 그렇지만 바라왔던 모습에 한 손은 뒤로 가린 채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걸어갔다.

“깻어? 앉아서 먹을 준비하자. 거의 다 했어.”

엄마는 다 부친 김치전을 접시에 놓고, 냉장고를 열어 겹겹이 쌓인 반찬 통을 다양하게 꺼냈다. 나 또한 자연스럽게 합류해 밥 먹을 준비하였다. 압력밥솥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따뜻한 밥 한 공기, 송송 썰린 애호박이 듬뿍 들어간 맑은 된장국, 노른자가 금방이라도 툭 터질 것만 같은 계란후라이, 아삭아삭한 김장김치로 만든 엄마표 김치전까지. 평범해 보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 나는 어색함에 몸 둘 바를 몰랐다.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어색함은 사라지고, 나도 평범한 가족 안의 따스함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행복했다. 엄마는 내게 많이 먹으라고 하며 주먹 크기만 한 공깃밥 위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계란후라이 하나를 집어 올려주셨다. 노란색으로 물드는 밥 한 숟갈을 떠먹으며 내 마음 또한 개나리의 따뜻한 봄기운처럼 느껴졌다. 목구멍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아침 식사가 한참 동안 진행되었다.

치킨집을 하시는 부모님은 5년 전에 시작하신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신다. 연중무휴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오셨다. 이전에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바라온 새로운 일을 위해 과감히 포기하셨다. 아빠는 새로운 꿈에 대해 선언하셨고, 아빠의 선택에 걱정도 잠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던 엄마도 아빠의 뜻을 받아들이며 두 분은 현재까지도 치킨집을 발판 삼아 도전하고 계신다. 부모님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내가 방송작가라는 꿈에 쉽게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것도, 처음으로 원하는 진로에 두려움 없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던 것도 모두 부모님의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집에서 40분 거리인 부모님의 가게는 언제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부모님은 가게를 위해 직원 없이 직접 달렸다. 주변에 흔하디흔한 것이 치킨집이었기에 실패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신축아파트 앞 상가에 있었던지라 입주민들의 발걸음은 금새 잦아졌다. 부모님은 바삭바삭한 겉껍질이 일품인 겉바속촉의 기본 후라이드치킨, 겉에 진득하고 매콤한 소스가 발린 양념치킨, 달콤 짭짤한 맛이 매력적인 간장치킨까지 가게의 메뉴 개발에 힘썼다. 어떻게 보면 평범할지도 모르지만 몇 년째 가게 운영의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계신 부모님의 책임감 있는 태도, 방문한 손님을 대하는 진심 어린 모습이 치킨 상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날이 갈수록 가게 문이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와 함께 수없이 열렸다가 닫혔고, 싱크대에 쌓여가는 후라이팬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았다. 부모님의 두 손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력에 나도 시간이 되면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도왔다. 일 경험이 없어 하얗고 뽀얀 손을 꿈지락거리며 힘을 보탤다. 학생이었던 나는 학교에 가야 했기에 하교를 하고 나서 바로 가게로 쏜살같이 달려갔고 거의 하루의 3분의 1을 치킨집에서 경험하는 간접적인 사회생활에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삶도 잠시,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한 나는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과목 수행평가와 숙제에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삶에 진입하게 되었다.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린 공부의 양과 난이도는 조금이라도 학업에 집중하지 않으며 나 혼자 저 멀리 동떨어질지도 몰랐다.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셨고 나는 원래대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의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직원 없이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갈수록 증가하는 손님을 다 받는 것이 힘이 든다고 판단을 내리셨는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셨다. 당시에 나는 가게에 들를 일이 거의 없었기에 친분은커녕 관심도 전혀 없었다. 일손이 빠르고 꼼꼼한

새 직원이 합류하면서 튀김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빠에게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오랜만에 아침부터 부모님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내며 지금의 행복함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부모님께서는 오늘 오전에는 손님이 많이 없기도 하고, 이 기회에 조금의 휴식을 위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다. 오후에는 다시 가게로 가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이 순간이 좋았다. 창문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햇볕은 물이 절반 담긴 투명한 잔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푸짐한 식탁을 비쳤고, 도란도란 분위기 속에 행복함을 더해주었다. 나는 철부지 아이처럼 설 새 없이 떠들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반복되는 내 일상에 대해 편안하게 말했다. 한 가지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한 가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온전히 가게 일에만 몰두하시던 부모님 또한 내 학교생활, 나의 학업 관련 고민 등 나에게 대해 몰랐던 사실이 알고 있던 것들보다 자연스럽게 더 많아졌을 것이다. 신경을 쓰지 않아 먼지처럼 쌓여가는 부모님의 궁금증을 하나둘씩 해결했다.

“우리 딸은 뭐가 되고 싶어?”

엄마는 바삭한 김치전 한 조각으로 내 밥그릇 위로 건네주면서 내게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아직 누구에게도 꿈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도 하고, 이 꿈을 가지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살짝 망설임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이 내 꿈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화를 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반,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다는 것에 대해 응원해줄까 하는 기대 반을 마음속에 품으며 방송작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려던 그 순간이었다.

“엄마는 우리 딸이 대학도 취업도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병 속에 가득 담긴 차가운 물을 그대로 내 머리 위로 쏟아 내버린 듯이 머리가 순간 땡하고 울렸다. 양다문 입술 틈 사이로 나오려던 방송작가란 말이 손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숨어버렸다. 내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기도 했고, 안정적인 것을 당연히 원할 것이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수족냉증으로 차디찬 손의 냉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져서 뽁뽁 얼어버릴 것만 같았다. 담요처럼 포근한 미소와 달리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를 싹둑 잘라버린 말을 한 엄마가 괜스레 미웠다. 한순간에 울적해진 기분에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지만, 주먹을 힘껏 쥐며 꺾 참아냈다. 내 옆에 놓여있던 대본을 대충 접어 바지 주머니에 구깃구깃 집어넣었다.

지금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해야 할까. 나만 느낄 수도 있는, 왠지 모를 불편한 분위기가 물익을 때쯤 고요하면서도 평온했던 부엌에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 하얀 식탁 위에 암전히 놓인 핸드폰이 꿈틀거렸다. 뽕영고 굵은 지문으로 흐릿했지만, 그 위로 언뜻 보인 전화번호는 직원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었다.

“네, 선이 씨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아빠는 입에 머금고 있던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아빠는 핸드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욱여넣고, 의자에 걸쳐져 있던 붉은색 조끼를 몸에 걸치며 말했다.

“여보, 선이씨인데, 가게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네.”

엄마는 먹던 밥그릇을 정리하며 식탁에서 일어났다. 찬장에서 꺼낸 랍으로 미쳐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을 감쌌다.

“미안해 엄마·아빠 먼저 일어날게,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 언제나 믿어.”

엄마는 냉장고를 닫고서 내 볼을 쓰다듬어 준 다음에 급히 서둘러 나갔다. 나는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신발마저 껴 신고 나간 부모님의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다. 언제나 바빴던 부모님이었기에 나는 다가갈 수 없었고, 천천히 멀어진 몸처럼 마음도 멀어지고 있었다. 부모님과 나 사이의 흐릿했던 선은 조

금씩 선명해졌다. 그렇게 다시 원래의 아침으로 되돌아갔고, 주머니에 옥여넣었던 대본을 꺼내 잔뜩 구겨진 종이 속 글자에 억지로 눈에 담았다.

학교 보충수업이 끝나고 하교를 하던 날이었다. 서서히 해가 지고 있었기에 나는 어두워지기 전에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발 빠르게 가고 있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넉넉하게 15분 거리였기에 걸어 다니기에 충분했다. 새로 구매한 주황색 만년필을 사용할 생각에 방방 뛰며 늘 봐오던 익숙한 길을 걸었다. 일렬종대로 서 있는 나무들은 푸릇한 옷을 갈아입고 붉게 물들어있었고, 생기가 넘치든 이파리가 살랑살랑 불든 바람에 못 이겨 힘없이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가는 길 옆마다 경호원처럼 나란히 서 있는 나무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집 앞까지 도착했다. 고요한 아파 복도에 잠금장치 누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피곤함에 찌들어 졸린 눈꺼풀을 짹 부여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 밖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모조리 차단했기에 어두운 거실 소파 방향으로 환한 그림자가 새어 나왔다. 그 빛은 내 방에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방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발꿈치를 든 채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간 뒤, 살짝 벌어진 문을 툭 밀었다.

침대 구석에 끼인 채로 흠집이 난 여러 도서, 휴지조각같이 방바닥에서 휘날려 널브러진 대본 조각들. 누군가 와서 마술공연이라도 한 듯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내 방 상태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게 갈기갈기 찢긴 대본 종이를 보니 마치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현실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5분 전 집으로 향하던 평온함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은 감정만 남았다.

현관 쪽에서 짧은 인기척과 함께 문이 덜컥거렸다. 나는 깜짝 놀라 미어캣처럼 고개를 방 밖으로 내밀어 바라보았고, 가만히 서 있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담긴 아빠의 눈동자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아빠, 지금 큰일 났어. 내 방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빠는 방 밖에 정처 없이 서 있는 나를 스쳐 지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의 냉기가 내 주위를 맴돌며 잔상이 남았고, 순간 거실 소파에 초라하게 놓인 아빠의 붉은 외투가 눈에 들어왔다.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내리쳤고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뭐야, 이것들은.”

아빠는 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말했다. 아빠의 목소리는 얼핏 듣기 평범했지만 나는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책상에 쌓여있던 종이 쪼가리들 뭔지 설명하라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분노 근원지가 나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화를 내는 아빠의 맹수 같은 날카로움에 두려웠을 뿐이다. 아빠는 수염이 거뭇거뭇 난 얼굴에 마른세수를 했다. 아까보다 열린 썩꺼풀로 내 눈동자를 다시 마주했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동공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아빠는 우리 딸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빠가 알았다. 내 꿈이 방송작가라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 응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처절한 상황을 마주할 줄 몰랐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끌어 올라오는 울컥함에 잠시 숨을 참았다.

“평범한 직업의 기준이 뭔데?”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거!! 네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하고 싶다고!”

“인생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 현실이 만만하니!?”

3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간신히 참아내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인공인 인생이라고, 힘껏 외치고 싶었지만 끊어질 듯 말 듯한 이성의 밧줄이 아슬아슬하게 나를 붙잡았다. 말없이 계속 마주치는 아빠의 검은 눈동자의 떨림이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답답해졌고, 그동안 혼자서 집 안에 있던 서운한 기억이 물밀 듯이 몰려와 차오르는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렇게 나는 집을 뛰쳐나갔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엄마의 손길마저도 뿌리치고 무작정 달렸다. 아파트 복도 센서 등이 내 길을 안내해주듯이 차례대로 비추어 코끝이 찡해지며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느라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이 더 선명히 보였다. 모두가 나를 불효녀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송곳 같은 말이 마음을 갈레 째처럼 뭉그러뜨렸다.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처럼 ‘난 할 수 있다’는 말을 주문처럼 머릿속에 설 새 없이 외쳤다. 조금 후회감이 들기도 했다. 내가 지금 괜한 욕심을 부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성인조차 되지 않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사회생활도 모르고 등지 안에서만 자라던 내가 덩굴 같은 사회 속에 겁도 없이 뛰어들었다는 것에 부모님은 몹시 놀라셨고, 걱정하셨을 것이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분명히 몇십 년 먼저 사회 속에 뛰어든 경험으로서 나에게 해준 조언일 텐데, 나는 분명히 아빠의 마음을 알겠는데, 왜 자꾸만 눈물은 눈치 없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다.

정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았다. 집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슬리퍼를 급하게 신고 나오느라 왼쪽 발은 청색이고 오른쪽 발은 흑색, 색도 맞지 않아 당시 정신없던 심정이 드러날 정도였다. 나는 나뭇가지만 초라하게 남은 가로수 옆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로등 빛이 먼지가 쌓인 듯이 흐려 벤치 근처만 겨우 보일 정도였다. 나는 앞에 보이는 새까만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순간 왼쪽에서 느껴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치킨집 직원인 선이가 내 왼쪽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선이와는 치킨집에서 몇 번 마주치긴 했지만, 접점이 없었기에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이였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는 들어가야죠.”

선이는 따뜻하게 달궀진 핫팩을 건네며 함께 한 위로와 진심이 담긴 말을 했다. 그녀의 따스한 말에 나도 모르게 입을 열게 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마냥 어둠으로만 가득했던 주위는 뜨거워진 핫팩처럼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와 나는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조금 늦은 밤이었고 정말 고요했지만, 그녀와 내가 앉아있는 벤치는 무대 같았고 우리만을 비추고 있는 가로등은 조명처럼 환하게 빛났다. 가만히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녀에게 고마움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망설여졌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 후련하기도 했다.

선이와 헤어지고 나는 고요한 집 안으로 살며시 돌아왔다. 여전히 내 방만이 환하게 켜져 있는 불. 안방은 굳게 닫혀있었고 차마 들어가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발 디디는 소리까지 완전히 죽이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어지럽혀 있던 책상도 바닥도 모두 말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종이 몇 장들이 놓여있었다. 찢긴 흔적이 어긋나게 테이프로 고정되어있는 것을 보고 눈동자가 축축해지며 눈물이 방울방울 차올랐다. 후회함과 죄송함이 교차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마음에 나는 책상 앞에 그대로 선 채로 종이를 들고 있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잔뜩 부어오른 눈꺼풀을 감싸 손에 여러 감정이 섞인 눈물을 담았다.

통통 부은 내 얼굴을 향한 아침 햇살이 기상 알람처럼 나를 잠 속 세계에서 꺼내주었다.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복잡한 마음에 잠들지 못해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였다. 방 밖에서 조

금씩 들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몸을 일으키려 힘을 냈지만, 감정적으로 지친 탓에 잠깐 누워있자는 생각으로 침대에 축 늘어졌다. 똑똑. 방문 노크와 함께 문 손잡이가 철컹 돌아갔다. 얼굴만 내민 아빠와 눈이 마주친 나는 순식간에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다크서클이 흐릿하게 보이는 아빠의 거친 피부가 다시 어제 있던 일을 연상케 했다.

"나와서 아침 먹어."

아빠는 갈라진 목소리로 내게 아침을 권유하고서 나갔다. 수저를 챙기고 있는 아빠, 부친 김치전을 접시에 옮기고 있는 엄마. 얼핏 보면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분위기 속에 냉기가 조금 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조금 아니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꼭 부모님께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분주한 부엌으로 다가가 용기를 내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를 내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존댓말을 쓰며 진심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엄마는 내게로 다가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먹기 좋게 자른 김치전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

"엄마·아빠가 우리 딸한테 무신경했던 것 같네, 미안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았던 어젯밤 소동이 무사히 막을 내렸다. 집 안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되찾았다. 부모님과 앞으로의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 마음속 응어리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내 꿈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듯해 보였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모두 후련하게 도전해보라고 하시며 응원해주셨다. 따뜻한 온기가 남은 밥상처럼 분위기 또한 물 익었다.

‘이번 역은 강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나는 짐을 모두 챙겨 강촌역에서 멈춘 열차 밖으로 갔다. 얼굴로 느껴지는 상쾌한 바람이 내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주었다. 가볍게 옷, 노트북 등을 챙긴 배낭을 들쳐 메고 캐리어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나 발길을 따라 걸어갔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역 중앙의 폭신한 의자에 앉았다.

“잘 도착했어?”

선이었다. 선이와의 인연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쭉 지속하였다. 선이는 여전히 치킨집 직원으로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행복함이 피어올랐던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찔러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갔다. 익숙한 동네가 보이고 익숙했던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씩 변화가 생긴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움이 느껴지는 동네를 구석구석 살폈다. 한 가게 앞에서 나는 그리웠던 냄새가 나를 포근하게 감쌌다. 유리창을 통해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움직이는 엄마, 아빠 그리고 선이가 보였다. 나는 낯아서 껍질이 벗겨진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고 나를 보고 동그란 눈으로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자유롭게 반짝이는 빛처럼.

“나 왔어요!”

지금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꿈을 품고 있다. 여전히 품고 있는, 포기하지 못한 꿈이지만, 가끔 방송작가가 된 나의 먼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친 마음의 위안으로 삼기도 한다. 언젠가 이를 꿈을 위한 나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파편들

철학전공
20171096 조성현

1

수호가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은 폭신한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일이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블록과 그 블록을 담은 플라스틱 양동이와 눈에 들어온다. 수호는 손에 쥐고 있던 블록을 다른 친구에게 빼앗긴다. 그러나 싸우지 않았다. 이 일이 나중에 수호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이다.

수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부터 수호의 엄마와 아빠는 싸움이 잦아졌다. 수호에게 이 시간은 고향이 있고 물건이 넘어지는 날이었다.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는 이해를 넘어선 일이었다. 그런 날이 있는 하루는 밤새 조용했다. 무거운 정적이 깔린 깊은 밤은, 잠을 깨운다. 싸움은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민정과 도윤에게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다. 후회의 감정은 너무 흔했다. 물건을 사도 그랬고 말을 뱉어도 그랬다. 후회를 후회했다. 그러나 이런 후회마저 둘 사이에 수호가 있다는 사실만큼 크지 않았다. 수호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둘은 겨울날의 입학식과 졸업식 한가운데 서있는 수호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정은 자신의 머리칼을 다 쥐어뜯고 싶었다. 끝은 누구의 처지도 고려하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다.

민정은 장을 본다.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전화는 수호가 칭얼거린다는 이야기다. 민정은 시간을 보고 수호와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았다. 전화는 빨리 수호를 데리고 가라는 독촉이었다. 민정은 차를 몰고 수호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민정은 선생님과 수호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호를 뒤 좌석에 태웠다. 수호는 장바구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를 원망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나고 어린이집에 수호만 혼자 남아있었다. 민정은 수호가 참을성이 없어 보였다. 민정은 자신과 친한 엄마들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똥똥한 아이들. 민정은 거칠게 차를 몰고 싶은 충동을 안으로 삼켰다.

수호야.

응.

엄마가 늦게 와서 속상했어?

아니.

수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파란 가스불이 냄비를 감쌌다. 국거리는 썰어져 도마위에 놓였다. 민정은 장바구니 속에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모든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예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찬물에 야채를 씻고 손을 닦았다. 튼 손이 보인다. 민정은 자신의 손을 강아지 쓰다듬듯 쓰다듬었다. 메마른 강 위를 스쳐가는 구름처럼.

구름은 그 날에도 선명했다. 여름 장마가 개이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다. 언젠가 민정은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눈을 떴다. 도윤의 짧게 잘린 뒷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정은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해야할 순간이라는 계시를 느꼈다. 지금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을 것

처럼. 그와의 미래가 청사진처럼 눈에 보였다. 그녀는 그 전에는 몰랐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몰랐던 사람과 앞으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일은 눈을 멀게 할 일이었다. 민정은 그저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지금 딛고 있는 토대를 포기했다. 위대해 지는 일은 이렇게 쉬었다.

도운은 일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다. 신호대기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좌우로 오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집으로 가는 걸까. 해는 짧아지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그들 사이에 수호가 없었을 때, 늦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민정은 먼저 잠들어 있었다. 잠든 동물 같았다. 오가는 사람들도 집에 가면 잠든 동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군중에 치이고 숙소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오가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쳤다. 피곤한 몸을 누었다. 여행지의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 참 많더라. 팔을 베고 누운 도운이 말했다.

그러게. 내일은 사람 없는 데 찾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 왜 하필 당신일까. 오늘 마주친 사람들을 떠올려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왜 너를 알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들이 아니라 너일까.

내가 싫다는 거야?

아니. 한번 생각해봐. 모든 만남이 이렇게 드물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낯선 곳으로 온 걸 생각해봐. 그런 생각을 하면 세상이 낯설어져.

그럼 헤어짐은 흔한 거야?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헤어짐이 특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헤어지는 건 모든 걸 평범하게 만들어. 그 사람과 나눴던 모든 게 기억에서 매몰돼. 근데 우리 너무 힘 빠지는 이야기만 한다. 내일은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그런 데가 있는지 찾아볼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성냥불을 붙이듯.

수호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민정과 도운의 입은 쉽게 닫혔다. 끝은 마지막 모퉁이를 돌면 마주칠 차례였다. 중요한 건 다짐이었다.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으면 끝으로 가는 길은 열린다. 이 일이 그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무언가를 암시했다.

그 일은 도운이 직장 워크숍에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워크숍에서 돌아오는 날 도운은 바다 근처 수산시장을 구경했다. 아크릴 수조에 담긴 바닷가재가 보였다. 바닷가재의 집게발은 PP밴드로 묶여 있었다. 도운은 상인에게 그 녀석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상인은 가재를 들어올렸다. 가재는 꼬리를 찼다. 가재는 얼음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에 담겼다. 가재라니. 도운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늦은 밤 집에 도착하니 도운을 향한 시선은 스티로폼 박스로 옮겨졌다. 반가움보다는 상자 속 물건이 궁금했다.

이건 뭐야?

민정은 주방으로 향하는 도운을 따라가며 말했다.

한번 열어봐.

기절한 가재가 얼음위에 놓여있다.

민정은 머리가 아팠다. 일을 벌여 놓는구나. 걱정한거다. 나를 괴롭히는구나.

수호는 가재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검은 몸에 부채 같은 집게발.

왜 일을 만드는거야?

먹기 싫어?

술도 마시고 왔어?

한차례 실랑이가 오갔다. 결국 먹기로 했다. 찜통에서 가재가 익어갔다. 빨개진 가재가 쟁반위에 놓였다.

가재가 빨개졌네? 수호는 색이 바뀐 모습이 신기했다.

응. 원래 그런거야.

왜 그러는데?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도운은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가재의 몸을 갈랐다. 부푼 기대를 품었다. 가재를 먹고 화를 풀었으면 하고. 민정의 기분도 오랜만에 먹는 가재라고 생각하니 기대했다. 그러나 가재는 벽에 달라붙은 몇 점의 살을 제외하고 비어 있었다. 가재는 아마 수조 안에서 한동안 굶었을 거다. 갈라진 몸에서 빠져나온 증기가 천장에 달린 전등에 부딪혔다가 사라졌다.

2

민정과 도운은 식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수호에게 이 일을 잘 설명해야 했다. 수호가 납득할 수 있게. 수호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필요했다. 민정과 도운은 서로 어린이가 되어 어떤 이야기가 적절할지 생각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처가 될 것은 분명했다. 수호는 방에서 서류니 소송이니 하는 이해를 넘어서 이야기를 엮었지만 왠지 잠에 들기 힘들었다.

집은 조용한 날이 많아졌다. 수호는 민정과 지냈다.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오면 동굴처럼 소리가 몸을 낮췄다. 티비를 보는 것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지루했다. 수호는 집 안 모든 서랍을 열어 보기로 했다. 부엌의 서랍은 식기나 조미료뿐이었다. 안방에서는 화장품 냄새가 짙었다. 다른 방보다 따뜻했다. 침대 위에는 베개가 하나만 있었다. 침대는 쓸데없이 커졌다. 수호는 화장대의 서랍을 열었다. 온갖 화장품들이 있다. 수호는 향수를 공중에 뿌렸다. 다른 서랍도 열어보았다. 거즈, 면봉, 명함 등 잡동사니가 있었고 한 구석에는 주머니칼도 있었다. 칼날이 날갯짓을 하며 퍼졌다. 수호는 칼날을 집어넣고 다시 퍼보았다. 예리한 칼날은 묵직한 금속에 의지하고 있었다. 아직 아빠가 가져가지 못한 물건들 중 하나인 듯했다. 다음날 수호는 칼을 책가방에 챙겼다.

등굣길에 가방 깊숙이 숨긴 칼을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도 칼은 빛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학교와 가까워질수록 칼의 빛은 더 밝아졌다. 그 빛이 새어 나올까 불안했다. 나만 아는 유일한 비밀이었다. 마음 한 구석이 멍울졌다. 수호는 아직 오지 않은 짝꿍의 빈자리 옆에 앉았다. 얼마 뒤 진옥도 왔다.

이거 봐. 수호는 지루한 수업 중에 진옥에게 말했다. 진옥은 책상 밑에서 칼을 쥔 수호의 손을 보았다.

어디서 났어?

집에서. 수호는 칼날을 펴 보였다.

진짜 칼이야?

진짜야. 수호는 책상 모서리에 칼을 그어 톱밥을 그러모았다. 진옥에게 칼 끝은 아득한 꼭대

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칼은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이거 빌려줘.

안돼.

내일 돌려줄게.

잃어버리면 큰일 나.

수호는 책상 밑으로 진욱에게 칼을 건네주었다. 진욱은 가방 속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칼을 놓았다. 하룻길에 진욱은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햇빛이 칼날을 따라 가느다란 선을 수놓았다. 진욱은 방문을 잠그고 칼을 가지고 놀았다. 종이는 칼에게 쉽게 길을 터주었다. 칼 끝으로 벽을 찔렀다. 손톱자국만 한 틈새가 났다. 벽지너머로 바짝 마른 시멘트가 보였다.

진욱 이리로 와봐. 진욱의 엄마가 청소를 하다가 불렀다.

왜요? 거실에서 티비를 보던 진욱이 답했다.

빨리.

진욱의 엄마는 벽에 생긴 틈새에 대해 추궁했다. 진욱은 잘 모른다고 했다. 상한 벽지를 다시 보며 엄마는 청소기를 내려놓았다. 진욱의 팔을 잡고 침대 위에 앉혔다.

솔직히 말해. 이거 뭐야.

진욱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진욱은 가방 속에서 칼을 꺼냈고 엄마는 칼을 가져갔다. 진욱은 집으로 오던 길에 길에서 주었다고 했다. 그날 밤 엄마와 아빠는 칼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욱은 내일 수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고민했다. 벽의 틈새로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진욱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다니까.

그 말을 듣고 아빠는 칼날을 찼다.

이거 비싼거 같은데?

비싼거야?

그래보여. 아빠는 칼로 근처에 놓인 빨간 사과를 잘랐다. 조각난 사과 하나를 엄마에게 주었다. 그들은 압수한 칼을 안방 서랍에 넣었다.

잃어버렸어. 미안.

어쩌다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수호와 진욱은 복도에 나와 이야기했다.

나도 몰라. 그냥 사라졌어.

그냥 사라진 게 말이 돼?

말이 돼. 나도 전에 그런 적 있어.

다시 돌려내.

없어진 걸 어떻게 돌려내?

수호는 진욱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 없어지지 않았을 거다. 하루만에 사라지는 것은 없다. 사라지더라도 시간을 두고 빛이 바래듯 서서히 사라질 뿐이다. 더구나 무거운 금속이지 않은가. 수호도 단단하고 무거운 금속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안다.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결국 칼이 사라졌다는 진욱의 말은 거짓말이고 칼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무엇보다 수호가 걱정한 것은 내일 별장에 가서 아빠를 보는 일이었다. 칼을 돌려받지 못하고 아빠를 쳐다볼 수 없었다. 아빠는 자기 칼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호는 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었다. 더 이상 칼을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진옥은 칼을 돌려줄 의향이 없어 보였다. 수호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진옥은 코 끝이 찡했다. 수호가 주먹으로 때렸다. 진옥도 악에 받쳐 맞섰다. 진옥은 수호보다 힘이 세다. 수호의 옷을 끌어당겨 복도에 눌렀다. 둘은 영킨 실타래처럼 굴렀다. 아이들이 몰려와 구경했다. 결국 수호는 아래에 깔려 진옥이 던지는 주먹에 맞았다. 아픈 느낌은 없었다. 다만 무력한 기분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바닥의 무늬 같은 평범한 사실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집이나 안방의 화장품냄새 같은 것을 떠올렸다. 수호도 할 수 있는 저항을 했다. 진옥의 팔을 할퀴었다. 팔에 생긴 생채기에 핏방울이 맺혔다.

3

문을 열었다. 도운은 경매를 통해 강 가에 별장을 얻었다. 강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숲에서는 노래하던 새들이 나무를 버리고 날아갔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도운은 별장을 수리할 곳을 둘러보았다. 저당을 잡힌 뒤로 별장은 관리와 거리가 멀어졌다. 도운은 이 별장을 소유했던 사람은 모른다. 강을 마주보고 있던 면은 바람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다. 벽의 갈라진 틈새가 보였다. 현관의 나무판자도 비에 젖고 마르기를 반복해 흔들리고 꺼지고 있었다. 다음 휴가까지는 시간이 남아 천천히 수리를 맡기기로 했다. 숲에서 바라본 별장의 모습과 강가에서 바라본 별장의 모습은 손바닥 뒤집듯 다른 모습이었다. 가족과 함께할 모습을 그렸다. 꽃도 심고 수영도 해야지. 도운은 다시 별장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강을 보았다. 창문도 닦아야겠다. 도운은 다시 문을 닫았다.

경매를 통해 별장을 얻은 날, 민정은 별장이 찍힌 사진을 보았다. 경매 전 감정을 위해 촬영되었다. 겨울에 찍힌 별장은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모습이었다. 다같이 별장으로 놀러간 날 새하얗게 칠한 별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의 모습과는 달랐다. 별장은 새로운 시간을 맞을 준비를 했다. 민정은 별장에 놀러 올 때면 정원을 가꾸었다. 도운과 수호가 강가로 가면 민정은 모종삽을 들고 꽃을 심었다. 숲에서 종종 바람이 불어왔다. 불어온 바람이 목덜미의 땀을 흠쳐갔다. 정원 일이 끝나면 강가로 가 그들을 만났다. 민정은 그들과 잠시 떨어져 물에 잠긴 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밤이 찾아오면 다같이 밥을 먹었다. 수호는 강가에서 본 죽은 물고기 이야기를 했다.

내가 본 고기 중에 제일 컸어요.

그 팔뚝만 한 물고기는 비늘이 닳아 벗겨졌고 눈은 창백했다. 강물이 물고기를 물밖으로 밀어냈다.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강변을 따라 산책을 나왔다. 물안개에 번진 햇살은 꿈결같았다. 물고기는 사라졌다. 모래톱위에 새겨진 희미한 자국만이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라졌어요.

그러게. 어디 갔을까. 도운이 말했다.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럼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다시 강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 같은 애들이 훔쳐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새가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있을 걸? 강을 바라보던 민정이 말했다.

그래?

사라지면 사라진 거야.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게 희미해져. 손에서 떠나는 순간 안녕을 말해야 돼. 그 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알 수도 없어. 그냥 사라지게 댕. 그게 전부야.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기억도 사라져.

수호는 다시 물고기가 있었던 자리를 보았다. 그러면 물고기가 다시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민정과 도운은 얼음이 풀린 봄날의 강을 보았다. 강물은 땅을 적시는 일도 잊은 듯 흘러갔다. 날벌레를 먹으려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올랐다. 산책길은 숲을 마주했고 그들은 발길을 돌렸다.

별장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남긴 수많은 발자국이 보였다. 멀리서 하얀 별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그곳에서 불을 켜고 젖은 몸을 말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수호는 아빠와 차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다. 아빠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차는 건물 하나 없는 강변을 따라 달렸다. 별장은 몇 년 전 방문을 마지막으로 발길이 끊겼다. 차 뒤에는 페인트와 공구가 실렸다. 방지턱을 넘을 때 마다 공구들이 부딪혔다.

화해했어? 룸미러로 수호를 보며 말했다.

아직.

도운은 오랜만에 만난 수호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민정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했다. 친구가 먼저 놀렸다고 수호가 말했다. 도운은 칼 때문에 싸웠다는 사실을 몰랐다. 칼을 두고 갔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약 잘 발라. 싸우지 말고.

차는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섰다.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창 밖으로 옷자란 풀들이 지나갔다. 열린 창으로는 물비린내가 났다. 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곧 별장도 보였다. 도운은 창고 근처에 차를 세웠다.

별장은 한동안 관리가 되지 못했다. 화단에 한아름 싹 심어 놓은 꽃들은 시들었다. 대신 잡초가 자란 곳 마다 점점이 들꽃이 피었다. 거미는 사방에 거미줄을 긋고 살을 찌워갔다. 도운은 차 뒤에 실은 공구들을 꺼냈다.

수호는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는 도운 곁에 머물렀다. 도운은 거미줄을 걷어내고 벗겨진 페인트를 떼어냈다. 도운은 붓을 들고 수호와 페인트를 칠했다. 하얀 페인트였다.

걸을 따라서 칠해야돼. 도운은 붓으로 나무의 걸을 따라 칠하며 알려주었다.

도운은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부터 칠을 시작했고 수호는 쪼그려 앉아 밑에서 칠을 했다. 페인트 칠이 끝나고 도운은 창고에서 톱을 가져와 판자를 잘랐다. 물먹은 판자와 녹슨 못을 교체했다. 작업은 오후 일찍 끝이 났다. 별장은 당밀 입힌 사탕처럼 번들거렸다. 옷을 갈아입고 강으로 갔다. 더위를 식히고 페인트가 마를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수영 해볼래?

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잡아줄게.

도운은 수호의 팔을 잡고 강으로 이끌었다. 물이 수호의 목까지 금방 차올랐다. 수호는 도운에게 의지해 헤엄을 쳤다. 걷는 것보다 쉬었다. 이대로 강 건너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도운의 손이 잠깐 떠나면 물에 잠겼다.

여기까지만 가자. 더는 안돼.

조금만 더 가요.

깊어지면 위험해.

그들은 더 가지 않고 헤엄치다가 물으로 나왔다. 몸이 무거웠다. 그들이 남긴 파문이 멀어졌다. 모래톱위에 앉아 젖은 몸을 말렸다. 그들의 등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더운 기운에 말없이 나른해졌다. 자리를 정리하고 별장으로 돌아갔다. 페인트는 거의 말라갔다.

다음날 아침에 도운은 일찍 잠에서 깼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미명이었다. 물안개가 별장 앞까지 넘봤다. 도운은 다시 잠에 들 수 없어 밖으로 나갔다. 수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강 앞에서 서성였다. 다시 돌아와 떠날 준비를 했다. 도운은 조만간 별장을 팔자고 민정과 이야기할 생각이다.

민정과는 그해 가을 초입에 왔다. 하늘은 팽팽한 푸른 천 같았다. 수호는 민정의 손을 잡고 별장으로 걸어갔다. 정원과 마당의 경계는 사라졌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별장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민정은 꽃이나 다시 심어볼까 생각했다. 그마저도 되돌릴 수 없는 헛된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 잡초들만 정리했다. 여름동안 불어난 덩굴이 억설했다. 서로 얹히고 얹혀 도무지 혼자 정리할 수 없었다.

별장에 들어가 창을 열어 공기가 통하게 했다. 쿼퀴한 냄새가 났다. 천장을 보고 있는 곳마다 먼지가 쌓였다. 먼지를 닦았다. 주방에서 과일을 썰었다. 한 접시안에 담고 마당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오면서 처마 아래 별들이 떠난 별집이 보였다. 떨어지지 못하고 매달린 시든 이파리 같았다. 야외 테이블 위에 접시를 두고 수호와 나눠 먹었다. 반듯하게 잘린 과일들.

아빠랑 와서 뭐했어?

일하고 놀았어요. 색도 내가 칠했어. 이제 새집이야. 망가지면 고치면 돼. 고치는 건 쉬워요. 하나하나 쌓아가면 돼요. 나도 이제 고칠 줄 알아. 창고에 가면 망치도 있고 못도 있어요. 저번에 쓰고 남은 페인트도 있고요. 다음에 다같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다같이 오면 좋을 거예요. 집도 다시 고쳤고 꽃도 다시 심으면 돼요.

다음에 이야기하자. 엄마 피곤해.

민정은 다시 이곳에 올 수 없음을 알았다. 별장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색으로 별장을 칠할 것이다.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순간이 온다고 가정하면, 다른 색을 칠할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또다시 이야기가 시작된다. 꽃을 심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놀거면 여기 주변에서 놀아. 반드시 숲으로는 가지마. 민정은 반드시를 강조했다.

민정은 잠이 들었다. 팔이 무거운 추처럼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민정의 손끝은 포도의 빛깔로 물이 들었다. 별장 주변에 적막이 내려앉았다. 수호는 동화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기분

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안방의 서랍을 열 듯 숲으로 향했다. 덩굴 사이로 숲으로 가는 길이 이어졌다. 숲에는 낮은 풀이 깔려 있었다. 빨강게 익은 산딸기가 매달려 있었다. 수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산딸기를 따다. 산딸기 곁에는 솜털이 자라나 있었다. 수호는 산딸기를 입으로 가져갔다. 싱겁고 텁텁했다. 그러나 끝맛이 달았다. 수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었다. 수호는 좀더 들어가 보았다.

반사광속 세상

법학과
20181624 엄윤진

이 이야기는 팩션(fact+fiction)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좀비떼같이 사람이 가득 들어찬 버스 안 맨 앞 좌석에 윤진이 앉아있다. 윤진은 팔꿈치에 스치는 남자 승객의 옷자락에 불쾌감을 느끼며 창문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다. 창문 속에 어떤 재미있는 장면이라도 있는 것인지 유심히 살펴보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윤진은 창문에 반사되어 비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진의 머릿속엔 하고싶은 말을 할 줄 알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신이 절로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 속 윤진은 그저 유리창 안에 사는 사람들만 노려볼 줄 알 뿐이었다.

곧이어 크게 덜컹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버스의 뒷문이 열렸고 윤진은 사람들과 함께 쏟아지듯 버스에서 내렸다.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고 생각하며 윤진은 지하철로 향했다. 학교 가는 길은 항상 윤진을 힘들게 했고 도착하기도 전에 힘을 다 빼놓았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지하철은 그나마 그녀가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심지어 오늘은 윤이 따라주는지 금방 좌석을 찾을 수 있었고 두 귀엔 이어폰을 꽂고 반대편 창문으로 보이는 지하철 안을 지켜보며 느긋하게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그때 누군가가 옆 좌석에 앉았다. 옆자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 잘 앉지 않는 좌석이었다. 창문 속 반사광으로 슬쩍 바라보니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었다. 윤진은 속으로 청년을 욕하면서 다시 음악에 집중했다. 하지만 청년은 윤진을 쉽게 놔주지 않았다. 청년의 팔꿈치가 가슴 쪽을 향해 쿡쿡 찔러왔다. 윤진은 그 상태로 얼어버렸지만 착각이라 생각하면서 조금씩 옆으로 피했다. 거기서 일이 종결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윤진은 반사광을 바라보았고 창문 속에는 겁에 질린 자신의 모습과 재밌다는 듯이 쿡쿡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웃는 청년도 충분히 짜증났지만 그보다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몰아치는 호흡을 막으며 윤진은 도망치듯 지하철에서 내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듯 쳐다봤지만 그대로 지나갔다. 연약한 나 자신과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력감을 느낀 채 윤진은 지하철 안전 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가죽 재킷을 입은 멋진 여성이 윤진을 일으켜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윤진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유리 문으로 달려가 머리를 세계 박았다.

윤진아, 윤진아,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야. 왜 저렇게 예민하고 극단적인가 싶지? 부디 현실 속의 윤진이는 소설 속 보다 신중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해서 그랬어. 윤진이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부디 자신을 받아들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는 여기 나오는 윤진이보다 행복할 거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더 멋진 이야기를 이어나가길 바라. 피해자, 환자, 학생 그 무엇도 아닌 온전한 '윤진'으로 살기를.

연결의 주파수

사회학과
20212221 안선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이 메일을 보실 때쯤이면 전 마음껏 휴가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연구소에 지각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선생님은 요즈음만큼 정해진 대로 살아가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냐고, 제 시간에 일어나 연구소 서버에 접속하기도 어려운 것이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날은 여느 때처럼 홀로그램 시계가 컵가에서 울리고, 벽 한쪽 패널에는 제 수면 패턴과 취침 시각이 표시되던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확하게 7시 1분 9초에 정신을 차렸네요. 데이터에 따르면 저는 약 5분 뒤에 세수를 마치고 식품영양학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추천받은 아침 식단을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따라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 E-92가 부산스러웠어요. 다락방 앞을 어슬렁거리는데, 꼭 정기적인 오류 점검을 하지 않아 해킹 프로그램과 방화벽이 충돌하는 문제가 나타난 모양이었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전 그때까지 가상현실 진입용 외부 자극 차단 부스를 마련하지 않아서, 연구소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는 와중 E-92가 제 모듈을 건드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증조할머니께서 각종 잡다한 구시대적 물건들을 넣어두는 창고로 쓰던 다락방을 차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 앞에 두었던 기계식 운반 책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둔탁하고 묵직한 노크 소리가 다락방 안에서 들릴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A/S 시설에 연락해 수리용 로봇 I-84가 도착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전 자연스레 다락방 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락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공간조차 없는 무無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림자나 어둠보다 더 까만색을 하고 있어서, 공간이 절단된 것이 아닐까 싶었죠. 빛도 문 안에서는 검은 것에 먹히는 것만 같았어요. 암흑물질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고요. 빛의 파장이나 주파수,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다락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빛바랜 시대의 물건들일 뿐이라, 구식 게임기, UHD LED 모니터, 쓸데없이 부피만 큰 컴퓨터 본체... 각종 잡동사니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였어요! 이런 일뿐이었더라면 저는 절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짧게 끊어지는 묵직한 타격음.... 만약 문 속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다면, 빛이 진공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소리가 어떻게 닿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천체물리학자로서 제 앞에 놓인 과학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을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던져보고, 끈에 묶어 던졌다가 끌어올려 상태를 확인하고, 손가락을 넣어 제대로 붙어 있는지도 확인했죠. 무모하다고 혼내

시면 안 돼요. 분명 선생님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으리라 확신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암흑물질’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아, 던지기 전까지 소리(편의상 노크 소리라고 통칭할게요!)가 총 여섯 번 더 들렸는데, 세 번은 소리 사이 빈틈이 있었고, 세 번은 처음 들었던 노크 소리와 유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외계인’, 아니, 외계 행성을 만났어요.

무기체가 살아 움직인다면 그걸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락방 안에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 있었어요. 아니, 다락방의 문은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암흑물질을 타고 ‘어떤 우주’로 넘어온 것 같았죠. ‘우주’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몸은 허공에 둥둥 뜨고, 그러면서도 발을 딛으면 무언가 아래에 밟히는데, 의식과 연결된 가상현실 공간에 연결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행성은 음성기관이 있는 생물이체가 아니었어요. 그를(생물체처럼 묘사해도 될까요?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는걸요!) 바라보는 제 안경 화면에 분석된 결과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렌즈 디스플레이에 그 행성의 지름, 추정되는 질량, 확대된 표면 사진이 새로운 창으로 겹겹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아래의 자막만 아니었다면, 전 틀림없이 다시 돌아 나왔을 거예요.

[주파수 감지]

할머니께서 한참도 전에 추가해 두셨던 확장 기능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겠어요? 라디오고 뭐고, 어차피 머리에 부착된 모듈이면 바로 신호를 수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꼭 구시대의 산물을 고집하셨어요. 저도 이런 걸 경험해봐야 한다면 뭐라나. 그 덕에 그 행성이 보내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었지만요. 아무튼, 안경의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마침내 그 신호와 연결됐지 뭐예요!

[도와줘]

저는 그 세 글자를 보고 안경이 드디어 구시대를 따라 구문물의 결과가 된 것인지 의심해야만 했어요. 상식적으로요, 그 외계 행성 사이에서도 형태와 체계를 가진 의사소통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같은 행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쭈뼛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인신매매인가 싶다가도, 혹시 모를 가능성이 제 발을 붙잡았어요. 다락방에서 들리던 노크 소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다면요? 연구자로서 지나칠 수 없었어요. 입을 열었죠. 놀랍게도 답이 돌아왔어요.

“뭘 원하시는 거죠? 제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나요?”

[지구의 기술 발전, ‘나’ 치료 가능, ‘안개’의 침식]

[블랙홀 연결 의도된 것]

[현상 해결 위해 지구의 도움 필요]

기다렸다는 듯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은 걸 물었죠. 어쩌다가 안개가 문제가 된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곳은 대체 어디인지…. 짧은 대화 끝에 내린 결론들은 아래와 같아요. 보고서로 제출하고 싶었지만 약식으로 조금 다듬어 전달해 드리는 것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주에 인간 외의 다른 생물체—하지만 그 행성은 살아 있다고 하기에는 생식 활동도, 죽음의 개념도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하는 지성체라고 칭할게요.—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아직 인간의 기술이 완벽하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그 지성체들은 지구를 ‘관측’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적 접촉을 할 수는 없었다. ‘행성’들은 은하 간 거리인 100만 광년은 상상조차 못 하는 멀리 떨어진 거리를 이동할 수는 없었다.

셋째, 지구에서 보이는 ‘안개’와 같은 현상이 최근 우주의 ‘행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실체를 가지지 않는—표집 불가능한 ‘안개’는 ‘행성’의 근처에서 머물며 ‘행성’을 이루는 ‘물질’을 부식시키고 침식하기 시작했다. ‘행성’들은 지성체이나 태생적인 한계로 우주 내 물리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넷째, 블랙홀을 통과하게 된다면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블랙홀과 웜홀은 ‘행성’ 사회의 기술을 이용하면 ‘인위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암흑물질을 에너지원으로 한 특정한 에너지와 좌표의 계산식을 이용하면 다른 우주로 이동 가능하다.

다섯째, 그래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지구인 중 누군가를 우주로 불러오고자 했다. 그 통로가 다락방의 문이 되었고, 이를 이용해 이동했다.

그리고 저는 그 행성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성을 이루는 물질을 조금 떼어왔어요.(곧장 집 안의 연구실로 향했고 거쳐 간 모든 곳은 방역을 끝냈으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안개’로 보이는 공간 역시 연구실로 가져오고 싶었지만,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았고,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간을 그대로 옮기는 기술은 개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블랙홀을 넘어서요. 행성이 제게 전달했던 신호에 따르면, 블랙홀을 연결하는 건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뒤에 다시 다락방을 열겠다고 약속했어요. 시간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지구와 이동했던 우주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걸 계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무튼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생님. 전 일주일 뒤 다락방 문을 열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잠깐만요! 선배가 부르셔서 나머지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맞춰 보시는 건 어때요?

아까 보낸 메일이 읽음 처리가 되지 않은 걸 보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괜찮겠네요. 선생님께서 앞의 메일을 보고 짧게나마 추측하셨기를 빔고 있어요. 아무튼, 선생님, 아직 그 사건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한동안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가 맞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실은 그때 블랙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과 몇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큰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세미나에서 몇 번 마주친 게 끝이었지만… 충격적인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기도 했어요.

다락방 문을 열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넓어지고 관측 불가능한 우주의 영역조차 새로운 기술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우주에 나간다는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저처럼 연구소에 박혀서 논문을 뒤지는 일과, 우주선을 타고 직접 지구 밖으로 나가 블랙홀을 관측하는 건 분명 다른 일인데 말이에요. 그 분께서 연구에 특히 애정을 품고 있던 걸 알고 있었고,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구 실적을 원했으니까요. 현장에 같이 파견되곤 했던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블랙홀이나 행성, 항성을 관측할 때 더 정밀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리 측정 장치의 경고 시스템을 해제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재였던 거예요. 현장에 두 사람 이상을 파견하지 않은 책임자들, 경고 시스템을 해제하기를 부추긴 사람들, 느슨해진 안전장치 아래에서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을 뿐인데 부주의함을 지탄받은 그 연구원……. 왜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지 못한 채 연구에 계속해서 임했지만,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프레파라트를 전자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초점을 맞춰 부식된 부분을 살펴보고, 지구의 것과 흡사한 미생물이 행성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그것뿐이었죠.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잠이 늘고, 그때 나온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난 뒤에는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대체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점점 두려워졌어요. 만약 제가 연구한 미생물이 지구의 생명체에게 유해한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숙주가 된다면, 첫 번째는 모르고 그랬지만 두 번째로 우주에 나가길 선택한 제가 지탄받지 않았을까요? 차마 결심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걸요. 행성과 약속한 기간인 일주일이 훌쩍 넘었어요. E-92는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다락방에서 노크 소리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들리는 신호. 톡톡 톡 톡 톡 톡. 그건 명확한 구조 요청이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왜 하필 저냐고 묻고 싶었어요. 생각의 연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건 친구가 찾아온 덕이었고요.

그 친구는 자기도 수척해진 주제에 저보고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딸기 케이크 하나를 나눠 먹겠다고 가지고 와서는, 일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우주의 끝에서 우주선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어떤 익명의 사람이 항성 블랙홀의 질량과 영향력을 계산해서 우주선이 어디에 도달했을지 계산한 좌표를 제보했대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던 것만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례조차 원하지 않고 사라졌고, 우주선을 그 좌표로 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모금을 받았대요. 학자였을까요? 자신의 정체조차 알리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자 했던 유가족은 얼마나 간절했던 걸까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싸 들고 다락방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향해 다시 몸을 던졌죠.

다시 만난 행성은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안경의 스크린에 크기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출력되지 않았더라면 행성의 부식이 더 진행된 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행성이 안개에 갇혀 먹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행성은 아주 거대해서, 마치 달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지만… 이런 시

간이 계속해서 흐른다면 그 어떤 존재가 실체를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많이 늦었죠?”

[약속 파기 상정, 그러나 도달]

[가능성 존재했기에 통로 유지]

[변경된 일정 설명 요구]

기다렸다는 듯 전파가 수신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대로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개인과 사회에서 시작해서 국가와 직장, 현대의 우주 산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까지요. 행성은 무언가를 계산이라도 하는 듯 한참 응답이 없다가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원하지 않는다면 약속 파기 허가]

“하지만 한 사회의 존폐 위기가 달린 일 아닌가요?”

[약속 파기 상정, 따라서 무수한 가능성 계산 완료]

[시간이 흐를수록 연결 유지 난도 상승. 현재 남은 에너지 1할에 불과.]

[빠른 복귀 권장.]

하지만, 어떻게 가능성 하나를 붙잡기 위해 통로를 계속 열어둔 이들을 무시할 수 있나요? 저는 빠른 설명을 요구했고, 완벽하지 않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신호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선생님, 시기를 영영 놓치고 통로가 닫히면 제가 평생을 후회할까 봐 다른 가능성을 버린 이들을 지성체라고만 칭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유기체가 아니지만 감정을 알았어요. 주파수에 맞춰 문장은 힘을 다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수려하고 예쁜 문장들만이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3차원 원자 현미경으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자의 구조처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신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저 같은 개인이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 것이겠죠. 지구의 생명들보다 더 월등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으면서도 개인을 위한다니. 참 우습죠? 선생님, 만약 이 지성체들을 영원히 냉동시킨다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세요? 2045년 냉동인간의 소생이 가능해진 이후로 끊임없이 이용되던 기술을 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요?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만약 그들의 침식이 미생물과의 화학반응이 이루어져 일어나는 것이라면, 미생물조차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 냉동시켜 기술을 발전시킨 뒤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기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다시 이곳을 찾아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진 기술이었어요. 좌표도, 위치도 모르는, 우리가 기존에 정립했던 물리법칙을 모두 부정하는 우주를 다시 찾아낸 뒤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제가 당신, 음, ‘당신들’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죠?”

선생님께서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고민하셨어야 할 거예요. 제 문제가 아니었다

라면 이미 완성해둔 가설과 장치를 가지고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영겁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행성은 다시 제게 말했어요. 신호에 응답한 이상 하나의 길은 열린 것이라고, 죄책감을 느낀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언젠가 제가 아니라도 지구의 생물체가 찾아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무수한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음에 희망을 보았다고.

왜 몰랐을까요? 그 행성들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지구의 언어를 연구한 끝에 직접 도움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에 저는 모두가 탑재된 급속 냉각 장치(표면을 열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를 건넌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엄청난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하지만 그런 걸 확인할 새도 없이 전 돌아가야만 했어요. 통로의 형태가 일그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평형 상태에 있던 힘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겠죠.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영영 돌아갈 수 없음. 우리의 연결, 지구와도 함께.]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아 맞다. 이상하게도, 그 우주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면 무언가 발에 걸리고, 마음대로 그걸 밟고 이동할 수 있었죠. 마치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요.) 노이즈와 함께 신호가 전달됐어요. 상대성이론이 직접 구현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요, 돌아가기 직전 행성을 돌아보는 순간 전 우주의 역사를 봤어요. 그 행성들이 자신을 불확실한 미래에 던져내는 순간부터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리고 그 별이 자신을 살라 먹으며—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폭발하는 순간을, 그 잔해들이 모여 새로운 별과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요….

선생님,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성분이 상이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한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서로를 놓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어요.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이고 언젠가 사라졌던 것들의 흔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테죠. 그러니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이질적인 우주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제 후배들이, 제 후배들이 도달하지 못한다면 후배의 후배들이 도달하기 위해 애쓸 거예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장소는 또 그런 존재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니깐요.

드넓은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생님, 케이크 한 조각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예상이 가세요? 피할 수 없던 무기력함 속에서 저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원인 불명의 이변이 정신을 뒤흔드는 것과 같이 닫힌 다락방 문을 열어젖히곤 우리를 근본을 이뤘던 과거를 하나씩 꺼내 보기 시작했어요. 시계가 고장나도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세상이 고장 났다고 해도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 바다 멀리 던져버릴 수는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E-92가 특별히 감지해야만 하는 신호를 입력할 생각이예요. 오류는 차치하고서라도,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E-92는 이 신호가 들리면 제게 그 사실을 알리겠

쥔. 선생님, 부디 제가 이름 없는 우주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드넓은 우주 속 찰나의 탄생과 끝을 목격한 이로서, 그 순리에 기꺼이 연결되기를 자처하는 자로서, 저는 기꺼이 이 신호를 보냅니다.

[· · · - - - · · ·]

A.M.2:00

경영대학
20222905 강하늘

"끼릭, 썩아아-----"

‘..오늘도다..’

A.M. 2:00 늘 같은 시간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려온다.

아침 7시에 언제부터 뜨고 있었는지도 모를 눈을 한번 더 깜빡인 후에 침대에서 벗어난다. 학교 근처 4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한지 1개월이 조금 지난 오늘 적막한 집 가운데를 가로질러 화장실로 향한다. 백색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거울에 비쳐진 나의 얼굴을 바라본다. 여전하고 어찌면 더 깊어진 다크써클, 피곤함이 가득한 두 눈이 보인다. 불쾌한 이 얼굴이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듯 나는 금방 시선을 거두고는 샤워기로 샤워를 한다. "썩아아-----" 적막한 공간 적막을 깨는 물소리 무의식적으로 찡그려지는 얼굴을 외면하며 샤워를 한다.

4층이지만 1층은 우체통과 입구여서 실제로 사람이 사는 건 2층, 3층, 4층 각각 101동부터 303동부터 있는 9개의 방을 가진 오피스텔이다. 대학교 1학년 반복되는 통학이 주는 스트레스에 2학년부터 시작하게 된 자취. 새로운 시작이 주는 기쁨과 설렘은 며칠만에 지속된 소음에 가라앉아버렸다. 내가 사는 곳은 202호. 오피스텔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전날 골라둔 옷과 정리해둔 짐,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선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나도 모르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뚜벅뚜벅’ “선배! 좋은 아침이에요!” 해맑은 목소리가 들린다. 곤두섰던 신경을 모른 채하며 인사를 한다

"안녕. 뭐야. 웬일로 일찍 나오냐. 맨날 지각한 던 애가."

"아~선배! 뭘 또 맨날 지각이에요~!"

"그래서 지각 안 했다고?"

".....자자 어서 학교나 가시죠!?"

"ㅋㅋㅋㅋㅋ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가냐?"

"아~오늘 친구들이랑 아침에 축구하기로 해서요."

"축구?"

"네."

"재밌겠네. 오늘 동아리 연습인 건 알지?"

이른 아침부터 학교를 같이 가고 있는 이 애는 같은 오피스텔 4층에 303호에 사는 대학교 후배이다.

동아리에서 처음 알게 된 신입생이며 같은 오피스텔에 산다는 것을 안지도 얼마되지는 않았다. 신입생 연습조의 담당이 마침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피스텔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동아리 연습이 끝나면 같이 걸어오다보니 친해졌다.

학교와의 거리는 약 15분 어느새 학교에 도착했고 나는 수업을 들으러 가고 후배는 축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강의실 문을 열면 역시나 불은 꺼져있다. 늘 처음으로 강의실에 도착하는 나는 빈강의실에서 나에게 허락된 침묵을 좋아한다.

조용하고 적막하다. 어쩌면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이 적막을 위해 1교시 수업을 신청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그럴것이다.

수업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 두명씩 학생들이 자리를 찾아 앉는다. 금세 사라진 정막이었다.

수업 시작 시간이 되고 교수님이 들어오신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어쩌면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한 학생들도 있겠군요. 최근..."

교수님의 수업 시작은 늘 5분에서 10분 정도로 수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신다.

오늘의 이야기는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층간소음 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오피스텔에서 들리는 소리로 의식이 넘어갔다.

A.M.2:00에 울리는 끼릭대는 쇠소리, 쏟아지는 물소리 반복되는 소리들 생각만으로 머리가 아파오는 듯 싶다.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303호 후배와 친해진 이후 새벽에 물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여러번 물어봤지만 후배의 대답은 언제나 '없다.'였다.

'후배의 집에서는 들리지 않는 위치인가..?' 어느새 10분정도가 지나고 PPT가 넘어가며 수업이 시작된다.

겨우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PPT에 시선을 둔다.

3시간 연강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있다. '밥 먹으러 가실??', '오늘 짜장면 ㄱ?', 'ㄴㄴ 나 해장해야됨', 'ㅋㅋㅋㅋㅋ ㅁㅈ 얼마나 마신거냐?'응~너보단 잘 마셔~'.....쥘여있는 연락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만나기로 한 곳으로 걸음을 옮긴다.

남들보다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약속장소에 도착했지만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 근처에 있겠다고 했는데..." 몇 번 둘러보다 보니 친구들의 말소리가 들린다. 그곳으로 발을 돌리면 역시나 친구들이 있다.

"야 나왔음"

"아오!! 깜짝이야! 야 넌 인기척 좀 내라."

"오~~용케 찾았네 말 안하고 와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알잖아 나 귀 예민한거 소리 들으면 대충 어딴는지 알수있음"

"오~~역시 밴드부 기타에이스~~"

"뭘래ㅋㅋㅋㅋ 빨리 가거나해"

학교 앞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와서 각자 음식을 시키고 앉아있다.

"아오~오전 수업 진짜 너무 피곤함 다음에는 무조건 점심 이후로 잡을거임"

"ㅋㅋㅋㅋㅋ 온라인 수업에 금 공강 성공해버렸지~~"

"아오..저 자식을 그냥.."

"야 ㅋㅋㅋ 1교시 수업인 애도 군말 없이 가는데 넌 좀 보고배워라"

"아니 진짜 재가 이상한거라니까 내가 제랑 같이 수강신청했는데 제는 첫번째로 선택한 게 1교시였다니까??"

"뭘야? 원해서 들은 거였어? 난 당연히 수강신청 망해서 듣는 줄"

"아니 집도 가깝고 나는 어차피 일찍 오니까 1교시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봐봐 제가 이상한거라고"

"ㅋㅋㅋㅋ 너희도 우리집에 살아봐 빨리 학교 오고 싶어진다"

"아~ 새벽 2시마다 들린다는 소리?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찾아가서 말하라니까?"

"내가 그걸 모르냐? 어느집인지를 몰라서 그래"

"아니 귀도 좋은데 왜 그런걸 모르냐ㅋㅋㅋ"

유달리 신경을 긁는 말이다.

"ㅋㅋㅋ 됐다. 그냥 밥이나 먹자~"

"안되겠네 담에 집에 불러라 딱 잡아준다"

"그래그래~~ 고맙다~ㅋㅋ"

귀가 민감한 나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애들이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밥을 먹고는 오후 수업을 들으러 간다. 옆에서 오가는 대화들에 적당히 대꾸하면서 강의실로 가서 강의를 듣고 나면 어느새 오후에 가까워지고 동아리 연습이 다가온다.

동아리 방에 가면 이미 연습 중인 사람들 몇몇과 과제하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뽍뽍뽍 찰칵.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면 들리는 대답을 들으며 연습준비를 하는데 같이 신입생 기타 연습을 담당하는 친구가 말을 건다.

"오늘은 좀 여유롭게 가르칠까~?"

"좋아. 어차피 하나하나 짚으면 많이 나가지도 못 하는데 상관없을듯"

"아니 너는 너무 일일이 짚어서 그래 완벽하게 맞는 음을 낼 때까지 치게 하니까 그렇지"

"내 귀에는 그래야 맞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ㅋㅋㅋ 하긴 너 귀가 예민하긴 하지 뭐 어차피 3명씩 따로 가르치는 거긴 하니까 알아서 해라~그래도 좀 봐주면서 하고~"

신입생 연습이 시작되면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

"잘못 눌렀어. 빈 곳이 아니라 플렛과 가깝게 누르고 더 부드럽게 쳐. 다시. 다시. 다시."

쳐야하는 음과 계속 미묘하게 다른 소리가 난다. "선배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달라. 잘 들어보고 다시 쳐"

"이억..."

그때 '뽍뽍뽍 찰칵' 303호 후배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는 지각한 주제에 목소리가 밝다?"

"아니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졸려서 잠깐 잤는데 지금 일어났잖아요ㅋㅋㅋ 자자! 못 한 만큼 열심히 치겠습니다"

"아오~ 말이나 못 하면 쳐봐"

"넵!"

'딩~딩~딩~'

"오~~오늘따라 잘 쳐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네? 왜요? 잘 쳤는데?"

"음이 달라. 다시."

"아니. 그건 선배가 귀가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아~~~ 진짜ㅏㅏㅏ"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 3명은 오늘도 원하는 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쳤다.

동아리가 끝나고 303호 후배랑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걷는다.

"선배는 진짜 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리를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물소리의 범인이 누군지 못 찾으시는 거예요?"

'나야말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진짜 나도 웬지 모르겠다."

"선배 제가 도와드릴까요?"

"응? 니가 어떻게 도와줄건데?"

"제가 오늘 선배네 집에서 있으면서 소리를 듣고 범인을 알아낼게요! 대신 오늘 저녁 좀 사주세요!"

"뭐? ㅋㅋㅋ 야 솔직히 말해 나한테 저녁 얻어 먹으려는거지"

"ㅋㅋㅋ 들켰나요?? 진짜 이번 한 번만요ㅋㅋ 대신 진짜 새벽 2시까지 버티고 꼭 범인찾는거 도와드릴게요!"

"아오~~진짜 이번만 사주는거야 "

'어이가 없다. 내가 모르는데 애가 알리가 없는데'

집에 문을 열고 짐을 내려놓는다.

"너 집에 가서 짐 두고 와라 치킨이면 되냐?"

"네!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

후배가 돌아오고 치킨을 먹은 후에 나는 침대에서 후배는 바닥에서 자기로 하고 적당히 누웠다.

"야 너는 안자고 기다릴거라며 자지마"

"ㅋㅋㅋㅋㅋ 알겠어요! 저 약속은 지킨다고요!"

또다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1시 58분 2분 후면 A.M.2:00이다. 웬지 모를 침묵에 조용히 있다 보니 "끼릭_쌩아_-"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온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듣고 있는 듯이 조용한 후배에게 소리가 끊겼을 즈음 말을 건다. "어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자 갑자기 후배가 나를 돌아본다. 무언가 이상한 듯한 표정 "네..?? 방금 들렸어요?"

"뭐? 뭔 소리야 지금까지 들렸잖아"

"아뇨.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요? 선배 잘 못 들으신거 아니에요? 저 진짜 조용히 있었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렇게 온방에 울린 물소리가 안 들렸다고?'

"뭔 소리야? 온 방에 소리가 들리도록 크게 끼릭하고 물소리가 들렸는데.."

"네?? 아니 그렇게 컸으면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하 됐다.. 넌 집중 안 했나 보지 그냥 자라"

"아니 진짜 안 들렸는데 선배. 그러지 말고 저 내일 다시 올게요.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내일은 벽에 녹음기대고 들어봐요. 녹음기에는 들리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차마 거절하기가 귀찮아서 허락해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303호 후배는 진짜 핸드폰을 벽에 붙이고 녹음했다.

다시 A.M.2:00 "끼릭 _쌩_-" 소음이 시작된다.

소음이 끝나고 후배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핸드폰 녹음을 돌려본다. 한참을 돌려보다가 나를 들려준다.

이상하다...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정말 나만 들리는 건가..?'

"선배. 제 생각인데 선배가 잘 못 들으시는거 아닐까요? 왜 그냥 스트레스로 환청? 비슷한게 들리는거죠."

'미친 소리다. 내가 매일매일들은 소리가 계속 맴돌던 소리가 환청이라고..?'

"야 이상한 소리하지만 그럼 내가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는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럼 너가 못 듣는 거겠지 난 귀가 예민하니까 잘 듣는거고 하~ 됐어. 너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어보게 하면 돼"

"이 정도면 다른 가람들도 못 들을 것 같지만 알겠어요. 그럼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볼게요. 늦었는데 얼른 자요"

"...그래"

‘.....’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

‘뭐지..? 아무리 내가 잘 듣는다지만 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저렇게 큰 소리가..? 정말 나만 들리는거라고?.....아냐. 내가 맞아. 난 귀가 좋으니까 내가 들은게 맞는거야. 내일. 내일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자. 한 명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거야. 엄청 큰 소리니까..’

그렇게 혼자 다짐을 하고 나는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오피스텔에서 나온 나에게 보이는 건 여전한 학교. 여전한 강의실. 여전한 침묵이다.

오늘도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저녁을 사준다는 말과 함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친구들은 쉽게 좋다고 하였고 나는 얼른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랐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 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저녁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왔다.

"오~여기가 너희 집이냐?"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자주 놀러올게ㅋㅋㅋ"

"그래라 ㅋㅋㅋ 야, 근데 너희 저번에 한 약속 기억하냐?"

"응?? 약속??"

"왜 우리 집에 새벽 2시만 되면 들린다는 소리 너희가 우리 집 오면 소리들고 범인 잡아준다며ㅋㅋㅋ"

"아ㅋㅋㅋ 뭐냐 아직 소리의 범인 못 찾았냐? 야 기다려 내가 오늘 딱 듣고 찾아준다."

"ㅋㅋㅋ 그래. 꼭 들어줘"

저녁을 먹으면서 여전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은 다시 새벽 1시 58분이 되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이야기한다.

"야 곧 들린다고? 기다려 진짜 야. 너랑 넌 저쪽 벽에서 들어봐 이쪽은 내가 들어볼게"

흠어져서 벽에 귀를 붙이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나는 가만히 침대에 앉아있었다.

‘가만히만 있어도 나에게는 크게 들리니까.

나한테 크니까 너희들한테도 들리겠지..’

정각 A.M.2:00 "끼릭...짜아..." 이제는 소름이 돋는 것 같다.

소리를 듣고 벽에 붙어있는 애들을 바라본다.

아무 말이 없다. '들렸겠지?' 여전히 큰 저 소리를 내는 소음을 못 들었을 리 없다. 이번에는 소리가 끊기기 전에 다급히 친구들에게 말을 건다. "어때? 시끄럽지..?"

벽에 귀를 댔던 친구들이 하나둘 귀를 땀다.

"야 너 뭐 들리냐?"

'쿵. 뭐라는 거지?'

"당연하지? 엄청 크게 들리잖아. 아니. 지금도 들리잖아. 이 물소리! 안 들려? 온방에서 울리고 있잖아!!"

아이들이 하나둘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 "아니 나 진짜로 집중해서 들었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들렸다니까?"

"나도 그냥 조용하기만 함."

"나도"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냐?"

'하'

".....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하다고! 다들 이게 안 들린다고 매일 반복되는 저 소리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너희가 못 듣는 거리고! 집중해서 좀 들어보라고!"

"야 모야 갑자기 왜 화를 내는데..."

"그러게 좀 진정해 아니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하하하...나는 매일 듣는 소리가 나 말고 아무도 안 들린다는데 이게 말이 돼..?"

'무언가 이상하다'

"야 됐다. 일단 늦었으니까 자자"

'이 이상 말해봤자 어차피 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나둘 잠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상한 느낌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나만...나만...나만..들린다고? 아니 아무 소리 안 들렸다고? 저번에 녹음은? 그럼 원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고...?'

아냐. 아냐. 아냐. 그럴 리 없어 내가 맞아 애들이 틀린 거야. 다 귀가 다보다 못하니까 내가 맞는 거라고...다른 사람이 틀린 거란 말이야'

생각이 깊어지는 밤이었다.

언제나 같은 아침, 친구들을 하나둘 깨우고 학교로 간다.

적막을 느끼다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동아리에서 후배들에게 정확한 음을 가르친다.

후배와 함께 집에 가는 길.

후배는 물어온다.

"선배 어째 새벽에 소란스럽던데 친구들은 소리가 들렸대요?"

"....아~ 그거 이제 해결됐어"

"네?! 소리를 들었대요? 범인도 찾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데 이제 해결됐어."

"네? 범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응 맞아 범인은 못 찾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됐어."

"아니 엄청 힘들어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응 이제 다 괜찮아."

"선배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만..일단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후배는 303호로 나는 202호로 들어간다. 신발을 벗고 짐을 풀고 가볍게 샤워를 한다.

여전한 다크서클과 피곤하지만 멍하지 않은 두 눈을 보며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새롭게 짐을 싣는다.

A.M.2:00 "끼릭__짜아__"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

나만이 들리는 소리.

내가 맞았다고 확신을 주는 소리.

'....봐 역시 내가 맞고 너희들이 틀린 거야..'

비평 부문

조커, 어째서 그럴까

국어국문학전공
20211072 이인준

새하얀 얼굴에 새빨간 입술, 초록색 머리카락에 예측할 수 없는 악행. 강렬한 첫인상과 함께 1940년부터 만화에 모습을 드러낸 조커는 60년에 달하는 세월을 거치며 영웅 배트맨(브루스 웨인)의 대표적인 숙적이자 광대 악당의 대명사가 되었다. 악행과 범죄로 대표되는 악당의 모습과, 기행과 익살로 웃음과 풍자를 주는 광대의 모습, 그리고 분장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모습까지. 세 가지 면모를 두루 갖춘 조커는 언뜻 보면 그저 배트맨과 싸우는 악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오랫동안 수많은 재해석을 거쳐 독자와 관객을 찾아온 조커는 그보다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배트맨이라는 ‘선’이 조커라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조커의 악행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 조커도 설마 부패한 사회의 희생자일까?

이 글에서는 그 질문에 각각 다른 세 가지 해석을 영화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989년에 팀 버튼이 감독한 「배트맨」, 2008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 나이트」, 마지막으로 토드 필립스의 2019년작 「조커」가 바로 그것이다. 제한된 러닝타임 속에서 극악무도한 악인인 조커가 어째서 악행을 저지르는지, 그 악행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맞서 영웅 배트맨과 관객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천천히 살펴보자.

「배트맨(1989)」: 위선의 가면을 벗기는 예술가

우리에게는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샤이닝」 등으로 유명한 배우 잭 니콜슨이 열연한 이 영화의 조커는 다른 두 영화와는 다르게 배트맨과 서로를 창조한 관계이다. 주인공 브루스 웨인이 어렸을 적 그의 부모를 살해한 마피아 ‘잭 네이피어’는 배트맨이 된 브루스 웨인과 싸우던 중 화학 약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다. 이후 무면허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아 목숨은 건졌으나 피부가 하얗게 변색되고 입이 웃는 모양으로 고정된 미치광이 ‘조커’가 된다. 조커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배트맨을 죽이기 위해 범죄를 기획한다.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미친 듯이 웃다가 죽게 만드는 독극물을 화장품에 섞어 모델과 기사를 살해하며 “세상에는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고급 예술품이 진열된 식당에 난입해 예술품들에 테러를 일삼는 등 기괴한 범행을 저지르며,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2,000만 달러의 현금을 뿌리겠다고 말한 뒤 그에 이끌린 시민들을 독가스로 학살하기까지 한다. 어떤 화장품에 조커의 독이 섞였는지 몰라 기자들은 맨 얼굴에 초췌한 몰골로 방송을 하고, 예술품을 망가트리던 조커는 프랜시스 베이컨(1909~1992, 영국의 화가.)의 기괴한 그림은 맘에 든다면서 남겨 둔다. 여주인공인 종군기자 비키 베일이 찍은 사진들을 훑어보면서 전쟁의 참상을 찍은 사진들만을 칭찬하기도 한다. 조커는 그런 자신을 ‘살인예술가’라고 칭한다. 일견 배트맨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광기를 표출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커의 악행들은 어딘가 배트맨과 고담(Gotham) 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딜레마를 닮았다.

영화의 무대인 고담 시는 뉴욕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각종 범죄자가 활개를 치는 마경이다. 이런 도시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영웅 배트맨은 박쥐 모양 슈트를 입고 무자비하게 범죄자를 처단하는 무법자이다. 작중 배트맨은 시민들에게 조커 같은 미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조커는, 범죄를 소탕하려는 고담 시와 배트맨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당당하게 악행을 저지른다. 화장품에 독을 타고, 가면 쓴 영웅 배트맨을 조롱하며, 퍼레이드를 열며 맨 얼굴로 돈을 뿌리는 조커는 세상이 가진 가식의 딜레마를 비웃는다.

우리는 화장을 왜 할까? 왜 맨얼굴이 아닌 ‘가짜 얼굴’로 삶을 살아갈까? 화장은 다른 사람 앞에서 깔끔하게, 혹은 못생겨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조커가 화장품에 독을 섞음으로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 껌죄죄한 맨 얼굴로 카메라 앞에 나선 아나운서는 범죄의 온상인 고담 시의 본 모습을 상징하는 셈이다. 배트맨 역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모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는 청년 갑부 브루스 웨인을 대중 앞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신비주의자로 만들었고, 그는 가면 쓴 무법자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만 대중 앞에 당당하게 나선다. 조커는 그런 배트맨을 끝까지 조롱하며 격투 끝에 죽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마치 죽어도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듯이.

분명 「배트맨」의 조커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샤이닝」에서 유령에 홀려 미쳐 가는 작가 잭 토렌스를 연기한 잭 니콜슨은 냉혹한 마피아 잭 네이피어와 유쾌한 악당 조커를 훌륭하게 연기했고, 그가 주는 메시지 역시 분명하고 충분히 생각할만하다. 허나 「배트맨」의 조커가 갖는 단점이라면 역시 잭 네이피어와 조커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커가 되기 전의 잭 네이피어는 작중 예술이나 사회의 위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다. 별다른 복선도 없기에 관객으로서는 마피아가 갑자기 행위예술가가 되어 버리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할 수도 있다. 「다크 나이트」와 「조커」에 비하면 결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크 나이트(2008)」: 세상을 혼돈에 빠트리는 사상가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한 「다크 나이트」에서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유일하게 과거를 알 수 없는 조커이다. 「배트맨」의 잭 네이피어와 「조커」의 아서 플렉의 존재는 조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조커가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지만 「다크 나이트」의 조커는 그렇지 않다. 작중 두 번 털어놓는 과거는 각각 다른 이야기라서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다. 저지르는 악행도 단순히 범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다크 나이트」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재해석한 조커가 예술가(「배트맨」)나 약자(「조커」)가 아닌 혼돈의 화신과 사상가로서의 모습을 지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커는 어떠한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첫 장면부터 은행을 터는 강도들을 이간질해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마피아들을 건드렸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연필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마피아 단원의 눈에 연필을 박아 살해한다. 그럼에도 자신을 미쳤다고 소아불이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등, 영화 초반부터 종잡을 수 없는 언행으로 스크린을 사로잡는다. 전작인 「배트맨 비긴즈(2005)」 이후 생겨난 배트맨을 따라하는 자경단

중 한 명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과정을 담은 비디오에서 조커는 “배트맨 때문에 고담이 미쳐 돌아간다. 고담에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원한다면 배트맨은 자수하라.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하루에 한 명씩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이어서 판사와 경찰청장을 연이어 살해하고 지방검사 하비 덴트까지 죽이려 하는데, 하비가 몸을 숨긴 사이 나타난 배트맨에게 저지당한다. 이후 시장 암살을 기획하지만 이것도 배트맨 때문에 실패한 조커는 다시 하비에게로 초점을 옮긴다. 하비가 자신이 배트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허나 이는 하비와 배트맨이 짝 함정이었고, 결국 체포되지만 조커는 새로운 계획을 꾸며 둔 뒤였다. 바로 하비 덴트와 그의 연인이자 배트맨의 전 연인이던 레이첼 도스를 부패한 경찰을 시켜 각각 다른 장소에 감금하고 폭탄을 설치한 것이었다. 조커를 심문하는 배트맨에게 조커는 자신의 계획을 알려 주고, 배트맨은 경찰에게 하비를 구하라고 한 뒤 레이첼에게 향한다. 하지만 조커는 일부러 레이첼과 하비가 갇힌 장소를 반대로 알려 주었고, 결국 레이첼은 죽고 하비는 얼굴 반쪽이 불에 타 흉측하게 일그러진다.

그런데 이 뒤부터 조커의 언행은 큰 변화를 보인다. 부패 경찰과 마피아 조직 한두 개를 선평하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다가 돌연 다른 마피아 세력을 공격적으로 합병하고, 배트맨의 정체를 폭로하려는 사람을 막으며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병원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할 정도로 배트맨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막는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하비 덴트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파해 빌런 ‘투 페이스’로 만들기까지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조커의 마지막 계획으로 이어진다. 두 개의 배에 한 쪽은 범죄자, 한 쪽은 시민을 태우고 자정이 될 때까지 상대가 탄 배를 폭파시키지 않으면 둘 다 폭파시키겠다는 일종의 ‘사회 실험’을 행한 것이다. 허나 자정이 되어도 두 배 모두 상대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 배트맨은 빈틈을 노려 조커를 제압하지만 조커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터뜨린다.

앞서 말했듯이 「다크 나이트」의 조커는 기원이 불분명한 악역이다. 배트맨이나 고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절대 밝혀지지 않고 시장을 암살할 때를 제외하면 얼굴의 분장 역시 절대 지우지 않는다. 이는 관객에게 조커가 인간이 아닌 악의 화신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배트맨」이나 「조커」의 조커와는 대조되는 차이가 온다. 「배트맨」의 조커는 마피아인 잭 네이퍼였으니 마피아의 면모를 보인다. 「조커」의 조커는 아서 플렉의 광기와 울분이 폭발하며 탄생한 존재이다. 허나 「다크 나이트」의 조커는 정체를 알 수 없고, 때문에 영화 내내 자신의 관념과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커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혼돈’이다. ‘광기’는 조커의 언행에서 보이는 면모이자 주변에 비춰지는 모습일 뿐, 조커 본인은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부정한다. 배트맨의 분노를 자극해 어떻게든 그가 지키려 하는 불사의 법칙을 깨려고 하고, 마침내 배트맨이 자신을 건물에서 떨어트리자 웃고 배트맨이 다시 붙잡자 웃음을 멈춘다. “우린 영원히 싸울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조커의 혼돈을 추종하는 사상은 하비 덴트를 파멸로 이끄는 과정에서 더욱 잘 보인다. 애인도, 얼굴 반쪽도 잃은 하비의 앞에 나타난 조커는 “나는 계획을 짜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계획을 뒤엎기만 할 뿐이고, 죄는 계획을 짜고 다니는 마피아와 경찰에게 있다. 정해진 질서를 뒤엎으면 모든 것이 혼돈에 잠긴다. 그리고 혼돈은 공평하다.”며 거짓말과 자신의 사상을 섞어 하비를 꼬드긴다. 하비는 평소 앞뒤가 같은 동전으로 지방검사라는 정의로운 자리에 걸맞지 않은, 무자비하게 상대를 처단하고 싶어 하는 이중성을 통제했으나, 이젠 한 면이 불타서

앞면이 아닌 면이 생기게 된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 조커는 총을 자신의 머리에 들이대고 하비에게 방아쇠를 넘긴다. 하비는 동전의 멀쩡한 면이 나오면 조커를 살릴 것이고, 망가진 면이 나오면 조커를 죽이겠다고 한 뒤 동전을 던진다. 그리고 조커는 살아남는다. 점점 파국으로 치달는 상황 앞에서 하비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가치인 운의 공평함마저 레이첼의 원수를 갚지 못 하게 하자, 하비 덴트는 동전을 던져 상대의 생존 여부를 정하는 빌런 투 페이스가 된다. 조커를 죽였더라면 하비는 영웅일지언정 살인자가 되고, 조커를 살리면 자신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갚지 못 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비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딜레마 앞에서 하비는 혼돈의 공정성만을 광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다크 나이트」의 조커는 이렇게 질서를 뒤엎으며 세상을 혼돈에 빠져들게 하려는 ‘인물’보다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조커는 사람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악하며, 질서와 도덕은 살짝 무너트리기만 하면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허나 조커의 이러한 가치관은 조커와 배트맨의 최후의 대결에서 부정된다.

두 개의 배가 있다. 한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고 다른 배에는 시민들이 타고 있다. 그리고 두 배에는 서로의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결과는 두 배 모두 무사했다. 조커가 죽음의 위협을 가하면서 살고 싶다면 상대를 죽이라고 협박을 하는 와중에도 이미 법을 어긴 범죄자도, 아무 죄 없는 시민들도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 조커는 거기만 있으면 인간은 악을 저지르고 혼돈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들 중 아무도 하지 않겠다면 자신이 스위치를 누르겠다고 나선 사람은 끝내 스위치를 누르지 못 하며, 범죄자들 중 한 명은 아예 “내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겠다”며 간수가 들고 있던 스위치를 내던져 버린다. 수세에 몰린 인간이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안 조커는 분개하며 두 배를 전부 폭파하려 한다. 자신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즉 사회에는 아직 선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몸소 보여준 것이다. 계획의 불안정성을 어필하던 조커는 자신의 말마따나 계획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자 결국 패배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한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은 이렇게 인간의 선과 악의 충돌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행동으로 조커의 가치관이 틀렸음을, 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허나 전술했듯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면모 덕에 독특한 매력과 함께 한 가지 흠을 남기기도 했다. ‘인물’보다는 ‘장치’로서 보이기 때문에 조커라는 캐릭터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조커라는 인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점을 통해 배트맨이 상대하는 조커가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라는, 공포 영화의 괴물처럼 보이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어째 슈퍼히어로 영화의 빌런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영화 「조커」는 어떨까? 「다크 나이트」와는 정반대로 조커 분장 속의 인간을 그린 「조커」는 어떤 메시지와 질문을 던질까?

「조커(2019)」: 사회의 부조리에 희생된 약자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는 앞의 두 조커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영화가 부른 논란 섞인 비평처럼 이질적이고 기묘한 조커다. 배트맨은 슈퍼히어로가 아닌 소년 ‘브루스 웨인’으로서만 잠깐 등장하고 영화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른 두 영화와는 다르게 조커가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스토리를 이끈다. 관객들은 대체 왜 가난하고 병을 앓고 있는 아서 플렉이

악당 조커가 되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영화의 주인공 아서 플렉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찢어지게 가난한 하층민이고 자신의 기분에 상관없이 웃음이 터지는 병을 앓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코미디언이지만 어머니 페니 플렉도 인정할 만큼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딱히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광고판을 빼앗아 달아나는 불량배들을 붙잡을 수조차 없는 약자이다. 주변의 끊임없는 멸시 속에서 아서는 점점 미쳐간다. 토크쇼까지 방영할 정도로 유명한 코미디언 프랭클린 머레이는 아서가 병적으로 터지는 웃음 때문에 망쳐 버린 공연 영상을 송출해 아서를 조롱한다. 유일하게 아서에게 애정을 주었던 이웃집 여자 소피는 사실 괴로움에 찬 아서의 망상이었다. 어머니 페니 플렉은 과거에 학대당하던 아서를 방관했고 아들의 꿈을 짓밟는다. 아서가 광대 일을 하던 극단의 사장은 아서가 불량배에게 빼앗긴 광고판을 훔쳐 갔다고 오해하고, 아동 병원에서 공연을 하던 중 우연히 떨어진 총을 빌미삼아 아서를 해고해 버린다. 아서에게 호신용으로 쓰라고 권총을 준 친구 랜들은 아서가 아동 병원에서 총을 떨어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준 총이 아니라며 발뺌한다. 그러던 중 지하철에서 아서에게 시비를 걸던 불량배 세 명을 우발적으로 총으로 쏜 아서는 광기에 휩싸인다. 총을 쏜 직후에는 패닉에 빠져 도망쳤지만 혼자가 되자 무아지경에 빠져 총을 쏠 정도의 해방감을 느낀 것이다.

아서가 죽인 불량배는 토마스 웨인이 경영하는 금융 회사의 직원이었고, 토마스 웨인은 아서를 “익명 뒤에서 비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광대”라고 비하한다. 허나 그간 고담의 부패에 분노한 하층민들은 아서의 범죄에 공감하며 시위를 일으킨다. 아서는 페니가 아서의 아버지라고 한 토마스 웨인을 추적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아낸다. 바로 토마스 웨인이 아서 플렉의 아버지라는 페니의 말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망상이었고, 아서가 정신질환을 얻게 된 계기가 학대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를 방관한 자가 페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인 아서는 페니를 살해한다.

이윽고 머레이의 토크쇼에 초대받은 아서는 자신을 ‘조커’라고 불러 달라고 한 뒤 그간 겪었던 일의 심경을 밝힌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죽은 이들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며, 만약 토마스 웨인의 직원이 아닌 자신이 죽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는 아서. 머레이는 그럼에도 아서는 미친 범죄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아서는 그런 머레이마저 못된 사람이라 칭한다. 상술했듯 머레이는 아서가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을 틀어 조롱했으면서, 범죄를 저지른 아서를 처단하려는 영웅 행세를 하려 했기 때문이다. 아서는 마침내 “병을 앓는 외톨이를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바로 죽어도 썩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라며 머레이를 총으로 쏜다. 폭동이 일어난 고담의 한가운데에서 아서는 완전히 광기에 빠져, 자신의 범행이 일으킨 나비효과가 도시를 불태우는 것을 보며 아름답다고 중얼거린다. 그렇게 조커가 된 아서는 폭동을 일으킨 하층민들의 우상이 되어 해방감을 만끽한다.

난해하고 복잡한, 그리고 불쾌한 2시간 속에서 관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껏 영화 속에서 악인으로만 그려지던 조커의 과거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대체 조커의 언행에 동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조커가 갖는 큰 특징은 바로 악인이라는 데에서 왔다. 조커는 과거에 잔악무도한 악인이었거나(「배트맨」) 혹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

었는지 거짓말만을 늘어놓았다(「다크 나이트」). 그래서 관객들은 조커의 처지에 공감할 이유가 없었다. 조커의 메시지가 생각해 볼 만 하다고 한들 배트맨의 신념에 따라 조커가 파멸하는 것을 보고,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커」는 힘없고 착한 아서 플렉이 어쩌서 조커가 되었는지 긴 시간 동안 관객에게 알려 준다. 때문에 관객은 그간 베일에 싸여 있었거나 혹은 공감할 이유가 없었던 조커라는 ‘인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때문에 아서 플렉의 처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감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악과 고담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맡는 악당 조커에 대적하는 영웅 배트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우리가 아서 플렉에게 공감하게 만든다. 분명 인간에게는 악한 면이 있고 고담은 부조리와 범죄로 가득한 도시이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 인간의 선한 면을 설파하며 악을 소탕하는 영웅 배트맨이 있기에 관객은 조커가 아닌 배트맨에게 몰입하게 된다. 물론 「배트맨」과 「다크 나이트」가 배트맨을 다루는 영화이니 주인공인 배트맨에 몰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조커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목격된 질문과 메시지를 던져 왔다. 관객들에게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찌르고 고발하고, 배트맨에게는 범죄로서 시련을 선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객은 조커가 가져오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도 선을 위해 싸우는 배트맨을 따라간다. 하지만 명확한 ‘선역’이 없는 「조커」에서 관객은 배트맨이 아닌 조커에게 몰입하게 된다. 아니, 정확히는 아서 플렉에게 몰입하게 된다. 아서가 겪는 부당한 난관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는 동시에 아서를 동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서가 분노와 절망 끝에 조커로 각성하는 순간, 관객은 그간 사회의 부조리에 괴로워하던 관객들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조커의 분노에 공감한다. 조커의 악행은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자의 광기가 아니라, ‘나라도 저렇게 했을 거야’라는 합당한 분노가 된다. 이처럼 관객을 붙잡아 둘 선(善)의 존재가 없다는 것은 「조커」에 대한 엇갈린 비평에 일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조커」가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평가는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 쪽은 사회가 악을 만드는 과정과 배우들의 연기를 극찬했고, 반대쪽은 이 영화의 ‘위험성’과 정당화된 악을 비판했다. 양 쪽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다. 범죄는 나쁜 행위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울분에 차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는 무슨 잣대를 들이대야 할까? 뉴스에서 범죄자의 불우한 과거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법은 법이라며 처벌을 원하기도 하지만 범죄자의 처지를 동정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 불우한 과거가 사회적인 결함이나 주변 인물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을 때, 우리는 범죄자의 악행을 무조건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외부적인 요인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허나 그렇다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악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 만들어진 악으로 인한 범죄로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항상 순결하고 무고한 사람인 것도 아니다. 피해자도 사람이고, 그런 만큼 선악이 뒤섞인 존재이다. 심지어는 페니 플렉이나 프랭클린 머레이처럼 피해자가 범죄의 동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 가해자에게는 범죄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끝없는 논박 속에서 관객은 조커가 된 아서 플렉을 옹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엇갈리는 해석 속에서 조커는 관객에게 지금까지의 악당 조커와는 다른 존재로 다가온다. 누군가는 「조커」는 악에 대한 미화이자 선량한 약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서의 타락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벌어진 만큼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조커는 썩어빠진 사회에 광

기로서 반항하는 황홀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엇갈린 평가를 받았을지언정 「조커」는 우리에게 과연 악자의 분노가 범죄로서 폭발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하는 커다란 질문을 남기고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변외 - 「수어사이드 스쿼드(2016)」: 오만한 갱스터이자 로맨티스트

우리에게는 사실 또 다른 스크린의 조커가 있다. 허나 이 조커는 다른 세 조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 했다. 캐릭터가 주목을 받으려면 캐릭터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영화의 흥행과 평가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커는 실패했다. 영화의 평가도 좋지 않고 대다수는 할리 쿤 역의 주연 배우인 마고 로비만을 기억한다. 실제로 마고 로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리 쿤을 담당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조커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 조커 역시 마냥 평가절하 할 만 하지는 않다. 자레드 레토는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명배우이고 그의 연기력 역시 뛰어나다. 문제는 적은 비중, 그로 인한 캐릭터의 어필 실패, 그리고 캐릭터 해석의 실패이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조커는 등장 분량이 너무 적다. 아무리 연기력이 좋다고 한들 스토리에서 빠져도 되는 캐릭터라면 굳더더기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오만한 갱스터나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면모보다는 할리 쿤을 향한 사랑이 더욱 강조되면서, 관객은 조커의 광기에서 오는 강렬함과 배트맨을 향한 집착이 아닌, 사랑에 미친 조커를 보게 되었다. 아마 다른 영화나 다른 캐릭터였다면 호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은 조커라는 캐릭터를 잘못 활용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혹평을 받았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조커 역시 독특한 각색이고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이다. 허나 흥미로운 것과 관객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관객들은 굳이 조커가 섹시한 순정남 캐릭터를 맡았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버렸다. 하다 못 해 배트맨을 타도하기 위해 사랑을 이용하거나, 간혹 돌변해 할리 쿤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면 조커로서 더욱 납득할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째서 조커는 생명력을 잃지 않는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영화를 제외하고도 조커는 수많은 각색을 거치며 만화와 영화, 애니메이션을 오간다. 단순히 배트맨의 대척점으로서가 아니라, 조커 자신만의 개성을 구축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왔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조커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오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확실한 개성에 있다. 조커는 악과 광기의 화신이자 광대이다. 악행을 벌이면서도 웃음과 익살을 잃지 않고, 진중한 이야기 속에서는 블랙 코미디로, 가벼운 이야기 속에서는 슬랩스틱 개그로 웃음과 생각할 거리를 준다. 그러는 한편 소름 끼치는 미소와 함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독자를 경악하게 한다. 조커를 보는 독자와 관객은 다음에 그가 무슨 짓을 할까, 배트맨은 그에 맞서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해하며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 영웅의 이야기에서는 영웅만이 스토리를 이끌지 않는다. 악당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투를 벌이는 영웅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악당이 개성이 넘친다면? 어둡고 진중한 영웅과 대립하는 유쾌한 악당이라는 기묘한 구도는 조커를 끊임없이 써먹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설정의 느슨함에 있다. 영화화된 조커 중에서는 「다크 나이트」의 조커가 가장 근접해 있는데, 조커는 원작 코믹스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당이다. 1988년에 출간된 코믹스 「킬링 조크」에서 조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기억이 가끔은 이랬다가 가끔은 저랬다가 하니, 과거는 다지선다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애초에 미친 사람인 조커는 절대 과거와 기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수많은 각색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세 영화에서 조커가 마피아이기도 하고, 소시민이기도 하고, 순수한 혼돈의 화신이기도 한 것이 그 이유이다. 조커는 조커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든, 현재에는 광기에 찬 악당 조커가 있다. 이렇게 느슨하고 자유로운 설정은 수많은 작가들이 조커를 마음대로 각색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사상가가 되고, 약자가 된다. 성공과 실패와는 별개로 앞으로도 수많은 조커가 나타날 것이고, 모두가 제각기 다른 개성을 뽐낼 기회를 얻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광대의 상징성이 있다. 광대는 예로부터 단순히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깊은 고뇌와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존재이기도 했다. 항상 웃긴 언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는 광대의 고뇌는 리쌍의 노래 「광대」의 “내 이름은 광대. 내 직업은 수많은 관객, 그 앞에 웃음을 파는 일. 슬퍼도 웃으며 내 모습을 감추는 게 철칙.”이라는 가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광대 중 궁정 광대(Jester)는 모든 사람에 대한 풍자를 허가받는 특권을 통해, 자칫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치부를 익살로서 드러내고 놀림으로서 권력자들이 항상 스스로를 살피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광대의 두 가지 상징성은 이로부터 기원한 조커에게 더욱 깊이를 더한다. 익살과 비꼬기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가끔은 사악한 광대의 얼굴 뒤의 인간을 드러내기도 함으로서 조커는 지극히 입체적인 캐릭터의 면모를 드러낸다.

무한한 가능성과 확실한 개성과 상징성. 조커는 탐구하면 할수록 매력에 매력을 더하는 캐릭터이다. 2022년에 개봉한 매트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의 후속작에서는 「딩케르크(2017)」, 「킬링 디어(2017)」, 「이터널스(2021)」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 준 배리 키오건이 조커를 맡는다. 토드 필립스 역시 「조커」의 후속작을 준비 중이다. 또다시 스크린에 나타날 조커는 어떤 모습을 보여 줄까? 이번에는 어떤 악행과 메시지를 준비하고 우리를 맞이할까? 영화를 보고 싶어지면서 동시에 영화를 보기 두렵게 만드는 조커의 또 다른 변신이 기대된다.

고전소설 「박씨전」으로 본 여성영웅 소설의 대두와 여권 신장 연구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2 강재혁

1. 서론

고전소설(혹은 고소설)의 갈래에는 귀신, 꿈, 저승, 용궁 등 환상적 소재가 등장하는 전기소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박씨전]은 여타 전기소설과 다른 ‘팩션(Faction)’소설로 볼 수 있다. 한글 필사본으로만 30여 종 이상 저술되었고, 여러 종류의 이칭(박씨부인전, 명월부인전)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한글소설의 주 독자층인 당대 여인층에게 대리만족을 주며 인기를 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 기존에 박씨전을 연구했던 선배 학자분들은, 대부분 작품 속 ‘여성 인물의 비범함’에 주안점을 두어 이 소설이 진보적인 여성상을 선명한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분석해왔다.²⁾ 물론 여성인물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지만,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박씨부인을 포함해 계화, 왕비 등 중심인물이 여성 객체인데 무슨 판소리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알다시피 고소설 속 영웅의 스테레오타입은 전장에 나가서 적장의 목을 베는 등 전공을 세우는 것으로, 피화당에 머물러서 도술과 지략만 부리는데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극중 미메시스(mimesis)한 남성인물들은 실제로도 무능한 인물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역사주의 방법론과 사회·윤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며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2.1 문제 제기

[박씨전]을 관통하는 갈등은, 크게 두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박씨와 이시백 및 시가족의 갈등이 첫 번째고, 2)조선과 호국(청나라)의 대립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 갈등은 조선의 지배이념으로 반포된 유교주의(성리학)에 비롯된 가부장적 지배 문화(남성 이데올로기)와 여권 신장 및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찬성하는 여성주의의 충돌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유교주의에서 비롯된 모순적인 ‘남존여비’ 사상으로 남편과 시가족에게 종속되어 살아왔고, 현대사회에서 불리는 시월드는 이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작품 속 여성인물은 가부장제로 부여된 여성의 역할(가사 등)을 수행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박씨, 계화), 지배층 남성에게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한다는 점(호국 왕비, 기룡대), 마침내 여성들이 남성대신 국난을 극복했다고 표현하며 지배층 남성(왕, 남편, 김자점)의 무능을 비판하였다.³⁾ 이는 [박씨전]이 단순히 ‘무능한 남성과 능력있는 여성’의 프레임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여성의식의 신장을, 나아가 여성의 우위성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⁴⁾ 하지만, 여성

1) ‘박씨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수정, 2021년 11월 7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0897>

2) 정미영, 「박씨전 연구: 성 정체성 모색을 위한 교육 방법론」, 전북대학교, 2003, 14-30쪽

3) 정진숙,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사회적·이념적 의미 연구 : <박씨전>, <홍계월전>,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1, 14-30쪽

인물의 비범함이 왜 전장이 아닌 오직 ‘피화당’에서만 발휘되는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외모지상주의’를 더해서 연구하고 싶다. 박씨가 ‘허물’을 벗기 전후로, 이시백을 필두로 하여 시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녀의 능력이 주목받은 것도 역시 허물을 벗고 ‘변신(탈피)’했음이 아닐까? 만약 허물을 벗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기인이라도 능력을 알아봐주는 이 하나 없을 수도 있었다.

두 번째 갈등은 작품 속 ‘병자호란’의 교전국 청(작에서는 호)에게 임금 인조가 굴욕을 당하며, 가히 조선 최초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씨전]에서는 비록 포로로 세자 등이 잡혀가나, 박씨와 계화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를 두고 흔히들 ‘정신승리’했다고 알고 있다. 전쟁에서 패배 후 피폐하고 파탄났던 현실을 잊고, 패자의 설움을 위무하고자 작품에서만은 현실의 반대로 조선의 승리로 설정했다고 볼 수는 있다. 허나, 필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극중에서는 전쟁을 치욕의 역사로 의식하여 자세히 다루진 않았다. 그러면, 이는 픽션이 아닌 역사를 왜곡한 픽션 아닌가? 실제 역사에서는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추후 효종으로 즉위)가 청으로 팔려간다. 과연, 피화당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면,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갔는데 이를 승리로 볼 수 있을까?

3. 주제론

3.1 역사주의 방법론

[박씨전]은 실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도, 허구인물인 ‘박씨’를 주인공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자와 원본을 찾을 수 없어서 문학사 위주로 연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1.1 가부장적 지배 문화 그리고 여성 이데올로기

여성 영웅 소설이란, 남성이 아닌 여성이 사건 전개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 처지나 행위에 있어서 영웅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영웅 소설의 유형을 갖추고 있는 작품들을 말한다.⁵⁾ 흔히 문학이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때, 여성 영웅 소설도 조선시대 남존여비 문화에서 필요불가결한 여성영웅을 설정하여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은 작품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씨전]을 <이대봉전>, <정수정전>, <홍계월전>과 같은 19세기에 출판된 여성영웅소설과 비교했을 때, 장르(소재)의 유사성을 제외하고도 독자의 재미에 치중한 후기 소설보다, 여성 인물이 주동인물(박씨, 계화)과 반동인물(호국 왕비, 기룡대)로 대결 서사를 이끈다는 점에서 당대 남성의 역할을 여성으로 치환시키며 여권의 주체성과 우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작품 속의 가부장 제도와 여성우월주의의 충돌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를 이해하기 편하게 조선시대 유교 이데올로기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이야기 하고싶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유교

4) 강민, 「박씨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30-32쪽

5) 안순희,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 <박씨전>, <옥주호연>,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06. 6-8쪽

는 큰 범주의 사상이고, 조선의 통치이념은 ‘성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리학**(주자학, 송학)은 유교의 한 분파로, ‘이’와 ‘기’에 초점을 맞춰 현상과 본질에 집중한 송나라의 학문이다. 성리학은 고려 후기 안향으로부터 수입되어, 이색과 정몽주를 거쳐 정도전을 필두로 한 신진 사대부 세력이 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삼았다. 조선 초기에는 ‘성리학’을 물리적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성종 재위 당시 두문불출하여 명맥을 이어가던 사림파가 정국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중후반기에는 ‘성리학’이 조선의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했다. ‘남존여비’, ‘노비제’, ‘장자상속’과 같이 널리 알려진 유교문화의 악습이 이 시기에 생겨났고, 일제강점기를 넘어선 현재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씨전]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크게 조선의 ‘박씨, 계화’, 호(청)의 ‘호국 왕비, 기룡대’로 분류할 수 있다. 박씨와 계화는 기인(奇人)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통해 적을 물리치고 집안과 나라를 편하게 하는 인물이다. 호국 왕비와 기룡대 또한 적국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계책을 내놓는 책사(모사)역할을 하며 반동인물로 충실하게 기능했다. 이에 반해, 실존인물인 ‘이시백, 김자점, 조선 왕(인조)’은 여성을 외모로 판단하며, 부패하고, 호국에 굴복하는 무능한 인물로 그려내어, 작자가 전란 패배의 책임을 가진 당대 지배층 남성에게 대한 깊은 반발심이 있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물을 통해 이를 해소하여, 여권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도술이나 전법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통해 적을 물리치는 묘사는, 작품에서 ‘여존남비’를 완벽히 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로 판단할 수 있다. 고소설 속 영웅의 스테레오타입에서는 무예를 갈고닦은 장수가 시행착오 끝에 전장에 나가서 전공을 세운다. 프랑스의 성녀 ‘잔 다르크’의 업적과 비교했을 때, 전쟁에서 자국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 잔 다르크에 평가가 기울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성 역할의 탈바꿈을 원했다면, 남성의 의무였던 군역을 지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피화당’이라는 장소 역시 여성인물의 능력을 한정시키는 장치로 기능했다. ‘피화당’은 박씨가 자신의 외모에 실망하여 등한시하자 시아버지 이덕춘에게 부탁하여 만든 장소이다. 작품속에서 박씨가 기룡대나 용골대 형제 등의 적들을 물리치는, 그녀의 능력이 드러나는 유일한 장소로 설정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비범함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괴이하고 요망한 것으로 여겨 시댁 식구들로부터 칩거당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⁶⁾ 고소설 속에서 영웅은 대개 환영받지 못했고, 고난과 시련을 받는 존재였다. ‘홍길동’, ‘전우치’, ‘아기장수 우투리’ 등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한 영웅들은 의로운 행위를 했어도 요술을 부리는 것에 대해 왕실의 견제 대상이었다. 박씨도 시가의 대외적인 평을 위해 숨겨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작자는 전장을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프레임**을 짜맞추고, 이를 억제하는 동시에 여성주체의 능력 발휘에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피화당을 장치로 설정했다. 즉, 작가는 여성인물을 통해 주체성을 높이고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성리학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구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3.1.2 박씨전은 픽션인가? 팩션인가?

6) 이유진, 「박씨전 교육 내용 연구 - 여성인식과 역사인식의 비중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6-24쪽

[박씨전]은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조선인들이 청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였을 때, 시의적절하게 등장해 민중들의 설움을 위무해주며 반청의식을 강화한 ‘대체역사물’ 작품이다. 작품의 주요 사건인 ‘병자호란’은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재위당시 후금(청)과 형성했던 밀약 관계가 깨지고, 공물 문제를 트집잡은 청 황제 홍타이지(송덕제)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인조는 황제 앞에서 삼배구궐두를 하는 치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을 겪는다. 추가로, 작품에 서술되진 않지만 병자호란의 폐해로 ‘환향녀(還鄕女)’가 있다. 포로로 잡혀간 여인들 중 사대부 집안 사람들은 돈을 주고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정절을 잃었는데 뽀뽀하게 살아있다는 취급을 받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겨우 환송한 여성들이 아닌, 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전쟁에서 참패한 임금과 지배층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맞다.

작품 속에서는 역사와 정반대로 조선의 승리로 그려지지만, 소설임을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첨가되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먼저, 작품에서 짙막하게 다루고 있는 청으로 이송되는 포로에는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봉림대군(추후 효종)’, 그리고 왕실사람 등이 끌려갔다. 볼모란, 중앙국가가 지방 제후국가를 협박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함은, 조선이 청에게 패배하였고 군신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작품 내에서 청국이 볼모로 이송하는 이들을 못내 아쉽게 표현하다가 의주에서 임경업을 등장시켜 회군하는 청을 공격하여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박씨전에 짧지만 강렬했던 인물인 임경업 장군에 주목하고 싶다. 그는 [임경업전(혹은 임장군전)]의 주인공으로, 작품에서 유사하게 권신들의 농간으로 병자호란이 끝난 뒤 역모죄로 처벌받던 중 사망한다. 임경업은 장군으로서 병자호란 당시 결사항전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록이나 역사서에 그가 병자호란 당시 전공을 세웠다는 기록을 찾기는 어려웠다. 역사서에 기록된 임경업은, ‘이괄의 난’ 당시 진압에 큰 공을 세웠다는 업적만 존재했다. [박씨전]에 등장하는 두 실존인물인 ‘김자점’과 ‘이시백’ 역시 현실과 다르게 서술됐다. 특히, 대표적인 역적이자만약의 근원으로 서술되는 영의정 김자점은, 그의 말로는 친청파 권신으로 활동하다가 귀양을 명받자 청으로 가서 역적 모의를 하다가 처형당하며 비참하다. 하지만, 그가 관직에 있을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그는 백성들을 양식과 함께 안전한 강화도로 옮겨 목숨을 구제시켰다. 또한, 병자호란 전에 서북방의 도원수로 부임해 후금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게 했고, [조계원 묘비]에 의하면 호란이 발발하고 인조를 구하려 몇 번이나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박씨전]에 서술된 실존인물은 역사와 괴리가 크고, 이로 인해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픽션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4.1 사회·윤리적 방법론

4.1.1 외모지상주의의 폐해

박씨는 그녀의 업보로 인해 얼굴에 허물이 씌워졌으나, 결국 청산하여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는 사실은 예상대로 뽀뽀하게 다가왔다. 혼례 이후로 각방을 쓰며 시부와 계화를 제외한 시가족

들에게 팔시받았던 주인공은, 시부의 의복을 금방 짓거나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외모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허물을 벗자마자 감췄던 외모로 인해 결국 남편에게 사랑받게 된다는 구성은 주제의식이 무색할 만큼 내면을 경시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칭송한다. 이 점은 21세기에 들어서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이시백의 모습을 통해 그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만, 부인의 향상된 외모를 보고 사과한 것이 기정사실이다. 만약 그녀의 외모가 그대로였다면 사과했을까?

여기서 박씨의 행태도 그런 남편을 용서해주고 부부의 금슬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표현되는데, 여성우월주의를 담는 소설임에도 남편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당당하게 말도 못하는 주인공의 성격이 작자가 그녀를 어떤 인물로 설정했는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고소설(특히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재자가인 형의 절세미녀로 묘사된다. 결국 ‘변신 모티프’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박씨 부인은 제 능력을 표출하기 보다 ‘피화당’에서 기존 여성상에 해당되는 시집살이를 당하며 무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4. 맺음말

[박씨전]은 최초의 여성영웅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고소설 속에서 여성 의식이 높아짐의 방증을 보여주는 최초의 소설임은 확신한다. 이 작품을 두고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기존 논의와 연구들은, 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박씨전]을 통해 신원 미상(?)의 작가가 병자호란에 고통받은 조선사람들을 위로하는 한편, 기존 사대부 지배층 남성의 잘못과 무능을 지적하며 여성에게 주체적으로 롤(역할)을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적극 증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5. 참고 문헌

‘박씨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수정, 2021년 11월 7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0897>

정미영, 「박씨전 연구: 성 정체성 모색을 위한 교육 방법론」, 전북대학교, 2003.

정진숙,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사회적·이념적 의미 연구 : <박씨전>, <홍계월전>,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1.

강민, 「박씨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안순희,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 — <박씨전>, <옥주호연>,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06.

이유진, 「박씨전 교육 내용 연구 - 여성인식과 역사인식의 비중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7.

선을 넘지 마, 넘을 수 없어.

-영화 <기생충> 비평-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I 서론.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영화 100년 사의 최고의 경사라고 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은 ‘완성도 높은 영화’, ‘가장 화려하면서도 풍자적인 서스펜스 영화’ 등의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 192개국에 판매됨으로써 역대 한국영화 해외 판매 기록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영화 <기생충>을 수상경력이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영화라고만 기억해서는 안된다. 나 역시 <기생충>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감상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사회적 문제들을 재미있는 방식과 웃음으로 승화시킨 영화라는 생각은 저절로 사라졌다.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자본주의 등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넘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이에 나는 영화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상징들과 감독이 표현한 사회 비판적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 결론으로 영화 <기생충> 비평문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⁷⁾

II 본론.

이 영화의 제목은 <기생충>이다. 기생충은 다른 생물(숙주)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사는 벌레로, 사람의 몸에 들어올 경우 각가지 병을 유발하는 나쁜 충으로 잡아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단어이다. 이 영화 속에서 기생충은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영화 <기생충>은 부유한 박사장의 집에 기택의 가족이 들어가게 되면서 두 가족의 만남을 기점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이때 부유한 박사장은 ‘숙주’, 부유한 박사장의 집에 들어간 기택의 가족은 ‘기생충’으로 비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문광 부부 역시 기생충으로 비유되며 숙주를 차지하려고 하는 기생충에 빗대어진 이야기이다.

1. 줄거리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아버지 김기택 해머 던지기 선수 출신인 어머니 박충숙, 명문대 지망 4 수생 첫째 김기우, 미대 지망생 둘째 김기정은 반지하 집에서 살아가는 백수 가족이다. 어느 날, 기우의 친구 민혁이 집으로 찾아온다. 민혁은 명문대에 다니고 있고, 고등학생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민혁에게서 과외를 받는 박다혜는 굉장한 부잣집 딸로, 다혜의 아버지 박동익은 글로벌 IT 기업의 CEO이다. 민혁은 값비싼 수석을 꺼내어 선물하고, 기우는 수석을 바라보며 되게 상징적이라고 하고, 기택 역시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며 고마워한다. 하지만 충숙은 "먹을 것이 아니네."라며 실망한다. 이후 기우와 민혁은 동네 슈퍼 앞에서 같이 소주를 마시고, 민혁은 기우에게 “나를 대신해서 다혜의 영어 과외를 맡아달라”라고 제안한다. 제안을 받아들인 기우는 그럴싸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연교의 의심을 피하며 성공적으로 시범

7) 육정학,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본 가족과 사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38쪽.

과외를 마치고, 정식 채용되어 과외비를 선불로 받는다. 이후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박 사장 부부의 어린 아들 다송이 버릇없이 세 사람에게 장난감 화살을 쏘면서 등장한다. 이런 다송을 본 기우는 문득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집에서 나오는 길에 연교에게 "사촌의 대학 후배 중에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한 '제시카'라는 미술 선생님이 있는데, 예중, 예고, 미대 입시 준비까지 모두 능통하다고 소문이 났다."는 말을 흘린다. 연교는 큰 관심을 보이며 주선을 희망하고, 기우는 기정을 데리고 박사장 집을 방문한다. 기정은 연교의 신뢰를 얻어 내며 미술치료 과외 선생님이로 고용된다. 이후 여러 사건을 통해 기택의 가족은 박 사장 가족을 속이고 박 사장 집안에 고용된다.

다송의 생일을 맞이하여 박 사장 가족이 캠핑을 떠나 집을 비우게 되자, 기택 가족은 거실에서 박 사장의 양주를 마시며 제 집 행세를 한다. 비가 쏟아지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해고됐던 문광이 인터폰을 통해 얼굴을 비춘다.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문광의 부탁에 충속은 문을 열어준다. 문광은 지하실로 향하더니 비밀 통로로 들어간다. 놀랍게도 그곳엔 문광의 남편 근세가 숨어 살고 있었다. 문광은 충숙에게 보답은 얼마든지 할 테니 남편을 잘 챙겨달라고 애원하지만 충숙은 되려 신고하려 한다. 그러나 몰래 지켜보던 기택, 기우, 기정의 실수로 네 사람이 사실은 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처지가 역전된다. 기택 가족과 문광 부부의 대치 끝에 근세는 지하실 파이프에 결박되고, 문광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일으킨다. 방공호에 갇힌 채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근세는 조명 스위치에 머리를 박아대며 모스 부호로 구조 신호를 보내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박 사장 가족은 큰 비로 캠핑을 취소하고 집으로 되돌아온다. 충숙은 아무 일 없던 듯 대응하는 한편, 나머지 기택 가족은 들키지 않은 채 몰래 집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나 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기택네 반지하집이 침수되어 수재민이 되어버리고 만다.

다음날 다송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기택 가족은 파티에 끌려와 피로한 기색으로 다시 모이게 된다. 침수된 집에서 수석을 가방에 가져왔던 기우는 수석을 꺼내 들고 지하로 내려가 근세를 죽이려 한다. 그러나 근세는 기우에게서 수석을 빼앗고는 그대로 머리를 내리친다. 밖으로 나온 근세는 부엌에서 칼을 챙겨 생일파티 현장으로 나왔다가 기정을 보고는 그대로 달려 나가 가슴을 찌른다. 순식간에 생일 파티는 아수라장이 된다. 업혀나가는 기우와 죽어가는 기정을 본 기택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가 박 사장의 지시에 자동차 키를 던져주나, 쇠꼬챙이를 맞고 쓰러진 근세의 몸에 깔린다. 차 키를 챙겨 나가려는 박 사장이 근세의 냄새에 역겹다는 표정을 짓자, 기택은 칼을 들어 박 사장을 찌른다. 그리고는 현장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다. 한 달 후, 기우와 충숙은 사기행각과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다. 기정은 결국 사망하여 납골당에 안장했고, 기택은 저택 탈출 후 그대로 '증발'하여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기우는 옛 박사장 저택이 잘 보이는 산을 찾아가 저택을 관찰한다. 우연히 깜빡이는 조명을 목격하고 그것이 모스 부호임을 알아차린다. 내용을 해독해보니 기택이 자신에게 보내는 장문의 메시지였다. 기택은 사건 직후 갈 곳이 없어 방공호에 숨어들었고, 마치 근세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에 기우는 바로 답변을 적는다. 돈을 아주 많이 벌겠다는 계획이 실현되어 그 집을 매입하고 기택을 구출하기에 이르는 듯싶다가, 여전히 반지하 집에 머물며 무기력해 있는 기우의 모습과 함께 "그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라"는 인사를 전하며 영화가 끝난다.

2. 분석 요소

2-1. 수석

영화 <기생충>에는 다양한 기생충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으며 박사장 또는 박사장의 집이라는 숙주를 통해 기생 관계를 보여주지만 직접적인 기생충의 생태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어떤 생명이 없는 돌, 즉 민혁이 기우에게 가져다준 수석이다. 민혁은 수석이 ‘재물과 운’을 가져다준다고 기우에게 건네주었다. 기우의 어머니인 충숙은 ‘먹을 것이나 가져오지’라며 수석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한지만 기택과 기우는 수석을 대단한 것처럼 감탄했다. 그리고 수석은 기우를 마치 숙주처럼 내내 따라다닌다. 기우는 홍수가 난 밤에, 집에 들어와 물에 떠 있는 수석을 확인하고 생각에 잠긴다. 이후 기우는 유일하게 수석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기택에게 ‘이게 나한테 붙었어요.’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수석이 기생충이 되어 기우를 숙주 삼아 붙었다는 것과 같이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후 기우의 행동은 이전과 달라진다. 수석의 상징인 재물의 확장을 이어가기 위해 기우는 자신의 가족의 재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장애물인 문광과 그녀의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하여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러나 영화는 다른 반전을 가져다준다. 기우는 수석을 들고 지하실에 내려갔지만 도리어 수석으로 문광의 남편에게 공격당해 기절한다. 이에 수석은 그저 돌일 뿐 상황 개선 즉 재물의 확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수석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우가 살의를 품게 하고 이는 문광의 남편의 탈출, 기택의 죽음, 기택이 박사장을 살해하는 사건을 초래한다. ‘재물과 운’을 가져다준다고 수석은 결국 기택의 가족에게 비극을 가져다주었다. 이 때문에 모든 사건이 끝난 후 기우는 계속 수석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원래 수석이 있던 곳인 계곡에 가져다 둔다. 영화 <기생충>에서 비극의 시작을 만들고 끝을 맺는 것은 복과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수석이다. 기우를 숙주 삼아 모든 행동을 지시하다 마침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회귀하는 수석의 모습은 마치 기생충의 생태를 떠올리게 한다. 생명이 없는 돌이던 수석은 기생충과 같은 모습을 띄며 모든 비극을 일어나게 하는 매개가 된다.

2-2. 집의 위치, 수많은 계단

영화 <기생충>의 상징 중 하나는 바로 ‘수직’이다. 수직적 구조의 사회로 영화를 바라보면, 가장 상위 포식자는 집 마당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박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택의 가족이 그들의 본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감독은 그들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 또한 수직의 구조, 상하 구조를 강조하며 인물들의 행동을 비춘다.

박사장과 기택의 집은 많은 것들이 대비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 구조이다. <기생충>에서는 그들의 수직적 구조를 집의 위치, 수많은 계단으로 표현했다. 집은 가족들이 기거하며 각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다. 그러나 <기생충>에서는 삶의 터전을 통해 수직적 구조를 표현했다. 기택의 가족은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유난히 계단이 많은 동네로 아침에야 겨우 햇빛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다. 기택의 집은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에 시달리거나 소독차가 소독약을 뿌려 소독약이 온 집안에 들어오는 등 안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와 대비해 박사장의 집은 으리으리한 저택이다. 1층 대지 550평에 1층 건물면적만 200평에 달하는 부잣집으로 거실 또한 통유리로 되어있다. 거실에서 훤히 바깥을 내려다보면 탁 트인 정원은 단순히 부잣집의 이미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사장의 집 비밀 지하실이다. 비밀 지하실에는 박사장 집안에 기생하듯 붙어있는 문광(가정부)과 그녀의 남편이 기거하고 있다. 기택의 가족과 문광의 가족을 비교하면,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기택의 가족이 빛을 볼 수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문광의 가족보다 비교적 상위에 위치하여도 있다. 실제로 기택의 가족은 문광의 직장을 빼앗고, 문광

을 죽인다. 영화 <기생충>은 각각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통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계급에 따른 공간을 분리한다. 반지하와 비밀 지하라는 지하공간과 고지대 지상공간은 상하관계의 계급질서를 표현하며 가난과 궁핍, 밀폐와 추방의 공간과 부유와 교양, 사교의 공간으로 구분한 것이다.

반지하에 사는 기택의 가족이 박사장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또한 박사장의 집 안에는 계단이 많이 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이어주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수직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직적 구조는 박사장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기택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내려가야 하는 끊임없는 계단을 통해서 극대화된다. 영화 <기생충>에서 강조되는 수직적 구조의 개념에 약육강식의 개념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의 결말 또한 약육강식의 형태를 보여준다. 제일 아래에 서식했던 문광의 남편이 기택의 가족인 기정을 죽이고, 그 바로 위에 서식 중인 기택이 가장 상위 포식자인 박사장을 죽이며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수직구조를 상승하며 순차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⁸⁾

2-3. 냄새

냄새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택이 박사장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또한 냄새이다. 처음 영화에서 냄새를 언급한 인물은 박사장의 아들인 다송이다. 다송이 발견한 것은 기택 가족들의 몸에서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족들 역시 처음에는 옷을 세탁하는 세제의 냄새라고 추측하고 이를 각자 다르게 빨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한다. 기정은 이 냄새는 비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냄새가 ‘반지하 냄새’라는 것을 지적하며 반지하를 탈출해야 냄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냄새는 가난과 계급의 차이로 강조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모두 불쾌한 반지하 냄새라는 전제가 생겨난다. 이는 운전기사인 기택과 같이 차를 탄 박사장 부부가 기택의 몸에서 나는 ‘선은 넘는 냄새’를 불쾌한 표정으로 의식하는 장면, 그리고 박사장이 그 냄새를 지하철에서 나는 노동계급의 냄새이자 행주 같은 더러운 물건의 냄새라고 평가하는 장면을 통해 냄새가 확실하게 계급적 차이를 나타냄을 강조한다. 앞에서 말했듯 냄새는 즉 가난을 의미한다. 박사장이 냄새라고 표현했던 대사를 ‘가난’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말은 매끄럽다. ‘가난은 어쩔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곧 기택과 가족들이 숨길 수 없었던 본질이다.

타인을 만날 때,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이다. 시각은 시선을 돌리면 피할 수 있다. 청각 또한 이어폰 등을 통해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후각은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므로 코를 막는 행위처럼 노골적인 행위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냄새를 통한 차별의 표현은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박사장의 부인은 기택과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코를 막는 행위를 한다. 이때부터 기택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원에서 차기를 주으러 오면서 박사장은 다시 한번 코를 막는다. 그리고 기택은 박사장을 죽이게 된다. 냄새를 맡는 행위가 자신의 가난함, 빈곤에 대한 차별로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택이 통제할 수 없는 냄새에 대한 박사장 가족의 행위는 기택이 박사장을 우발적으로 죽이게까지 만든다. 이에 봉준호 감독은 ‘냄새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가두고 있었나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8) 육정학,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본 가족과 사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39-41쪽.

다.⁹⁾

2-4. 선

<기생충>에서 박사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사전적 정의로 선이란 그어 놓은 금이나 줄을 뜻한다. 영화 <기생충>에서 박사장의 사회적 위치와 기택에게 하는 행동을 고려했을 때, 그가 말하는 ‘선’은 권력에 반하는 행동이나 각자만의 분수에 맞는 행동의 범주를 말한다. 하지만, 기택의 가족은 박사장 가족의 집에 불법적으로 위장하여 집안에 침입하는 것부터, 박사장 부부가 관계를 맺는 사적인 공간에도 침범하고, 결국 삶의 경계선까지 침범하여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등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을 넘으려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선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차단했다. 영화에서 선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기택의 딸인 기정은이다. 영화 후반부 저택에서 파티를 즐길 때 기우는 기정에게 “너는 좀 이 집에 사는 사람 같더라”라고 말한다. 유일하게 저택에 어울리는, 빈부의 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엿보였던 기정은 상류층 파티 한가운데에서 지독하게 가난한 문광의 남편 손에 죽고 만다.

결국 영화에서 강조했던 선은 ‘계층 간의 선’이다. 기택이 일하기 전에 일하던 운전기사도 박사장이 언급한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기에 해고되었다. 이처럼 박사장은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가정부에게 계속해서 ‘선’을 강조한다. 그는 대체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지만, 선을 넘어오는 순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이는 박사장의 의식 속에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계급의 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5. 무계획

영화 <기생충>에서 학력을 위조해 과외를 하려는 기우에게 아버지 기택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말한다. 이 말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시점이다. 기택의 가족에게 계획이 생긴 것은 기우의 친구 민혁을 통해서이다. 그렇게 기택의 가족에게 계획이 생긴다. 이후 기우는 계획을 세워 기택의 모든 가족이 박사장 집에 입성한다. 하지만 위기에 놓이고 계획이 있다면 기택은 계획을 물어보는 기우에게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왜 기택은 무계획을 계획이라고 하였을까? 이는 기택의 삶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퇴직 후 대만 카스테라 등 여러 프랜차이즈를 차리고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기택의 가족은 반지하 집에 있다. 기택은 분명 자신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퇴직 후 프랜차이즈를 차려 돈을 벌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기택은 이런 실패를 통해 주저앉고 상처를 받으며 계획하지 않는 삶을 사기로 선택한 것이다. 기택은 무계획 속에서 박사장을 죽이고, 박사장 집 지하실에서 기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역시 기택의 무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박사장 집에 새로 들어온 집주인에게 냉장고를 채워주어 감사하며 살고 있다.

반면에 기우는 기택과 달리 계획을 한다. 기택의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침수

9) 김건형, 「남성 아브젝트라는 새로운 가부장의 형상과 계급 재현의 젠더 정치—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21, 74-75쪽.

된 반지하 집에서 유일하게 채긴 수석을 들고 들어가 문광 부부를 죽여 사건을 해결하는 계획을 한다. 하지만 기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버지는 실종 상태가 된다. 이후 아버지가 박사장의 집이었던 집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 그 집을 구매할 계획을 짠다. 그러나 기우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에서 집을 사는 모습은 기우의 상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는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류층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무계획이라는 것을 통해 현대 사회의 비극을 보여준다.¹⁰⁾

3. 감독이 표현한 사회 비판적 요소

3-1. 원하지 않는 직업

영화 <기생충>에서는 기택의 가족들이 무직으로 등장한다. 그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지 멀쩡한 사람이다. 하다못해 기택은 일용직을 하거나, 대리운전 등 찾아보면 분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몸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기택의 아내 또한 마찬가지이다. 요즘 식당에서는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까지 한다. 이는 기우와 기정 또한 해당된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는 생각에 일자리를 구한다면 일할 때가 없진 않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속한다. 영화 초반에 보면 기택의 가족은 힘들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피자박스를 접고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고되고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고 혹은 가족 중 누군가 해주길 바랬을지도 모른다.

영화 <기생충>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은 이런 가족의 행동을 초반에 표현하고 이후 불법적으로 박사장 집에 취업하는 과정을 중반부에 보여준다. 이는 기택의 가족이 몸이 고되고 힘든 일 즉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자신들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관객에게 전달하며, 기택 가족의 어리석은 생각과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3-2. 불합리한 취업시장

그러나 기택의 가족은 무능하지 않다. 연교는 기우에게 과외 참관을 부탁하며 테스트를 받지만 무난히 통과한다. 기정 역시 단번에 다솜과 연교를 사로잡는다. 기택 또한 운전 솜씨가 뛰어나서 박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충숙 역시 별 무리 없이 가정부 생활을 잘 해낸다. 이는 기택 가족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이 무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취업에 모두 실패한다. 이는 이들이 별다른 스펙이 없기 때문이다. 박사장과 같은 상류층 고용주들은 고용 전 서류를 요구하지만, 정작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인맥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취업시장이 기형적일 정도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과 스펙을 요구한다는 점과 인맥 주의로 이루어진 취업시장을 비판한다.

또한, 연교는 부유하지만 약간의 허술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이전의 집주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가정부는 연교의 집 지하에 자신의 남편을 몰래 숨기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 또한 이후 기택의 가족이 불법적으로 박사장 집에 불법취업을 했다. 그러나 박사장의 가족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는 영화 <기생충>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스펙과 자격증이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허상이며 실력은 인맥일지도 점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도 취업준비생에게 과도한 스펙을 요구한다. 또한 집안, 학연과 같은 인맥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준비생 즉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런 좌절은 청년층의 도덕적 기준을 흐릿하게 만든다. 이는 영화에서 기우와 기정이

10) 이다운, 「영화 <기생충> 연구 - 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 공존의 불가능성」, 『어문연구 제101집』, 어문연구학회, 2019, 299쪽.

학력을 위조하는 문서를 만들며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한다. 이는 청년들이 쉽게 범죄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봉준호 감독은 이와 같이 취업시장의 불합리함과 이를 통해 좌절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을 비판했다.

3-3. 계급의 차이와 계급 공존의 불가능

영화 <기생충>에서는 계급의 차이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자연재해와 같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평등한 것도 계급에 따라 미치는 피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택의 가족은 폭우로 인해 집이 완전히 침수되어 잘 곳을 잃고 다른 쪽방촌 사람들과 떼거지로 체육관에 모여서 자느라 어수선하다. 또한 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은 대신 복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스스로 해내야 한다. 이로 인해 체육관에서도 내일을 걱정하며 막막하게 잠에 든다. 반대로 박사장 가족의 피해는 기택의 가족과 대비되어 나왔다. 박사장의 가족은 폭우로 인해 가족끼리 놀러 간 캠핑을 취소하고 폭우를 피해 차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또한 기택의 가족과 달리 내일을 기대한다. 또한 폭우로 인해 실패한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저 기택의 가족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처럼 영화 <기생충>에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햇빛도, 자연재해마저도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 <기생충>의 영화감독인 봉준호는 “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궁금해하며 구상한 영화”라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기생충>은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만나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 <기생충> 감독인 봉준호는 “이 영화는 악인이 없으면서도 비극이고, 광대가 없는데도 희극이다.” 라며 인터뷰에서 말했다. 감독의 말처럼 영화 <기생충>에는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사장 가족은 영화 속에서 폭력과 갑질을 행사하는 등 악덕 고용인 즉 악인이 아니었다. 심지어 박사장의 아내는 사람을 잘 믿고 착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박사장은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선’이 서로 다른 계급이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냄새’를 가난의 의미로 표현하며 박사장은 자기보다 낮은 ‘계층의 냄새’가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에 형성된 계급 상승의 꿈을 꾸지만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상류층과 하류층이 거리는 가깝게 지내지만 결국 계급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과 그들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을 비판했다.

III 비평과 결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화제성 또한 뛰어났다. 또한 기존 영화에서 사용되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불쌍하다는 스토리를 완전히 뒤집었다. 물론 영화 속에서 완전히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박사장의 가족은 교양 있고 고용인들에게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계층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다. 기택의 가족은 박사장의 가족에 비해 다소 악하게 그려진다. 거리낌 없이 위법행위를 하고 가난을 핑계 삼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기택의 가족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을 잃어버린 가족으로 묘사된다. 이 영화는 하류층에게서 윤리

를 제거시켰다. 자식이 위법행위를 해도 “넌 계획이 다 있구나”라며 격려하고,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기택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또한 자신이 약자일 때는 어려운 사람끼리 돕자고 비굴하게 말하던 문광은 기택 가족의 약점을 잡자마자 돌변하다. 또한 충숙이 “부자니까 착한 거지. 이 돈이 나한테 있어봐 나는 더 착해”라는 대사가 이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하류층이니까 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다소 불편한 작품일지도 모른다. 이는 가난함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윤리와 양심을 부정당한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 <기생충>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빈곤 가정 즉 하류층을 묘사하고 선, 계급, 수석, 집의 위치 등 수많은 요소를 통해 다소 관객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회 속의 계급과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현실적으로 비판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건형, 「남성 아브젝트라는 새로운 가부장의 형상과 계급 재현의 젠더 정치—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21.

김문주,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냄새의 타자성」,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2020.

송만용, 「봉준호의 <기생충>에 나타난 장르적 융합과 창의성」,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0.

육정학,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본 가족과 사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이다운, 「영화 <기생충> 연구 - 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 공존의 불가능성」, 『어문연구 제101집』, 어문연구학회, 2019.

화려한 미장센으로 표현한 사랑할 결심

영화 <헤어질 결심>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I. 서론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연출한 장편 영화로 개봉 이후 제 75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다. 이 외에도 제27회 춘사국제영화제, 제31회 부일영화상, 제4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여러 수상을 하였고 대중들에게서 흥행을 이끌었다.

멜로/로맨스 장르와 더불어 드라마, 서스펜스 장르가 더해진 멜로극으로 영화의 긴박함과 ‘해준’(박해일, 남주인공)과 ‘서래’(탕웨이, 여주인공) 사이 마음의 교류가 더해져 보는 이들을 더욱 영화에 몰입하게 만들었고, 관객들은 N차 관람¹¹⁾을 하며 영화에 빠져들었다.

영화를 본 이들은 이 영화가 미적으로도 구성으로도 매우 잘 가꾸어진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선과 바다와 산의 이미지 등 미적 요소들로 흐름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 이런 요소들이 극 중 ‘해준’(박해일)과 ‘서래’(탕웨이)의 인물특징을 극대화시켰고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흥미와 의문점이 들며 영화에 대한 생각을 깊게 만들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비평하고자 하는 ‘결심’이 들었고 ‘마침내’ 영화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줄거리

(1) 전체적 줄거리

시작은 형사 ‘해준’이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담당하며 전개된다. 사망자의 아내 ‘서래’를 취조하며 둘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고, ‘서래’는 남편의 죽음에도 태연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등 중국인 여성의 서툰 한국말로 취조에 답변하는데 이에 경찰은 ‘서래’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사건 해결을 위해 ‘해준’은 ‘서래’를 탐문, 심문하며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고 점차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간다. ‘서래’는 ‘해준’이 본인을 의심하고 잠복수사로 본인 곁을 맴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내색 없이 그를 대한다. 이후 둘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해준’은 일로 인해 따로 사는 아내와 ‘서래’ 사이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치게 된다. ‘서래’는 ‘해준’에게 “당신은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며 둘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

11) 반복 관람

작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서래' 알리바이였던 요양보호사 일을 '해준'이 대신해주려 '월요일 할머니' (정영숙)를 찾아갔는데 치매가 온 할머니 덕분에 그동안 본인이 들었던 '서래'의 알리바이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된다. 결국 '서래'는 산에서 자신이 남편을 죽였음을 고백하지만, 사건을 말하는데 있어서 청렴결백한 걸 자부심으로 느끼던 '해준'을 본인의 감정으로 인해 사건을 모두 망쳤다는 자괴감으로 "당신 때문에 내 모든게 붕괴되었어."라는 말을 남긴 채 아내가 있는 곳으로 전근을 간다.(이때 그녀가 살해한 것을 알게 된 '해준'은 증거인 '월요일 할머니'와 바뀌 치킨 한 그녀의 핸드폰을 바다 깊숙한 곳에 버리라고 했다.) 이것으로 영화의 1부가 끝난다.

이포로 내려간 '해준'은 전근가기 전 큰 사건을 담당하였던 자신에 비해 이곳에서는 자잘한 지역 사건을 맡으며 생기 잃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아내와 간 시장에서 '임호신'(박용우, 투자전문가)와 재혼한 '서래'를 마주친다. 이후 '임호신'은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서래'를 범인으로 단정 짓은 '해준'은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라며 그녀를 채근하고 '서래'는 "내가 그렇게 나빠요?"라며 울먹인다. 이 살인사건의 범인은 '서래'가 아닌 '임호신'에게 투자금 목적으로 돈은 뜯긴 어머니의 돈과 중국에 있을 때 간호사 출신이었던 '서래'가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뺏고 간 날 어머니가 죽었다는 이유로 '임호신'을 살해한 '사철성'이었다. '서래'는 친모를 죽이고 한국에 밀입국하였고, 엄마가 원했기에 고통 없이 보내드린 것이라고 전에 해명한 바 있다. '임호신'의 살해현장을 목격한 '서래'는 '피가 많이 난 현장을 꺼려한다.'는 '해준'의 말을 떠올리며 그 현장을 청소했다.

'해준'의 아내는 그가 '서래'와 관계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를 떠난다.

'해준'은 '서래'를 꾸준히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부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골을 산 정상에서 뿌려주고 계속해서 그녀를 뒤쫓는다.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끝낸 '서래'는 '해준'이 말한 것처럼 홀로 바닷가에 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해준'은 만조인 바닷가에서 사라진 '서래'를 울부짖으며 그녀를 찾지 못한 채 영화는 막을 내리며 2부 또한 끝이 난다.

(2) <헤어질 결심>의 의미

이 영화는 멜로/로맨스 장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헤어질 결심"이다. 사랑의 끝과 이별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영화의 1부에서는 '해준'이 그녀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트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라고 말하며 아내가 있는 '이포'로 전근을 간다. 증거를 바다 깊은 곳에 빠트려 아무도 못 찾게 하라는 말은 살해한 '서래'를 숨겨주려는 의미와 더불어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며 자신의 '무너지고 깨어진'(붕괴된) 사랑을 휴대폰에 투영시켜 바다 깊은 곳에 묻어두려는 의미가 더해진다. 2부에서는 '서래'가 그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모래구덩이를 파고 만조를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독백에서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라고 하며 그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신의 사랑을 바다 깊은 곳에 묻어두고자 바다 속에서 죽음을 택한다.

이들의 대사로 이루어보았을 때 둘은 마음이 모두 떠나 서로 이별을 택하고 헤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남아있는 마음을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그저 바다에 빠트리고 잊고자 노력한다.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한 상대방과 이별을 하기 위한 "헤어질 결심"을 한다.

2. 분석요소

(1) 산과 바다

포스터를 보면 ‘해준’의 뒤에는 산이, ‘서래’의 뒤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다. 포스터만으로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해준’은 굳건하고 고요한 산을 의미하고 ‘서래’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영화 속에서도 “지자요수 인자요산”을 얘기하며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이는 산을 좋아한다.”라고 설명한다.

두 사람의 시작은 ‘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산에서 살해당한 ‘서래’의 남편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되고, 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산 중간에 있는 사찰에서 사랑을 확인한다. ‘산’은 ‘해준’ 그 자체를 의미한다. 형사라는 울퉁고 윤리적 인물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는 산과 같은 굳건한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강한 파도에 점차 꺾여가는 산처럼 ‘해준’도 바다의 파도와 같은 ‘서래’로부터 밀려오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그녀에게 잠식되어 결국에는 “무너지고 깨어진” 붕괴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정상 목적지가 정해진 산과 달리 바다는 넓은 해수면에 몸을 맡기면 정처 없이 떠돈다. ‘서래’는 중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열흘 동안 배 안에 갇혀 먹지도 못하고 더러운 상태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밀항해왔으며, ‘해준’을 따라 이포로 떠난다. 남편 또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 두 번째 남편과 혼인하고 그 남편마저도 살해당한다. ‘서래’는 바다 같이 파도처럼 순식간에 밀려왔다가 떠나가는 인물이다. 둘의 이별 장면도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바다 옆 ‘서래’와 ‘해준’ 각 차 2대가 세워져있는 장면에서도 파도의 모습이 ‘서래’의 옆얼굴로 감독은 ‘서래’는 바다 그 자체임을 알려준다. ‘서래’의 죽음의 장면도 바다이며 ‘해준’은 그녀를 찾기 위해 바닷단이 모두 젖을 만큼 바다를 헤집으며 울부짖는다.

산과 바다, 너무도 다른 둘이 만남으로 사랑하고 헤어지며 파도는 산을 깨뜨리고 둘은 서로에게 동화된다. 결국 산과 같은 ‘해준’이 그녀를 찾는 장면을 통해 ‘서래’를 잃은 바닷물에 젖어있는 그가 정처 없는 바다 같은 인물이 됨을 알 수 있다.

(2) 안개

극 중 ‘이포(가상의 도시)’는 아내가 근무하는 핵발전소가 있는 곳이며 안개가 자욱한 곳, 2부에 ‘해준’이 전근 간 장소이다.(‘이포’에 살던 주민들은 이 안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에 영감을 준 곡은 이봉주가 작곡하고 정훈희가 부른 “안개”라는 노래라고 말한다.

“안개” 가사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뚜루 뚜루루루 뚜룻뚜



뚜루 뚜루루루 뚜룻뚜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오
 뚜루 뚜루루루 뚜룻뚜
 뚜루 뚜루루루 뚜룻뚜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안개’는 <헤어질 결심>속에서 ‘해준’의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개가 자욱한 ‘이포’로 전근을 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경찰로서의 자부심, 서래에 대한 마음의 충동을 안개 속에 숨기는 의도로 ‘이포’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준’을 따라 ‘이포’로 온 ‘서래’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안개’에 투영한다. 극 중 ‘서래’는 ‘해준’에게 “난 해준 씨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갔나 봐요.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 자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해요.”라고 말한다. ‘해준’이 수사를 끝마치지 못하고 미결로 남은 사건들의 사진을 방 한 벽에 붙여놓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아는 ‘서래’는 그에게 미결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만조가 오기 전 모래구덩이에 자신을 숨기고, ‘해준’은 그녀를 하염없이 찾는다.

위 내용과 가사로 살펴보았을 때,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 뚜루 뚜루루루 뚜룻뚜”는 아직 그를 사랑하기에 그에게 미결이 되고 싶지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죽음을 택하는 ‘서래’를, “그 사람을 어디에 갔을까? ~ 뚜루 뚜루루루 뚜룻뚜”는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만조인 바다를 헤치며 파도가 멈추고 그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해준’과 같다. 마지막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는 파도와 함께 사라진 그녀를 찾는 ‘해준’을 “눈물을 감추어라”는 자신의 눈물을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눈물도, 자신도 함께 세상에서, ‘해준’에게서 감추는 ‘서래’를 말한다.

그리고 ‘해준’과 그의 아내 ‘정안’의 베드신에서 해준은 곰팡이를 계속 주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안’은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들의 부부관계에서는 이것이 나아지지 못한다고 느낀다.) 곰팡이는 햇살이 가득하고 따스한 곳보다 안개가 많은 곳인 습한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그들의 집이 아닌 이포 경찰서에서도 나무에 곰팡이가 슬어 있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이포’로 전근 왔지만 불면증으로 정신과를 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해준’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개 속에 감추고자 ‘이포’에 왔지만 이미 무너지고 깨어진, 붕괴된 ‘해준’은 아내와의 관계도 되찾지 못하고 직업만족도에서도 살인사건과 같은 굵직한 사건을 맡지 못하며 ‘서래’에 대한 마음도 정리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은 썩어가는 곰팡이에 대입했다.

영화에서 ‘안개’라는 특징적 요소를 장소와 대입해 통해 두 사람의 감정선을 보여주고, 영화 속 BGM으로 사용하여 보는 이들의 몰입감을 더했다.

(3)미적 요소

박찬욱 감독이 영화감독으로 극찬 받는 이유에는 유려한 영상미로 영화를 연출하는 능력이

있다. 그가 극찬 받은 작품 중 <아가씨(2016)>는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미술 부문 발칸상을 수상하며 영화 속 미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 동·서양의 미술적 요소를 사용하여 그 당시 한국, 일본, 서구의 사대주의 해방, 영화의 주인공인 두 여인의 사랑과 자유로 향하는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장면마다 의상, 색채, 소품, 구도 등으로 미적 요소를 극대화 시켰다.¹²⁾

먼저, 영화 속 ‘벽지’이다. 영화 <아가씨>에서도 박찬욱 감독은 실내 벽지는 19세기 미술공예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모리스의 식물 벽지를 참고하였고, <헤어질 결심>에서도 그가 벽지에 공을 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에서 ‘바다’로 전개되는 영화 구조를 벽지에 대입해 산인지 파도치는 바다인지 구분이 어렵게 패턴화하고 파란색과 녹색을 함께 사용하여 인물들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감정을 묘사했다. 벽지를 통해 ‘산’과 ‘바다’의 무늬를 파란색인지 녹색인지 알 수 없는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해준’과 ‘서래’의 알 수 없는 오묘한 관계를 나타낸다.

‘서래’의 옷 색깔로도 그녀의 속내를 표현하였다. ‘서래’가 ‘사철성’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행할 때에는 붉은 옷을 입고 나옴으로 섬뜩하고 강인한 그녀를 나타냈다. ‘서래’가 ‘해준’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는 파란색 옷을 입고, 그와 가까워지면 초록색 옷을 입는다. 파란색 옷을 입음으로 그와 멀어질 때는 바다인 자신과 같은 색을 입지만, 산과 같은 ‘해준’과 가까워질 때면 초록색을 입음으로써 그에 대한 마음이 커져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우리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따라서 푸른색 또는 청록색이라 표현한다. 이는 분명히 다른 두 색깔이지만 서로 닮아있다는 것이고, ‘해준’과 ‘서래’의 관계에서도 둘은 분명히 산과 바다처럼 다른 사람이지만 비슷한 인물로서 서로를 닮아간다고 할 수 있다. ‘서래’의 ‘당신과 나는 닮았다’는 말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4) 안약

영화가 전개되는데 있어 ‘해준’이 반복적으로 안약을 넣는 장면에서 의문이 많이 들었다. 영화 초반과 후반에 사건 현장 시체가 매우 부패하여 벌레가 꼬인 장면을 바라볼 때도, ‘이포’에 내려가서 서래가 얹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약을 넣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서래와 함께 있거나, 서래에게 빠져 있을 때는 안약을 한 번도 넣지 않는다. 그의 안약을 넣는 행위는 사건을 똑바로 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다. ‘이포’에 내려가기 전, ‘부산’에 있을 때 한창 ‘서래’에게 빠져있을 때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래’를 위해 형사라는 직업의 자긍심을 버리고 그녀의 살인을 감추고 도왔지만, ‘이포’에 와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사로잡혀있지 않고 본인의 본 모습을 되찾고자 사건을 똑바로 보기 위해 그녀와 엮인 사건에서 안약을 넣는다. 이는 앞의 ‘안개’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해준’이 ‘이포’에서 사건을 볼 때만큼은 더 이상 혼동하지 않도록 안약을 넣음으로써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안약’을 사용하였다. 서래와 함께 있을 때는 안약을 넣지 않은 점은 그만큼 당시에 ‘해준’이 그녀가 범인이라는 진실을 숨길 만큼 ‘서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큰 것이다.

(5) 언어적 표현

12) 진영선, 「영화 <아가씨>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미술적 요소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91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 4면

<헤어질 결심>에서는 ‘우는구나,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죽을까봐’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부사가 많이 등장하며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로 등장하며 보는 이들에게 이질감과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독특한 언어 설정으로 휘몰아치는 감정과 상황을 더욱 묘하게 만든다. ‘마침내’의 사전적 의미는 ‘결국, 드디어’¹³⁾이다.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서래’는 취조 당할 때, 남편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며 ‘마침내, 죽을까봐’라고 얘기한다. 이는 자신을 속박하고 억압하던 남편이 ‘드디어’ 죽었다는 그녀의 속내를 나타낸다. 또한, 남편의 죽음에도 눈물 없이 덩덤하게 얘기하던 ‘서래’를 의심하며 잠복 수사하던 ‘해준’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우는구나, 마침내.”라고 말한다.(사실 서래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을 통해 그녀를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내심 용의선상에서 ‘서래’를 제외하고 싶은 ‘해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때부터 ‘서래’를 향한 그의 마음이 커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준’은 한국인 남성이며 ‘서래’는 중국인 여성이다. ‘서래’가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음에도 둘은 언어적 장벽으로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언어적 장벽뿐만 아니라 형사와 용의자, 유부남과 이혼녀 등 둘이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만연하지만 이것을 언어라는 큰 틀에 묶어 표현하였다. 두 사람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면 번역기를 통해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서래’는 ‘해준’의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의미를 확인하며 ‘해준’은 ‘서래’와의 대화를 위해 중국어를 공부한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두 인물은 이를 이겨내고자 각자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둘의 ‘지극한 사랑’의 장면을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냈다.

(6) 시선

영화를 보면 감독이 장면의 전환, 카메라의 구도, 보는 이들의 시선을 매우 고려하여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살인사건으로 취조실에서 ‘해준’이 ‘서래’를 심문하는 중, ‘창’ 너머 보이는 ‘해준’의 웃는 모습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어 화면에 비춰진 ‘서래’의 덩덤하고도 냉소적인 표정을 양옆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감정 진행 상황을 보인다. 1부에서는 ‘해준’이 ‘서래’에게 먼저 감정을 갖고 1부가 끝날 때 그녀와 헤어질 결심을 하지만, 2부에서는 그와 헤어지고 녹음된 그의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사랑을 키워간 ‘서래’가 마지막에 헤어질 결심을 한다. 영화의 초반 취조하던 중 그녀의 무표정에서는 아직 ‘서래’가 그에 대한 감정이 없음을 드러내지만, ‘해준’의 웃는 모습을 통해 그는 사실 처음부터 그녀에게 스며드는 중이었던 것이다.

‘해준’은 잠복 수사를 하며 망원경으로 ‘서래’를 관찰한다. 관객들도 ‘해준’의 시선을 통해 ‘서래’를 관찰한다. 그녀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월요일 할머니’에게 주사 놓는 모습, 방 안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식수 흡연을 하는 모든 일들을 그의 시선으로 관찰하며 보는 이들까지 ‘서래’의 묘하고 매혹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이때 ‘해준’은 그녀 옆에 있는 듯한 환상에 빠지고, 그녀의 행동을 내레이션으로 묘사하며 스마트워치에 녹음한다. ‘해준’은 관음증적 관점에서 서래를 관찰하는데 이러한 관음증적 욕구는 욕망을 자극 시키는 요소로 섹슈얼리티의 자극을 강하게 해주며 환상을 만들어낸다.¹⁴⁾ 그러나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면 다시 현실로 돌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4) 노현지, 이용일, 「자크라강의 욕망이론 관점에서 본 관음증에 대한 시각적 해석에 관한 연구-정신분석학에 기초한 패션 진(jeans)영상광고를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26, 한국디자인지식학회,

아온다. ‘서래’를 관음하는 망원경은 ‘해준’이 그녀와 함께 있는 환상을 만들어주는 매개체이다. ‘해준’의 시선으로 관객들은 영화를 관람하며 마치 관객이 ‘서래’를 보는 장면에서 ‘해준’이 보는 이들의 대리인이 된 듯하다. 따라서 ‘해준’과 관객들 모두 ‘서래’라는 인물 자체에 빠져들게 한다. 감독은 이러한 연출 방법을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제한하고 인물의 시선에서만 관찰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감정에 더욱 몰입하게 하였다.

III. 결론

영화에서는 미장센¹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영화의 미장센을 알면 연출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분위기를 알 수 있기에 관객들은 더 재미있게 관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미장센 분석¹⁶⁾은 관람에 있어 재미요소를 크게 차지한다.

<헤어질 결심>을 관람할 때 1차는 스토리 자체를, 2차는 여러 미장센들을 분석하며 관람하였다. 1차로 영화를 관람할 때는 중간 중간 대놓고 의문점이 드는 요소들을 확인하기에는 스토리를 따라가고자 분석이 어렵고, 스토리만 보았을 때는 단순히 반복된 살인사건, 의심스러운 ‘서래’라는 인물, 유부남과 알 수 없는 중국인 여자의 불륜 스토리로 조금 뻘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2차 이상 관람한 관객들은 비로소 <헤어질 결심>의 화려하고 정교한 미장센을 느끼고 영화에 극찬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의 스토리만 본 관객들과 분석 요소를 확인한 관객들의 평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영화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앞의 6가지 분석요소들을 확인한다면 비로소 ‘미장센 변태’라고 불리는 박찬욱 감독의 연출 특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제목부터 “헤어질 결심”이라 칭하며 두 인물의 감정 전선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영화를 1부와 2부로 확연히 구분하여 ‘해준’과 ‘서래’의 감정 변화를 스토리 구성에 있어 매끄럽게 담아낸다.

각 인물마다 ‘산’과 ‘바다’라는 특징을 부여하여 인물 캐릭터를 더 입체감 있게 하며, ‘산’과 같이 굳건하고 자신만의 직업 철학이 확고한 ‘해준’을 ‘바다’와 같은 알 수 없고 파도처럼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서래’가 조금씩 ‘산’을 ‘붕괴’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감독이 평소 좋아하는 노래 “안개”를 ost로 삽입하면서 노래 가사와 같은 스토리 구성과 가상 도시 ‘이포’를 등장시키며 ‘안개’의 의미를 구축시켰다. 안개가 자욱한 도시에 자신의 사랑을 안개 속에 흐려지도록 감추고자 ‘이포’로 이동하였다는 내용을 담으며 기상현상을 미장센의 터닝포인트 중 하나로 설정하여 재미를 주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미술 부문 발칸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미적 감각이 드러나는 영화로 앞서 말한 ‘산’과 ‘바다’를 모호하게 표현한 벽지와 ‘서래’가 입고 나오는 옷 색깔 등을 통해서 인물의 속내를 표현하고 스토리 구성하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영화가 전개되었다. 미장센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카메라 구도를 보는 이들이 망원경을 통해 관음하는 등장인물의 욕구를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여 몰입감을 더하고 영화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부여한다. 이러한 ‘시선’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작은 도구 ‘안약’에도 인물의 시각적 측면을 대입시켜 인물이 진실과 환상을 구분시키게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이 되었다.

2013, 2면

15) 화면 구성이나 인물의 배치 등을 통해 의미를 나타내는 것.

16) 영화의 영상 이미지에 숨겨진 의미를 읽는 것.

그리고 이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모두 뇌리에 깊게 박혔을 ‘마침내’라는 단어와 같이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장센을 구성하여 영화의 구성력을 높였다. 독특한 언어 설정으로 이질감을 주며 휘몰아치는 감정과 상황을 더욱 묘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의 언어를 알아가고 배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영화를 분석함에 있어 연출자의 의도를 100%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연출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의도를 일부분 파악할 수 있으나 그 내면의 모든 것을 알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영화 속 미장센들을 파악하며 관람하여야 영화의 재미를 20% 느낄 수 있었던 것을 95%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헤어질 결심>을 관람한 관객들은 위와 같은 화려한 미장센(소리, 장면, 이야기 등 모든 것을 동원)으로 순도 높은 사랑 이야기를 전한 이 작품을 다시 관람해보며 재미요소를 찾고 연출의 세심함과 화려하고 짜임새 높은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독립 속에서 도덕적 옳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

사회학과

20192235 최윤지

델마와 루이스는 비기득권층에게 ‘도덕적 옳음’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한방을 선사하는 영화다. 비기득권층의 인권운동은 기득권층으로의 독립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속 존재한 무수한 인권 운동들은 비기득권층에서의 독립과 주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전쟁, 폭력 시위를 진행했다. 페미니즘 또한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함으로써 그들만의 힘을 키워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페미니즘 운동에만 순종적이고, 화합을 중시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이들의 운동 또한 기득권층인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거슬리지 않는 삶의 수준에서의 인권운동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페미니스트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그 페미니즘은 옳지 않다는 식의 논리다. 하지만 영화 속 델마와 루이스의 비도덕적이고 반항적 태도들은 도덕적 옳음을 강요하는 기득권층들에게 한방을 쏘며 자신들을 규정하는 틀을 깨나간다. 이처럼 비도덕적인 독립과정은 델마와 루이스는 종속적 존재로의 탈피를 그려나간다.

영화 초반 델마는 가정에서 남편을 보필하는 조신한 여성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 여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 그녀는 집이라는 공간적 독립을 시작으로 종속적 존재로의 여성의 틀을 깨게 된다. 그녀가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존재했을 때는, 모든 것이 데릴의 삶의 맞추어진 주체성 없는 삶이었으나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에요’라는 대사 이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기준으로 삶을 진행한다. 그녀들이 한곳에 정착해있지 않고 계속해서 차로 이동하는 장면은 집이라는 가부장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녀들이 신호를 어기며 무조건 밟기만 하는 장면들에서 우리는 무서움보다는 통쾌함이 느낄 수 있다. 집이라는 공간이 여성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는 데릴의 행동 변화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델마가 집에 있을 때 그는 델마의 목소리까지 자신에게 맞출 것을 요구하지만, 남성인 형사들이 집에 있을 때는 본인이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티브이 프로그램을 선택권을 내준다. 돌아갈 곳 없는 그녀들의 운전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시작으로 독립이 전개된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라인을 고치던 델마와 빨간 립스틱이 상징이었던 루이스는 점차 꾸밈노동으로서의 독립 또한 보여준다. 장신구들을 팔아 제이디가 쓰고 있던 모자와 비슷한 카우보이모자로 바꾸고, 경찰의 선글라스를 빼앗아 본인 것과 교환하기도 한다. 이는 기득권층인 남성들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델마와 루이스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모습이 현대사회의 노브라 운동과 겹쳐 보였다. 무언가를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삶을 위해 편하고, 실속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같았다. 델마와 루이스가 꾸밈노동에서 독립하는 과정이 조신하게 시장에 가서 쇼핑하듯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과격함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비기득권층에서 독립하게 되는 심경의 변화를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녀들을 조개라고 부르며 혀를 날름거리는 트럭 운전사를 향한 한 발도 여성들의 독립이 묻어있다. 기득권층은 비기득권층의 역할과 존재를 한정시키고 특정 이미지로 묶아매려는 욕구가 강하다. 단순히 그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지어 소비하는 것이다. 이 모습은 조개, 전복, 홍합을 보고 여성의 성기라며 비웃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김여사라고 근거 없는 조롱을 일삼는 현대사회와 가장 비슷한 장면이라 생각했다. 사회는 여성에게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 이미지가 여성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영화 속 한방은 여성이라는 존재만으로 성을 구속하는 것들을 깨버리며 여성들을 더 이상 틀에 가두지 말 것을 시사한다. 자동차가 폭파되고 절망에 빠진 그의 모습은 카르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 통쾌하기 하다. 아마 이 장면을 본 여성들은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한방 쏘버렸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독립의 장면들에서 델마와 루이스는 과격한 운전, 강도, 살인 등 다소 도덕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다. 이 장면들에 묻어나는 과격함들이 나는 독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루이스가 자수라는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델마에게 ‘내가 그놈과 같이 춤을 춘 걸 수백 명이 봤어’라며 도덕적 선택을 하려는 델마를 말리는 장면은 현실 사회에서는 여성이 온순하게 목소리를 내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또 그녀들의 과격함뿐만 아니라 흑인이 경찰이 납치된 트렁크 안에 도움이 아닌 담배연기를 뿜은 장면도 기득권층에 대한 비기득권층의 대항이라는 감독의 의도 또한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도덕적 결함이 가미된 장면들을 통해 여성들은 불편함 보다는 통쾌함,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래디컬 페미니즘을 완전히 옹호할 수는 없다 해도 델마와 루이스같이 매운 맛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옳은 독립과정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홀로 투쟁의 과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강남역 사건 이전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이 그래왔듯이 말이다. 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인권운동 중 페미니즘을 제외하고 radical 이란 수식어가 붙은 인권운동이 없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에게만 도덕적 잣대를 들이치는 사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한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는 여성들의 독립과정에서 ‘도덕적 옳음’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명 빨간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색,계 속 도구로 사용되는 여성들: 남성의 삶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여성

<영화 색, 계>

사회학과

20192235 최윤지

도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색,계 속 여성들은 암살이나 성적 욕구 등 남성들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남성들의 삶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비자주적 개체로 그려진다.

먼저 연극부의 암살작전에서 남성은 스스로 행동하는 능동적 존재로 주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남성들을 도와주는 수동적 역할에 그친다. 살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총을 쏘며 실전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연습하지만 여성들은 따로 연습하는 것 없이 남성들의 의견을 따른다. 이후 차오를 살해하는 장면에서도 남학생들은 이어달리기라도 하듯 전부 차오를 향해 칼을 꽂지만, 라이수진은 총을 쏘려는 시도만 할 뿐이며 왕차이즈는 아예 도망가 버린다. 이처럼 암살이라는 동일 목적을 갖고 있지만 행위를 실행하는 주체는 모두 남자이며 여성들은 이를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왕차이즈가 미인계를 통해 영화를 전개해나간다는 점에서 암살작전의 주요인물로 보이긴 하지만 이 또한 광위민의 지도하에 움직였다는 점, 외형적인 모습과 성적 유혹을 요기로 하는 미인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녀는 남성들의 목적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우영감에게 토로했을 때, 그는 되레 화를 내며 목적에만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이 장면에서 여성이 도구적 성격에서 벗어났을 때 이를 통제하려는 남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미인계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 남성의 인형으로 취급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탕웨이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며 남성들의 비위를 맞추던 일본 여성들 또한 포함된다.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별다른 목적 없이 그들의 욕구(성, 유희, 오락)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렇다면 앞서 계속 언급했던 왕차이즈의 목적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이모청을 죽이려 했다는 점에서 왕차이즈는 목적을 갖춘 게 아닐까? 하지만 왕차이즈의 목적은 순수히 그녀의 목적이 아니다. 왕차이즈의 목적은 광위민을 시작으로 이모청의 목적으로 막이 내린다. 연극이 좋아서가 아닌 광위민을 향한 마음으로 첫 연극을 끝냈을 때 왕차이즈의 친구는 그녀에게 예술가라면 담배는 필수라며 권한다. 수수한 모습의 왕차이즈는 담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후 수수했던 왕차이즈는 어색했던 눈썹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았던 그녀는 향수와 립스틱으로 자신을 연기한다. 어떻게 보면 연극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첫 연극의 목적은 광위민을 위해 이모청을 죽이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청의 마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연기한다. 그녀의 목적은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다. 처음 담배를 입에도 못 대던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피는 장면들에서 그녀가 완전한

예술인, 즉 완전히 연기에 빠져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남성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완전히 도구화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섹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성의 도구화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섹, 계의 제목은 욕망, 경계를 의미하는데 저 두 개념은 섹스 속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왕차이즈는 잠자리를 통해 이모청에 대한 경계를 풀어가는 반면 이모청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경계를 풀지 않는다. 모든 섹스 신에서 이모청의 시선은 무서울 정도로 오로지 왕차이즈만을 향해있다. 또, 영화 속 3번의 섹스 신 속 왕차이즈의 상위 체위는 단 한 번인데 이 장면은 이모청의 경계가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준다. 여성 상위 체위는 남성의 위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남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이전에도 왕차이즈가 이모청 위에 올라가려 할 때마다 그는 황급히 그녀를 누르고 제압하려 한다. 그녀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경계하는 것이다. 왕차이즈가 딱 한 번 그의 위로 올라가 베개로 누르자 그는 기겁을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도구적 가치를 넘어 자신을 통제하게 되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모습이라고 해석하였다.

추가로 이 둘의 성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폭력성’은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여성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탕웨이의 ‘그는 내 피를 봐야 끝나요’라는 대사처럼 모든 성관계의 기준은 이모청에 맞추어져 있으며 그녀는 이모청의 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이모청은 왕차이즈의 팔을 묶거나 옷을 찢으며, 섹스 속 그녀의 인격을 지운다. 영화 후반부 이모청이 왕차이즈에게 다른 사람과 그녀의 성관계 장면을 상상했다고 속삭이는 장면은 이모청이 그녀의 인격을 배제한 채로 단순히 성행위에 많은 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도구로 그녀를 취급을 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섹스의 잣대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서 ‘처녀막’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듯이 사회는 유독 여성의 잠자리에 간섭이 많다. 이모청과의 섹스를 준비하기 위해 연극부원과 섹스를 하지만 부원은 자신을 창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모청도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맺었지만 자신을 창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영화 속 성적 도구화 되는 창녀로 그려지는 것은 오로지 왕차이즈 뿐이다. 이처럼 남성의 성관계는 아무리 해도 똑같지만 여성의 성관계만 쓰면 쓸수록 닳게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도구가 더럽혀지면 안된다는, 상품적 가치훼손을 문제삼아 여성들의 순결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영화 속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성관계조차 남성의 삶 속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도구적 특징은 남녀 관계가 아닌 여자들의 관계에서도 보여지며, 이 관계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귀속적 삶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마작을 하는 여성들은 서로를 누구의 부인으로 부른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징과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임에도 극중 부인들의 이름은 왕차이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또 여성들은 자신의 패를 숨기는 마작처럼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웃는 얼굴로 서로를 경계한다. 하지만 이 경계 또한

자신의 남편들에 대한 경계일 뿐, 정작 오로지 여성들끼리의 대화 주제는 없다. 여자들이 이거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냐는 대사처럼 여성들은 남성의 삶의 우리 안에서만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이모청이 극도로 경계하던 어둠 속으로 왕차이즈가 사라지는 장면은 결국 이모청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다시 본인의 목적에 충실할뿐 어둠에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결국 왕차이즈의 삶은 남성들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한 도구로 끝나게 된 것이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영화의 전개 과정에서 여자들을 지워도 이야기는 다르게 각색되거나 이어질 수 있지만 남성들을 지운다면 이 영화에서 남겨지는 여성은 몇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영화 속 남성들의 주체성은 필요조건이지만 여성들은 충분조건에 불가한 것이다. 하지만 영상미와 섬세한 감정선을 보면, 색,계를 마냥 나쁜 영화라 말할 수 없다. 다만 ‘탕웨이’의 배드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삶이 욕망과 경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집중하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결국 살아가야 한다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72517 김용진

시대를 불문하고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분세락(轉糞世樂)’ 즉, 똥 밟아서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는 말처럼 결국 살아가야 한다. 갈등으로 둘러싸인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현시대 우리의 소명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갈등은 대부분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필연적인 희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갈등은 인류에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스스로 하여금 성장하게 했다. 먼 과거의 일이지만, 프랑스 혁명을 보라. 구호로 내걸었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결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인류는 스스로 갈등 상황에 맞서며 진보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는 지속적인 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증오와 혐오로 변질돼 우리 사회의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데 있어 국제 사회는 명색이 무색하게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침해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들의 방관자적 태도는 대 갈등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들리지 않는 나팔 소리이자, 절대적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침묵의 선언이었다. 우리가 동경하던 서구사회는 팬데믹 이후 폭증한 동양인 혐오 범죄와 더불어 그것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우리의 환상을 깨부셨다. 각종 매체가 만들어낸 서구권에 대한 색안경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 속, 이때다 싶어 각국에서는 힘의 논리를 통해 극우 정당들이 급부상하며 세력을 결집해가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 속에,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희생양들은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받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지금 러시안롤렛에 참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국면은 자기 집단의 결집을 피하고자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에 의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갈등의 핵심에서 멀어지고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자신들의 집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견고히 하는 방식은 왠지 낯설지 않다. 분열됐던 독일 사회의 결집을 위해 유대인이라는 희생양을 만들고, 그들을 학살했던 과거 나치가 떠오른다면 비약일까. 물론 이 비유가 누군가에겐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해소되지 못한 해묵은 갈등이 혐오가 되고, 혐오의 최종 목적지가 곧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전례를 통해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지금까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더욱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끔찍했던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명백히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어리는 군집 유영을 하는 어종이다. 이들이 군집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위험 상황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개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리 속으로 피신하게 되어 있다. 집단에 의존해 생존력을 높이고 동료와 함께 위협의 대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이다. 이는 태초의 인류부터 전해 내려온 인간의 생존 본능 그 자체일 것이다. 물론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 인류보다 생존 자체에 있어서는 비교 불가할 정도의 우위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은 개개인이 사회에 느끼는 불안까지 해소해주지는 못했다. 현대의 불안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모호하고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제없는 불안에 두려움을 느낀 개인들은 집단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현재 하나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집단은, 그 경계선이 모호하긴 하지만,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천, 수만 명 이상의 구성원을 지니게 됐다. 이는 수많은 군중의 불만을 일일이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현대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희생양 만들기는 여기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디어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군중심리와 그에 따른 자기 합리화까지 더해지며 희생양들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가속화됐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위를 재확인했다. 공존과 존중의 가치는 그렇게 허물어졌다. 그 허물어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고 묻는 것은 뻔한 질문일 것이다.

모두가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이 시대에 실증을 느낀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끝없이 군중들 틈으로 들어가고 있다. 확실성과 몰개성화가 진행되며 개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젠 개인의 상실을 막아야 할 때이다. 개개인의 발현만이 암울한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각종 갈등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려 하기보다, 그것을 유보하더라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의심할 필요가 있다. 각종 매체나 커뮤니티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기호에 맞는 것들만 머릿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본다면 타인에 대한 공감도 가능해질 것이다. 공감이 가능해진다면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고 쌓아왔던 오해는 풀릴 것이다. 건강한 연대는 그렇게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아무쪼록 혐오의 굴레가 끊어지고 갈등이 다시금 인류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그 본질을 되찾게 될 날이 왔으면 한다.

시나리오 부문

[시나리오-장려상]

낙엽청소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72517 김용진

S#1. 암전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니야 그냥 더 주무시게 뉘. 피곤하실텐데.’

정다운 자식들의 소리가 줄어들 무렵, 누군가 눈을 뜬다.

허름한 천장, 점점 커지는 TV소리와 바깥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한데 들려오고, 영길
이 잠에서 눈을 뜬다.

S#2. 5평짜리 허름한 아파트 104호/밤

잠에서 깬 꼬질한 영길이 이불 덮힌 땅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그 주위로 약봉지
와 술병,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보는건지 안 보는건지 틀어져 있는 TV가 보인다.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무슨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빨리 전화를 받는다.

영길: 여보세요

스팸: 00생명 보험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저희가 이번에..

영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매서운 눈, 이내 그의 입에서
가느다란 욕설이 나온다.

영길: 씨팔..

영길은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챙기더니 이내 담배를 물고 밖으로 몸을 이끈다. 더러운 발
과 낡은 슬리퍼.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발치에 무언가 밟힌다.

‘명예로운 죽음 존엄사 대행, 언제든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길은 종이를 만지작 거리더니 이내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선다.

S#3. 104호/밤

영길이 소주와 라면을 사서 집에 들어온다. 현관에서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며 들어온 영길
은 병원에서 주는 약과 소주를 함께 마신다. 그러다 이내 배고픈 듯 생라면을 안주 삼아
먹는다. 그러다 불현듯 아까 본 종이를 꺼낸다. 소주와 라면 옆에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본다.

S#4. 104호/밤

소주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영길은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한다. 얼마 뒤, 한 남자가 전화를 받는다.

남자: 여보세요.

영길: 예 명함보고 연락드렸어요.

남자: 지금 대기가 많아서 좀 걸리십니다.

영길: 아니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남자: 말 그대로 편안한 임종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약을 드시면 5분 후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나 가족이 있으십니까.

영길: (티비 위에 걸린 가족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깐 머뭇거리다) 안 본지 몇 년 됐는데...

남자: 저희는 고객님의 가족이 돌아가신 후에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장례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길: 아니 그런데 무슨 설명이 그래요. 나랑 지금 장난하는거요? 거기 어디요. 이상한 곳 아니요?

남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 주소는 명함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 이만 끊겠습니다.

영길: 여보쇼, 여 여보쇼!

전화가 끊어지고 영길은 베개에 핸드폰을 던진다.

영길: 에이 씨팔!

한숨과 함께 영길은 남은 술을 병째로 마시더니 대충 주변을 정리하고 명함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리고 이내 불을 끄고 잠에 든다.

S#5. 주소를 찾아가는 영길/낮

다음날, 일어난 영길은 어제 명함을 다시 한번 보다가 이내 옷을 챙겨 입는다. 영길은 명함의 주소를 찾아가기로 한다.

영길: (혼잣말로 나지막히)은근히 가까웠네.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한 영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간다. 은근히 느껴지는 냉기에 양팔을 한 번씩 쓰다듬는 영길. 그때 어느 입구 앞에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영길은 다가가 묻는다.

영길: 어떻게 오셨는가 명함보고 오셨어요?

노인: 나는 친구한테 듣고 왔습니다.

영길: 같이 왔어요?

노인: (웃으며)먼저 갔지. 아니 그 친구 장례식에 가보니까는 그래도 가족들이 찾아오는거야. 다행이라 생각하고 바로 찾아온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 순서예요.

이내 한 남자로부터 이름이 호명되고 그 노인이 웃으며 들어간다.

노인: 다음에 보게요.

웬지 모를 이질감을 느낀 영길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러나 이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본다.

S#6. 지하 2층 내부

약한 불이 켜져 있는 지하 2층, 노래방처럼 방들이 옆으로 놓여있는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누군가 방에서 나온다. 영길은 놀라 발걸음을 멈춘다. 한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방에서 나와 웃으며 영길에게 말을 건다.

남자: 어떻게 오셨나요?

말투와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다. 영길의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경계를 완전히 풀진 않는다.

영길: 명함보고 왔어요.

남자: (미소를 띄며)오늘 손님은 아닐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S#7. 작은 상담실

남자: 뭐 때문에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영길: 왜긴요, 사는데, 사는데 아닌데

남자: (달력을 보며)날짜를 잡아드릴까요?

영길: 그건 내 나중에 얘기하고, 아까 들어간 사람이라 얘기했는데 장례식에 자식들을 올 수 있게 해준다면서. 그게 어떻게 뭐.. 가능한거요?

남자: 아시겠습니까만, 그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웃으며)그 분은 운이 아주 좋은 케이스였어요. 자녀분들이 계신가요?

영길: 아들 하나 딸 하나요. 근데 의절한지 오래 됐어요.

남자: 자녀분들 찾는건 일도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영길: 솔직히 좀 못 미더워요. 혹시 죽기 전에 자식들 목소리 좀 듣고 싶으니 먼저 나한테 휴대폰 번호라도 줄 수 있어요?

남자: 그럼요. 잠시만요. (어떤 종이를 들고 오더니) 인적 확인서 작성해주시고 주민등록증이 있으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영길과 남자는 금세 작업을 끝마친다.

남자: 좋습니다. 3일 후 핸드폰으로 자녀분들 번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하 2층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의 발걸음이 왠지 한결 수월해 보이는 영길이다. 영길은 그렇게 다시 밖으로 나간다.

S#8. 104호/3일째 되는 밤

이불을 감싸고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는 영길. 그의 오른손엔 핸드폰이 꼭 쥐여 있다. 시간을 보니 벌써 11시가 되어 간다. 술 한잔을 들이기려는 순간 땡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첫째 정선:010-0000-0000

둘째 정수:010-0000-0000

별개진 영길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왠지 모를 씁쓸함에 젖는다. 빨리 핸드폰을 쳐다보다 이내 닫는다. 그러다 다시 핸드폰을 열고 천천히 첫째의 번호를 작은 메모지에 적는다. 그걸 보며 자판을 푹푹 누른다. 긴장되는 마음과 함께 흘러가는 연결음. 그러나 전화는 닿지 않는다. 영길은 둘째의 번호도 똑같이 한 후에 전화를 걸어 본다. 영길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달카하고 누군가 전화를 받는다.

영길: 여보시오

정수: 누구세요

영길은 재차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다.

영길: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정수냐?

정수: 예 그런데요 누구신데요

영길: 김정수 맞나?

정수: (잠시 침묵 후)예

두 번째 목소리를 듣자 영길은 확신했다. 자식이 맞다고.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온다.

영길: 정수야 애비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잘 살고 있냐.

정수: (침묵)

영길: 끊지마라 제발 끊지 마라.

정수: (약간의 침묵 후)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영길: 정수아, 정수아 끊지마라 끊지마라.

전화는 그렇게 끊어지고, 영길은 두텁고 꼬질한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서럽게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는 영길. 그렇게 밤이 깊어간다.

S#9. 지하 2층으로 향하는 영길 / 오후 4시

어두운 낮빛의 영길이 화창한 날씨에 대행업체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터벅터벅 발길

을 옮기던 중 울리는 문자 메시지 소리에 황급히 핸드폰을 연다. 첫째 정선의 번호다. 고조된 표정의 영길이 메시지를 열기 위해 ok 버튼을 누른다.

‘정수한테 들었어요. 참 엄치도 없네.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야 연락은.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하셔도 안 받을 겁니다.’

메시지를 본 영길, 한숨을 푹 쉬더니 옆에 있는 벤치에 앉는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영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초연히 바라보다 담배를 하나 피우곤 핸드폰을 다시 커 천천히 핸드폰 자판을 두드린다.

‘나 죽은 후에는 찾아올거냐’

그렇게 회신하고 영길은 발걸음을 옮긴다.

S#10. 지하2층 입구

대기하는 문은 열려있지만 아무도 없다. 영길이 들어가자 저번에 봤던 남자가 반긴다.

남자: (친절하게)또 오셨군요. 준비 되셨습니까.

영길: 오늘은 대기자가 없네요.

남자: 가끔은 이런 날도 있죠. (장부를 뒤적이며)오늘은 예약자가 한 명뿐이었는데, 뭐 가족과 연락이 닿아서 운 좋게 취소했지만...(웃으며)아마 다시 방문하실 겁니다.

영길: (지친 듯)혹시 소주 있어요?

남자: 그럼요. 저번에 봤던 상담실로 가지죠. (상담실 옆 냉장고에서 소주를 갖다주며) 담배도 피우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약이 없으니까 편하게 계세요. 저는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S#11. 1번 방

남자가 1번이라고 쓰여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 정리를 한다. 침침한 방 안, 살짝 뒤틀린 침대 시트를 매만지고 허공에 이불을 털자 자그마한 조명 위로 먼지가 흩날린다. 베개 냄새를 맡은 뒤 남자는 표정을 찡그리며 향수 비스무리 한 것을 뿌린다. 조명을 점검하고 그 다음 방으로 나선다.

S#12. 상담실

방 정리를 마치고 나온 남자가 상담실로 들어가자 영길이 벌써 강소주를 세 병째 마시고 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핸드폰만 멀뚱히 보며 한잔 한잔 들이킨다. 얼굴이 벌겋다.

남자: 많이도 드시네. 어떻게 자녀분들하고 연락은 하셨어요?

영길: (눈이 풀린 채)했는데..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남자: (덤덤하게)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더라구요.

소주를 한잔 들이키곤 영길이 말을 잇는다.

영길: 나도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 나름 잘 나갔었다고. 근데 퇴직금으로 사업 말아 먹고.. 그때부터였어. 빚 갚느라 내놓을 건 다 내놔지. 하다못해 집까지 팔아 재꺾으니 말이야. 그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난 매일 방 안에서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았어. 그렇게 한 10년동안 마누라한테 참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불쌍한 마누라를 보다 못한 애들이 데려갔지. 그런데 얼마 못가 죽었어.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 하지만 그때 이미 늦었지. 모두 떠난 후였으니 말이야.

남자: 괜찮습니다. 더한 분들도 계시는걸요.

영길: 아니, 자넨 나락으로 떨어진 가정의 기분을 몰라. 마누라 장례식에 갔을 때 자식들이.. 귀가 찢어질 듯 큰 소리로.. 나한테 당장 꺼져버리라고 했어. 그때의 내 심정을 자네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거야.

잔이 빈 것을 본 남자가 영길의 잔을 말없이 따른다.

영길: (잔을 받으며)그렇지만 말이야. 이건 가혹해도 너무 가혹해. 나도 모든게 처음이었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영길의 목이 멘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남자가 휴지를 건넨다. 영길은 눈물을 닦은 후 이내 진정하고 남자에게 말한다.

영길: 이제 가게. 더 이상은 미련이 없어. 남은게 없거든.

남자: 자녀분들께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영길: 그냥 미안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찾아와준다면, 와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해 줘. 그 이상은 듣기 귀찮아 할 거야. 가세.

남자: 알겠습니다.

S#13. 1번 방

남자가 침대로 영길을 안내한다.

남자: 이쪽에 앉아 계시면 약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물과 약을 영길에게 건넨다.

남자: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영길: (남자를 뵈히 쳐다보다 나지막히)꼭 데려와줘.

남자: 걱정 마시고 편안히 누워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길: (남자의 손을 잡으며)주정뱅이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

남자가 방을 나가고 영길이 홀로 남는다.

S#14. 1번 방

침대에 멍하게 앉아있는 영길, 핸드폰을 한 번 확인해 보지만 아무것도 온 게 없다. 영길은 물과 함께 약을 들이키고 눕는다. 그러다 다시 앉아 핸드폰을 꺼낸다. 영길은 마지막 자판을 누른다.

‘티비 아래 마지막 서랍. 미안해.’

마지막 숨소리가 들리고 영길은 손에 핸드폰을 꼭 쥔 채로 사망한다.

S#15. 1번 방

밖에서 손목시계를 확인하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온다. 영길의 맥을 짚고 사망시간을 적는다. 남자가 방을 나오려는데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린다. 남자는 죽은 영길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고 전화를 받는다.

남자: 여보세요

스팸: 여러분을 생각하는 소중한 00보험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

남자는 씩씩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다. 핸드폰을 영길의 주머니에 다시 넣으려는데 문자가 올린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자를 확인한다.

남자의 찌푸린 눈이 클로즈업된다. 그는 영길의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는다.

S#16. 상담실

영길이 앉아있던 자리를 대충 치우고 남자가 앉는다. 어떤 명부를 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남자: (명부를 확인하면서)여보세요. 네, 여기 정리는 잘 됐구요, 별 탈 없을거 같네요. 언제나처럼요. 끝습니다.

혀를 끝끝 차며 방을 나가는 남자의 뒷모습.

S#17. 1번 방

차갑게 식어있는 영길에게로 남자가 다시 다가간다. 앞에 덮어둔 큰 화구 안으로 영길을 넣는다. 그때 주머니에서 또 한번 울리는 전화벨 소리. 남자는 잠깐 멈칫하지만 이내 기계를 작동시킨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전화벨이 울리는 핸드폰이 클로즈업 된다. 희미하게 발신자가 보일랑 말랑하는데, 이내 벨소리가 멎는다. 남자는 방을 빠져나가고 불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온다.

S#18. 건물 입구/오후 8시

건물을 빠져나온 남자가 담배를 꺼내며 구석진 곳을 향한다. 이제 조금 어둡해졌지만, 구석진 그 골목은 더 새까맣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남자가 먼저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남자가 간다. 둘이서 담배를 피우는데, 늙은 남자에게 전화가 온다. 늙은 남자는 전화가 온 것을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담배만 태운다. 남자는 늙은 남자에게 묻는다.

남자:전화 왜 안 받으세요?

영길:(남자를 흘깃 쳐다보며)언제 뒤지나 물어보는 보험 전화일거야.

남자:(살짝 웃으며)에이, 자네분이 걸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영길:(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며)그랬으면 내가 여기 왜 있겠어?

늙은 남자가 담배를 먼저 다 피우고 느릿느릿 자리를 뜬다.

남자:(담배를 털며 혼잣말)그래도 한번 받아보시지.

남자도 담배를 다 피우고 자리를 뜨는데,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남자:아, 전데요, cctv 돌려서 건물 뒤 흡연장 체크해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주소 따서 집 앞에 명함 좀 놔드리세요. 끊겠습니다.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술 먹는 사람들과 도로에 뺨곡한 자동차들이 보이고, 다양한 소음이 뒤섞인다. 어느새 인파 속에서 남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 위를 걸어 지나간다.

라스트로(Rastro)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212505 권영하

#1. 언덕 잔디밭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철썩인다. 윈드차임이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린다. 햇빛을 받은 유리가 반짝인다. 얇은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 위로 목소리가 몽환적으로 퍼진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그린 : 다른 소리는 죄다 멀리 있고 목소리만 들려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우나 : 윈드차임 연주해 볼래요?

그린 : 소리는 얇은데 아까 그 기타랑은 다르네요.

우나 : 플라멩코 기타요?

그린 : 응 그거. 이건 오래오래 소리가 남아있어요. 부딪힐 때보다 잔음이 더 좋네요. 안 끝날 것처럼 은은하게 울리는 거.

우나 :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소리잖아요.

그린 : 내가 지금 발견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는 중이에요.

#2. 그린의 집, 낮.

몽환적인 목소리 위로 현실적인 진동음이 징징- 울린다. 그린은 발신인을 확인한다. ‘음향감독 김우나’ 전화를 받는 손에는 주저함이 없지만 표정은 꽤 경직되어 있다.

그린 : 여보세요.

우나 : 출국 준비는 다 하셨어요?

그린 : (말끝을 흐리며) 네..

우나 : 왜요?

그린 : 음.. 어색할 것 같아요.

우나 : 그럼 가기 전에 만날까요?

그린 : 언제요?

우나 : 지금요.

그린 : 어디서요?

#3. 수목원, 낮.

분수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며 경쾌한 소리를 만든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비벼지며 싱그러운 소리가 난다. 두 사람은 분수 맞은 편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다. 그린의 시선은 우나에게로 가있다. 우나의 시선은 새들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먼저 정적은 깬 것은 그

린이다.

그린 : 소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우나 : 재밌잖아요. 혼자 헤드폰 끼고 소리를 듣다 보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린 : 그런가?

우나 : 다음에 들려줄게요.

그린 : 우나씨는 언제부터 음악 좋아했어요?

우나 : (담담하게) 아주 어릴 때부터요. 바이올린이든 플루트든 이것저것 쳐보고 불어봤대요. 뭐든 소리 나는 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린 : 목소리도 좋아해요?

우나 : 좋은 소리 내는 사람이 좋아요. 꼭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그린 : 저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우나 : 그린씨는.. <p> 아직 못 찾았는데.

그린 : 왜요?

우나 : 그냥요.

그린 : 우나씨는 영화 왜 참여했어요?

우나 :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너무 진부한가요?

그린 : 음 조금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나 : 캐릭터가 저랑 닮은 것 같아서요.

그린 : 혹시 스페인계 혼혈이라거나.

우나 : (열게 웃으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린 : 농담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린 : 음악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나 : 그냥 그린씨가 무슨 얘길 하고 싶은지 더 자세히 저한테 들려주면 돼요.

그린 : 그럼 음악이 돼서 나와요?

우나 : 잘 만들면 나오죠.

그린 : 일할 때 옆에서 구경해도 돼요?

우나 : 그럼요.

Title.

우거진 나무 밑에 생긴 빛과 그림자, 초점이 점점 희미해지며 하나의 문양처럼 보인다. 그 위로 뜨는 타이틀. '라스트로'

#4. 스페인의 공향, 낮.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그린과 우나. 그린은 졸린 눈을 겨우 뜨고 우나를 따라 걷는다. 우나는

익숙한 공간인 듯 그린을 챙기며 밖으로 나온다.

그린 : 교통수단만 타면 이렇게 자요.

우나 : 정류장 지나친 적 많았겠네요.

그린 : 비행기도 중간에 서고 그랬으면 저는 지구 어디에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요. <p>우나씨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우나 : 아니요.

그린 : 그럼 아까 한 건 한국어고?

우나 : 멕시코계인 친한 친구가 있어서 간단한 말만 몇 개 할 줄 아는
정도예요.

그린 : ¡Buenas tardes!(부에나스 타르데스)

우나 : 공부했어요?

그린 : 언어를 알면 작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훑어봤어요. 근데 쉽진
않네요.

우나 : 발음이 조금 생소하죠?

그린 :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어요.

우나 : Gracias(그라씨아스)?

그린 : 그 말할 때 입이 옆으로 길게 벌어지잖아요. 그게 좋아요.

#5. 호텔, 낮.

우나는 탁상에 그린은 햇별이 잘 드는 테라스 책상에 앉아있다. 그린의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
는 소리가 방을 채운다.

우나 : 그린씨는 장비 안 써요?

그린, 집중해서 찌푸리고 있던 미간을 풀며 조금 늦게 대답한다.

그린 : 저는 이게 더 좋은데.

우나 : (장난스럽게) 저도 오션지에다가 깃펜으로 악보 그릴 걸 그랬어요.

그린 : 그거 녹음기 맞죠?

우나 : 네, 맞아요. 소리 주우려고요.

그린 : (중얼거리며) 소리를 줍니다. 마음에 들어요.

우나 : 점심쯤에 거리에 나가볼까요?

그린 : 좋아요.

#6. 상가 거리, 낮.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악기 소리가 들린다. 여러군데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 발걸음을 옮길 때
마다 다른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경쾌하기도, 우울하기도.

Cue

그린 : 그리고 보니 기타가 참 많네요. 거리에도 그렇고 가게들도.

우나 : 기타가 탄생한 곳이 스페인이거든요. 잘 들어보면 기타 소리가 원래
알던 소리보다 더 경쾌하죠?

그린 : 잠시만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p> 그러네요. 여운도 덜 남는 것
같아요.

우나 : 아쉬워요?

그린 : 그렇지는 않고 여기랑 잘 어울려요. 후련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나 : 혹시 플라멩코 공연 본 적 있어요? 저건 플라멩코 기타예요. 가볍고
여운이 빨리 사라져서 브릿지에 쓰는 편이에요.

그린 : 우나씨는 저런 소리 좋아해요?

우나 : 저는 여운이 깊게 스며드는 걸 좋아해요. 악기랑 내가 같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이 좋아서요.

그린 : 어쩌면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린은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그러다 포기한 듯 그린에게 말한다.

그린 : (다급하게) 우나씨 빨리 돌아가요!

우나 : 네?

그린 : 지금 이걸 그려놔야 할 것 같아요.

우나 : 그래요.

그린 : 빨리요!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 심각하게 뿔박질하던 그린은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는 모습
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우나의 눈에는 그린 그린만 들어온다. 노래도 들리지 않는다. 두
사람은 웃고 있다.

#7. 숙소, 저녁.

그린은 언제나처럼 테라스 책상에 앉아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시선을 그대로 두
고 말을 건넨다.

그린 : 그 소리 뭐예요?

우나 : 아. 반도네온이요.

그린 : 아코디언 같아요.

우나 : 맞아요. 아코디언이랑 비슷한데 좀 더 작아요. 아르헨티나 탱고에
많이 쓰여요.

그린은 흥미가 생긴 듯 우나를 바라본다. 우나도 그의 마음을 알아챈 듯 웃는다.

그린 : 저번에 들려주셨던 그라나다 테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나 : 그 부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린 : 형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완벽하게 포기했기 때문이잖아요. 약간의 미련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련함만 가지고 갈 수 있게.

우나 : 오케이. 그때 만들어놓은 거 찾아볼게요. 저도 어차피 다시 들어봐야 하니까.

우나가 작곡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경쾌하면서도 느릿한 음악의 리듬에 맞춰 그린의 손가락이 상하운동을 한다.

우나 : 도움이 됐어요?

그린 : 엄청! 우나씨랑 같이 와서 너무 좋아요.

우나 : 다행이네요. <p> 하 감독님이 이미지에 딱 맞는 주연 배우 찾았다고 하던데, 봤어요?

그린 : 아니요. 안 보려구요.

우나 : 영향받을까 봐요?

그린 : 그것도 그렇고 첫인상은 직접 보고 싶어서요. 그래도 나름 미술감독인데 편견이 생기면 어떡해요.

우나 : 그럴 수도 있죠.

그린 : 저는 편견이 두려워요. 어떤 것보다 힘이 센 것 같아서.

우나 :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린 : 그러니까.. 저기 지나가는 사람 보여요?

우나 : 네.

그린 : 저 사람이 고집이 셀 거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우나 : 그러네요. 괜히 옷도 고집 있어 보이고.

그린 : 정말요?

우나 : 네?

그린 :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나 :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린 : 음.. 지금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고 있어요.

우나 : 재미없어요?

그린 : 아니요.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바빠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가만히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우나 : 그런데도 소외감은 안 들죠.

그린 : 맞아요. 약간 우울감도 생기고.

우나 : 누군가한테는 기억도 안 날 순간이 나한테만 느리게 흐르는 건 설레죠.

그린 : 그만큼 기억이 잘 남고요.

우나 : 우리 영화 잘 될 것 같아요.

둘의 시선이 얹히며 햇빛이 들어찬다.

#8. 바닷가, 낮.

우나 :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린 : 더워요?

우나 : 너무 집중하고 있길래 한 번 해본 소리예요. 가만 보면 저번부터
그린씨는 몰아치듯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린 : 이럴 때 아니면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저도 먹고살아야죠.

우나 : (웃음을 터뜨리며) 먹고 살려고 글 쓰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린 : 티 나요?

우나 : 티 나요.

그린 : 어떻게요?

우나 :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그 말이 안 어울려요.

그린 : 우나씨는 먹고 살려고 음악 해요?

우나 : 반은 맞아요.

그린 : 우나씨한테도 어울리진 않네요.

우나 : 이런 얘기는 그만할까 봐요.

그린 : 미안하니까 제 얘기할래요. 궁금한 거 없어요?

우나 : <p> 스페인 한 번 와본 적 없는 그린씨가 어쩌다 영화 미술을
맡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린 : 감독님이 제 작품을 좋아해 주셨다고 하면 진부한가요?

우나 : (웃으며) 아니요. 저도 그린씨 작품 좋아해요. 특히 첫 작품이
좋아요.

그린 : 그래 봤자 3년 전 작품인데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우나 : 그린씨가 이걸 그리면서 누구보다 행복했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요. 전 사실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린 : 기억나는 그 시점부터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건가? 멋진데요.

우나 : <p> 지치면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텅 비어있어요.

우나가 이야기하기 불편한 기색을 비친다. 그가 이런 기색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는 그린. 궁금한 눈동자지만 입은 앙 다물려있다. 약간의 정적이 흐른다.

우나 : 역시 이런 얘기는 어렵네요.

그린 : (늘어지며) 오늘은 일하기 싫은 기분이에요.

우나 : 저도요.

그린 : 어제 같은 집중력은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나 : 어제 꽤 많이 하셨던데요.

그린 : 그러니까 오늘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나 : 그래도 일해야죠.

그린 : 같이 놀면 참 좋을텐데. 나만 노는 건 무섭잖아요.

우나 : 그럼 저랑 같이 녹음하러 나갈래요?

그린 : 갈래요!

#9. 벼룩시장, 낮.

그린 : (신나게) 여기 시장인가 봐요.

우나 : 라스트로 벼룩시장인 것 같아요. 일요일에만 열리는 데 운이 좋네요.

그린 : 전부터 느낀 건데 저는 운이 좋아요.

우나 : 실력도 좋죠.

그린은 익숙한 듯 우나의 말을 흘린다.

그린 : 윈드차임으로 곡 만든 적 있어요?

우나 : 네. 그린씨 저거 가지고 싶어요?

그린 : 왜 자꾸 제 마음을 꺼내봐요?

우나 : 그러면 안 되나요?

그린 : 아뇨. 돼요.

우나 : (웃으며) 저도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요.

그린 : 소리도 다를까요?

우나 : 조금 이따가 그린씨가 직접 녹음해봐요.

그린 :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우나 : 선물해도 될까요?

그린 : 기분이 좋으니까 받을래요. 고마워요.

주인이 윈드차임을 한 번 찰랑이곤 그린의 손에 쥐어준다. 그린도 그가 한 것처럼 따라서 찰랑인다.

#10. 언덕, 낮.

장비를 꺼내 소리를 녹음하는 우나. 척 봐도 장비가 꽤 복잡해보인다.

그린은 그의 근처에서 윈드차임을 울린다. 높은 음들이 부스러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든다.

그린 : 소리가 예뻐요.

우나 : 헤드셋 써볼래요?

우나가 자신의 헤드셋을 그린에게 씌워준다. 검은색의 둔탁한 헤드셋이 작은 그린의 머리와는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린 : (목소리가 커지며) 우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우나 : 마이크 켜줄게요.

그린 : 네? 아 이제 들린다.

우나 : 여기가 마이크예요. 어때요?

그린 : (몽환적으로) 다른 소리는 죄다 멀리 있고 목소리만 들려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우나 : 윈드차임 연주해 볼래요?

그린이 윈드차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밀어낸다. 차례로 떨어지는 금속들이 화음을 만들어 낸다.

그린 : 소리는 얇은데 아까 그 기타랑은 다르네요.

우나 : 플라멩코 기타요?

그린 : 응 그거. 이걸 오래오래 소리가 남아있어요. 부딪힐 때보다 잔음이
더 좋네요. 안 끝날 것처럼 은은하게 울리는 거.

우나 :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소리잖아요.

그린 : 내가 지금 발견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는 중이에요.

<p> 이거 계속 올려줄 수 있어요?

우나 : 그림 그리게요?

그린 : 네. 형서랑 닮았어요.

우나 : (조심스럽게) 전에는 형서가 약간의 미련도 남지 않게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린 :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이 윈드차임도 오래도록
 남는 잔음이 좋아서 다시 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꼭
 한 번만 올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나가 윈드차임을 건네받는다. 그린이 했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밀어낸다. 바스려지는 소리들이 마이크를 타고 장비를 거쳐 헤드셋으로 건너간다. 그린은 부드럽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울퉁불퉁한 종이에 잘도 그림을 그린다. 우나는 윈드차임에서 우나의 손으로 시선을 옮겨간다. 낮은 해가 그린의 얼굴을 찌른다. 윈드차임 소리가 연속으로 울리다 공중으로 퍼진다. 현실적인 문소리가 끼익- 들린다.

#11. 숙소 복도, 낮.

Cue

그린 : 와- 오랜만이에요.

우나 : 사일 만이네요. 작업하느라 방해된 건 아니에요?

그린 : 아뇨. 이제 다 끝냈어요. 놀러 나가자고 말하러 가려던 중이었는데.

우나 : 저도 그래서 왔어요.

그린 : 저 플라멩코 보여주세요.

우나 : (장난스럽게) 작업도 끝났는데 뭐든지요.

#12. 상가 거리, 낮.

그린 : 우나씨. 제가 귀찮게 한 건 아니에요?

우나 :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고 뭐든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린씨가 그래요. 가장
편하고 일할 때도 잘 맞고요.

그린 : 저도 우나씨랑 잘 맞아서 좋았어요. 추상적인 얘기를 꺼내면 대부분 곤란해하는데
한 번에 딱딱 이해하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나 : 내일 한국 돌아가는데 어때요?

그린 : 음.. 우나씨가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요.

우나 : 저도 티 났나 보네요.

그린 : 아무래도?

우나 : 그건 한국 가면 알 거예요.

그린 : (작게) 궁금한데..

우나 : (열게 웃는다)

플라멩코 음악이 흘러나온다.

#13. 카페, 낮.

음악이 사라지고 한국어가 웅성웅성 들린다. 샷을 내리는 소리도 간간히 들린다. 카페에서 가
요가 흘러나온다. 창가에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 앞에는 김이 나는 코코아와 라떼가 놓여있
다. 마실 생각은 없는 듯 컵만 만지작 거리는 그린. 우나는 이어폰을 건넨다. 그린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우나를 쳐다본다. 음악 하나를 재생하는 우나.

우나 : 여기는 어때요?

그린 : 좋아요.

재생 바를 뒤로 움직이고 다시 그린을 바라본다.

우나 : 이 부분은요?

그린 : 거기도 좋아요.

또 다른 부분을 들려준다.

우나 : 그럼 방금 건?

그린 : 너무 좋아요.

우나 : (웃으며) 구간 반복 걸린 거 아니죠?

그린 :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다 좋아요.

우나 : 정말 괜찮아요?

그린 : 네. 전부 다.

우나 : 그럼 다 살릴게요. 그래도 실제 악기로 녹음하면 바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다 보면 편곡도 할 거고, 대충 멜로디랑 느낌만
봐주세요.

우나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수정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린 : 사람들이 와줄까요?

우나 : 그린씨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린 : 실패하면 뭐, 얼른 잊어야죠.

우나 :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린 : 기분은 좋네요.

우나 : 영화 나오면 같이 보러 갈래요?

그린 : 갈래요. 우리가 얼마나 쏟아부은 작품인데 꼭 보러 갈 거예요.

그린, 종이를 넘기며 눈썹을 들어올린다.

그린 :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나 : 어떤 거요?

그린 : 형서가 스페인으로 떠나는 장면 있잖아요. 이때 멜로디는 신나는데
낮게 깔린 소리들이 묘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나 : 어긋난 것 같죠?

그린 : 엇박자 같기도 하고... 형서는 오랜만에 스페인에 가서 신난 거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우나 : 신난 건 맞아요. 근데 형서도 스페인에서 돌아오면 정말 끝이라는
걸 느끼고 있
을 거로 생각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린 : 이걸 언제 생각했어요?

우나 : 비행기에서 그린씨가 자고 있을 때요.

그린 : 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이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우나 :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음악을 시각에 묶는 거.

<p> 미술 작업할 때는 뭐가 제일 신경 쓰여요?

그린 :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할 텐데, 저는 현실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어느 정도는 녹이는 일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우나 : 현실성 없는 걸 하고 싶어요?

그린 : 그 균형 맞추기가 저는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도 이번 영화는 조금
편했어요. 형서가 어찌면 환상 같은 존재라서요.

우나 : 언밸런스한 것까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하죠.

그린 :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우나 : 그린씨가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그린 : 그럼 그냥 우리가 같이한 거로 해요.

#14. 영화관.

여러 색의 빛이 아른거리던 스크린에서 흑백의 크레딧만 올라간다. 관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영화관 안에 남은 건 그린과 우나, 두 사람 뿐이다. 두 사람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바라본다. 테마곡이 흘러나온다.

그린 : (아쉬운 듯) 이제 가야 하는데...

우나 : 작업하면서 외울 만큼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새롭다.

그린 : 우리 진짜 성공했네.

우나 : 응. 너 상도 받으러 간다며.

그린 : 너야말로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며.

우나 : (여운을 느끼듯) 좋다.

그린 : 응.

그린 :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결론이 맞아?

우나 :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린 : 형서가 마드리드 거리를 걸을 때. 그때 윈드차임 소리를 들었어.
은은하게 울리다가 흩어지더라.

우나 : 응 그리고?

그린 : 플라멩코 기타 소리도 가볍게 들리고. 그다음엔 다시 윈드차임.

우나 : 어땠어?

그린 : 우리가 주운 소리도 섞여 있어서 마음에 들어. 그리고 <p>
너는 음악을 포기했어. 완전히.

우나 : <p> 역시. 맞힐 줄 알았어.

#15. 눈 내린 거리, 저녁.

소복하게 쌓인 눈 위로 우나와 그린의 발자국이 생긴다. 뽀드득 소리가 좋은 지 그린은 일부러 눈을 꾸욱 밟는다.

그린 : 벌써 겨울이네.

우나 : 겨울 안 좋아해?

그린 : 너무 춥고 길도 미끄러워서 불편하지만 싫진 않아. 12(십이)월도
1(일)월도 다 겨울이잖아.

우나 : 끝도 시작도 다 겨울에 있으니까?

그린 : 다 함께 끝을 기념하고 시작을 기원하잖아.

우나 : 겨울은 참 <p> 따뜻해.

그린 : 스튜디오 정리하기 전에 나 데려가 줘.

우나 : 스튜디오 정리는 안 할 거야. 후배한테 넘겨줬어.

그린 : 아 그.. 지경씨? 전화 오던?

우나 :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던 놈인데 실력은 좋아.

그린 : 그럼 우나 너는 어디로 가?

우나 :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지 않을까? 연락이 안 돼도 놀라지 마.

그린 : 그래도 가끔 소식 전해줘.

우나 : (장난스럽게) 작가님만 바쁘지 않다면야.

그린 : (웃는다)

Title.

end.

심사평

<2022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공모전>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서은혜

[시 부문]

시는 선불리 다른 이에게 말하고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의 내밀한 무늬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어떤 글보다도 읽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여전히 시를 읽고, 외우고, 쓰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늬와 울림이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예민한 그 무엇이며,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놓칠 수 없는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믿는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파도」는 몰아치는 파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연상시키는 묘사, 인생의 파도 앞에 선 인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잘 맞물려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행의 길이를 점점 짧게 하며 마치 파도가 멀리서 가까스로 몰아쳐 오는 듯한 역동성을 부여한 것도 참신한 지점이었다. 우수상 수상작인 「수국」은 ‘수국(水菊)’과 ‘수국(水國)’의 음성적 동일성에 착안, 이 두 이미지를 중첩시킨 상상력이 참신한 작품이었다. 수국의 파아란 색감과 동그란 모양을 물결, 바다의 이미지로 치환시켜 그 형태를 묘사하면서도, 시각, 촉각과 같은 생생한 감각적 묘사를 덧붙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장려상 수상작인 「어떤 전투」는 퇴직을 권유당한 사내의 삶과 내면의 착잡함을 풀을 베푸는 행위로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감정적 언술을 절제하면서도 시적 대상의 감정의 결을 행간에서 생생하게 암시하는 표현이 주목되었다. 또다른 장려상 수상작인 「당신에게」는 70-80년대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했던 많은 여성들의 삶을 따스하게 감싸는 시선이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장려상 수상작 「진달래 씨앗」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구조를 적절히 패러디하되, 떠나는 자의 내면을 상상하여 답시 형태로 구성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다. 신입생 특별상 수상작인 「할머니」는 시적 대상의 생생한 묘사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애뜻한 시선이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소설 부문]

이번 문예창작공모전 소설 부문에는 다양한 장르의 소설이 응모되었다. 젊은이들의 생존의 불안, 깨진 가정 안에서 느끼는 아이의 불안,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의 파열 등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마주할 법한 미세한 균열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섬세한 언어로 그려내는 솜씨가 주목되는 작품들이 많았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벽」은 커플 사이에 의도치 않게 ‘가해자-피해자’의 관계가 된 순간을 이 시대 젊은이들의 생존의 불안이라는 문제와 맞물리도록 짜임새 있게 부조한 구성이 돋보였다. 환상성이 가미된 결말처리도 여운을 남겼다. 우수상 수상작인 「입동」은 큰 갈등이나 사건 없이도 인물이 보이는 미세한 순간의 감정의 결이나 일상 속 감각들을 포착하여 묘사하는 솜씨가 훌륭한 작품이었다. 장려상 수상작인 「수면 너머에는 인어가」는 환상적인 상황 설정을 인물의 내면과 잘 조율시켰으며, 또다른 장려상 수상작인 「개그맨」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잔인함과 자기모순을 냉철하게 응시하는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장려상 수상작인 「남은 사람들」은 파괴된 가정에 둘러싸인 아이,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버린 인물의 갈등하는 내면이

생동감 있게 묘사된 작품이었다.

[비평 부문]

비평은 예술 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맥락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포착하고, 그 구조와 의미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덧붙일 때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글쓰기를 통해 예술 작품의 의미를 한 번 더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평 쓰기란 그 자체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창조, 또 하나의 예술적 행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려상 수상작인 「조커, 어째서 그럴까」는 <배트맨> (1989), <다크 나이트> (2008), <조커>(2019)에 나타난 조커의 형상과 의미, 서사 구조와의 관련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최근작 <조커>의 경우, 영화가 상영된 시점의 사회적 담론과 서사 해석의 관련성을 포착한 부분도 돋보이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다소 줄거리 서술이 길어서 압축적인 느낌이 적었고, <배트맨>과 <다크 나이트>를 포괄하는 조커 형상과 사회적 배경의 관련성, 그 통시적 의미 등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남았다.

[시나리오 부문]

시나리오 부문 심사 기준은, 서사 구조의 참신함, 주제의 깊이, 영상화되었을 때의 효과 여부였다. 장려상 수상작인 「낙엽 청소」는 인간의 삶과 죽음마저도 시장 논리에 포섭된 세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으며, 결말 부분에서 숨겨진 정보를 노출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도 주목할만한 부분이었다. 이 서사가 실제로 영상화될 때의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좀 더 서사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이다.